안전하고 편리한 구독신청
현대불교신문 전화 한통화로 해결하십시오
● 구독료 전화요금합산 납부·자동이체 신청 ●
대표 (02)2004-8211~2

현대불교

등불로 전하는 자비 광명 찬덕 연등은
최고 품질과 기술력을 자랑합니다
찬덕홈페이지 : www.chanduk.com
한글홈페이지 : 찬덕연등
031)792-6288/794-4055

붓다뉴스 동영상 제공 기사 ☎구독신청 02)2004-8211~2 buddhanews.com 불기 2549년 (서기 2005년) 8월 24일(음력 7월 20일) 수요일 (주간) 제 540 호



佛心·孝도량 곳곳에

대현그룹 손현수 회장 28일 안동에 홍효사 개원

"전국 지사마다 절 세워 전법 … 자비·효도 선양할 터"

8월 28일 경북 안동에서 개원하는 도심포교당이자 불교회관인 홍효사(弘孝寺). 홍효사를 머릿속에 떠올린 한 기업인의 머릿속에는 온갖 상념이 교차한다.

기억은 27~2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늘 가슴 한구석을 차지하고 있던 시조 할아버지의 지극했던 효심과 그 효심으로 만들어진 홍효사라는 절. <삼국유사>의 기록을 좇아 홍효사가 있었다는 경주 곳곳을 누볐지만 어디서도 그 흔적은 찾을 수 없었다.

하지만 그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었다. 문중 사람들을 초청해 홍효사를 복원하자고 제의하고 복원위원회를 구성했다. 그러나 홍효사가 있었다는 자리조차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복원허가를 받아내기는 어려웠다.

하는 수 없이 자신의 고향이자 절골이었다고 전해지는 안동 약산에 사찰을 지었다. 부처님의 은혜와 불교의 자비효도사상을 널리 선양한다는 뜻에서 절 이름을 홍은사(弘恩寺)라 했다.

1997년 가을, 홍은사는 그렇게 20여년 간의 긴 세월동안 조상의 효심을 잊지 못하는 한 불자의 정성으로 태어났다.

그런데 고민이 생겼다. 홍은사가 산 속에 위치해 있다보니 찾아오는 불자가 많지 않았다. 안되겠다 싶어 도심 속에 포교당을 두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절 이름을 그렇게도 애타게 찾았던 홍효사로 지었다.

신라 제42대 흥덕왕 때 어머니를 극진히 봉양해 국효(國孝)라는 칭호를 받았던 홍효공(손순)의 효심을 불교의 효사상으로 승화시키고 있는 대현그룹 손현수(76·사진) 회장.

불교계에서는 불교산악인연합회 명예총재이자 불교방송 이사, 조계종 중앙신도회 고문으로 잘 알려져 있는 신심깊은 불자인 손 회장에게 홍효사는 이렇게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

손 회장에게는 이루고 싶은, 아니 이뤄야할 원이 있다. 홍은사와 홍효사는 그 원을 이룰 출발점이다.

"대현 그룹의 직원과 상가 입주자들 가족까지 합하면 우리 대현 가족은 1만5000명이나 됩니다. 이들이 모두 불교에 귀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국 지사마다 절을 지을 것입니다."

대현그룹은 지하상가개발사업체인 대현실업주식회사와 주왕산 온천관광호텔, 현대관광 등 관광레져 분야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중견기업.

부산 대구 마산 청주 등지의 지사 직원과 상가 입주자 3천명과 그 가족들이 불교의 효사상을 본받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손 회장은 '홍은선원'이라는 법인체를 설립하고 경북도에 법인설립허가신청을 낸 상태다. 홍은사와 홍효사를 포함해 앞으로 지어지는 모든 절은 사단법인 홍은선원에 속하게 된다.

홍효사에 이어 곧바로 서울 중구에 위치한 대현그룹 빌딩 내에도 법당을 개원할 예정이다. 올해 안으로 세 곳의 대현그룹 사찰이 생기는 셈이다.

어떤 이들은 돈 있는 기업인이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것이 어디 돈으로 되는 일일까.

"기업이 이만큼 성장했으니 다시 돌려드려야지요. 여생을 부처님 가르침을 더 배우면서 또 모든 사람들과 함께 부처님 가르침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룹의 지사마다 절을 다 짓고 나면 전국 각지에도 절을 지을 생각입니다."

그룹 사보에 언제나 부처님 말씀을 싣고, 그룹경영이라는 무거운 일상 속에서도 틈틈이 경전을 읽고 명상을 하는 손 회장.

직원과 그 가족들의 노고에 불심으로 답례를 하고 있는 손 회장은 모태신앙 속에 자란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평화롭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청규 만들어 수행풍토 진작"

조계종 전국선원수좌회, 공동청규제정 등 논의

공동대표에 현산·혜국 스님


현산 스님


혜국 스님

조계종 전국선원수좌회가 종단 내 주요현안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며 수행풍토 진작에 나선다.

전국선원수좌회는 8월 16일 동화사 기본선원에서 전국선원 대표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표자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으고 24일 세부논의를 갖기로 했다.

이날 수좌회는 공동대표에 현산·혜국 스님을, 선원장회의 의장에 영진 스님을 선출하는 등 임원진도 개편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수행풍토 진작을 위해 백장청규와 같이 전통에 뿌리를 두면서도 시대에 맞는 선원공동청규 제정이 필요하다는데 뜻을 모으고 선원장, 선덕, 한주, 입승까지 포함될 수 있도록 공동청규제정추진위원회를 확대 개편키로 했다.

또 영축총림 방장 추대와 관련 20안거 이상 성만 등의 종헌종법에 명시돼 있는 기본 요건이 무시돼서는 안된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이와 함께 종단의 각종 선거법에 대해서는 승가전통방식으로 바꿔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중진급 스님들로 위원회를 구성해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종무원노조설립은 비불교적이며 교단정서에 맞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배지선 기자 jjsun@buddhapia.com

buddhapia.com에 가면 내집 마련이 공짜!
■사찰/단체 홈페이지 (http://hompy.buddhapia.com)
■불교동호회 커뮤니티 (http://cafe.buddhapia.com)
■미니 홈피 블로그 (http://blog.buddhapia.com)

불자 힘 내원암 지켰다

친일파 이해창 후손 땅소송 "취하"

불교계의 단합된 힘이 수락산 내원암을 지켰다.

수락산 내원암을 상대로 토지 4만8천평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던 반민족친일행위자 이해창 후손 21인이 8월 18일 소송을 취하했다. 원고측은 "사적인 이유로 소를 취하한다"고 취하 사유를 밝혔다. (본지 538호 1면 기사 참조)

하지만 원고측이 소송을 취하하게 된 데는 8월 8일 봉선사가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결정적인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봉선사는 "민법상의 소유권 규정을 반민족 행위자에게도 동등하게 적용하는 것은 3·1정신 계승을 표방한 헌법 전문에 반한다는 점에서 위헌"이라는 취지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제출했었다.

이와 관련 조계종 중앙신도회도 17일 친일파후손의 재산찾기 소송을 규탄하고,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지지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불교계의 동참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소 취하에 대해 봉선사 측은 즉각적인 입장표명을 유보하고 있다. 첫 재판이 9월 1일로 잡혀있어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충분한 데다,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제출하면서 봉선사의 행보는 내원암 지키기 차원을 넘어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 찾기 소송 근절이라는 더 큰 목표를 향해 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봉선사 측은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받아들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봉선사 총무과장 혜문 스님은 "천만 불자가 단결해 내원암을 지킬 수 있었다"며 고마움을 표한 뒤, "이번 일을 계기로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는데 더욱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조계종 중신회 "환영" 논평

한편 조계종 중앙신도회는 8월 19일 이해창 후손이 내원암 소송을 취하한 것을 환영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박익순·유철주 기자


순천 송광사에서 3개월간 수행한 납자들이 8월 19일 하안거 해제 법회후 법당을 나서고 있다. 사진=박재완 기자

"만행길에 화두 짊어지고 다녀야"

을유년 하안거 해제 … 99곳 선원 2254명 참여

불기 2549년 을유년 하안거 해제 법회가 8월 19일 조계총림 순천 송광사를 비롯해 전국 선원에서 일제히 봉행됐다.

조계종 전국선원수좌회가 전국선원의 정진대중 현황을 집계한 〈을유년 하안거 선사방함록〉에 따르면, 이번 하안거에는 전국 99곳 선원(총림 5곳, 비구선원 59곳, 비구니선원 35곳)에서 2254명(비구 1110명, 비구니 964명, 총림 180명)이 참여했다.

조계종 종정 법전 스님은 해제 법어에서 "금일 해제대중은 한 철 동안 지은 살림살이로 여기에 대해 분명한 한마디를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며 "만약 한철살림살이로 제대로 된 한마디를 할 수 없는 납자라면 만행길에 이 화두도 함께 걸망 속에 짊어지고서 다녀야 할 것"이라고 법문했다.

전국 총림 해제법어 8면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동화사 계율수행 대법회
'계율과 수행, 그리고 깨달음'
법주 : 지운 스님(8월 27일 오후 3시)



그림·조태호

마성 스님 법문에서(법문은 24, 25면에서 만나세요)

'한국불교 세계화의 꽃' 하와이 성지순례 및 역사문화관광
해외 最大 한국사찰 무량사 20년불사 회향기념 ·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스님 초청 대법회



현대불교신문사는 하와이 무량사와 함께 한국불교의 세계화를 위한 하와이 성지순례 및 역사 문화관광을 갖습니다.
한국 이민사의 첫 장인 하와이는 한국불교 해외 포교에서도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위치입니다. 미주포교 41주년을 맞는 올해로 하와이는 불자수가 10만 명을 넘었으며, 미국 캐나다 남미를 잇는 미주포교 전진기지로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 최대 규모의 한국 사찰 무량사가 창건 30주년을 기념하며 전통한국 가람건축 양식으로 조성해온 20년 불사를 모두 회향하는 낙성대법회를 열고 풍성한 기념행사들을 엽니다.
도선사와 명원문화재단이 후원하는 이 뜻깊은 행사에 동참하셔서, 하와이 성지순례와 함께 하와이 역사문화를 체험하는 귀한 인연을 지읍시다.

● 공동주최 : 하와이 무량사 · 현대불교신문사
● 일 정 : 2005년 9월 24(토) ~ 29(목) 5박 6일
● 주요 프로그램
·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스님 초청 무량사 문화원 준공기념 법회
· 무량사원 준공기념 공연 및 만찬(힐튼 하와이언 빌리지)
· 무량사 요양원 건립 기금모금 담원 김창배 화백 초대전
· 선원장 초청 간화선 법회 입제(조계종 초대 기본선원장 진허스님)
· 하와이 역사문화관광
● 동 참 금 : 169만원(비자비용 별도)
● 신청 마감 : 1.미국 비자 가지신 분 : 2005년 9월 15일까지
2.미국 비자가 없으신 분 : 2005년 8월 29일까지
(비자 신청 구비서류를 갖춰주시면 대행해 드리겠습니다.)
● 동참 및 비자 문의 : 현대불교신문 최언규 팀장 02)2004-8295 / 018-366-1002

● 일 정 표

날 짜	도 시	교통편	시 간	주 요 일 정
제 1일 9 / 24 (토)	인 천	KE 051	20:00	인천 국제 공항 출발
	호놀룰루	전용버스	09:35	호놀룰루 도착 후 입국 수속 알로하 환영 레이 증정
				탄탈루스언덕, 이올라니궁전등 시내관광, 무량사 도착
			15:00	낙성식 (문화원 준공법회 참석)
			19:00	저녁 만찬(힐튼 하와이언빌리지)
제 2일 9 / 25 (일)	호놀룰루	전용버스	08:00	진주만, 와이키키해변 등 관광
			15:00	• 태평양 전쟁의 원인이 되었던 1641년 12월7일 일본군 기습작전 무대. ※ 선원장초청 간화선 대법회 참석(무량사)
제 3일 9 / 26 (월)	호놀룰루	전용버스	전 일	오하우섬 일주 관광 • 232M 의 분화구 정상에서 와이키키 조망을 볼 수 있는 다이아몬드헤드 분화구,한국지도마을,마카푸포인트,모자바위, 42에이커의 광대한 부지에 폴리네시안 마을을 재현한 폴리네시안 문화센타, 썬셋비치,파인애플 농장등 관광
제 4일 9 / 27 (화)	호놀룰루	전용버스 국내선 전용버스 국내선	전 일	비숍박물관, 팔리바람산, 와이메하 폭포공원 ※ 원하시는 경우(실비250$ 추가) 1. 마우이섬 관광 • 카아나팔리, 라하이나옛수도, 마우이 트로피컬, 이아오 계곡, 온검초 지대, 할레이 칼라 국립공원 등 2.빅아일랜드(화산섬) 관광 • 하와이에서 가장 늦게 형성된 섬으로 아직까지 화산이 살아있는 대자연 경관을 보임
제 5일 9 / 28 (수)	호놀룰루	KE 052	11:40	호놀룰루 출발
	인 천		16:10 9 / 29 (목)	인천 국제공항 도착

조계종의 모든 것 통계자료로 본다

조계종, 종단 통계자료집 공개

조계종이 종단 통계자료집을 최초 공개했다. 그간 대외비였던 종단 통계자료를 투명성 제고와 각 교구 본·말사 업무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공개한 것. 조계종은 이를 종책 개발 및 사업 기획 근거 자료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번 통계자료는 2004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됐다.

#사찰 총 2199개…사설사암 60%

조계종은 총 2199개의 사찰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사설사암이 60%(1329개)를 차지하고 있다. 공찰 870개 중 전통사찰은 619개, 관람료 사찰은 72개, 해외사찰은 24개.

교구별로 보면 직할교구가 가장 많은 사찰을 보유하고 있으며, 신흥사 화엄사가 가장 적다. 지역별로는 경상북도에 가장 많이 있으며, 대전광역시와 광주광역시가 가장 적다.

#스님 총 12674명…비구니가 더 많아

조계종 스님은 총 1만2674명이다. 이 중 비구 4646명(37%) 비구니 4673명(37%) 등 정식스님은 9319명(74%)으로 비구니가 27명 더 많다. 사미 1814명(14%) 사미니 1398명(11%) 등 예비스님이 3212명(25%)이며, 143명(1%)의 군승(비구 58명 사미 85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재적승이 가장 많은 교구는 직할교구이며 관음사가 가장 적다. 이 중 정식스님은 쌍계사 고운사 대흥사가, 예비스님은 관음사가 가장 적다. 또 월정사에는 군승이 한 명도 없다.

연령대별로 보면 45~49세의 스님이 가장 많다. 승려노후복지대상이 되는 65세 이상 스님은 전체 스님의 9%인 1168명이다.

사찰 한 곳당 5.7명의 스님이 거주하고 있다. 그러나 5000~6000여개로 추정되는 미등록 사설사암 등을 포함한다면 사찰 한 곳당 2~3명의 스님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계산된다.

#지정문화재 중 불교문화재 34%

지정문화재 8500점 중 불교문화재는 34%인 2929점이다. 이 중 조계종이 56%(1635점) 타종단이 4%(104점) 등 불교계가 60%(1739점)를 소유하고 있다. 나머지는 국공유 29%(865점) 또는 개인 11%(325점).

불교관련 지정문화재 중 조계종이 소유하고 있는 국가지정문화재는 516점(32%), 지방지정문화재는 774점(47%), 문화재자료는 345점(21%)이다. 국가지정문화재 중 국보는 61점(12%), 보물은 421점(82%), 사적은 4점(1%), 사적 및 명승은 6점(1%), 명승은 1점(0%), 천연기념물은 16점(3%), 중요민속자료는 7점(1%)이다. 지방지정문화재 중 시도유형문화재는 720점(93%), 시도민속자료는 13점(2%), 시도기념물은 41점(5%).

교구별로 보면 마곡사와 통도사가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다. 국가지정문화재는 송광사, 지방지정문화재는 직할교구가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다.

소재 지역으로 보면 경북에 가장 많이 있다. 국가지정문화재는 서울, 지방지정문화재는 경남이 가장 많다. (2005년 1월 31일 기준)

#여행자 수료율 높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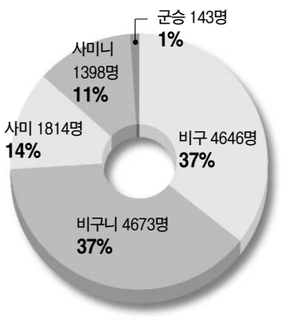
2003년 3월 15일부터 2004년 4월 15일까지 기준으로 총 630명(남행자 364명, 여행자 266명)의 행자가 등록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남녀 모두 35~39세가 가장 많았다.

이 중 26기와 27기에 남행자 227명이 지원했지만 147명이 수료했다. 여행자는 165명 지원에 150명 수료. 남자(58%) 보다 여자(91%) 행자 수료율이 훨씬 높았다.

2004년 10월 10일 기준으로 강원 19곳, 중앙승가대학, 동국대학교, 기초선원 1곳을 비롯한 기본교육기관과 율원 4곳, 학림 2곳, 승가대학원 2곳을 비롯한 전문교육기관, 어산작법학교 1곳을 비롯한 특수교육기관에서 승려교육을 하고 있다. 3급 승가교시산림이나 본말사 주지 연수 등 재교육을 이수한 스님은 1435명.

#군승 134명 군법당 380개, 경승 808명 경승실 51개

조계종 스님 분포도



육·해·공군 군승 비율



총 134명의 군승 중 육군에 72%인 96명이 있다. 해군은 13%(18명), 공군은 15%(20명). 이 중 대령은 육군 2명, 해군 1명 등 총 3명. 군법당 또한 총 380개 중 육군에 82%(310개)가 있다. 국방부 직할은 6%(22개), 해군은 5%(20개), 공군은 7%(28개). 군승예비자원으로 군승사관후보생 28명, 군승예비요원 22명 등 총 80명이 있다.

경승은 조계종 574명(71%), 타종단 234명(29%) 등 총 808명이 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지역이 가장 많고, 울산지역이 가장 적다. 경승실의 경우 51개 중 서울이 12곳으로 가장 많지만, 광주광역시와 울산광역시에는 한 곳도 없다.

#포교사 총 2377명…75%가 팀 활동

포교사는 남자 1418명(60%), 여자 959명(40%) 등 총 2377명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지역이 가장 많고, 충북지역이 가장 적다. 연령대별로 보면 50~59세가 가장 많다. 포교활동을 위한 173개의 팀이 구성돼 있으며 1793명(75%)이 여기에서 활동하고 있다. 또 비구 8명(4%), 비구니 19명(9%), 남자 재가 76명(38%), 여자 재가 98명(49%) 등 총 201명의 국제포교사가 있다.

#파라미타 지부 10개, 분회 285개

파라미타는 10개 지부, 20개 지회, 285개 분회를 두고 있으며 382명의 지도자 및 1만4089명의 학생을 회원으로 두고 있다. 그러나 인천광역시 강원도 충청남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제주도는 지부조차 없다. 특히 충청남도 전라남도 제주도에는 지부 지회 분회 지도자 학생 아무것도 없다. 한편 초등학교 1곳 1명, 중학교 11곳 16명, 고등학교 10곳 18명 등 총 22곳에서 35명의 교법사들이 활동하고 있다.

#교직자 273명 46곳에서 활동

46곳(1년제 34곳, 2년제 12곳)의 전문교육기관에서 273명(승가 114명, 재가 159명)의 교직자가 활동하고 있다. 전문교육기관 수료자는 남자 390명(19%) 여자 1612명(81%) 등 총 2002명. 지역별로 보면 경상남도에 전문교육기관이 가장 많으며, 충청남북도가 가장 적다.

#사회복지 시설 94곳 1196명 종사

94곳의 시설에 1196명의 종사자가 있다. 이 중 아동은 36곳에 342명의 종사자가, 청소년은 14곳에 110명의 종사자가, 노인은 9곳에 173명의 종사자가, 장애인은 9곳에 150명의 종사자가, 지역은 15곳에 271명의 종사자가 있다. 기타 11곳에 150명. 그러나 여성시설은 한 곳도 없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가장 많지만, 인천광역시와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충청남도 제주도에는 사회복지시설이 하나도 없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김광삼 인쇄인 : 채수삼
110-030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7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해인사 종회의원에 종본스님



조계종 제13대 중앙종회의원 해인사 교구 보궐 선거에서 단독 입후보한 종본 스님(사진)이 만장일치로 8월 16일 당선됐다.

종본 스님은 1976년 사미계, 77년 구족계를 수지했으며, 경국사 주지 등을 역임했다. 배지선 기자

조계종, 예성애드컴 등 고발

영담스님 등 "관련자 책임"

조계종 총무원은 "불교중앙박물관 전시실 설계 및 공사 과정에서 담합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시공사인 예성애드컴과 원가 계산을 한 현대산업정보연구원을 형사 고발했다"고 8월 17일 밝혔다.

그러나 영담 스님 등 중앙종회의원 24명은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열어 교역직 및 일반직 종무원, 업체들에 대한 사법적 조치를 8월 이내 취할 것과 총무원장 법장, 중앙종회의장, 중앙종회 재정분과위원장, 기획실장 등은 참회하고 응분의 책임을 질것 등을 요구했다. 남동우 기자



8월 16일 서울 광장동 쉐라톤 워커힐 호텔에서 남북 불교도들이 환담을 나누고 있다.

종교통한 민족화해·화합 다짐

8·15 민족대축전 성황

'8·15 민족대축전'이 8월 14일부터 17일까지 서울 등지에서 펼쳐졌다.

8월 16일 서울 광장동 쉐라톤워커힐 호텔에서 열린 종교인 모임에서는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 회장 법타,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사무총장 홍파, 민족공동체추진본부 본부장 명진, 조계종 사회부장 정념, 천태종 사회부장 무원 스님, 이행정 진각종 사회부장, 지현 진각사회복지재단 사무처장과 조선불교도연맹 심상진 부위원장, 정서정 서기장 등은 종교를 통한 화해와 합력을 논의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 무원 스님과 심상진 위원장은 개성 영통사 낙성식과 관련, 시기와 참가인원, 세부일정, 성지순례 등에 대해 논의를 한 뒤 조만간 준비모임을 열기로 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은 같은 날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열린 폐막식에서 "이번 '8.15 민족대축전'을 성공리에 성사시킴으로서, '우리 겨레 스스로 통일을 실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은 한층 높아졌으며, 사상과 제도·정견과 신앙을 뛰어 넘어 서로의 신뢰도 한층 더 깊어졌다"고 평가했다. 남동우 기자

'군승파견' 화두풀기 행보 분주

조계종 군승교구장 일면스님 태고·진각종 방문

조계종 군종특별교구 공식출범을 한달 여 앞두고 교구장 일면 스님이 군불교 현안 챙기기 행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군불교 최대현안은 금강대 위덕대 등의 군승파견학교 지정과 이를 통한 이웃종단들의 군포교 참여폭 확대.

천태종과 진각종은 그간 두 대학의 군승파견학교 지정을 꾸준히 추진해 왔으나, 복식 등 의례통일 문제 등이 해결돼지 않아 답보 상태에 있었다.

일면 스님은 8월 17, 18일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과 진각종 통리원장 회정 정사를 각각 예방하고 군불교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17일 운산 스님을 만난 일면 스님은 "군포교가 열악한 상황인 만큼 힘 합쳐 함께 가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운산 스님은 "조계종이 혼자만 할 줄 알았는데 안심이다. 군포교를 위해 종단 역할을 다 하겠다"고 화답했다.

18일 진각종 통리원을 찾은 일면 스님은 "진각종의 요구사항을 파악해 조계종이 수용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회정 통리원장은 "수많은 교파로 나뉜 개신교도 함께 군선교를 하는데 불교계가 함께 못할 이유가 없다. 의식통일 등에 대해 조계종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겠다"고 군포교 참여에 대한 강안 의욕을 비췄다.

특히 일면 스님은 군법당에 대한 지원 단일화와 군포교 재정분담 가능성을 타진했고 회정정사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한편 초대 군종특별교구장 진산식은 9월 28일로 예정돼 있다. 강유신 기자

고침 본지 539호(8월17일자) 2면 '동국대 이사 후보' 기사 제목에서 '현운 스님'은 '현문 스님'의 오기이기에 바로잡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각원사 울산포교원

연화사 호계불교대학개원법회

개원법회 일시 | 2005년 9월 3일 오전 10시

모시는 말씀

제방의 대덕 큰스님을 모시고 연화사 호계불교대학 개원법회를 봉행하오니 불자님께서 두루 참석하시어 선근인연을 지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연화사 호계불교대학 주지 덕륜 합장

• 증명 경해 법인 큰스님(각원사 주지)
• 1부 : 관세음보살님, 신중탱화점안식
점안식 - 동주 원명 큰스님(조계종 영산범음회 어장)
대원 큰스님(각원사 불교대학장) 외 1명
• 2부 : 개원법회
개원법문 - 혜인 큰스님(제주 약천사 회주)
축 원 - 혜남 큰스님(통도사 율원장 전계사)

⊙연화사 법회안내
• 초하루 신중기도(매월음력초하루 오전 10시30분)
• 지장재일(매월 음력 18일 오전 10시 30분)
• 관음제일(매월 음력 24일 오전 10시 30분)
• 금요참선법회(매주 금요일 오후 9시 ~ 11시)
• 일요가족법회(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 특별 철야정진기도(매주 세째주 토요일 오후 9시)

• 개원봉축등을 접수합니다
• 3만원
• 봉축등은 내년 초파일까지 법당에 달아드립니다

호계불교대학 강사진

교 과 목	담 당 교 수	비 고
불교기초교리	차차석 교수	동국대교수
원시불교	정인 큰스님	중앙승가대 대학원장
禪(선)사상	성본 큰스님	동국대 교수
불교와 사회복지	최영신 교수	중앙승가대 교수
근본불교	최봉수 교수	동국대 교수
반야심경	덕륜스님	연화사 주지
女性과 佛敎	황수경 교수	동국대 교수
불교와 계율	혜남 큰스님	통도사 전계사 율원장
좌선실수	지묵 큰스님	송광사 스님

원 서 접 수 | 10월 1일부터 120명 선착순 접수
기 초 교 리 반 | 4개월 과정 주 2회 강의
입학상담문의 | 전화 (052)293-5550 / 팩스 (052)293-5540

대한불교조계종 연화사 호계불교대학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268-6번지 호계주공아파트입구 / 전화 052)293-5550 / 팩스 052)293-5540

금당 자리엔 민가 / *안전 무시한 공사까지*

무관심에 망가지는 '폐사지'

2천~3천여곳 추정, 정확한 통계조차 없어
관광자원으로 인식 '무분별 개발' 위험 노출

조계종과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9월 폐사지보존 법안 국회상정을 추진한다는 본지보도가 나간 이후 폐사지 보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본지 539호 1면 참조)

폐사지가 우리에게 무엇인지 생각해보게 됐다는 독자부터 폐사지 보존상의 문제가 무엇인지 물어오는 독자에 이르기까지, 폐사지보존 법안이 상정되기 이전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반향을 보이고 있다.

지금까지 폐사지는 불교유적으로서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다. 전국 2천~3천여 개의 폐사지 가운데 1960년대 이후 100여 곳만이 발굴됐으며, 사적 또는 시 · 도기념물로 지정돼 보호받는 곳은 100여 곳에 불과한 현실이 이를 반증한다.

폐사지에 대한 무관심은 폐사지에 관한 변변한 통계조차 파악되지 않았다는 데서도 단적으로 드러난다. 전국에 폐사지가 몇 개나 되고, 어디에 있는지조차도 파악돼 있지 않다. 폐사지와 관련한 유일한 통계 자료는 조계종 총무원이 1997년부터 3년에 걸쳐 조사한 결과를 정리한 <불교사원지>뿐이다. 그나마도 문헌에 의지한 자료로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물며 폐허가 된 절터의 유래와 역사 규명까지는 기대하기 어렵다.

경남지역 최대 사찰 가운데 하나였던 산청 단속사지에는 통일신라시대 것으로 추정되는 단속사지동 3층 석탑 등 두 기의 석탑(제72 · 73호)이 남아 있다. 하지만 석탑과 더불어 사찰의 중심을 이뤘을 금당 자리에는 민가가 들어서 있다.

서울 종로구 신영동 세검정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진행 중인 인도 확장공사는 폐사지에 대한 냉대의 극치를 보여준다. 문화재위원회의 현상변경 승인을 받아 공사가 진행 중인데, 보물인 당간지주 옆의 LPG 가스통과 산소용접용 가스통이 위태롭다. 게다가 당간지주 보호난간 옆에서 지반침하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폐사지 보존은커녕 보물로 지정된 당간지주 안전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다.

방치 못지않게 폐사지를 망치는 것은 그릇된 '관심'이다. 관광자원 개발에 목마른 지방자치단체들에게 폐사지는 관광자원으로 인식된다. 경복궁 뜰에 있는 지광국사현묘탑(국보 제101호) 반환을 주장하고 있는 원주시가 지광국사현묘탑을 중심으로 법천사지와 거돈사지(사적 제168호)를 묶어 관광지로 개발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서산시 또한 보원사지를 대대적으로 정비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최근 복원 방침이 발표된 경주 황룡사지 또한 안심할 수 없다.


산청 단속사지. 탑 뒤편 금당터로 추정되는 곳에 민가가 위치해 있다.



보물로 지정된 당간 지주 옆에서 벌어지는 공사임에도 안전조치가 미흡하다. 사진제공=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이처럼 문화재적 가치가 적은 곳이면 방치되고, 유물이 좀 있고 볼 것이 있는 곳은 관광자원으로 개발되는 것이 폐사지가 오늘에 처한 현실이다. 폐사지의 가치를 온전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불교계가 나서야만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폐사지에 대한 무관심과 무분별한 개발로부터 폐사지를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폐사지에 대한 불자들의 관념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사찰문화연구원 신대현 연구위원은 "폐사지란 인연이 다해 사찰의 기능이 멎었을 뿐 여전히 사찰 못지않은 불교유적"이라고 지적하며 "상에 미혹되지 말라고 부처님이 가르쳤듯이 폐허가 된 절터에서 불법을 배우고, 구도정신을 느끼는 성지순례 등을 통해 폐사지에 대한 관심을 키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익순 기자

경찰불교회 제2도약 나선다

3기 중앙집행부 임명…회원확대에 박차


지도법사 천운스님


한진호 회장

대한민국경찰불교회가 제3기 중앙집행부 인선을 최종 마무리하고 제2도약에 나선다.

한진호 경찰불교회장(경찰청 정보국장 · 치안감)은 최근 임승택 수석부회장(경찰청 불교회장)을 비롯해 부회장단과 문영찬 사무국장(서울지방경찰청 감사관 · 경위)과 각 분과위원장을 선임, 9월 3일 오전 11시 경찰청 법당에서 임명식을 개최한다. 이날 임명식에는 지도법사로 추대된 조계종 원로의원 천운 스님이 참석해 법문한다.

경찰불교회는 앞으로 130여 산하단체와 경찰불자들의 화합을 이끌어내는데 중점을 둘 방침이다. 지방경찰청 불교회를 중심으로 불교회가 없는 경찰서의 경찰불심도 모아나간다. 특히 지방경찰청 가운데 유일하게 불교회가 없는 전북지방경찰청의 불교회 창립을 이뤄낼 계획이다. 또 회원 확대와 경승 스님들과의 협력관계 구축도 중점목표다. 활동이 없는 경승을 해촉하고 경찰포교에 관심이 있는 스님들을 경승으로 위촉함으로써 회원 확대와 역량 강화를 꾀할 계획이다.

이번 3기 집행부는 지난 6월 정기총회에서 개편한 분과위 체제를 적용한 첫 중앙집행부 구성이란 점에서 관심을 모았던 이번 인선에서는 수도권 중심의 집행부를 꾸렸던 2기 때와 달리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할 분과위원장들을 각 지역에서 고루 선발한 점이 돋보인다. 130여 산하 경찰불자회를 아우르는 전국조직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 고심한 흔적이 내비치는 대목이다.

여기에 2기 집행부를 맡았던 일부 임원을 빼면 이을수, 이판열, 심태섭, 최인현, 서주민 위원장 등 상당수 새로운 얼굴도 등장했다.

한진호 경찰불교회장은 "각 지역의 일군들을 고루 포진시킨 3기 집행부를 중심으로 경찰불자와 경승, 중앙과 지역이 함께 어우러진 신행단체로 거듭나 제2도약의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박봉영기자



승가원 자비복지타운 17일 이천서 기공식

사회복지법인 승가원(이사장 종범)이 8월 17일 경기도 이천 설성면 자비복지타운 건립부지에서 기공기념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이날 법회에는 보국사 주지 태원스님과 금산사 주지 원행 스님, 성불원 원장 현각 스님을 비롯해 행원문화재단 주영운 이사장, (재)보덕학회 윤용숙 회장, 한국타이어 회장 부인 홍문자씨, 탤런트 김용림씨 등 200여명의 후원자가 참석했다.

기공식 기념 법회에서 승가원 이사장 종범 스님은 "자비복지타운이 이천 지역 주민들과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승가원은 장애인생활실과 재활치료센터 공사를 시작으로 현재 치악산 국립공원 내에 있는 소쩍새마을을 올해 안에 이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승가원은 계속해서 건립기금을 모금하고 있다. 계좌번호 농협 1141-17-001642 예금주 승가원. (02)928-0750 김강진 기자

"쌓인 피로 산사에서 풀었어요"

스리랑카노동자 월정사 등서 불교문화체험

"불교문화도 접하고 해수욕도 하니까 피로가 확 풀리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일 하고 있는 스리랑카 노동자들이 모처럼 활짝 웃었다.

조계종 총무원 사회부(부장 정념)와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현진)이 주최한 '나누는 기쁨으로 함께 하는 스리랑카 노동자 템플스테이'가 8월 14~15일 양일간 진행됐다.

안산 마하보디사 주지 와치사라 스님을 비롯한 스리랑카 노동자 1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행사는 첫날 월정사에서 전나무 숲길을 걷는것으로 시작해 인근 추암해수욕장에서 해수욕을 즐겼으며, 동해 삼화사에서는 새벽예불과 발우공양 등을 하며 불교문화를 체험했다.

이번 행사를 주선한 와치사라 스님은 "불교형제국가의 문화를 체험해보고자 이번 행사를 준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양국민들이 서로의 불교문화를 알아갈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행사참가자인 자마카(30)씨도 "모처럼만에 즐거운 휴식 시간을 보낸 것 같다"며 "다음에도 기회가 되면 더 많은 친구들과 동참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유철주 기자


스리랑카 노동자들이 한국불교에 대한 동해 삼화사 주지 원명 스님의 설명을 듣고 있다.

"한국문화 흔적 발견 감동"
파라미타 5박6일 日 기행

중학생과 고등학생으로 이루어진 파라미타청소년협회 '청소년자율탐사단'이 5박 6일간 일본 오사카, 나라, 교토를 탐방하는 '일본 속의 한국문화탐방'을 마치고 8월 11일 돌아왔다.

8월 6~8월 11일 열린 '일본 속의 한국문화탐방'은 2005년 서울특별시 청소년프로그램으로 선정된 파라미타청소년협회(회장 원택) 주관 행사다. 45명의 '청소년자율탐사단'은 교토 다이가꾸지(大覺寺)에서 첫날 텐플스테이를 한 뒤 히가시야마 5중탑, 호류지의 담징벽화, 왕인박사묘와 백제왕신사 등 한국문화유산을 탐사했다. 일본 선(禪), 일본식 다도, 일본의 서예 등도 체험했다. 탐방에 참가했던 청소년들은 다시 가보고 싶은 인상 깊은 곳으로 다이가꾸지를 들었고, 일본 속에서 발견한 가장 한국적인 것으로 코류지의 미륵반가사유상을 꼽았다. 이은비 기자

'심·법념처 수행' 선우논강

조계종 선우도량(공동대표 철오 · 현각)은 8월 29일 지리산 실상사에서 제12회 선우논강을 개최한다.

선우도량은 이번 논강을 통해 <대념처경(大念處經)>에서 말하는 '심념처(心念處, 마음과 그 부수물에 대한 마음챙김)' '법념처(法念處, 법 또는 마음의 대상에 대한 마음챙김)' 수행이 간화선의 화두 참구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찾는다. (063)636-3031 조용수 기자

청교련 갯벌생태체험

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회장 현성 · 이하 청교련)는 8월 19일 제부도 갯벌체험장에서 '2005년 청소년자원봉사한마당' 제2차 '장애 · 비장애 청소년들과 함께 떠나는 갯벌생태체험' 행사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정신지체장애인 30여명과 청소년자원봉사자 50여명 등 총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청소년들은 장애인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를 배우는 계기가 됐다. 이은비 기자

봉

불기2549년 대한불교대승종 종도수련대법회

축

존경하는 대승종도 여러분

귀의 삼보하옵고,
종단의 위상과 종도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종헌종법의 교육원법 제1조, 연수원법 제2조, 승니법 제23조 등에 의거 다음과 같이 수련대법회를 개최하오니 수희 동참하시어 법좌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일 시 : 불기 2549년 8월 29일(월) - 31일(수)
◆ 입소등록 : 불기 2549년 8월 29일(수) 오후 2시
◆ 입 소 식 : 불기 2549년 8월 29일(수) 오후 3시
◆ 준 비 물 : 가사, 장삼, 발우, 목탁, 요령, 필기구, 세면도구
◆ 장 소 : 다보수련원 043)833-7789 (충북 괴산군 청천면 삼송리 392-10)
◆ 접수 및 안내 : 대한불교대승종 총무원 051)638-4088 / 총무부장 010-3136-4115
◆ 후 원 : 대한불교대승종 총무원 · 중앙종의회 · 각 지방 종무원 · 전국신도회

원로원장 법청 청광
총무원장 법천 청화

종회의장 법호 서호
종회부의장 법서 청원
감찰원장 법상 심곡
고시원장 법성 정산
교육원장 법진 도일
기획실장 법웅 정관

총무부장 벽암 지법
교육부장 법창 덕문
문화부장 법명 보현
복지부장 법연 덕운

서울교구종무원장 혜심
경기교구종무원장 법신
강원교구종무원장 탄오
충청교구종무원장 혜능
전남북교구종무원장 법현
경남교구종무원장 법인
경북교구종무원장 혜암
부산교구종무원장 청운

대한불교대승종 교육원장 법진 도일 합장

‘맞춤 포교’ 인프라를 구축하자

불교는 ‘복지의 종교’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철저히 생명의 존귀함과 평등, 자유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이다. 갈수록 복지가 중요시되는 현대사회에서 불교계는 다양한 복지활동을 통해 ‘전법과 교화’의 사명을 실천하고 있다. 불교계는 짧은 기간 적지 않은 복지 성과를 올렸지만 개선해야 할 과제도 많다. 불교계의 복지 현황을 점검하면서 개선할 점과 발전적 대안을 모색해본다.

‘시설-인력-자금’ 복지자원 통합 관리해야

● 글 싣는 순서 ●

1. 프롤로그 – 포교, 지금 이 순간의 사명
2. 포교사들의 원력과 고뇌 그리고 희망
3. 일터불심, 신행과 포교의 틈 좁히기
4. 사이버 공간 첨단 포교 공간인가?
5. 불교와 어울리는 대중문화
6. 문화 공간에 연꽃 피우기
7. 복지와 불교는 ‘같은 말’
8. 포교에 지역이 따로 있나?
9. 불교의 미래 어린이와 청소년
10. 캠퍼스와 군부대에 불교 심기
11. 지식인, 포교 주체인가 대상인가?
12. 무엇을 들고 해외로 나갈 것인가?
13. 기자방담



불교사회복지가 최근 10여년 사이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뤄내고 있는 가운데 불자들의 봉사활동 참여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현대불교 자료사진

불교사회복지기관 (2002년)	
아동복지	204
청소년복지	34
장애인복지	33
노인복지	98
여성복지	2
지역복지	42
근로복지	10
의료복지	4
부랑인복지	3
장의복지	16
상담복지	2
자원봉사	12
사회체육	2
학술연구기관	1
기타	11
합계	474개

복지사대회 정례화로 정보교류 필요

참선 · 다도 등 불교 문화, 복지프로그램과 접목을

타종교에 비해 근대 복지에서 뒤쳐졌다는 위기의식과 불교의 가르침을 사회 속에서 구현한다는 기조로 최근 10여년 사이 불교사회복지는 괄목할 성과를 거뒀다.

특히 시설수의 팽창은 주목할 만하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창립 당시 단 두 곳에 불과했던 불교계 복지시설이 현재 가톨릭과 비슷한 수준인 463곳(2002년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조사기준)으로 급성장했다.

짧은 시간 동안 발전의 길을 걸어온 현대 불교복지는 최근 타종교에 벤치마킹 사례가 될 정도로 활기를 띠고 있다. 또한 지자체의 복지관 수탁 운영이 늘어남에 따라 대규모 복지시설에 불교계 법인들이 대거 참여, 불교사회복지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 ‘정서적 구제’로까지 확대 필요

불자들 사이의 자원봉사 활동이나 나눔 운동 의식 확산도 크게 확장되고 있는 추세다. 자원봉사의 경우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산하 자원봉사단체 소속 인원만 약 1500여 명. 여기에 천태종 복지재단은 호스피스 교육생을, 진각복지재단은 노인 봉사인력을 계속 양성하고 있어 각 종단마다 특징적 면모를 보이기도 한다.

또 물품 나눔, 기증 등 ‘나눔 운동’도 각 단체들이 자발적으로 펼치고 있다. 불교계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나눔운동은 1994년 사단법인으로 창립된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법장)’의 생명나눔운동이다.

불교사회복지가 괄목할 만한 성장을 했다고는 하지만 과연 포교라는 측면에서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 세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현대 복지가 ‘물질적 베품’이 아니라 ‘정서적 구제’로까지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고 할 때, 불교사회복지는 근본적으로 전법과 교화, 즉 포교에 목표를 두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복지시설은 구체적 포교 프로그램을 가동하기 보다는 일반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급급한 실정이다. 불교계 자체 시설이 없어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기 때문이다.

▥ 복지관간 경쟁 과열…연대의식 높이자

불교계복지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은 ‘지나친 경쟁 구도’를 불교계 복지기관들의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한다. 경기도 A복지관의 한 사회복지사는 “관장들이 같은 구역 내 불교계 복지관보다 지자체에 좋은 실적을 보여주기 위해 경쟁하는 경우가 많다”고 털어놓는다.

이에 따라 같은 지자체내에 있는 불교계 복지관조차 서로 유기적 소통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좋은 프로그램 또는 프로그램 실패 사례 등을 복지사들이 공유하지 못해 각 복지관인력 · 예산 낭비로 이어지기도 한다.

복지사들이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는 ‘복지관’이라는 복지단체의 정보 네트워크 형성이 필수적이다. 시스템이 선행돼야 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인식 공유도 쉬워지기 때문이다. 연대의식을 높이는 방법으로는 분기별 ‘복지사 대회’나 복지 프로그램 사례 발표회 등이 있다.

▥ 자체 복지시설 만들어야

불교계 복지관이 대부분 위탁이고 자체 시설이 드물다는 점도 불교사회복지 발전을 더디게 만드는 요인이다. 지자체 위탁 시설의 경우 종교색을 띠는 프로그램을 제한하고 있어 불교사회복지 이념을 제대로 실천하기가 어렵다.

불교계의 힘이 결집된 복지단체나 복지관이 거의 없다보니 대부분의 복지시설은 2년마다 시행되는 지자체의 재위탁 심사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지자체가 원하는 방향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

때문에 자체 시설 건립을 위한 준비 모임 등 실질적 활동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계획과 행동이 필요할 때라는 것이 불교계 복지관계자들의 일관된 지적이다.

▥ 정보네트워크 구축이 ‘미래’

불교계 복지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개별 복지관 사이의 정보교환은 물론 ‘총괄적’ 기능을 하는 재단의 행정 지원 시스템의 보완이 최우선적 과제다. 복지관과 관련단체, 자원봉사자 등 복지관련 ‘자원’을 통합 관리하는 유기적 시스템 없이는 인프라 구축도 불가능하다.

개신교는 총회-노회-지교회의 각 사회부로, 가톨릭은 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교구 사회복지국-본당 사회복지분과로 이어지는 시스템으로 복지체계를 공고히 해오고 있다. 불교도 조계종의 경우 외형적으로는 총무원-교구본사-말사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만 이들 간의 연결 고리가 튼튼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총무원으로 일컬어지는 사회복지재단에 교구본말사를 모두 아우를 수 있는 권한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게다가 교구본사에서 복지포교를 위해 따로 기구를 설치하고 말사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협력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

얼마 전 언론매체를 통해 미신고종교시설의 아동학대 사례로 지목된 ‘수경사’의 경우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조차 관할 범위 안에 둘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복지재단측은 유사복지시설의 인적 관리 수행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는 진단을 내놓기도 했다.

‘수경사 사건’은 모든 복지시설과 대체 복지시설을 총체적으로 관리 ·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교훈을 남겼다.

▥ 불교적 복지프로그램 개발 시급

현재 불교사회복지시설 프로그램의 가장 큰 문제점은 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논의 없이 몇 사람에 의해서 주도적으로 시행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정서구제’라는 현대복지 흐름에 맞는 고급 프로그램 개발로 불교복지는 곧바로 포교로 이어질 수 있다. 프로그램이 바로 가장 직접적 복지포교의 수단이 되는 것이다.

가장 좋은 방법은 자체 복지시설을 만들어 그곳에서 불교복지프로그램을 공모하거나 각 복지관의 회의를 통해 시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불교계 복지관은 대부분 위탁시설이므로 이에 맞춰 포교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고민할 때다.

예를 들면 요즘 불교계 노인복지관에서 많이 하고 있는 참선이나 명상의 경우, 일반인들에게도 정신 수련의 한 방법으로 각광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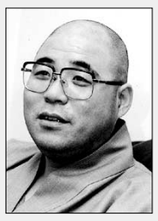
이와 같은 불교적 문화 ·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방법은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다. 특히 문화 프로그램은 다도, 사찰문화재 등 불교가 가진 지적 · 물적 재산을 이용해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남아있다.

김강진 기자 kangkang@buddhapia.com

종단 산하 사회복지기관	종단	합계	비고(단위: 개) (2002년)
	조계종	81	아동복지 31, 지역사회복지관 15, 노인복지시설 10, 장애인복지시설 9
	태고종	8	아동복지 7, 노인복지 1
	천태종	4	아동복지 2, 노인복지 1, 장애인 1
	진각종	22	아동복지 11, 지역사회 4, 노인복지 5, 장애인 1, 가정복지 1
	총지종	2	노인복지1, 청소년수련원 1

“한국불교복지학 체계 세워야”

인터뷰 보각 스님(중앙승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한국불교사회복지는 현재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고 있지만 학문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 완전한 우리 것이 생기지 못한 단계라 할 수 있습니다.”

중앙승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보각 스님(사진)은 현재 우리 불교사회복지학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다.

현대 사회복지학의 근간이 되는 서구 사회복지학의 눈으로 한국불교사회복지를 바라봤을 때, 현재 한국불교복지의 학문적 단계는 아직 타국가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특히 보각 스님은 “불교복지와 사회복지의 연계를 일찍부터 시작했던 일본불교사회복지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어 스님은 “불교복지에 대한 의식이 있는 전문가를 양성해 한국불교복지학의 체계를 만들고 우리 불교복지만의 색깔 찾기에 나서야 할 것”이라며 “사회복지의 철학에 한국 사찰의 전통적 빈곤대책, 현대사회에 대한 면밀한 분석 등을 토대로 ‘우리 것’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불교사회복지학을 발전시키기 위해 스님이 내놓은 방안은 ‘범 종단적 차원의 불교복지학 전문기구 설립’이다. 스님은 “특히 연구기관 설립, 인재 양성 등 하나의 종단이 수행하기 어렵거나 함께 추진하면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는 부분에서 협력이 필요할 것”이라 조언했다.

2005학년도 불교지도자 과정 제6기(3년) 신입생 모집
법사과정 불교대학원

과 목	제출서류	개설경전	교 수
불교학과 (정규,통신 각30명)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화엄경 약찬게, 유식 30송	활안스님, 묘주스님
대승경전학과(주간,통신 각20명)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삼국유사	김상현 교수
근본불교학과(주간,통신 각20명)	매주 목요일 오후 4시	안반수의경	최종남 교수

지원자격	제출서류	원서교부 · 접수	강의 일시 및 장소
①불교대학(정규)이수자 ②불교교양대학(2년)이수자	①입학원서 1통 ②주민등록등본 1통 ③반명함판 사진 3매 ④불교교양대학졸업증 1통 ⑤자기소개서 1통	2005년 8월 1일 ~9월 5일(월) [서류전형]	• 매주 월요일, 화요일 오후 7시 •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 매주 목요일 오후 4시

3. 개강일시 • 불교학과 : 2005년 9월 5일(월), 6일(화) 오후 7시
• 근본불교학과 : 2005년 9월 8일(목) 오후 4시
• 대승경전학과 : 2005년 9월 6일(화) 오후 2시

4. 졸업자격 3년 과정의 부처님 법음이 가득찬 경전(매주 2강좌)을 이수한 분에게 졸업장을 수여함.

5. 원서 교부 및 접수 본 대학원 사무국 :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0
TEL 02)732-1206~8 / FAX 02)732-1207
인터넷 홈페이지 www. dongsanbud.net

직장인을 위한 불교강좌(2년,3년과정) 9월6일개강 신입생 모집
2005년도 동산불교대학

※동산불교대학은 〈불교학과〉, 〈불교한문학과〉, 〈불교다도학과〉, 〈불교장례문화학과〉, 〈불교미술학과〉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모집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원서교부 · 접수
• 불교학과(200명) (정규반, 주간반, 통신반) (100명) (50명) (50명) • 불교다도학과(50명) • 불교미술학과(30명) • 불교한문학과(50명) • 불교장례문화학과(30명) • 티베트어강좌(20명)	불교를 적극 신행하고자 하는자	• 입학원서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3장	2005년 8월 5일 ~9월 5일 입학금 200,000원

전형방법	강의일시 및 장소
서류전형	•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불교학과정규반) : 8월 개강 •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불교학과주간반) : 8월 개강 •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다도학과) : 9월 6일(화요일) 개강 •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미술학과) : 9월 7일(수요일) 개강 •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한문학과) : 9월 8일(목요일) 개강 •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장례문화학과) : 9월 6일(화요일) 개강 •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티베트어강좌) : 9월 8일(목요일) 개강

원서 교부 및 접수 본 대학 사무국 :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0
TEL 02)732-1206~8 / FAX 02)732-1207
인터넷 홈페이지 www. dongsanbud.net

2005 학년도 불교의식법사과정(2년) 신입생 모집
불교한글의식교육원

과 정	기간	요 일	법 사	내 용
• 토요정규반	2 년	매주 토요일(오후 3시~5시40분)	만춘스님,문종순법사	이론,실기
• 수요야간반	2 년	매주 수요일(오후7시 ~ 9시)	양성도, 민병홍법사	실 기
• 목요주간반	2 년	매주 목요일(오후12시 ~ 1시40분)	문종순 법사	실 기
• 바 라 반	2 년	매주 금요일(오후 3 ~ 5시)	지도스님	실 기

모집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원서교부 · 접수	강의일시 및 장소
• 정규반 30명(2년) • 바라반 30명(2년) • 주간반20명(2년) • 야간반20명(2년)	• 한글불교의 식 희망자 • 포교당 운영자	• 입학원서1통 • 주민등록등본1통 • 반명함판사진3장	2005년 9월 3일까지 토요일	• 매주 토요일(정규반) 오후 3:00 ~ 5:40 • 매주 수요일 오후 7:00 (야간반) • 매주 금요일오후 3:00 (바라반)

3. 개강일시 2005년 9월 3일(토) 오후 4시30분(정규반)
7일(수) 오후 7시(야간반)
8일(목) 오전 12시(주간반)
9일(금) 오후 3시(바라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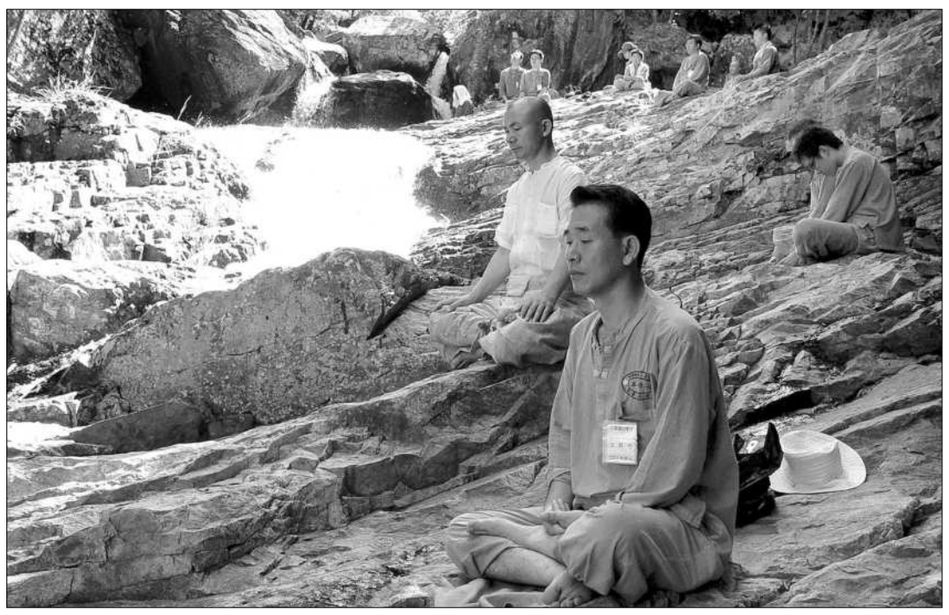
4. 원서 교부 및 접수 본 교육원 사무국 :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0
TEL 02)732-1206 / FAX 02)732-1207
인터넷 홈페이지 www.dongsanbud.net

5. 특 전 수료자는 동산의식법사 수여

불교교육 전문도량 동산불교대학원 • 동산불교대학 • 동산불교의식교육원

“폭포수 아래서 속진 씻어내요”

표충사 템플스테이 참가자들 폭포 참선 체험



시원하게 쏟아져 내리는 물소리와 시원한 계곡 바람에 몸을 맡기고 참선하는 표충사 템플스테이 폭포 참선이 인기를 끌고 있다.

‘이 물소리를 듣는 놈이 누군가’

아래로 곤두박질치는 폭포 옆 바위 곳곳에 가부좌를 하고 앉았다. 8월 14일 밀양 표충사(주지 청운) 템플스테이에 참석한 44명은 재약산 계곡에 들어 속진을 털어내고 있었다.

표충사를 출발해 한 시간 남짓 산을 올랐다. 여느 사찰의 템플스테이에서는 맛볼 수 없는 폭포 참선을 체험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가빠오는 숨도 흘러내리는 땀도 아랑곳 하지 않고 올라온 길이었다.

템플스테이 담당 혜원 스님의 참선에 대한 설명을 듣고 폭포수 소리가 가득한 계곡 바위에 자리를 잡았다. 헐떡이던 호흡이 가라앉고 땀도 식으니 안에서 올라오는 생각들이 바위에 부딪혀 생기는 포말보다 더 많이 일어난다.

그러나 ‘이 물소리를 듣는 놈이 누군가’ 오로지 한 생각을 이어가는 동안 어느새 폭포의 시원한 물소리를 따라 잡다한 생각들이 말끔히 씻겨져 버렸다.

표충사가 템플스테이를 상설하면서 시작한 재약산 계곡 폭포 참선과 1천m 고지 습지답사는 반응이 폭발적이다. 사찰 예절, 108배, 발우공양 등의 기본적인 사찰 체험을 마친 뒤 자연 속에서 이뤄지는 프로그램이 도심의 각박함에 지친 이들에게 신선한 활력소가 되는 까닭이다.

이날 폭포 참선을 체험한 이진오(34 · 구미시) 씨는 “2주전 이 프로그램에 참석한 친구의 권유로 오게 됐다”며 “폭포수가 흘러가는 소리가 마음에 안정을 준다”며 다른 직장 동료에게 권하고 싶다고 말했다. 정지영(27) 씨는 “회사일로 답답할 때도 많은데 오늘 들었던 시원한 물소리를 떠올리면서 힘을 낼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표충사 템플스테이는 이 밖에도 영남알프스로 통하는 재약산 끝자락에 있는 고사리분교와 고산 습지 탐방, 암자순례 등 건강에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으로 호응을 얻으며 서울, 인천, 부산, 대구 등지에서 참가자들이 모여들고 있다.

서울에서 함께 참여한 한규만(54), 김금자(54) 부부는 “38년 전 고등학교불교학생회 수련법회에 다녀간 기억을 더듬으며 왔는데 역시 오길 잘했다”며 “마음도 다스리고 일상에 바빠 돌아보지 못했던 나를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라고 말했다.

고사리 분교 · 고산 습지 탐방 등 건강 초점 맞춘 프로그램 인기

연휴를 맞아 1박 2일과 2박 3일로 나눠 진행됐던 8월 13~15일 프로그램은 108배, 참선, 울력, 표충사 주지 청운 스님과의 차담, 다도, 암자순례 등으로 진행됐다.

매월 둘째, 넷째 주말에 템플스테이를 상설하고 있는 표충사는 앞으로 10명 이상의 신청자가 있을 경우 언제라도 템플스테이를 열 예정이다.

표충사와 재약산 정상을 연결하는 코스를 4단계로 나눠 참가자의 성격에 맞게 적절하게 조절하며 진행하는 것도 특징 중의 하나다.

표충사 주지 청운 스님은 “산사에 와서 각박한 세상사를 잊고 물, 바람, 자연과 하나 되어 나를 텅 비워버리면 자기 자신의 참다운 모습을 발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템플스테이 의의를 설명했다. www.pyochungsa.or.kr (055)352-1070

글 · 사진/표충사=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명강의로 갈증 풀어드려요

울산 연화사 9월 개원, 호계불교대학도 개설

경전법회 통한 대중포교도

법문과 강의에서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강사진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수준 높은 불교교양대학이 울산에 문을 연다.

각화사 울산 포교원 연화사(주지 덕륜)가 9월 3일 개원한다. 내년 3월에는 호계불교대학도 개강할 예정이다. 연화사는 개원과 동시에 호계불교대학 수강생 모집에 들어간다.

호계불교대학이 개강하면 중앙승가대 대학원장 정인 스님, 동국대 교수 성본 스님, 최봉수 동국대 교수, 통도사 전계대화상인 혜남 스님, 차차석 동국대 교수 등의 명 강사진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

최고의 강사진을 자랑하는 호계불교대학은 불교기초교리, 원시불교, 선사상, 불교와 사회복지, 근본불교, 반야심경, 여성과 불교, 불교와 계율, 좌선 실수 등의 과목으로 4개월 간 매주 목, 금요일 강의를 이어가게 된다. 또한 기초교리 과정이 마무리되면 육조단경, 금강경 등의 경전반을 모집, 보다 심화된 강좌를 열어갈 예정이다.

연화사가 들어서는 울산시 북구 호계는 인구 유입이 가장 활발하고 경주와 울산을 아우르는 교통 요충지여서 향후 울산은 물론 인근 지역의 신행 패턴 변화에도 한 몫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앞으로 연화사는 화엄경, 금강경, 원각경 등의 산림법회로 대중포교의 문을 활짝 여는 한편, 젊은 층 포교를 위한 건강, 교양강좌 등을 마련 불교의 세대교체를 주도해 나가게 된다. 금요참선법회, 일요가족법회, 특별철야 정진 기도 등의 프로그램으로 가족 단위의 신행도 이끌어 낼 방침이다.

연화사 주지 덕륜 스님은 “인구 백만의 도시 울산에 걸 맞는 수준 높은 강의로 불교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심어주고 기복불교를 과감하게 탈피, 불교에 대한 바른 이해로 수행과 실천을 이끌어가는 도심포교 도량이 되겠다”고 말했다. (052)293-5550

천미희 기자

“호국 영령들 뜻 기리는 계기”

통영 두타사 ‘해병혼의 집’ 기공



두타사가 건립하는 ‘해병혼의 집’ 조감도.

통영 두타사(주지 자용)는 8월 17일 제 55주년 통영상륙작전 기념행사를 맞아 두타사 경내에 해병혼의 집을 건립하기로 하고 기공식을 봉행했다.

통영해병전우회(회장 조영규)와 함께 주최한 이날 기공식에는 진의장 통영시장, 해인사 총무국장 영조 스님 등 3백여 명의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자용 스님은 환영사에서 “도량에 편히 봉안할 수 있는 해병혼의 집을 건립함으로써 이분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내년 낙성을 목표로 30평 규모로 건립되는 해병혼의 집에는 통영 상륙작전에서 희생된 19명의 호국 영령이 봉안되며 앞으로 진동지구 희생자 영령 봉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해병혼의 집 건립을 계기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해군, 육군, 경찰 등을 위한 위령재를 매년 봉행하고 호국영령을 기리는 각종 문화행사도 마련할 계획이다. (055)648-1477

천미희 기자



축서사, 적(赤) 사리 공개

친견 법회 후 석탑에 봉안

봉화 축서사(주지 무여)에 소장돼 있던 괘불탱에서 지난 2002년 발견됐던 적(赤) 사리가 일반에 공개된다.

이 적사리는 지난 2002년 괘불을 보물로 지정하기 위해 조사하던 중 발견된 사리로 그동안 공개를 하지 않았던 것. 지금은 보물로 지정된 괘불탱화(보물 제1379호)에서 발견된 이 적사리 2과(果)는 극히 희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축서사는 사리의 온전한 보관과 봉안을 위해 불탑을 조성하기로 하고 불탑 조성에 앞서 9월 3일과 4일 축서사 대웅전에서 사리 친견 법회를 갖는다. (054)672-7579

천미희 기자

예천 서악사 가족 음악회

예천 서악사(주지 도일)는 8월 24일 오후 7시 ‘가족과 함께하는 서악사 음악회’를 개최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2회째 열리는 서악사 음악회에는 정수라, 해바라기, 김범룡, 조항조 등의 가수가 출연하며 코리안 팝스 오케스트라의 선율이 한여름 밤을 수놓는다. 또 서악사 주지이자 기타 치는 스님으로 유명한 찬불가수 도일 스님, 예천 연방사 주지 일봉 스님 등이 특별출연할 예정이다.

도일 스님은 “가족과 함께 산사음악회를 즐기면서, 삶에 있어 가장 소중한 ‘가족’을 돌아볼 기회를 갖길 바란다”며 “가족의 건강과 화목을 위해 행사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054)655-1001

이은비 기자 renvy@buddhapia.com

‘시민 위한 명상교실’ 열어

열린우리당 대구시당 불교위원회가 8월 17일부터 시작해 9월 7일 까지 4주간 매주 수요일마다 오후 7시부터 두 시간 동안 ‘시민들을 위한 명상교실’을 개최한다.

17일 진행된 1주차 교육의 주제는 ‘마음의 구조와 기능’. “마음이란 무엇이며, 구성인자는 무엇인가?” 였으며, 2주차는 ‘알아차림 대한 강의와 걷기명상’, 3주에는 ‘마음작용’ 4주째는 ‘21세기 리더십에 대한 특강’으로 진행된다.

열린우리당 대구시당 불교위원회 이세호 위원장은 “이제 정치도 생활 속에 파고들어 시민들과 호흡하면서 이뤄져야 한다”며,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는 방법을 불교를 통해 찾기 위해 시민들과 함께하는 명상교실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053)217-0700

배지선 기자

인각사 ‘삼국유사 문화제’ 성황

8월 12일, 삼국유사 저술지 군위 인각사에서는 보각국사 일연선사를 기리는 716주기 다례재와 산사음악회가 열렸다.

청백다례원 회원들의 육법공양으로 시작된 다례재는 은해사 주지 법타 스님, 인각사 주지 상인 스님, 박영언 군위 군수, 손유준 군위군 의회의장 등 사부대중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각사 국사전에서 봉행돼 삼국유사를 저술한 일연스님의 자주, 애국정신을 되돌아보고 스님의 삶과 가르침을 기렸다.

이날 다례재에서 일연학연구원 이사장 법타 스님은 “삼국유사를 읽고 또 읽어서 잘 사는 나라, 통일번영으로 존경받는 문화민족이 되자”고 강조했다.

배지선 기자

대구 정토원 뜻깊은 음악회

8월 15일 오후7시, 대구 팔공산 자락의 자그마한 사찰 정토원(주지 고봉)에서는 ‘광복 60주년을 축하하기 위한 환희세상’이 열렸다. 정토원 스님들과 신도들이 “광복 60주년을 이대로 보낼 수 없다”며 마음을 모아 연 즉석 음악회다.

자그마한 법당에는 빌려온 그랜드 피아노와 북 드럼 징 등 여러 종류의 타악기들이 음악회의 분위기를 고조시켰고, 신도와 마을주민 등 100여명의 관객이 정토원 마당을 가득 메웠다.

음악회를 마련한 고봉 스님은 “광복 60주년을 맞아 종교를 초월해 모든 지역민들과 함께 광복의 기쁨을 나누고, 팔공산의 정기를 북돋우고 싶었다”고 말했다.

배지선 기자

세계에서 제일 큰 의과대학

중국 국립 한의과대학 학생모집

www.njutcm.co.kr

1. 남경중의약대학

학 과	학 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의학과	5년	20명 (내신80%이내)	· 건강진단서 1통 (영문, 대사관 지정병원)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1통(영문) · 입학신청서 1통 · 여권용 사진 10매
석사과정	3년	5명 (평점3.5이상)	
박사과정	3년	2명	

2. 학교 소개

· 중국 최고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 WTO 국제전통의학 협력센터
· 부속병원 3, 제약공장, 교육병원 12, 제약연구소 등 완비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식당완비
· 군입대 연기가능
· 인터넷 홈페이지 www.njutcm.edu.cn

3. 지원자격

1.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2. 주지스님, 지도교사 추천자

4. 원서교부 및 전형방법

·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2005년 9월 15일까지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5. 문의처

· 주 소 : 中國 南京 漢中路 282 南京中醫藥大學
· 전 화 : 25-6798167 / 팩스 : 25-6798168
♣ 한국상담 안내처 : 조계종 삼화불교대
· (135-887)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 전화 : 02-511-2026~7, 1080 / 팩스 : 511-2028
· 인터넷홈페이지 : www.njutcm.co.kr

6. 남경중의약대학 교류 연혁

※ 남경중의약대학 자매대학 : 원광대 · 대전대 한의대학, 삼화불교대학 분교

· 1995년 1월 20일 학장혜인 스님 남경중의약대학 방문 상호교류 및 자매결연 협의
· 1995년 7월~2000년 12월 남경중의약대학 박사과정 연수(1차~14차)
· 1995년 8월 19일~8월 25일 남경중의약대학 총장 일행 방한
· 1995년 10월 25일 南京中醫藥大學 漢語 分校설립, 분교장 취임
· 1996년 8월 21일~8월 30일 이병용(李秉鎔. 한의사) 명예박사학위 취득 남경중의약대학 국제교육학원 교직원 방한 (中國 江蘇省 敎育委員會 永鎭, 國際敎育學院長 楊公服, 敎務處長 惠紀元, 國際交流服務中心 總經理 丁雲南)
· 1996년 12월 5일~12월 10일 남경중의약대학 項平 총장 방한
· 1997년 8월 10일~8월 15일 남경중의약대학 項平 총장 방한
· 1999년 9월 본교 중국어과 5명 본과 입학
· 2000년 9월 9일 본교 중국어과 11명 본과 입학
· 2000년 11월11일~11월17일 남경중의약대학 王玲玲 院長, 徐恒 院長 訪韓
· 2001년 3월 10일 남경중의약대학 28명 본과입학
· 2002년 3월 남경중의약대학 40명 본과입학
· 2003년 3월 남경중의약대학 40명 본과입학
· 2004년 3월 남경중의약대학 40명 본과입학
· 2004년 11월 중국국가의사고시 7명 합격
· 2005년 중국국가의사고시10명 합격

한국총장 손 혜 인

남경중의약대학 (南京中醫藥大學)

'으랏차차' 새로운 삶 싹 틔운다

향일암 운영 노인복지관에 새싹채소 작업장 마련



향일암이 위탁운영하는 동여수노인복지관이 새싹채소 작업장을 운영하고있다

노인들 일자리사업 일환

"진짜배기 인생은 60부터죠. 새싹채소를 키우다보니 '인생의 싹'도 새롭게 크고 있습니다"

여수 향일암(주지 원문)이 위탁운영하는 동여수 노인복지관(관장 우석) '으랏차차! 새싹 나래 작업장' 전기남(71) 반장은 "하루가 다르게 자라는 채소 싹을 바라보면 모든 시름이 사라진다"며 활짝 웃는다.

새싹채소 작업장은 지역 노인들의 여가활동과 자립을 돕기 위해 마련된 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최근 웰빙 음식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새싹채소를 키워 보급하는 공동작업장이다.

현재 '으랏차차' 작업장 식구는 10명. 대부분 70대이지만 2회에 걸친 면접을 통과한 당찬 일꾼들이다. 지난 6월부터 시험재배에 들어간 작업반은 직접 재배한 새싹채소를 새벽시장에 가지고 나가 판매,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노인복지에 남다른 관심과 지원을 하고 있는 향일암 주지 원문 스님은 "거름, 흙도 필요없이 물과 자상한 관심만 있으면 자라는 새싹채소는 힘든 노동력을 요구하지 않아 노인들에게 적합한 일거리이다"며 "새싹채소 수요가 늘어나면 작업장을 확대해 노인들에게 희망을 주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복지관 창고를 빌려 시험재배를 마친 작업반은 오는 8월 30일부터 복지관이 마련한 30평 규모의 공동작업장에서 본격적인 재배와 판매에 들어간다.

이곳 작업장에서 재배하는 새싹채소는 무순, 알팔파, 적양배추, 다채, 브로콜리 등 5종으로 다자란 채소보다 영양가가 높아 비빔밥, 샐러드용으로 인기가 높다. 특히 여수 최고의 약수인 석천사 물만 사용하고 있어 가정은 물론 사찰, 단체별 주문이 이어지고 있다.

힘차게 땅을 뚫고 나오는 새싹처럼 더욱 젊게 살 것을 발원하며 '으랏차차'로 상표명을 붙인 작업반원들은 "수익이 나면 복지관을 찾는 동료들에게 돌리겠다"며 작업장을 지키고 있다. 새싹채소 문의 (061)641-3485 **글 · 사진/여수=이준엽 기자**

한마음선원 광주지원 부처님 점안법회

화재로 법당소실, 50일만에 복원불사 회향



한마음선원 광주지원 부처님 점안법회에서 한마음선원 주지 혜원 스님이 법문하고 있다

한마음선원 광주지원(지원장 혜월)은 8월 14일 본원 주지 혜원 스님을 비롯한 각 지원장 스님과 김종식 서구청장, 신도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처님 점안 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서 한마음선원 본원 주지 혜원 스님은 법어를 통해 "부처님은 대지에 내리는 비와 햇빛과 같아 꽃을 피우도록 도와주는 것으로 결국 공부는 자신이 해야 한다"며 "마음공부가 순일하지 않는다고 퇴굴심 내지 말고 올곧게 정진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마음선원 광주지원은 지난 6월 25일 불의의 화재로 법당이 소실된 후 50여 일간의 복원불사를 마치고 이날 회향했다.

이준엽 기자



논산 관촉사에 배치된 소방차.

논산 관촉사에 소방차 배치

충청남도소방안전본부(본부장 최철영, 이하 소방안전본부)는 전통사찰의 화재 진압 능력을 개선하기 위해 시범적으로 논산 관촉사(주지)에 소방차를 고정 배치했다고 8월 17일 밝혔다. 소방안전본부는 스님과 신도들을 대상으로 소방차 조작기술과 화재 진압요령 교육을 매월 한차례씩 정기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유철주 기자**

백련축제, 불교문화행사 다채



서남통합사암련은 무안백련축제 일환으로 불교문화행사를 개최했다

서남통합사암연합회(회장 경훈)는 8월 15일 무안 회산 백련지에서 영산법회를 개최했다.

제9회 백련대축제 일환으로 열린 이날 법회에는 각 종단 종정, 지역사암 스님과 박준영 전남지사, 서삼석 무안군수 등 지역기관장, 전국에서 모인 불자, 관람객이 참석했다.

기념식에서 경훈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진흙 속에 피어나는 고고한 백련처럼 혼탁한 세상을 정화하는 불자가 되자"고 말했다. **이준엽 기자**

교각 스님 탄생 기념 헌다례

남양주 백천사(주지 무구)가 8월 27일 교각 스님 탄생 1210주년 기념 헌다례를 봉행한다. 경희대 조달호 교수의 사회로 기념식과 헌다식 등이 진행되는 이번 '제8회 교각 스님 헌다례'에는 다양한 연주, 공연 등의 축하무대와 어울림마당이 마련돼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날 기념식에는 사회복지법인 인덕원 대표 성운 스님과 이광길 남양주 시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를 준비한 주지 무구 스님은 "교각 스님의 공적을 기리고, 불교의 가르침과 지역민들을 함께 아우를 수 있는 문화행사로 가꿔가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백천사는 중국 구화산에서 수행, 구화산을 중국불교 4대성지로 만든 교각 스님 기념관을 이미 사찰에 만들어 관련 전시물을 일반에 공개해왔다. (031)577-6433

김강진 기자

김완규 화백 달마도 보급 나서



한 원로화백이 '달마상 보급 운동본부'를 결성하고 달마도 보급에 나서 화제다. 주인공은 도형 김완규(70 · 사진) 화백. 평생 달마도와 호랑이 그림에 매달려 온 김 화백은 "불자들은 불성을 되찾고 일반인들은 불교의 깊은 뜻을 알게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달마도를 보급하게 됐다"고 말한다.

김 화백은 또 "제 달마도가 수맥파를 차단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그런 의미 외에도 선 수행이 더 확산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간절하다"고 덧붙였다.

김 화백은 몇 년 전부터 각지의 불교행사 때 불자들에게 자신이 그린 달마도를 보시해오고 있으며, 달마도를 요청하는 불자들에게도 그림을 보시할 계획이다. (042)623-6064 **한명우 기자**

지금, 우리 절에서는…

북한산 용암사

"기도소리 끊이지 않는 도량"



올 1월 다녀온 인도 · 네팔 · 태국 성지순례 때 태국 왕궁사원에서 기념촬영을 한 모습. 용암사 주지 정천 스님(윗줄 왼쪽에서 두 번째)과 신도들은 해외 성지순례 때마다 법회를 열고 기도를 한다.

북한산 국립공원 안에 자리잡고 있는 용암사(주지 정천)는 신라시대의 고찰로 의상대사가 창건했다고 전해지는 기도도량이다. 대웅전 바로 뒤에는 용 모습을 한 바위와 거북 모습을 한 바위가 마치 병풍처럼 용암사를 감싸고 있다.

사실 용암사는 신라고찰이라고는 하지만 196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그 흔적만 있었을 뿐 남아 있는 것은 거의 없었다. 그런 용암사를 중창한 사람은 현 주지인 정천 스님이다. 조선시대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석탑과 석등만이 외로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을 본 정천 스님은 용암사의 옛 모습을 되살리겠다는 발원으로 오랜 세월에 걸쳐 불사를 했다. 그리고 올해 마침내 전통사찰로 지정받았다.

용암사는 일반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하지만 기도도량을 찾아다니는 불자들에게는 제법 이름이 나 있다. 조상 및 영가 천도 기도를 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불자들이 모여든다.

용암사 영가천도 기도는 일년에 두 차례, 즉 4월 보름과 10월 보름에 입제를 하고 7월 보름과 정월 보름에 해제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입제부터 해제까지 90일 동안은 용암사 스님은 물론이고 신도들도 열심히 기도를 한다. 그리고 해제 날에는 천도재를 지낸다.

이렇게 정성을 들여 영가천도 기도를 하는 이유는 '뿌리없는 자손은 없다'는 주지 정천 스님의 생각 때문이다. 그래서 용암사 영가천도 기도는 단순히 조상의 복락을 비는 차원이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며 선업을 짓는 다짐을 하는 시간으로 인식돼 있다.

영가천도 기도가 아니더라도 용암사를 찾는 일반인과 신도들도 적지 않다. 24시간 법당 문을 열어놓아 기도객들이 마음 놓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용암사에서는 기도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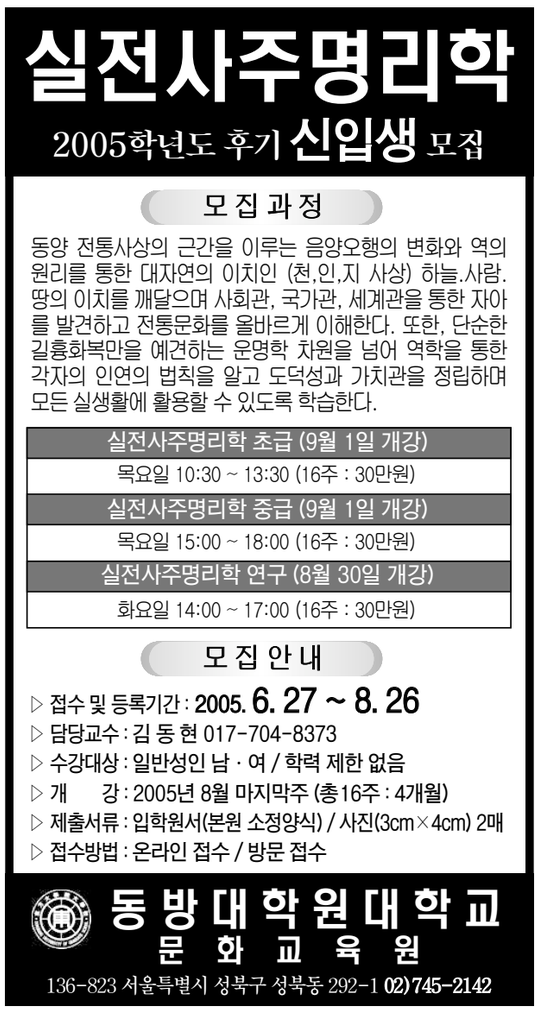
선업 짓는 다짐으로 조상 및 영가 '천도기도'
공양물 직접 준비 해외 성지순례서도 법회 열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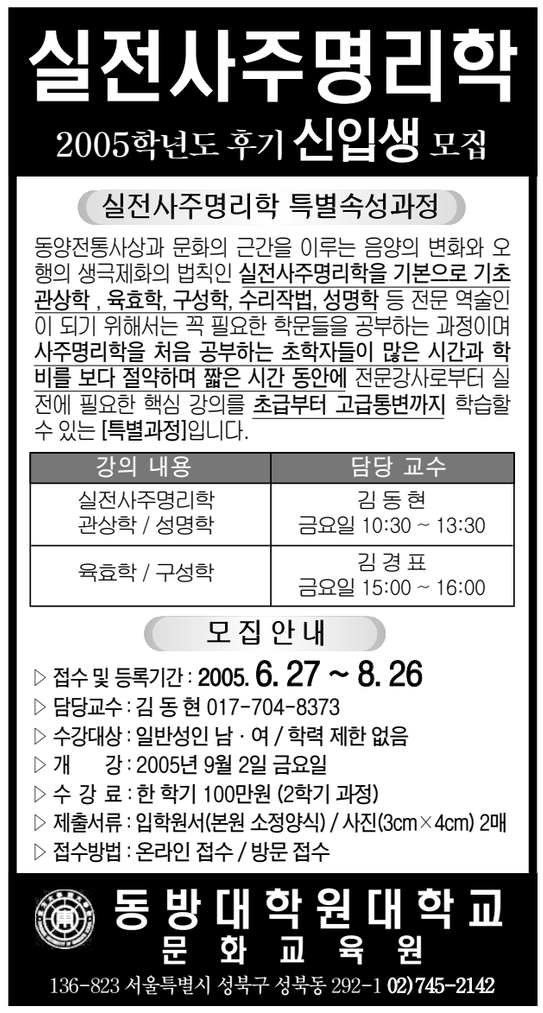
용암사의 또 다른 특징은 정기적으로 '기도 성지순례'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불교유적지를 돌아보는 형태의 성지순례가 아니라 순례지에서 반드시 법회를 열고 기도를 한다. 법회에 쓸 떡 · 과일 등의 공양물은 출국전 준비해 간다.

주지 정천 스님은 "용암사에서 '특별한 일'이란 없다"고 말한다. 기도도량에서 기도 외에 달리 무엇이 필요하겠느냐는 것이다. 하지만 참회하고 복을 짓겠다는 발원을 하는 것만큼 특별하고 중요한 일이 또 있을까. 용암사는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오늘도 불자들의 발원을 담으며 하루를 보내고 있다. (02)387-3216

한명우 기자







배우고 믿고 나누며 '괄목성장'

경기 안양 · 군포 · 과천

안양 한마음선원 중심 수행 · 생활불교 정착

군포 정각사, 교육·신행분위기 조성 '구슬땀'

과천 보광사 사격 갖추고 포교 본격화 채비

 # 안양 안양의 각급 기관장들은 시 행사가 있을 때마다 인사말에서 "안양(安養)이라는 지명은 불교 경전에서 나오는 말로, 극락세계를 뜻하는 '안양국'에서 유래했다"고 설명하곤 한다. 안양이 그만큼 살기좋은 고장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지명유래를 언급하는 것이다.

그래서일까. 안양 불교는 그 이름만큼이나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다. 사찰들의 포교활동도 그렇고 각급 신행단체들의 신행도 남부럽지 않은 수준이다. 게다가 사암연합회도 활성화돼 있고, 사암련과 사찰들의 복지활동은 지역민들도 인정할 정도로 질높은 수준을 자랑한다. 특히 안양 불교는 생활불교와 복지가 두드러진 것이 특징. 그만큼 안양은 불심이 깊고 불교가 안정돼 있다.

안양 불교가 이렇게 안정적인 기반을 갖춘 중심에는 안양 스님들 모두가 예외없이 첫손가락으로 꼽는 한마음선원이 자리잡고 있다.

한국의 대표적인 도심사찰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수행 · 포교 도량 한마음선원은 1971년 개원 이래 안양 불교를 잘 이끌어오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성과 자율을 중시하는 수행과 신행체계로 '생활불교'를 정착시킨 한마음선원은 자타가 공인하는 전국 최고 · 최대 수준의 신도회 · 청년회 · 학생회 · 어린이회 활동을 통해 지역신행과 불자 인재양성에 이바지하고 있다. 또한 불우학생 및 독거노인을 정기적으로 후원하는 등 장학 · 복지사업으로 지역민과의 거리를 좁혔다.

지장선원도 도심포교당으로서 괄목할만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1999년 안양불교대학을 개설한 지장선원은 지금까지 1천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 공부하는 신행풍토 조성에 기여하고 있으며, 어린이 · 청소년 포교 및 복지사업에도 적극적이다.

최근에는 '안양불교신문'을 창간, 문서포교에도 발을 내디뎠다.

보장사는 복지 · 교육도량으로 잘 알려져 있다. 안양시노인복지센터를 통해 노인무료급식 등으로 지역복지에 기여하고 있으며, 서울불교대학원대학을 통해 불교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도광사와 서광사는 복지 및 군경포교활동에서 두드러진다. 도광사는 양로원 보육원 등에서의 자원봉사 및 불우이웃 후원활동과 함께 20여 년 간 교도소 및 경찰 포교에 주력하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서광사 역시 안양교도소 안양경찰서 등 군경 포교에 열심이다.

이밖에도 안흥사는 불교학교로, 보리사는 불교유치원으로, 망해암과 염불암은 기도처로, 삼막사는 전통사찰로서 나름대로의 색깔을 갖고 활동 중이다.

사찰들의 활발한 포교활동은 사암연합회로 이어지고 있다. 전체 80여 사찰 중 40여 사찰이 활동 중인 안양사암련은 각급 단체의 불자회 창립을 지원하는 한편 복지활동도 벌이고 있다.

 # 군포 인구 27만에 사찰 수는 10여 곳으로 군포 불교는 왜소한 편이다. 게다가 320여개나 되는 교회들 틈바구니에 끼여 있어 이래저래 군포 불교는 어깨를 펼 수 없는 상황이다. 더군다나 10개 사찰의 연합체인 사암연합회마저 유명무실해 활로를 찾기가 쉽지 않다.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은 사찰 수가 절대 부족인 점도 있지만, 도심포교에 걸맞는 프로그램을 사찰들 스스로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서도 정각사의 활동은 눈물겹다. 산본신도시 한복판에 위치한 정각사는 화엄불교대학을 통해 불자교육에 나서는 한편, 지역법회와 자원봉사회를 통해 불자들의 신행을 돕고 있다. 또 어린이 · 중고생 법회를 열고 있으며, 장학사업과 결식아동돕기 등 복지활동도 펼치고 있다. 최근에는 본격적인 복지사업을 벌이기 위해 지역복지기관 수탁을 위한 사단법인을 준비 중이다.

법해사 정혜사 만수사 등 도심포교당과 전통사찰인 수리사 역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나름대로의 색깔을 찾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 과천 정부종합청사가 들어서 있는 과천. 과천의 사찰은 여섯 곳에 불과하다. 그나마 기존에 있던 3개 사찰은 다른 지역으로 옮겨갔거나 아예 사찰을 다른 용도로 매각했다.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사찰 운영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땅값이 비싸고 그린벨트로 묶여있는 곳이 많아서 사찰이 들어설 여지도 없다.

다만 최근 들어 사격을 갖춘 보광사는 과천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하며 본격적으로 포교에 뛰어들 채비를 하고 있다. 과천종합청사 불자회와 유대관계를 갖고 불교세 확대에도 신경을 쓰고 있다. 과천 불교가 지금보다 더 나아지기 위해서는 서울 등지로 빠져나가는 지역 불자들을 얼마나 흡수하느냐가 관건. 이와 함께 연주암이 제 역할을 하고, 보광사가 기획하고 있는 신행 프로그램이 얼마나 좋은 반응을 얻느냐도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명우 기자



안양 지장선원이 운영하는 안양불교대학의 수업 모습. 안양불교는 신도교육을 통해 생활불교를 정착시켰다.

지역불교 이끄는 주역들

대학원대학교 설립 등 교육 앞장

덕해 스님 (안양 보장사 주지 · 안양시노인복지센터 이사장)



교육과 복지 불사에 남다른 원력을 세우고 중생교화에 진력해 온 덕해 스님. 스님의 이력에서 그 삶이 고스란히 묻어난다.

1968년 보장사를 창건하고 이후 재단법인 불교안양원을 설립, 지역포교에 앞장섰다. 1990년부터는 보문학원 이사장으로서 불자양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2002년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를 설립해 불교학 및 인접학문 발전에도 주력하고 있다.

또 2000년부터는 안양시노인복지센터 운영을 맡아 지역복지에도 기여하면서 스님들과 지역민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다. 여자 중 · 고등학교를 설립하거나 인수해서 본격적인 미래불자 양성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정성·열정'으로 국내외 포교 지원

혜원스님 (안양 한마음선원 주지 ·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한마음선원의 수행(신행)과 포교 시스템은 누구나 인정하고 있듯이 전국 최고. 문제는 어떤 자세로 그 시스템을 운영하는가이다.

혜원 스님은 그것을 말이 아닌 실천으로 보여준다. 바로 '정성과 열정'. 불자들에게는 작은 부분까지 배려해 줄 정도로 더없이 자상하고, 일에 있어서는 몸을 살피지 않을 정도로 열정이 대단하다. 이런 자세로 불자들과 지역민들을 대하는 것 자체가 훌륭한 포교라고 안양 불자들은 말한다.



신행단체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불교 신행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지역포교뿐만 아니라 전국 주요도시에 위치한 15개 지원과 미국 캐나다 등 10여개 해외지원에 대한 지원과 관리에도 한 치의 소홀함이 없다.

복지시설 15곳 통해 불법 전파

종훈 스님 (과천 보광사 주지 · 과천사암연합회장)



1996년 보광사 주지로 부임한 종훈 스님은 지금까지 대웅전과 명부전 요사채 등의 불사를 통해 규모에 비해 초라했던 보광사를 사격을 갖춘 사찰로 재건했다. 이제는 과천 불자들이 여유롭게 신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과천사암연합회장으로서 과천종합청사불자회 활동을 후원하는 등 지역불교 발전에 기여했다는 평이다. 종합복지관, 청소년 수련관, 어린이집 등 15개 시설을 보광사 명의로 위탁관리하면서 불교복지에 매진하고 있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원으로도 활동 중이다.

지역불교 발전위해 동분서주

일광 스님 (안양 서광사 주지 · 안양사암연합회장)



일광 스님은 사병 신분으로 육군종합행정학교에 법당(호국귀의사)을 만들었을 정도로 강한 추진력을 지니고 있다. 안양에서 20년 동안 포교활동을 해오고 있으며, 2년 전부터 안양사암련 회장을 맡아 지역불교 발전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지난 연말, 자비의 쌀 나누기 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안양의 70여 사찰을 직접 방문했을 정도.

새 법당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불교유치원을 통해 새싹불자를 길러내는 것이 꿈이다. '대한민국 서예대전' 등 5개 대회에서 입상했을 정도로 붓글씨에도 능하다.

재소자 교화 3차례 장관표창

도광 스님 (안양 도광사 주지 · 안양사암련 부회장)



온화한 인품으로 안양불교 화합과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안양사암련 부회장 도광 스님. 1985년 도광사를 창건한 이래 20년간 한결같이 지역불교 발전을 위해 매진해왔다.

20년 간 안양교도소 불교종교위원으로 재소자 포교를 벌여왔으며, 10년 넘게 안양경찰서 경승과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종교지도위원으로도 활동하면서 법무부장관 표창을 세 차례나 수상했다.

도광사가 위치해 있는 안양 5동의 주민자치위원을 맡아 지역민들과 함께 호흡하며 '다가가는 포교'를 실천하고 있다.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포교 프로그램 다양화를 계획 중이다.

안양불교대학 졸업생 1천명 길러내

현호 스님 (안양 지장선원 주지)



현호 스님은 1999년 안양 도심 한복판에 지장선원을 열고 안양불교대학을 개설, 불자교육에 주력하고 있다. 지금까지 1천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 안양 불교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수행과 생활은 하나가 돼야 하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철저한 교육이 필수적이라는 소신이 확고하다. 35명의 초 · 중 · 고 · 대학생을 유발상좌로 두고, 자체어린이법요집을 만드는 등 어린이 · 학생 포교에도 열정을 쏟고 있다. 안양 31개 동의 소년소녀가장과 독거노인 31명과 결연해 이들을 후원하고 있다.

'정각사'를 군포 포교 1번지로

정엄 스님 (군포 정각사 주지 · 동국대 강사)

교육 · 신행 · 복지 · 어린이 · 청소년 등 모든 분야에서 적극적인 포교활동을 펼치며 5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정각사를 군포의 포교 1번지로 만들었다. 정엄 스님은 더불어 사는 삶을 통해 성취감과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포교방법이라는 소신을 가지고 있다. 군포시청불자회와 군포경찰서불자회를 창립하는 등 군포 불교 발전에 기여했으며, 경기남부지역 불자회 창립도 추진 중이다.



일본 동경대학원에서 인도철학과 불교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학자로, 중앙승가대 교수를 역임했으며, 현재 동국대 강사를 맡고 있다.

공무원 불자회 발전에 한 몫

송도근 (과천종합청사불자회장 · 공무원불자연합회 부회장)



과천종합청사불자회는 건교부 · 복지부 · 농림부 · 환경부 · 공정거래위원회 · 과천시청 등 6개 행정기관의 불자회가 모인 단체. 이 단체를 8년째 이끌고 있는 송도근 회장은 뛰어난 리더십으로 회원들로부터 전폭적인 신뢰를 받고 있다. 신심이 두텁기로 소문난 송 회장은 회원들에게 경전을 직접 강의할 정도로 불교이론에도 해박하다.

전국공무원불자연합회 부회장 겸 사무총장을 맡아 공무원 불자회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

현 시대의 병은 어디에서 왔느냐?

성인병의 신효한 三淨丹(삼정단)



천지기운이 돌아가는 법칙을 알아야 세상의 시대 변화를 알겠으니...
오랜세월 산사에서 토굴을 짓고 살면서 동양철학, 운기학(運氣學), 민간 약초만 연구하여온 삼정스님 시대가 변하면 병도 변하고 그시대에 따라 먹는 음식도 약도 변해야 된다고 한다. 현대의 병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왔느냐? 공기, 수질, 농약, 중금속오염 등 각가지 공해와 오염의 독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온 일류가 자연의 법칙을 거역한 죄로 예전에 없던 각가지 중병을 앓으며 죽어가고 있다. 이 가공할 죽음의 질병들 앞에 우리인간은 완전 무력하다. 옛날 의서에도 세상이 변하는데로 약을 쓰라고 했다. 지금은 화(火)의 기운이 성한 시기다. 〈음양오행의 화 (火)〉
모든게 불 세상이다. 신경성 질환, 당뇨, 혈압, 암등 각종 장기의 염증등 전체가 화에서 일어난 병이니 불을 끄려면 자연의 이치상 물을 부어 불을 끄는 이치와 같으니 오염의 독을 해독하고 나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켜 스스로 병을 치유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삼정스님은 우리 인체의 신진대사를 촉진, 기혈(氣血)이 원만이 행기(行氣), 활혈(活血)하고 정심(正心), 삼합일이 되어야 건강한 정신, 건강한육체를 가지게 된다하여 삼정단이라 이름을 붙여 각가지 병들로 인하여 체질이 허약하고 신체의 리듬이 깨져 온갖 성인병으로 몸이 쇠약하여 고생하시는 분을위해 삼정스님은 우리 나라 깊은 산속에서 자생하는 석남엽, 구지뽕나무 등 각가지 열매나 뿌리를 어렵게 법제과정을 거친 그 결실을 불자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상담문의 : 053-652-3300

맑고 향기로운 세상 자연식의 집

자연식 식이요법 암(癌) 성인병전문수양원

– 음식물과 생활을 바꾸지 않는 限 근원적 치유는 불가능하다.

달성 가창 우미산 황새골에 위치한 자연식의 집은 산림욕을 즐길 수 있는 울창한 숲과 깨끗한 공기 우미산과 삼성산 사이에서 흐르는 계곡의 맑은 물 따스한 햇볕 다양한 산책로와 등산로가 있어 숲속의 정취를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산림자연 쉼터이며, 수양원으로서는 최고의 조건을 갖춘 위치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본원은 자연치료원리에 의한 자연 식이요법과 원장님의 30가지 음식 처방에 따라 현대의학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각종 성인병 및 질환에 일체의 약물 조미료를 쓰지 않고 생활환경과 습관을 개선하여 인체의 생리작용을 변화시키고 면역기능을 향상하며 조직의 향상성을 높여 질병의 증상을 예방하고 자연치유력에 의하여 병이 스스로 고쳐지도록 도와주는 곳입니다.

나무약사여래불 나무약사여래불 나무약사여래불

맑고 향기로운 세상 전화 053)767-0036

각 총림 을유년 해제법어(요약) 법어 전문은 www.buddhanews.com

불조의 명맥이요 선지식들의 쇠망치질이로다



법전 스님
(조계종 종정 · 해인총림 방장)

조주선사께서 해제 때 만행을 하다가 어떤 암자에서 문을 두드리며 말하였습니다. "누구 있는가? 누구 있는가?"

암주가 문을 열면서 즉시 주먹을 내미니 선사가 말하였습니다. "물이 얕아서 배를 댈 수가 없구나." 그리고는 바로 그 암자를 떠났습니다.

또 다른 암자에 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 있는가? 누구 있는가?" 이 암주도 역시 주먹을 내밀거늘 선사가 말하였습니다. "잡을 줄도 알고 놓을 줄도 알며, 죽일 줄도 알고 살릴 줄도 아는구나." 그리고 그 암주에게 절을 한 후 선사는 바로 그 암자를 떠났습니다.

조주선사께서 두 암주에게 '있느냐?' 고 물었고 암주 모두는 주먹을 내밀었습니다. '암주가 있느냐'는 말은 문안의 인사말이 아니라 본래모습인 주인공을 상실하지 않고 자유자재한 경지에서 살고 있는가 하고 묻는 말입니다. 두 암주가 주먹을 드러낸 것은 불법의 경지에 대한 자기의 안목을 드러내 보인 것 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암주가 똑같이 주먹을 쥔 손을 내밀었는데, 조주선사께서는 한 쪽은 인정하고 다른 한쪽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까닭이 무엇입니까? 똑같은 질문에 똑같은 대답을 하였는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까?

만약 해제납자들이 두 암주의 우열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아직 참선수행의 안목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만약 두 암주가 우열 없이 동등하다고 할지라도 그 역시 참선수행의 안목이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화두에 대하여 꼭 들어맞는 올바른 한마디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곧바로 조주선사의 자유자재한 법문을 체득하여 지혜의 작용을 일으키기도 하고 번뇌 망념을 떨쳐버릴 수 있는 대자유를 얻을 것입니다.

금일 해제대중은 한 철 동안 지은 살림살이로 여기에 대하여 분명한 한 마디를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한철살림살이로 제대로 된 한마디를 할 수 없는 납자라면 만행길에 이 화두도 함께 걸망 속에 짊어지고서 같이 다녀야 할 것입니다.

불조명맥(佛祖命脈)이요
열성겸추(列聖鉗鎚)로다
환두이성(換斗移星)이요
경천위지(經天緯地)로다

불조의 명맥이요
많은 선지식들의 쇠망치질이로다
북두가 옮겨가고 별자리마저 바뀌니
하늘을 거머쥐고 땅을 주름잡는구나.

마음 묶는것도 푸는것도 그대

원담 스님
(덕숭총림 수덕사 방장)



오늘은 하안거를 마치는 날인데 견허(見虛)가 있다면 좋은 일이 지만 없다면 삼세제불과 선지식인 모든 조사들께 참회를 해야 되느니라

해제란 얽힌 것을 푼다는 것인데, 무엇을 풀어야 하는가! 마음을 묶은 것도 그대들이요 푸는 것도 그대들이라 혜가 조사의 불안한 마음을 풀어 준 것은 달마 조사가 아니라 다만 병아리가 알에서 나올 때 그 힘이 미치지 못하는 것을 어미 닭이 밖에서 쪼아 준 것과 같느니라.

대중들은 들어라! 무명의 풀 섶을 헤치고 도 바람을 쏘이되 자성을 보지 못하면 어찌 하려는가! 세월은 급히 흐르는 물위에서 공을 찬 것과 같고, 번갯불빛에 바늘 귀 꿰는 격이니라.

수행의 요결은 없는 것이니 다만 그릇됨, 산란함, 어리석음이 없이 정진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분별심을 갖지 말라. (후략)

한마음 깨치면 더이상 얻을것 없네

수산 스님
(고불총림 백양사 방장)



원오 스님이 이르되, 법당을 내걸고 종지를 세우는 것은 비단 위에 꽃을 까는 것과 같다.

굴레를 벗고 짐을 풀어 놓으면 태평시절을 맞을 것이다. 만약 격외구를 터득했다면, 하나를 들어 셋을 밝혀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옛 사람의 처분을 잘 들어라.

백장 스님 이르되, 한마음 깨치면 다시 작은 법도 얻을 것이 없으니, 이야말로 참된 부처요, 부처와 중생은 한마음으로 다름없음이니 이것이야말로 참된 부처이다.

부처와 중생이 한마음으로 다름없음은 허공과 같아서 이것에는 잡됨도 무너짐도 없으나, 도를 배우는 사람은 이 마음 바탕을 깨닫지 못하고, 문득 마음에서 마음을 내고, 밖에서 부처를 구하며, 모양에 집착하여 수행을 하고 있으니, 모두가 악법이지 깨닫는 도가 아니다. (후략)

머리에 붙은 불 끄듯 도 구하라

보성 스님
(조계총림 송광사 방장)



구거암실 미도혜광
(久居暗室 未覩慧光)
대야장거 기불사효
(大夜長居 豈不思曉)
어두운 방에 오랫동안 있으면서 지혜의 광명을 보지 못하고
항상 긴 밤에 살면서 왜 새벽을 생각하지 않는가?

필수망신위도 여구두연(必須忘身爲道 如救頭燃)
포환난기 촌음가석(泡幻難期 寸陰可惜)

반드시 몸을 잊고 도를 위하되 머리에 붙은 불을 끄듯 하라

물거품과 허깨비는 기약하기 어려우니 한 치의 세월도 아껴야 한다.

그간 지냈던 선방 한번 쓸어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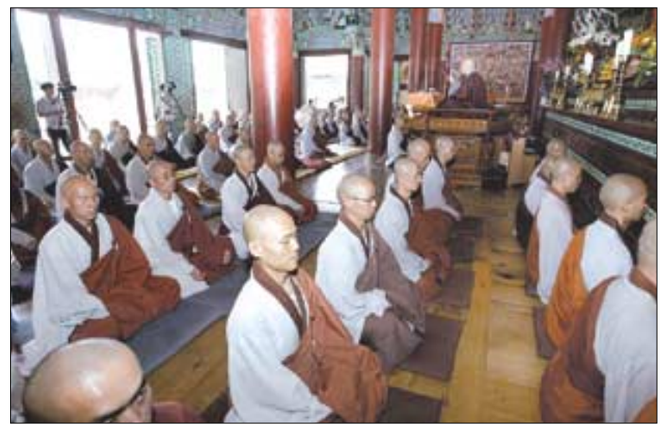
지허 스님
(태고총림 선암사 칠전선원장)



지난 결제 때 올 여름 안거는 일생에 없었다는 결심으로 만사를 다 제쳐두고 조사관을 단연코 투득하고야 말겠다 했는데 어느새 해제가 되었습니다.

성과의 심천은 내버려두고 무더운 여름에 선방에 앉아 애 많이 쓰셨습니다. 이 해제법회가 끝나는 대로 걸망을 메고 일주문을 나서 행각하는 납자도 있고 선원에 남아 정진하는 납자도 있을 것입니다 마는 그래도 그간 지냈던 선방이나 한번 빗자루로 쓸어내고 깨끗이 청소하고 가는 것이 수행자의 도리이겠습니다.

육조 스님의 제자인 영가대사라는 분이 선방에 버려둔 쓰레기를 아직 치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쓰레기나 한번 치우는 것이 어떠한지요?(후략)



불기 2549년 하안거 해제를 맞는 조계총림 송광사. 8월19일 방장 보성 스님이 하안거 수행을 마친 납자들에게 해제법어를 내리고 있다. 사진=박재완 기자

목우가풍으로 날려버린 무더위

하안거 해제 현장 –조계총림 선원

8월 19일, 불교의 5대 명절 가운데 하나인 우란분절이자 을유년(乙酉年) 하안거 해제일이다.

이른 아침, 남도땅 조계산 송광사에 대중을 모으는 대종소리가 울리고, 조계총림 선원과 산내 암자, 근원거리에 있는 선방 수좌들이 대웅전에 모였다. 지난 하안거 기간동안 '허물은 없었는지' 대중에게 고하는 포살을 하기 위해서다.

참회와 가행정진을 다짐하는 <범망경>독송에 이어 "한 치의 세월도 아껴 공부하라"는 방장 스님의 해제법어에 대중 모두가 허리를 곧추 세웠다.

조계총림 선원에서 이번 안거를 지낸 수좌는 수선사(修禪社) 15명, 문수전(文殊殿) 15명 등 모두 30여명. 90일전, '걸어서 들어오라'는 송광사 규율에 따라 모두가 바랑을 걸쳐 메고 산문에 들어섰다.

이들을 처음 맞이한 것은 계곡위에 자리한 청량각(淸凉閣)이다. 청량각 대들보에는 두 마리의 용이 있으니 산문에 들어서는 용은 여의주가 없고, 산문을 나서는 용은 여의주를 물고 있다. 한 철 살고 나갈 때 '깨달음' 이란 여의주를 물고 가라는 경책이다.

조계총림 선원은 보조국사 지눌 스님이 정혜결사를 이곳 송광사로 옮기고 수선사라 이름하면서 역사의 전면에 나타났다. 중국 선법을 이은 구산선문과 달리 보조국사가 독자적 선풍을 확립한 도량이기에 남다르다.

이후 수선사의 선맥은 도도히 흘러 16국사를 배출하며 '승보종찰'로 거듭났다. 근세에 들어서는 1900년 한국선불교의 중흥조 경허 스님이 '삼일선원'을 개설했다.

이후 효봉, 구산 스님으로 이어지는 선맥은 1969년 조계총림으로 지정되어 명실상부한 목우가풍의 종가로 오늘에 이르고 있다.

조계총림 선원의 하루는 새벽 2시에 열린다. 일단 정진에 들어가면 산문밖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다.

여느 선원과 달리 반 철을 맞아 갖는 산행도 없다. 포행중에도 산문 경계인 청량각을 넘지 못한다. 어른스님에서 행자에 이르기까지 음식이 똑같은 '평등공양'도 목우가풍의 하나이다.

'소치는 목동(牧牛)'들이 모인 조계총림은 외호대중들도 수행에 있어 한 마음이다. 텔레비전이 없고 핸드폰이 통하지 않으니 일단 도량에 들어서면 절해고도와 다름없다.

선승들이 안거를 나는 수선사는 승보종찰에 걸맞게 대웅전 뒤 부처님보다 윗자리에 자리해 있다. 규모가 40여 평에 불과해 고참 납자가 아니고서는 방부들이기조차 어렵다.

초심자와 가행정진을 원하는 수좌들은 문수전에서 정진한다. 문수전은 외국 수행자들을 위해 개설된 불일국제선원이 자리했던 곳으로 수선사보다 하루 2시간 더 정진한다.

'100년만의 더위'라는 지난 여름, 조계총림 선원의 대중들은 이렇게 한 철을 났다. 만행에 앞선 수좌들에게 해제법어를 내리던 조계총림 방장 보성 스님의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반드시 몸을 잊고 도를 위하되 머리에 붙은 불을 끄듯이 해야 합니다. 한 치의 세월도 아껴 능히 내 것을 만들어서 쓸 수 있는 날까지 오직 정진하기 바랍니다."

순천 송광사=이준엽 기자

수맥파 차단카드 나왔다

자고나면 머리 맑고 컨디션 좋아





맬토차단캡

왜! 수맥파를 차단해야 하나?

일본의 산업의학연구소는 수맥파가 흐르는 곳을 만병의 근원이 된다는 뜻에서 **"병인성지대"**라는 표현을 쓴다. 수맥파는 투과력과 침투력이 강해 모든 물질을 관통하고 종파로 발산되어 생체리듬을 교란시켜 수맥파가 흐르는 곳에서 장기간 살게되면 체질에 따라 각종 질병을 유발 할 수 있다. 한국수맥파연구회에서 제작한 멜토수맥파 차단카드는 간편하게 안방 침대 바닥에 놓고 멜토차단캡은 거실 구석에 고정시켜 놓으면 종파로 올라오는 수맥파를 중화시키며 차단한다. 가격75,000원 **문의(02)741-4477**

옴마니 밤매훔 건강밸트

축복의 밸트!
성공의 밸트!
지혜의 밸트!



음양의 조화로 만사가 형통된다는 옴마니 밤매홈 건강밸트가 불교 법구전문업체인 불광사에서 출시되어 화제가 되고 있다. 세상 사는 동안 악인을 만나지 않고, 정의롭게 살며, 나쁜곳에 빠지지 않으며, 어려움에 처해 있을때 3불의 지혜를 받아 해결되고, 동서남북의 복을 받아 시작부터 끝이 하는일 마다 풍요롭게 되는 뜻을 담은 법구밸트다. 또한 일반밸트와는 달리 건강기능을 갖춘 밸트로 신진대사를 촉진하는 음이온과 원적외선이 발산되며 허리와 장과 간을 튼튼하게 하는 맬토에너지까지 발산되는 천연가죽으로된 고품격 고급밸트로 만사 형통하는 선물로 품위가 있다. 전화로 신청하면 정성껏 보내준다. 가격75,000원
문의(02)741-4488
농협053-12-102911

평생 부자지갑

관세음보살 福지갑 출시

원하는 재물과 땅과 땅속에 있는 보물까지도 얻으리라!

존경하는 분께 사업성공의 선물!
사랑하는 아내에게 평생부자의 선물!



여성용銀나노장지갑 (진보라색)
남성용반지갑 (검정색)

고급케이스에 있어 선물로도 품격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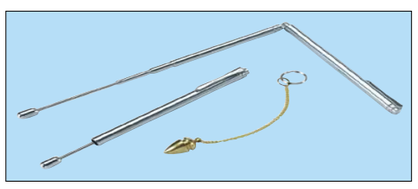
관세음보살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중생들의 고민과 고통을 해결해주고 소원을 성취시켜주는 부처님이다. 세상사는 동안 제일 큰 고통이 재물로 인한 고통으로 이것을 해결해주는 영험의 비방이 관세음보살 여의주 수진언이다. 재물이 없어 고통을 받고 있는 중생이 관세음보살 여의주 수진언을 몸에 지니고 성심으로 기도하면 곧 보배 재물과 땅과 땅속에 있는 보물까지도 얻으며 가지고 있는 재물이 헛대이 나가지 않는 영험을 담고 있는 법구다. 법구제작전문 불광사에서 기도와 축원불공속에 만든 **관세음여의주 수진언 복지갑**은 지갑 앞면에 재물로 인한 고통을 해결하고 재물을 들어오게하는 영험의 여의주수진언을 부착하고 내부에는 **만사를 방해하는** 악귀와 잡귀를 물리치는 삼고금강저를 순금도금해 넣어 소원을 이루게 했다.

고급천연銀나노 가죽으로 일반지갑과는 비교될수 없게 섬세하게 꾸며져 평생 사용할 수 있으며 출시 6개월도 안돼 **관세음보살의 영험**으로 아주 어렵던 사업과 장사가 잘되고, 못받을 돈이 들어오고, 부도 직전에 귀인을 만나고, 제조업은 만들면 팔리고, 부동산과 증권으로 큰 돈을 버는등. 숫한 화제를 낳는 지갑이다. 여성용보라색은 성공과 번영을 뜻하며 여성이 항상 지니고 다니면 가정이 번영하고 사업장은 재물이 끊이지 않는 다는 뜻을 담고 있다. 전화로 신청하면 축원불공을 드리고 보내준다. 남성용55,000원 여성용95,000원
전화(02)741-4488
농협053-12-102911

수맥 탐지기 엘로드 배우기 열풍

출장수맥 및 수맥파 감정 개업 또는 주말부업 노후 대책으로 인기

누구나 집에서 쉽게 배울 수 있어 인기





수맥파가 질병의 원인이 된다는 연구발표가 속속 밝혀지면서 수맥탐지기 엘로드를 배우려는 직장인과 부동산 중개사들까지 열풍이 일고 있다. 우리집 땅속에는 수맥이 흐르지 않나 하는 의구심에 수맥감정을 문의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고 있다. 선진국에는 수맥감정사무소가 많이 있으며 일본같은 경우 수맥 감정법인까지 있다. 우리나라에는 수맥감정을 하고 싶어도 의뢰할 때가 없다. 환경오염으로 깨끗한 식수를 찾으려 해도 땅속에 있는 물줄기를 정확히 찾는 전문가가 몇명안돼 이곳저곳을 뚫기 일수다. 수맥탐지 기술만 배우면 수맥감정 사무실을 오픈해 홍보만 조금해도 재 투자가 전혀 없는 평생 안정된 부업 또는 사업이 될것이다. 氣의 입자파장에서 세상물체가 인지 반사반응을 일으키는 파장이므로 오랜경험에 의해 감지하는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수맥과 수맥파를 탐지하는 엘로드의 발달로 수맥과 수맥파는 일반인들도 집이나 들에서 예민한 銀나노 엘로드로 연습하면 찾아 낼 수 있다. 그림1 같이 엘로드를 가지고 집안곳곳을 탐사하다보면 그림2와 같이 엘로드가 모이게 된다. 이곳이 수맥이 흐르는 곳으로 그곳에 멜토 차단캡을 놓고 다시 해보면 그림2 모양이 아닌 그림1 같이 된다면 그곳이 수맥이 흐르는 곳이다. 정신집중이 잘되지 않는 사람은 수행하는 마음으로 연습하면 된다. 전국 氣기능대회 최우수상을 수상한 KSO 銀나노 엘로드와 탐사추 및 수맥탐지연습용 멜토차단캡과 수맥탐지법책 셋트 가격65,000원
문의(02)741-4477
농협053-12-102911

금강저의 영험

험한세상 화를 미리 쫓는 수호신



왜! 금강저를 가지고 다녀야 하나?

삼고금강저는 인드라신(神)의 밀교의식에 쓰이는 불퇴전의 승리의 수호신으로 만사를 방해하는 악귀와 잡귀를 물리치고 닥쳐올 화를 미리 쫓으며 영험의 지혜인 금강의 지혜를 받아 승리한다는 부처님 위신력의 법구다. 1분앞도 모르는 험한세상, 납치, 강도, 강간, 유괴, 각종사고등 근심과 걱정속에 사는 현실이다. 군에 있는 자녀, 딸자녀, 경찰관, 직장인, 학생, 위험한 일을 하고 있는 분, 가정주부등 가정과 가족의 안전을 지키는 영험의 수호신으로 여성은 핸드백속에 학생은 가방속에 남성은 지갑속 또는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 있도록 순금처리하여 축원불공을 마치고 불광사에서 전화로 판매하고 있다. 가격25,000원
문의 (02)741-4485 농협053-12-102911

가족과 함께하는 서악사 음악회 대구 BBS 공개방송
●출연 : 정수라, 해바라기, 김범룡, 조항조, 박경진, 장태민
●특별출연 : 도일스님, 일봉스님, 코리안팝스오케스트라
대구불교방송 문의 053)427-5114
일시 : 8월 24일 오후 7시
장소 : 예천 서악사

BBS 춘천불교방송 FM100.1MHz
음악이 있는 오후 오후 3:05 ~ 4:00
감자바우 황금바우 오후 4:10 ~ 4:45

남북청년들 '통일일꾼' 됩시다


통플스테이 정우식 준비위원장(맨 오른쪽)등이 통일노래에 맞춰 율동을 하고 있다.


통플스테이에 참석한 청년불자들이 신계사 대웅전 부처님께 통일 108염주를 올리고 있다.

남측 청년불자 108명 금강산 건봉사 · 신계사서 평화통일 발원

제1회 통일템플스테이 현장

광복 60년을 맞아 청년 불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남북 통일을 발원하는 행사가 진행됐다.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본부장 명진)가 주최하고 대불청 통일추진위원회와 조계사 청년회가 주관한 가운데 8월 13~16일 금강산 건봉사와 신계사 일원에서 열린 '제1회 통플스테이'가 바로 그것이다. 통플스테이는 '통일템플스테이'를 줄임말.

통플스테이 준비위원회 정우식 위원장은 "광복 60주년과 6 · 15 공동선언 5주년을 맞아 청년 불자들이 통일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지를 함께 고민해보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통일합시다

8월 13일 오후 3시 간단한 교육 후 전국에서 모인 10대~50대까지의 '청년' 불자 108명이 3대의 버스를 타고 통플스테이 첫 번째 장소인 고성 건봉사를 향해 출발했다. 그러나 마음과 달리 서울을 빠져나가는 것이 쉽지 않다. 차가 막힌다고 해서 가만히 있을 청년들이 아니다. 각각의 버스에서는 통일노래 배우기가 시작됐다.

"가장 늦은 통일을 가장 멋진 통일로~~",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우리가 통일합시다~~" 처음 듣는 노래지만 왠지 가사가 마음에 든다. 조계사에 다니는 할머니의 권유로 참가한 최희성(20 · 경기도 평택시 서정동)씨는 몸을 들썩이며 열심히 노래를 배운다.

#"통일도 보시야 보시!"

7시간 만에 도착한 건봉사에서 첫날을 보낸 불자들이 새벽부터 건봉사 만일염불원에 모였다. 통플스테이 입제식을 진행하기 위해서다. 입제 법문에 나선 건봉사 회주 영도 스님은 통일을 주제로 청년 불자들이 한 자리에 모인 것이 대견했든지 뿌듯한 표정을 감추지 못한다. "통일도 보시야 보시. 남쪽이 좀더 잘 살잖아. 이제는 우리가 보시를 하면서 통일을 준비해야 해!" 시원한 아침공기만큼이나 명쾌한 영도 스님의 법문에 참가자들은 환호와 함성으로 응답한다.

곧이어 진행된 동국대 북한학 연구소 김용현 전임연구원의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한 모색과 전망' 특강. 김 연구원은 "6자회담이 재개되고 6 · 15, 8 · 15행사가 원만히 진행되는 현 상황에서 냉전의 잔재를 해소하고 민족의 화해와 협력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라고 역설했다. 1시간여 진행된 강연이 끝나자 참가자들은 "백두산 관광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8 · 15대축전에 참가하는 북측대표단이 국립묘지를 참배하는 것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는 등의 질문을 쏟아냈다.


동국대 김용현 박사의 강연을 듣고 있는 통플스테이 참가자들.

#정성으로 통일 108염주를 꿰다

특강이 끝나고 참가자들은 건봉사 봉서루에서 통일을 염원하는 108염주를 꿰기 시작했다. 1배를 하고 염주 한 알을 꿰는 쉽지 않은 작업이다. 서툰 솜씨지만 한 알 한 알에 정성을 쏟는다. 이 때 난데없이 일요법회에 참여했던 22사단 율곡부대 김정준 병장이 봉서루에 뛰어 올라왔다. 염주를 같이 꿰겠다는 것이다.

조계사 사회국장 범성 스님 옆에 앉아 108염주를 만든 김 병장은 "3개월 후에 제대하면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해서 내년 통플스테이에 꼭 참여하겠다"고 기염을 토했다.

#3행시로 통일 발원

14일 오후 건봉사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드디어 금강산에 도착했다. 대부분 북한땅은 처음이다. 이번 통플스테이에 최연소로 참가한 경배(16 · 과천 문원중 3)는 "통플스테이를 계기로 주위 친구들과 통일에 대해 많은 얘기를 나눠볼 생각"이라고 말한다.

여장을 푼 참가자들은 다시 해금강호텔 연회장에 모였다. 이번 프로그램은 통일 3행시 짓기. 금강산과 신계사를 제목으로 시를 짓기 위해 다들 여념이 없다. 9개조의 대표 3행시와 각 조원들의 3행시가 발표된 가운데 금강산을 주제로 한 8조와 남윤경씨(29 · 서울시 성동구 금호동)가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남씨는 "**금**은보화 다 줄테니 내말만 들어라 **강**대국의 농간에 허리 잘린 한반도 **산**도 알고 강도 아는 조국의 아픔 통일발원으로 날려버리자"를 발표해 참가자들의 열렬한 박수를 받았다.

#내년엔 남북청년 함께 하길…


8월16일 해금강에서 통일을 발원하는 청년불자들.

서울에서 성대한 8 · 15민족대축전이 진행되던 8월 15일. 통플스테이 참가자들은 복원불사가 한창인 금강산 신계사를 찾았다. 아직 제대로 된 모습을 갖추지 못했지만 방문 자체가 무한한 영광일 뿐이다. 버스에서 내려 삼보일배로 대웅전까지 간 참가자들. 더위로 샤워를 한 것처럼 굵은 땀방울이 쏟아진다. 자리를 정리하고 '청년불자 통일 기원 법회'가 시작됐다.

신계사 도감 제정 스님은 환영사를 통해 "북한 내 68곳의 사찰이 복원되고 또 다양한 문화교류를 통해 통일의 초석을 다질 수 있도록 청년 불자들이 더욱 정진해 달라"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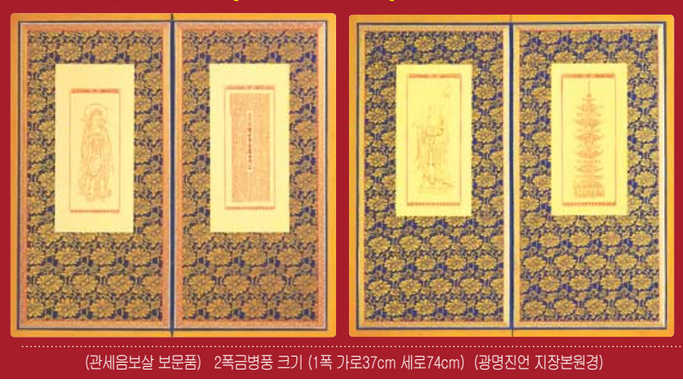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은 봉은사 포교국장 견진 스님이 대독한 법어를 통해 "남과 북이 무차화합의 정신으로 평화통일을 이룩할 수 있도록 청년불자들이 혼신의 힘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통일기원 108배를 올린 참가자들은 미리 준비한 통일발원문과 통일염주를 부처님께 올리며 진정한 통일일꾼으로 거듭날 것을 다짐했다.

빡빡한 일정을 마치고 마지막 날 해금강을 찾은 청년 불자들. 이들은 결코 나눠질 수 없는 검푸른 바다를 보면서 내년에는 반드시 남북청년들이 함께 통일을 발원하자고 한마음으로 기도했다.

글 · 사진/금강산=유철주 기자

불경, 금책, 금병풍

실물크기(3.5×5cm, 5×7cm)
금강경 24매 · 천수경 12매 · 반야심경 8매

(관세음보살 보문품) 2폭금병풍 크기 (1폭 가로37cm 세로74cm) (광명진언 지장본원경)
영가천도 소장용 호신용 불사량 상복식 복장의식
금강불교예술원에서 세계최초의 99.9%순도의 금으로 만든 초소형 불경금책을 제작보급 하여 화제다. 불경금책은 금강경, 반야심경, 천수경, 묘법연화경, 관세음보살보문품등이 있으며 3.5×5cm 5×7cm 7×10cm 크기로 있어 소장 및 휴대가 가능하며 기타 용도로 사용한다. 불경을 휴대하는 것만으로도 부처님의 공덕과 불심으로 가피를 입을 수 있으며 호신용으로도 최고다. 큰스님 법어, 법구경도 크기별로 주문제작 한다. 소법당, 스님방, 불자님의 가정에 개인소장용으로 기도정진 재례용 등 여러 용도로 사용 가능한 최고급 금병풍(관세음보살보문품, 광명진언 지장본원경)도 제작 판매한다.
● 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은 02)722-1850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
열침의효능
은행석 온열복대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 하면 질병의 원인이 된다.
원적외선 "침"의 효능 ! 신비로운 은행석 온열복대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며 3대 특산품의 금강약돌이 주성분인 최고의 기능성 건강 치료기 은행석 온열복대는 약돌이 70~80℃이상의 고열이 발산 뱃속 깊숙이 원적외선 "침"을 맞는 효능과 34개의 쑥뜸을 동시에 시술받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복대하고 편안하게 앉아만 있어도 장속의 노폐물 배출, 하복부 지방분해,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변비, 생리통, 냉대하등을 자연 치유력 하며 당뇨 및 성기능개선 등에 효과가 있습니다.
♦ 오랫동안 참선기도 하시는 분 ♦ 허약한 氣회복 ♦ 생리통 허리통증 완화
♦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 의자에 앉아 장시간 업무를 보거나 공부하는 수험생의 디스크 허리교정
♦ 산후조리, 수술후 요양중이신분에게 적극권장 · 아랫배가 냉하신 분
건강에도 최고! 선물로도 최고!

생명의 빛 생명의 氣
원적외선 "침" 쑥뜸의효능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오장 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은행석 온열복대는 고열의 원적외선 "침"이 뱃속 깊숙이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 되며 뜨겁게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허리, 발바닥온열 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등 다용도로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하며 저렴한 가격의 은행석 온열복대 사용으로 건강을 지키고 암과 질병 등을 예방하고 장수하세요.
문의전화 : 닥터금강 (02)3210-3178,9 www.dk21.net
♦ 입금계좌 : 농협 170-12-056037 정애영 ♦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합니다.

부다피아 하와이 영어 · 문화체험 캠프 현장

공부 · 견학 · 놀이 … 평생 못 잊을 거예요


브라이언 선생님의 영어강의를 재미있게 듣고 있다.


폴리네시아 민속촌에서 외국인들과 어울려 민속춤을 관람하고 있는 참가학생들.

'알로하~'

7월 28일 오전 10시 하와이 호놀룰루 공항. 현대불교신문사(사장 김광삼)와 하와이 무량사(주지 도현)가 공동주최하고 재단법인 보덕학회(이사장 김영규)가 후원한 어린이 청소년 문화체험캠프 참가단 20명이 공항에서 나오자 무량사 주지 도현 스님을 비롯한 불자들이 손수 레이(꽃목걸이)를 목에 걸어주며 하와이 인사말로 반긴다.

호놀룰루시 팔롤로 거리에 위치한 무량사 문화원에서 곧바로 열린 입제식에서 도현 스님은 환영사를 통해 "하와이 사람들은 길을 걸을 때 오른쪽으로 다닌다. 또 이곳 사람들은 인사와 양보를 잘한다.

이런 것들을 유심히 보면서 서로 다른 문화를 공유하며 살아가는 공생의 길을 익혔으면 한다"며 "영어를 못해도 자신감을 갖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주문했다.

입제식후 곧바로 영어학교 디렉터(책임자)인 하와이주립대 김민선 교수(스피치커뮤니케이션과)와 강사진인 데니(하와이주립대 석사과정), 브라이언(하와이주립대 석사과정) 선생님의 주도하에 레벨 테스트가 시작됐다. 참가학생들은 영어회화수준에 따라 반이 배정됐다.

강사진인 데니와 브라이언 선생님은 즐거운 분위기를 만들며 학생들에게 대화를 유도했고, 매일 마지막 시간은 게임식 교육으로 흥미를 유발하며 수업을 즐겁게 진행했다. 수업중간에는 현장학습도 곁들어져 개인농장 방문하기, 바닷가 체험여행, 하와이립대 방문 등의 프로그램도 진행됐다.

매일 오전에 1시간씩 진행된 특강도 인기였다. 하와이 주립대 김민선 교수는 매일 한시간씩 한국어와 영어를 반씩 섞어가며 '문화적 차이'에 대해 들려주었으며, 명원다도문화원 엘리 선생님의 다도 및 예절 강좌를 비롯 하영진 법사와 김정국 사무장의 하와이 이민역사 및 하와이 소개, 사찰소개, 불교교리 특강등이 열렸다.

옥색의 하늘, 비온 뒤 선명하게 나오는 무지개, 투명한 바다등 오염되지 않는 자연이 살아있는 하와이는 말로 표현하기 힘든 아름다움과 환상 그 자체였다.


무량사내 명원다도문화원에서의 다도교육 모습.

영어 수업과 함께 현장 학습 병행
문화 체험하며 타민족의 삶 이해

가장 많이 찾은 와이키키해변. 체험단은 에메랄드빛 바다의 품으로 들어가 화려한 색깔의 열대 물고기들과 수영을 한 뒤, 야자수 그늘에서 휴식도 취했다. 하와이 앞바다에서 거친 파도를 헤치며 보트를 타고 바다거북을 찾았으며, 다이아몬드 헤드 분화구에 올라 드넓은 태평양의 시원한 무공해 바람을 맞기도 했다.

정렬적인 훌라춤과 불춤, 하와이 기타의 선율, 평화롭고 신비로운 폴리네시안 원주민 문화는 체험단을 서서히 빠져들게 했다. 미국의 유일한 궁전인 이올라니궁과 함께 박물관과 미술관을 관람했다. 폴리네시아 민속촌에서 카누를 타고, 피지 타히티 사모아 통가 뉴질랜드등 8개국의 문화를 접했으며, 훌라춤을 배우는 시간도 마련됐다.

특히 150명의 댄서들이 출연한 '마나 우리들의 영혼'은 폴리네시아 원주민들의 삶을 이해하는데 큰 보탬이 됐다. 저녁놀이 붉게 물들 무렵 알라까이 쌍둥선을 타고 세계인들과 어울려 춤과 노래가 어우러진 파티에 참가했다.

캠프의 일정은 순식간에 지나갔다. 8월 17일 아침 이별의 인사가 이어졌다. 무량사 주지 도현 스님은 "3주동안 유익한 시간이 되었냐"며 "한국에 가서도 항상 즐겁게 생활하라" 말하며 아이들의 등을 두드려 주었다.

하와이/글=김원우 · 사진 고영배 기자



■ 참가소감

하와이에서 어학도 배우고 해변 근처에서 바베큐 파티도 하고 같이 수영, 쇼핑, 과자 파티도 하며, 즐거운 하루하루를 보냈다. 또 한번 다시 이런 캠프를 왔으면 생각한다. 〈민성홍〉

하와이 문화을 배우게 되어서 기뻤다. 이곳을 떠날려고 하니 좋고 재미 있는 곳 같다. 〈모경미〉

문화를 체험하고 외국인들과도 많은 대화를 나누는 좋은 기회를 가져서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소중한 체험과 추억들을 잊지 말고 더욱 나은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 〈권대상〉

공항에서 내릴 때부터 신기한 점이 많았다. 김민선 교수님이 말하신 '문화충격' 그대로였다. 다시 기회가 되면 오고 싶은 곳이다. 무량사 잊지 못할 것이다. 〈이가영〉

아름다운 풍경과 친절한 사람들. 풍경도 텔레비젼에서 보던 것들이 눈앞에 펼쳐지고 말로만 듣던 와이키키 해변…, 처음으로 온 해외여행이라 그런지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다. 〈김진욱〉

캠프를 와서 외국인에 대해 자신감이 생겼다. 〈백종현〉

나는 만약 다른 사람이 하와이에 갔다 와서 소감이 어떠냐고 물어보면, 나는 "무지 좋았다."고 말할 만큼 재미있었다. 〈김영진〉

캠프기간동안 재미있는 일이 많았던 것 같다. 〈배진영〉

알라까이 크루지여행이 기억에 남는다. 배 안에서 춤도 즐기고 음식도 먹고 풍경도 좋고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 같다. 〈백송이〉

하와이는 공기가 너무 좋았고 노을이 멋있었다. 추억을 만든 하와이가 생각날 것이다. 〈문소현〉

말로만 듣던 하와이가 이런 곳이구나 ~! 라고 알게 되었으며, 환경이 너무 좋아 보기만 해도 마음이 평안해 집니다. 하와이 무량사 파이팅!! 〈문석용〉

배우고 가는 게 많은 것 간다. 수영 한 것, 영어 공부 한 것, 애들이랑 논 것, 문화 체험 한 것 모두 잊지 못할 추억이다. 절, 하와이 모두 그리울 것이다. 〈김은진〉

친구가 없으면 어떻하지? 하고 걱정부터 앞섰는데, 하와이에 와 보니까, 언니들도 잘해 주었다. 〈이경경〉

나는 하와이에 와서 재미있게 놀고 구경하고 배도 탔다. 〈민희홍〉

불교의 기준을 정한다

수행학교 반냐라마 개강

부처님이 직접 행한 정통수행법인 싸띠수행(위빠싸나, 참선)과 근본불교를 통하여 마음의 휴식과 삶의 여유를 즐기세요. 수행은 자유로움과 여유로움 그리고 행복한 세계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20기 수강생 모집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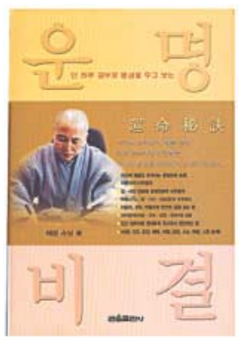
개설과목	강의내용	시간 및 장소
수행교실 I (기초반)	부처님 수행법 기초와 실기	서울 : 화 오전반 10:30 -12:30 저녁반 7:30 - 9:30
		부산 : 화 오전반 10:30 -12:30 저녁반 7:30 - 9:30
		대구 : 월 오전반 10:30 -12:30 저녁반 7:30 - 9:30
수행교실 II (완성반)	부처님 수행법의 응용과 실기	서울 : 수 오전반 10:30 -12:30 저녁반 7:30 - 9:30
		부산 : 토 오전반 10:30 -12:30
사이버수행교실	부처님 수행법 이론과 실기 ※ 강의내용은 수행교실 (기초반+완성반)과 동일합니다 (24회 강의)	www.pannarama.net
경전교실	대념처경, 법구경	서울 : 목 오전반 10:30 -12:30 저녁반 7:30 - 9:30
		부산 : 금 오전반 10:30 -12:30 저녁반 7:30 - 9:30

◆입 학 식 : 8월 29일부터 각 첫 수업시간
◆기 간 : 8월 29일 – 10월 29일(9회)
◆지도법사 : 붇ㄷ하빠–라(本願)스님
◆모집대상 : 부처님 수행법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 근본불교와 초기경전을 배우고자 하는사람
◆수업진행 : 매회 120분 수업 (60분 이론수업 + 60분 수행)

문의 및 접수 www.pannarama.net, http://반냐라마, 대표전화 011)1700–2841
서울 02)597–2841 부산 055)331–2841 대구 053)475–2841

운명비결 저자 해광스님 직강 (개인교수)

초칠일에 눈을 떠라!



– 천장비기(하늘이 숨기고 땅이 감추는)의 운명학
– 명리와 육효의 조화와 완벽한 해석
– 전문가를 위한 운명비결 전수

단, 명리, 주역 등 일체의 역학을 설 배워 그 한계를 스스로 벗지 못하는 사람은 이 학문에 쉬 범접치 마시오.

그동안 전국 각지에서 수 없이 요구해 온 운명비결 전수 희망자들을 위해 오랜 숙고 하에 운명비결을 전수하기로 결정하여 다음과 같이 교수 안내를 합니다.

● 수강신청 : 수강접수 및 등록
● 수강자격 : 스님, 포교사, 법사, 운명상담소 운영자.
● 문의전화 : 010-6252-5247 (오후 1시-7시)
● 강의일자 조정 및 통보 (등록 후 일정 조정)
※시작에서 수료까지 6박 7일

더 빠른! 더 좋은! 더 저렴한!

불자생활정보

▷ 광고문의 : TEL 02)732-1522, 2004-8213~6 / FAX 02)737-0696
▷ 계좌번호 : 농협 053-01-227471 현대불교신문사
▷ 광고가격 : 1Box(4.4×4.4) 4만원



사)대한전통불교문화예술원.예술대학
사)무형문화재 제9호 영산재 작법무
준 보유자 진하 큰스님

※ 제반의식교육 실시
각 사찰 모든 행사를 성심껏 사정에 따라 진행함
기초 불공의식 · 천도재 · 49재 · 바라무 · 작법무
051)556-1715 진하 문도회장 대명 합장

수련을 하지 않고도 바로 氣치료 능력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 수련을 하지 않고도 바로 氣치료 · 원격치료 능력자가 될 수 있는 길은 전세계에서 레이키(Reiki. 靈氣) 밖에는 없습니다. 8년 동안 스님, 거사님, 보살님등 많은 분들이 배웠습니다.
- 우스이 레이키 70만원 교육기간 2~3일
- 카루나 레이키 40만원 교육기간 1일
- 현대생활레이키 연구회 / www.reiki.co.kr
특유의 관정비법으로 전수합니다.

전화: 02)720-5719/720-5682

각 불공의식 해 드립니다

점안식	천도재 49재	수륙재	각시식	사물	작법나비춤	경전

학 인 행 자 모 집
대광명사(동양불교대학)
02)939-3327
011-9923-3329

역학개인지도
명리학,성명학,택일,풍수
개업 책임지도(고급반)
※ 스님. 특별우대 ※
반야선원. 혜공합장
02)421-8494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사찰의 각 행사 해드립니다
천도재, 49재, 점안식, 천수바라,
요공양 작법, 회심곡, 호적
행사문의
010-4870-8359
범음범패 연수원장 덕산 합장

천도재, 점안식, 49재, 바라춤
학인스님, 행자모집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불교 범음 · 범패 교육도량
대구팔공산 구화사(한티재)
010-4816-6454

불교범음범패전통의식전수자모집
부산 경남 범음 범패 불음대학
의식스님 필요시 연락 바람
교육문의 011-584-5588 법수
행 사 문 의
011-869-8560 진우

육임역학 비법전수
- 5천년 역학사 검증된 정확성
- 역학 증 자타공인 최고의 길흉적중율
- 인간사 모든 문제 길흉 예측 정단

고려육임학회(육임학 전문 학술단체)
02)816-2115
053)551-1356(011-1763-3567)

의식스님이 필요하신 곳
전통의식이 신심이 돈독해지며 영산작법과 우리말이라야 환희심과 경건, 엄숙의 극대화가 있지 않겠는가! 49재및 천도재 등 각종의식에 바라춤과 나비춤을 곁들여 적은 부담으로 보시하오니 연락바랍니다
016)9414-1525
041)571-1112~3

연꽃그림에 부처님말씀 담아 드립니다
한지에 한국화(미표구)
- 크기 : 소, 중, 대, 특대, 병풍, 부채 각종 보시용, 선물용, 판매용
- 전화주문 후 계좌송금 확인 즉시 작업 착수 등기 속달
- 입금 계좌 : 농협 150039-56-064426 이상근

연꽃화가 018-588-5698 안동 하회마을 입구 한지마을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서울 북한산성 전통사찰
011-9350-3216

공양주보살님 행자 모십니다
▷강원도 양양
법비오는 곳 동해사
033)672-2900
033)671-6079

행자모심
고졸이상, 40세미만
대학, 대학원 까지
책임지원함
02)917-3363

급 구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2)386-0926
011-286-0308

공양주보살님 행자모십니다
▷대구광역시, 조계종 사찰
053)653-7558
011-9364-2426

공양주 보살님 처사님 모십니다
▷충남
전통사찰
011-9808-3933

부전스님 공양주보살님 사무직원 모십니다
▷30~50대
054)636-0229

운전기사(사찰관리)구함
천년고찰 기도도량에서 숙식하며 운전하실분
(50세 이하)
▷경기 이천
011-415-5558

기도스님과 법당,기와보살님 모십니다
▷전북
019-280-0093

신심있는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기도 포천
대한불교 조계종 사찰
031)531-4583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경기도 김포시 위치
011-688-6625

부전스님 (비구,비구니) 모십니다
▷심광사
042)284-5915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40대~50대)
▷밀양
055)353-0303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지리산
016-483-5639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용산구 국방부 원광사)
02)796-0230
011-9925-0351

1975년경 선학원 주지스님 상좌 원주를 보셨던 스님을 찾습니다
비구스님으로 키가 아담하십니다
스님을 한번 뵙고싶습니다
011-775-8070

행자 및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017-390-2611

기도스님 모십니다
▷40~55세
051)542-5700
011-551-1719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나이 60세 이상 노부부를 모십니다)
▷강원도 평창
02)582-8609
02)581-8609

주역과 사주를 통달한 60세 비구입니다
스님없는 절의 보살님에게 비법을 전수해 드립니다.
병든 노비구스님을 시봉할 신심있는 보살님을 찾습니다
010-9484-7693
문수스님

사주 운세 10초내 맞추면 입금
명리학질문 10초내 답변
조상의 흐름이 잘못되면 이름모를 질병, 재난, 혼사지연, 이혼, 부부갈등, 학업성적부진, 가출 등 원인을 찾아드립니다.
굿이나 부적 등 부담드리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www.10cho-unse.com
24304-3396114 하나은행(예금주 : 김진동)
02)826-5067에서 전화상담 중

포교당안내
- 위치: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4층건물중 2층 전철역 도보 3분거리
- 평수: 45평
- 즉시법회가능
- 가액: 보증금 1500만원 월 130만원 시설비 절충가능

019-477-6674

포교원안내
- 위치 : 부산 동래 범어사 입구
- 평수 : 50평, 큰방2, 작은방1 집기일체, 삼존불, 산신, 용궁, 신중
- 가액 : 보증금 1천만원. 월 60만원 시설비 2700만원

011-9556-8413

사찰 급 안내
- 위치 : 부산시내 주택 중심가
- 대지 203평 현거래시가 250-260만원 정도
- 사정상 급 안내 평당 190만원 총 3억 8천 5백만원
- 법당 30평 요사채 25평 7층탑, 5층탑, 100년 이상된 고목 두 그루, 포교적합 도량, 화장실 수세식 4칸
- 주차 7-8대 가능 주인직접

010-3133-0018



첨단의학으로도 못 고치는 병은 어떻게 하여야 하나?
◆ 책명 : 이책 읽고 불치병 나으소서
- 저자가 3개월 시한부 말기 암환자로서 수술, 재발, 말기현상은 물론 여러 합병증을 극복하고서 5년 여간 현대 첨단의학으로도 못 고치던 각종 암환자를 비롯하여 불치, 난치병으로 고통받던 3천여 분을 치유하게된 바로 그 방법을 자세히 기록한 책입니다.
- 각종 암, 당뇨, 중풍, 협심증, 퇴행성관절염, 성기능 장애, 아토피, 부종복수, 자궁근종, 치매, 간질, 천식, 갑상선, 악성빈혈 등으로 고통받던 분들께 희망의 메시지!

주요목차 자연의학에선 불치병은 없다 / 면역력만 살리면 된다 / 체질을 쉽게 바꾸는 법 / 유황오리의 신비한 능력 / 자연치유력 키우는 법 / 암 정복 식품의 다수

※구독을 희망하시는 농협 023-02-237173 김용식 계좌로 8,000원 입금 후 성명과 주소를 알려주시면 보내드립니다.

참 좋은 생명의 집
02)844-1655~6

사주특별개인지도
- 사주와 28숙을 정확하게 보는 방법을 빠른시일내에 쉽게 알려드리며 승려에 한합니다
- 위치 : 지하철 1호선 신설동역 3번출구
- 지도스님 : 대주 합장

☎ 02)926-1259 / 011-741-0867

고(古)건물 수리전문
드잡이 전문, 건물방향바꿈, 건물멀리옮김
건물 넘어간집 바로잡음, 석가래 기둥등 썩은곳 교체
신축 및 기와등 한옥전문 (문화재 등록인 다수 보유)
(주)고도건축 대표 강충
대구광역시 동구 각산동 389-2 성지아파트 3동202호
연락처: 053)964-0858 / 휴대폰: 011-804-1748

사주통달책임지도(성수철학원)
- 교육기간 : 누구나 한달완성(국내외 제자 200명 왕성히 활동중)
- 지도교수 : 백운 성수 (회장) 부교수 약간명

완전초보자도 해도 해도 안되는분, 사주, 작명, 궁합, 택일, 신수, 한달만에 모든것 완전 통달됨. 교육 이수 후 월 250만원 보장

※전화 감정 대환영
※자격증, 회원증 수여함(회원은 특혜있음)
전국 최대 회원 양성 교육기관임

대구광역시 중구 대봉동 721-16 제일약국 (2층) 봉산동 가구 네거리
053)255-4784, 256-4784 휴대폰 : 018-531-2237
사단법인 대한불교 사주명리 연구학회

행자 [예비스님, 남 · 여] 모집
- 행자원 있음(엘리트 스님 양성목표 - 45세미만)
- 1인 1실 및 개성존중의 민주적 수행 ● 산중 감포분원 및 대구 큰 절 중 택일
- 수행, 공부의 모든 지원, 최적의 교육분위기, 자율적 시스템
- 행자문의: 011-9852-0075(총무스님)

※ 단기 한시적 출가도 가능 ▷ 도심사찰 최신의 남골당 있음◁

전국 제1의 불교대학! 도심속의 7층 정법대사찰 TVbuddha.co.kr
대한불교 조계종 영남불교대학 · 관음사 053)474-8228

탈종공고

● 사찰명 : 광덕사
● 대표자 : 석우(釋牛)
● 소재지 :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신평리 118-1

상기 사찰은 귀 종단의
종지 종풍이 맞지 않아
대한불교종화종에서 탈종을 공고함

대한불교총화종 총무원장 법하

생활역학(命理相談)학인 모집

본대학 생활역학(명리상담학) 연구소에서는 다음과 같이 학인을 모집합니다.

1. 교수 및 교과내용
- 교 수 : 정창근 박사(전 한양대 사회교육원교수)
- 교육내용 : 명리학 초급 및 전문(실전)과정

2. 초급과정
- 교육기간 : 3개월
- 모집기간 : 2005년 8월 31일
- 개 강 : 2005년 9월1일 오후 1시(3시간) 목요일
- 강의내용 :
  - ▷음양오행의 원리 및 신강 신약 구분
  - ▷왕쇠강약, 생극제화
  - ▷십이운성 및 십이신살
  - ▷단편적인 운명 판단법

3. 전문(실전)반
- 교육기간 : 3개월
- 모집기간 : 2005년 8월 31일
- 개 강 : 2005년 9월 6일 오후 1시(3시간) 화요일
- 강의내용
  - ▷격국용신론 ▷조후용신론
  - ▷성격론 ▷직업론
  - ▷질병론 ▷실질적인 운명판단법

4. 특 전
본 연구소는 초종파 교육도량으로 수료후 수료증을 수여함
초심자라도 상담 및 포교의 도움이 되도록 지도함.
서울시 종로구 낙원동 243-3 경동빌딩 3층
TEL : 02)741-0495, 0496 FAX : 02)765-3169

해동불교 범음대학
생활역학연구소

나는 누구인가?



유식사상연구회 고목지음
도서출판 밀양

'마음'을 알고 '선'을 한다
유식과 선으로 참나 찾아가는 여정을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이끌어 간다
對自에서 卽自로..... 그 완전한 合一까지

● 구입 · 문의 : 유식사상연구회
055)353-6142, 010-2356-6142
● 총판 : 02)3672-7181

연화회 사무실 이전

스님들과 불자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더 나은 환경에서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자 연화회 사무실을 아래와 같이 확장 이전하였습니다.



서울 종로구 수송동 58번지 두산위브 1212호

● 전화번호는 변경 없습니다.
02)734-4444 011-449-5444 011-447-3444

연화회는 365일 언제나 밤낮으로
여러분과 상담하고 있습니다.

- 불교식 장례토탈 서비스
- 불자수의, 스님수의
- 산소 이장 (개장)
- 전국 납골시설 네트워크
- 고인의 유전자를 보관할 수 있는 유전자위패 등 생명과학장례서비스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규격 5×5cm=50.000원 ● 계좌번호 : 농협 053-01-227471 현대불교신문사

· 전화 : 02)732-1522 (直), 02) 2004-8200 (代)
· 전송 : 02) 737-0696 · e-mail : jabi1522@empal.com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 위치 : 경남 밀양 ● 위치 : 경기가평
● 법당 : 30평 ● 법당 : 15평 ● 법당 : 25평
● 요사 : 20평 ● 요사 : 50평 ● 요사 : 30평
● 부지 : 73평 ● 부지 : 34,000 ● 부지 : 672평
● 가액 : 1억8500 ● 가액 : 5억7천 ● 가액 : 4억

※ 전국 사찰 ,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분 연락바랍니다.
※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미래공인중개소(구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사찰안내

①분당목조사찰-9억5천
②강남포교당85평-월200만원
③판교근처사찰140평-11억
④판교근처나대지100평-6억5천
⑤관악산 150평-4억5천
⑥광명사찰350평-12억
◆ 1억~10억사찰많음.투자상담
※ 직원,공양주,기도스님신속연결

현대불사 02)555-0575

포교당안내

● 위치 : 울산시 남구 신정동 2층건물의 2층
● 법당 15평, 전체 32평 시설일체 완비
● 가액 : 보증금 2백만원에 월 40만원
시설비 답사 후 절충

052)258-4994

포교원안내

● 위치: 마산시 부림동 부림시장 입구
● 평수: 60평
● 즉시법회가능
● 가액: 보증금 1000만원 월 25만원
시설비 1500만원

011-585-7521

포교당안내

● 위치: 청주시 흥덕구 청주과광호텔앞
● 평수: 45평 3층건물중 2층
● 시설: 삼존불, 고불후불 탱화 3점. 집기일체
● 가액: 보증금 1천만원 월세 30만원
● 몸만 오셔서 즉시법회가능
시설비: 답사후절충

016-261-2068

사찰 안내

● 법당 및 현대식 요사채 4동
● 15,000평 부지에 도로 전기 완비
● 산청-증산리간 소재, 맥반석 계곡접 웅장하고 청정한 도량
● 답사 후 결정 요망

010-6398-5730

사 찰 안 내

● 사찰,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사찰, 암자, 기도원, 연수원, 명당터 확보함

사찰안내

● 위치: 서울 동작구 상도2동 장승백이역 2분거리
● 대지 66평, 건평 56평
● 1층 요사채, 2층 법당
● 가액: 4억 7천만원

02)815-0302
011-722-0302

포교당안내

● 위치: 울산시 남구 신정동
● 지하 1층 60평, 시설일체완비
● 보증금 500만원, 월40만원
시설비는 스님 불사관계로
● 능력있는 분에게 좋은조건으로 양도

011-9511-8656

절터안내

● 위치: 강원도 영월
● 대지: 2000평
● 2차선 도로접, 해발 700m 건축가능
● 가액: 1억원

011-292-3073

사찰(급)안내

● 위치: 전남 구례군 산동면 지리산 온천랜드지역
● 토지면적 2450평
건축허가면적 1000평
(팔각대웅전60평,팔각지장전 30평)
총공사비 소요 5억
● 가액: 3억

061)783-0408
018-312-0108

사찰 안내

● 위치: 대전시내
● 대지 905평, 전 150평, 임야 320평, 총 1,375평
임야 전은 현재 주차장 밑마당으로 사용중이며 언제라도 건축을 하면 대지로 전용 할 수 있음.
● 법당은 새건물이며 시멘트슬라브 기둥세워서 2층으로 올릴 수 있음.
● 1층 120평, 지하 40평, 요사채 구옥
시멘트슬라브 약 40평 ● 가액 : 15억

011-209-7420

사 찰 안 내

● 위치: 경기도
● 대지: 120평
● 법당: 18평
● 요사: 25평
● 양도가: 5억(융자가능)
※ 도심속 유서깊은 사찰임

● 위치: 부산시
● 대지: 50평
● 법당: 40평
● 요사: 80평
● 양도가: 3억3천(융자가능)
※ 역사깊은 도량임

한국최고의 사찰컨설팅 한국불사 011)530-1975 / 011)688-3521

전국소재 사찰, 암자 양도, 양수할 스님께서는 전화 상담 환영합니다.

포교원안내

● 위치: 대구 달서구 월천역에서 5분거리
● 평수 : 상가건물 53평,옥상 55평
● 시설 : 삼존불 외 집기일체
주방, 화장실, 응접실, 방 2개
시설A급, 시장입구 주차장완비
● 아파트 주택 밀접지역.위치좋음
● 몸만 오시면 됨, 즉시 법회 가능
● 가액 : 보증금 2천만원,월30만원
시설비 답사 후 결정
꼭 필요한 분 연락바람

017-508-2675

사찰안내

● 위치: 충북 청원군 낭성면
● 평수(대지): 466평
● 법당 26평(2층), 요사 26평, 창고 30평
● 가액: 1억6천만원

016-467-5822

포교당안내

● 위치: 서울 성북구 정릉4동 (정릉 유원지 입구)
● 3층 약50평
● 시설일체 완비 (즉시 법회 가능)
● 가액 : 천만원에 월50만원 시설비 절충

011-9725-3196

포교당안내

● 위치: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 평수 37평 건물중 3층(옥상 사용)
● 특징 : 상가, 아파트 지역 (교통편리), 포교지로 최적지
● 가액 : 보증금 2,000만원 월 10만원
시설비 : 답사후절충 (집기일체)

043)211-7893
019-656-2766

임법당안내

● 위치: 서울 불광동 북한산 자락
● 단독 30평
● 가액: 보증금 1천만원 월 40만원
시설비 1500만원
● 교통편리 기도최적지
주변환경좋음
● 꼭 인연되는 분만 전화요망

02)352-9810

사 찰 안 내

● 위치: 양산 ● 위치: 경주근교 ● 위치: 밀양
● 부지: 283평 ● 부지: 3000평 ● 부지: 380평
● 법당: 20평 ● 법당: 15평 ● 임법당: 20평(토굴)
● 요사채: 30평 ● 요사채: 20평 ● 가액: 1억7천
● 가액: 3억5천 ● 가액: 2억 ● 산세좋은
● 조용한 암자 ● 한적한 산속 암자 여법한 토굴

부산,영남지방 풍수컨문 사찰컨설팅 (양도 양수하실 스님 상담환영)

佛國불사 051)581-1599, 018-563-9575
대길부동산 홈페이지 cafe.daum.net/dongmuen

포교원(급)안내

● 위치: 서울 노원구 상계역 2분거리, 시장내 위치
● 3층 건물 중 2,3층
2층 법당 사무실 스님방
3층 요사채 방3개 공양간 거실, 시설 일체 완비
● 시설비 1700만원(절충가능)
● 가액 : 2층만 사용시 - 1천만원, 월80만원
2,3층 사용시-1천만원 월 100만원

019-9264-7000

포교원안내

● 위치: 서울시 강동구 천호 4동 암사역 2분거리
● 대로변, 역세권 유동인구 많고 위치 최고 좋음
● 평수: 48평(5층 건물중 2층)
● 시설: 사존불외 집기일체 후불탱화, 방2칸, 주방, 화장실, 배란다. 시설완비
● 가액: 보증금 1천만원 월 65만원 시설비 답사 후 절충

010-7324-5115

사찰안내

● 위치: 충북 음성 읍내
● 대지: 100평 사용
대웅전: 목재 단청 10평
요사채: 2동(각각 15평, 25평)
● 가액: 1억7천만원
포교당으로 사용 적합

043)872-4270
010-3161-4293

사찰안내

● 위치: 광주광역시 동구
● 대지: 245평
법당: 30평(신축건물)
요사채: 50평(화장실2, 창고1)
● 용도: 사찰 또는 수련원 즉시법회가능
● 산좌수려(와우형),교통편리 전망최고 ● 가액: 3억

016-626-4388

사찰(급)안내

● 위치: 강원도 최고의 관광지 기도처
● 법당, 요사채, 집기 일체 양도
● 가액: 14억
● 답사 후 가액 절충 可

010-6248-7345

사 찰 안 내

● 위치: 강원도
(서울에서 1시간30분)
● 화장터 장례예식장 300m사이
● 법당납골당 최고 명당자리
(민원없음)
(건축설계, 토목공사 완료)

● 위치: 경기도 광주 (서울에서 30분)
● 대지: 290평 건평: 110평
새통나무 기와집 2동
대웅전 요사채 방8개
● 경기도 광주사찰 투자하여 운영하실분 모심

011-9109-3660/031)767-0837
011-9004-3613

토굴안내

● 위치: 속리산 국립공원 칠보산 자락
봉양사에서 10분거리
● 평수: 488평
● 목구조(황토방)20평
● 가액: 2억

043)834-7138
011-491-7138

암자운영안내

● 위치: 전주시내(공원지역)
● 건평: 35평(법당1, 대중방1, 주지실1, 거실, 주방시설 완비) 산신각
● 법당: 아미타, 관음, 관세음, 지장 후불탱화(4×10) 신중탱화(4×6) 산신탱화(4×5) 불단 및 불기일체
● 가액: 3600만원

063)255-0733

포교당안내

● 위치: 대구 남구 계명 5동 (영대전철역 옆)
● 총평수: 40평.즉시법회가능 법당(삼존불, 신중, 시왕 방2개, 공양간) 집기일체 양도
● 몸만오시면 됨
● 가액: 보증금 5백 월 26만원 시설비: 1천2백만원

011-9850-2946

포교당안내

● 위치: 김해시내
● 평수: 50평
● 시설일체 완비 즉시 법회 가능
● 가액 : 상담 후 결정

016-563-6826

사찰(급)안내

● 위치: 경북 군청 소재지
● 부지: 사용 삼백평 등기는 백평
● 법당: 18평 기와 단청됨 남향
● 요사: 23평 외 7평 기와 동향
용왕전 3평 약수물이 좋음
산신각 3평 산이 힘있는 도량임
● 미륵부처님 11자 석불로 모셨음
● 절 뒤로는 산이고 앞으로는 도시가 다 내려다 보이는 청정도량임
● 집기일체 구비되고 몸만오시면 됨
● 가액은 일억 이천만원 급 안내임
● 절은 20년쯤 되고 추천하는 사찰임

광진불사 02)723-4082

포교당안내

● 위치 : 대구 아파트 밀집지역 시장 사거리
● 평수 : 50평(3층 건물중 3층)
● 큰방3개, 삼존불, 후불, 신중, 칠성, 산신탱화
● 법당 앰프시설, 법당 주지실, 에어컨 설치
● 가액: 보증금 1천만원에 월 40만원
시설비 답사 후 결정

011-9391-8117

포교당안내

● 위치: 경기도 용인시 시내
● 평수: 실건평 42평
4층건물중 4층
● 법당, 산신각, 방2, 넓은거실, 옥상사용가
● 가액: 보증금 4000만원 월10만원
시설비: 답사 후 절충

017-372-8968

사찰안내

● 위치: 강원도 홍천군 서면 모곡리 (홍천강변)
● 특징: 산세수렵 수행환경 최적지 60년 이상된 명 약수터가 있음 서울에서 2시간(고속도로 완공시 40분) 비구니스님, 보살님 임대, 관리 가능
● 암자: 법당, 요사채, 별채(약34평) 임야 9827평
● 가액: 10억 ● 꼭 필요하신분 연락바람

011-781-3712

사찰안내

● 위치: 경남 하동 (지리산 자락)
● 면적: 756평
법당 집기 일체
● 방4개, 창고 50평
● 비구니 스님 기도처 명당
● 가액: 2억7천만원

010-3138-4897

포교당안내

● 위치: 서울 관악구
● 평수: 약 35평
● 시설완비 즉시법회가능
● 가액: 보증금+ 시설비 3000만원

010-7181-1878

사찰안내

● 위치: 경남 사천시 사천읍 경계
● 건물(조립식)
대지 200평, 법당 25평
요사채 10평,
부속창고 20~30평
총 1600평
● 심야보일러 130m암반수
● 가액: 1억5천(절충가능)

016-9559-8889

포교당안내

● 위치: 부산 서면에서 도보로 15분거리
● 5층건물에 5층
● 면적: 60평
● 가액: 보증금 1000만원 월 60만원

010-2245-3534

사찰 안내

● 위치 : 서울 성북구 성북동
● 대지 : 220평, 건평 60평
법당, 요사채 2동
● 전세 : 2억5천(절충가능)

02)762-2204
02)745-6939
011-244-2083

사찰 안내

● 위치 : 마산시내에서 15분거리
● 대지 600평
대웅전 25평, 요사채 40평
● 교통편리, 산세위치 수려함, 신축건물 고건축
● 가액 : 4억5천만원 (절충가능)

011-530-8490

사찰 안내

● 위치: 전남 나주시 인근
현도로에서 2차선 도로예정
무안 광주간 고속도로 분기점 IC 5분거리
(1호선국도 7~8분거리)
● 대웅전(목조) 30평
요사채(목조) 20평 - 스님방1, 주지실방1, 종무실방1, 객방1
공양간(목조) 10평 방1개,화장실 목조
(해우소) 남.여 각1개, 화장실 겸 샤워실 1개
● cc카메라시설(내부외부 모두 설치) 총 490평
● 암반지하수 대형관전(130m 물량 100톤) 사철주변계곡 물 흐름 안쪽으로 골프장 확정
● 가액은 꼭 보시고 의양이 있으신분만 연락바랍니다

010-3627-0108

포교당안내

● 위치: 김해시 어방동 아파트 밀집, 상가시장, 대형마트 동김해 최요지
● 평수: 46평, 5층건물중 4층 방2개, 법당, 공양간, 시설1년 냉난방시설완비, 주차시설완비
● 가액: 보증금 2천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2500만원
● 최면, 사주, 요가, 풍수, 수맥, 대체의학 전수가능

011-834-8545
055)337-8600

사찰(급)안내

서울시내 최적의 요지에 위치한 1백년 역사의 사찰로써, 급박한 사정에 의해 매매코자 하오니 사찰운영을 본의로 하는 원매자가 있으면 상담을 요합니다. 중개인의 개입은 사절합니다.

● 대지 : 1천여평
● 건물 4동 (대웅전, 요사채 등 대형건물)
● 주변 환경이 뛰어남.
● 매매즉시 등기 이전 가능 함.

연락처
010-2559-9487
011-573-0108

2005학년도 동국대학교
사회교육원 가을학기 수강생 모집

현 공 풍 수

■ 교육기간 : 2학기 과정
■ 강의시간 : • 초급 - 수요일 오후 6시 - 8시 50분 • 중급 - 월요일 오후 6시 - 8시 50분
■ 접수기간 : 8월 1일 - 9월 2일(오전 10시 - 오후 3시)
■ 담당교수 : 선공세준
■ 교수약력 : 활불선원 원장, 원광대 동양학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동국대 사회교육원 교수, 포천중문의과대학 보건대학원 외래교수
■ 학기당 학습비 : 300,000원
■ 교 재 명 : 현공풍수학(선공세준 편역 011-706-4090)
■ 교육목표 : 현은 통일과 하도를 뜻하고 공은 공간낙서를 뜻하며, 현공이란 시간, 공간, 방위의 기를 상호 전환하는 방정식으로 선후천 팔괘오행을 현대적 에너지 기들을 파악하여 1-9까지 구성. 천문에 따라 가람의 배치와 묘, 주택, 도시건축, 아파트, 상가, 빌딩 등 자연과 인간 환경 전반분야에 풍수의 길흉에 대해 조사하여 비보 개선하는 최상승 풍수 법술이다.
■ 강의내용

초급반
- 현공풍수의 대의 : 양택의 가람배치와 풍수사상
- 현공 역리와 납갑 오행 : 풍수역학과 가람의 과학적 요건
- 현공풍수학의 길융화복의 근거 : 형기론 이기론 물형론 종합
- 현공풍수 학파(현공 풍수 인물) : 역괘풍수(양택삼요)와 비성(현공)풍수의 역평
- 현공풍수 하도낙서의 핵심 : 낙서 후천팔괘의 결합
- 현공구성의 운형 : 구성의 궤적과 공간방위의 정립
- 현공 성반(주택과 방위법) : 왕성과 비왕성의 관계
- 현공구성의 사물변화 현상법술 : 하도수와 운반관계 (주택, 묘, 공간, 기술법)
- 현공풍수 별의 순서 정하는 법 : 24 산향 음양 영정 (묘지주택 정하는 법)
- 현공풍수의 청규 : (주택, 묘, 도시, 상가, 아파트, 인테리어)
- 지운과 입수 운기법
- 정음(淨陰), 정양(淨陽), 납갑(納甲)법 : 천문 연월일시 기준과 2분 2지
- 성문 이궁을 논하는 법 : 물의 종류와 물의 영향에 관하여
- 반음 복음, 음양 합심법 : 용의 지세와 형국 명당보는 법
- 포태 사대국 수법 허와실(虛實) : 삼반삼침(三盤三針), 正, 中, 縫 원리
- 현공 간용법, 장풍법, 득수법, 정혈법, 좌향법, 형국법
- 용혈사수(龍穴砂水向) 아파트 실내풍수인테리어 코디 (책상, 침대, 주방, 쇼파 등등)
- 삼합반(三合盤) 9층 패철(佩鐵)과 현공삼원반과 천문풍수
- 천지인(天地人)공간의 원방각 기 측정원리

중급반
- 현공 애성 하괘 변수법, 성문 2궁법, 칠성 타겁, 현공풍수의 증험

● 공개 강좌 : 9월 7일(수) 오후 6시
● 온라인 접수 : 조흥은행 313-03-004148 (예금주:동국대학교)
홈페이지 〈http://dgucc.dongguk.ac.kr〉
● 문의전화 : 사회교육원 ☎02)2260-3728~9
● 개인지도 : 원방각 - 서울 서초구 서초 2동 교대사거리 큐브플러스 1513호
02)587-2855 / 011-706-4090

불교의 미래 '응용불교'서 찾자

2005 한국교수불자대회 현장

"미래불교의 방향은 당연히 '응용불교'로 전개될 수밖에 없다. 다변화하는 현대사회 속에서 불교가 바른 길을 제시해야 한다."

한국교수불자연합회(회장 김용표) 주최로 8월 17일부터 19일까지 2박 3일에 걸쳐 인제 백담사 만해마을에서 열린 2005 한국교수불자대회에서 기조발제에 나선 정병조 교수(동국대 윤리학과)는 오늘날 불교가 안고 있는 과제를 명확히 제시했다. 불교적 가치와 현실 사이의 괴리를 메워야 한다는 시대적 '요청'에 이제는 불교가 '응답'해야 한다는 것.

김응철 교수(중앙승가대 포교사회학과), 홍광표 교수(동국대 조경학과) 등도 같은 맥락에서 불교를 들여다보았다.

계율을 지키지 않는 현 풍토에 대한 강한 비판으로 말문을 연 정 교수는 재가불자들이 오계를 준수토록 하는 재가윤리헌장과 같은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범망경>에 제시된 48경계 가운데 십중(十重)의 마지막 다섯 조항을 재가의 오계로 윤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현대사회와 맞는 오계로 '삼보를 공양하라' '승가의 허물을 말하지 말라' '남을 헐뜯지 말라' '재물과 진리를 널리 베풀라' '뉘우치는 중생을 용서하라' 등을 새롭게 제시했다.

정치 · 경제분과 발제에 나선 김응철 교수는 '불교의 설득커뮤니케이션 체계 연구'에서 경전의 내용 속에는 중생교화와 설득방법이 다양하게 언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교학 분야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연구는 전무하다는 데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김 교수는 불교 설득커뮤니케이션 발전을 위한 방법으로 설법오력(진리에 부합하는 언설을 통해서 상대의 성질에 따라 깨달음에 이르게 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편으로 자비와 대비의 마음으로 설법하는 것)의 정신을 제시했다.

석가모니 부처님 재세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깨달음을 성취한 제자와 고승대덕에 의하여 설법오력의 정신이 이어져 오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 교수는 "최근 직접적인 설득과 포교사들이 보다 많이 배출되고 설득



2005 한국교수불자대회에서는 신행이 강조돼 참가자들이 불자로서의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

전공 관계없이 불교적 가치 토론 · 신행 실수

정병조 교수 '재가윤리헌장 제정 · 재가五戒 수정' 제안

김응철 교수 설득커뮤니케이션 연구 필요성 역설

법뿐만 아니라 대중매체를 통한 간접적인 설득커뮤니케이션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사회적 현상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수행력과 교화력을 갖춘 스님과 포교사들이 보다 많이 배출되고 설득커뮤니케이션 방법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인적 설득, 소집단 설득, 조직적 설득, 대중적 설득 등 유형별 설득방법에 대한 연구와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과 수행을 통한 내적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경전에 근거한 설득메시지는 이미 갖추고 있으므로, 커뮤니케이터를 양성하고 효과적인 전달방법을 연구해야 한다는 논지다.

홍광표 동국대 교수는 한국사찰은 사람들의 신체적 · 정신적 건강과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웰빙환경의 전형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사찰에서 발견할 수 있는 웰빙환경으로 홍 교수는 △생태적 수용능력과 산수의 상관성을 고려한 입지선정 △땅의 생김새와 건물 · 마당의 생태적 상관성을 고려한 공간 구성 △친환경적인 아름다움을 바탕으로 한 경관 구성요소의 도입과 배치 등을 들었다.

이 가운데 홍 교수는 산지사찰의 진입체계를 예로 들어 설명했다. "일주문, 천왕문, 불이문을 거쳐 누각을 지나 주불전이 위치하는 중심공간으로 이행하는 삼문(三門) 진입형식은 각각의 문틀을 통해 다음에 펼쳐지는 경관을 연속적으로 보여줄 뿐 만 아니라 사찰을 찾는 사람들에게 통과 의례적 절차를 거치게 만드는 하나의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다. 결국 이 같은 삼문체계는 경사지에 조영된 사찰의 자연환경에 대한 적응을 위해 의도된 것으로 한국사찰의 환경성이 웰빙 환경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는 것이 홍 교수의 주장이다.

이 외에도 이번 대회에서는 권경임 동국대 교수(사회복지학과)의 '불교노인복지의 이념과 실천', 이종국 도쿄대 교수(정치학과)의 '동아시아 갈등과 협력, 그리고 불교', 박수호 사이버문화연구소 종교연구실장의 '불교노동관의 현대적 함의' 등의 논문도 주목받았다.

총 30여편의 논문 가운데 수행을 주제로 한 논문이 5편이나 됐고, 대회 기간중에 다채로운 신행프로그램도 마련됐다.

김용표 한국교수불자연합회장(동국대)은 "각자의 전공분야와 불교를 접목한 연구논문을 발표하는데 그치지 않고 신행을 겸비함으로써 신앙인으로서의 역할을 찾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하고 "앞으로는 교수불자들이 자신의 신앙체험을 이야기하고 정보를 나누면서 신행생활을 한단계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글 · 사진/백담사 만해마을=박봉영 기자

여성주의 불교학 논문 눈길

동국대 후기 박사 논문 … 불교관련 3편 나와

조승미씨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 여성주의적인 관점에서 여성의 불교수행을 조망한 박사논문이 나와 불교수행 담론이 남성중심성을 탈피하는 데 자극제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조승미씨는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본 불교수행론 연구'라는 논문으로 오는 8월 26일 동국대에서 박사학위를 받는다. 이창숙씨의 박사논문 '인도불교의 여성성불사상에 대한 연구(1994)' 이래 10여년 만에 탄생한 여성주의에 입각한 불교학 박사논문이다.

이번 박사논문의 의의는 불교의 가부장적 제도와 관습을 주 대상으로 삼는데서 한 걸음 나아가 불교수행에서의 여성의 경험까지도 연구 대상으로 적극 수용했다는 데 있다. 이를 근거로 조씨는 "불교수행에 관한 전반적인 교설체계가 젠더(gender)중립적이지 않으며 오랫동안 남성중심적으로 해석된 산물"로 규정하며 "불교수행론이 변화해야한다"는 주장을 전개했다.

종합적인 시각 형성을 위해 반야적 관점과 방편적 관점을 취한 것도 주목할 만하다. 조씨는 "고정적 실체가 없다는 공(空)에 대한 인식을 중시하는 반야사상과 진리가 현실세계에서 경험되는 측면을 중시하는 방편사상이 보살에게는 동등하게 중시된다"는 데 착안해 반야적 관점과 방편적 관점을 연구에 도입했다.

조씨에 따르면 반야의 관점에서 본 질적이고 불변하며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본질이나 본성을 갖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점에서 여성에게 부과된 '허위'가 해체될 수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공성(空性)에 대한 지혜만으로는 현실적으로 유지돼 온 남성중심성을 극복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여성의 경험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여기서 방편적 관점이 요구된다는 것이 조씨의 주장이다.

조씨는 불교경전, 한국불교사 기록 그리고 현대여성의 신행수기 등을 통해 불교수행과 관련된 여성에 대한 설명과 여성들의 경험 등을 찾아냈다.

불교수행이 가부장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과제로 조씨는 △보살핌의 공동수행화 △일상언어를 사용한 불교수행론 정립 △여성의 경험이 잘 표현되고 소통될 수 있는 매체와 장르의 개발 △여성들을 지도하는 여성스승의 제도화 등을 제안했다.

특히 보살핌의 공동수행화란 여성의 전유물로 인식되던 보살핌의 역할을 남녀 공동의 역할로 변화시킴으로써 여성에만 전가되는 성역할 의무를 감소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영진 '장타이엔…' 박영철 '영산재…'

◯… 한편 동국대 불교학과에서는 조승미씨의 논문 외에도 김영진씨의 '장타이엔(章太炎)불학에서 개체와 윤리문제' 박성철씨의 '영산재의 문화적 활용모델 연구' 등 2편의 박사논문이 함께 통과됐다.

김영진씨의 논문은 개체보다 집단이 강조된 중국 근대기를 살면서 불학에 입각한 개체의 실천적 삶을 고민했던 장타이엔의 사상을 조명했다.

김씨는 "번뇌의 현실을 개척하는 것이야말로 불교적 의미에서의 자기수행"이라고 강조하며, 불교의 논리가 현실의 윤리가 되기를 열망하며 실천적 삶을 추구한 장타이엔에게서 불교의 현실적인 가치를 확인했다.

박익순 기자 ufo@buddhapia.com

예수-돈오돈수 제자-돈오점수

서명원 교수, 신약성서 깨달음 분석



"신약성서는 돈오돈수와 돈오점수의 두 가지 사상을 모두 내포하고 있으며, 전자는 예수에게 후자는 그 제자에게 해당된다"

불교의 전유물인 것만 같은 돈오돈수와 돈오점수 사상을 신약성서에 적용한 흥미로운 논문이 발표됐다. 서명원 서강대 교수(종교학과 · 사진)는 최근 발간된 보조사상연구원 학술지 <보조사상> 제24집에 기고한 논문 '비교종교학적 관점에서 본 한국불교의 돈점논쟁'에서 진리에 대한 체험 구조로서의 돈오돈수 · 돈오점수를 신약성서에서 읽어내고, 이를 통한 성철 스님 사상 조명을 시도했다.

서 교수는 예수가 성령을 가득 받아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신약성서의 내용을 돈오의 순간으로, 체험 후의 이타행을 <육조단경>의 오후수행불행(悟後修行不行)으로 해석하며 "신약성서에서 돈오돈수의 체험은 예수에게만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이에 반해 예수의 제자들의 깨달음은 예수처럼 단박에 이뤄지지 않는다. 서 교수에 따르면 "제자들은 스승의 부르심에 응답함으로써 제자가 되고, 스승과 같은 인물이 될 수 있음을 깨닫는 것을 돈오라 볼 수 있지만, 그 후에도 더 오랜 시간을 두고 꾸준히 닦아야 하는 경우가 신약에 자주 등장한다는 점에서 돈오점수적"이다.

이 같은 스승과 제자의 관계로부터 서 교수는 "스승 예수가 돈오돈수하지 않았다면 돈오점수하는 제자들이 어느 방향으로 수행해야하는지 지도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신약성서 안에 돈오돈수와 돈오점수의 보완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서 교수는 여기서 나아가 한국불교사의 돈점논쟁을 재해석했다. 즉, 기독교에서 돈오돈수가 예수에 한정되고, 나머지 제자들은 돈오점수의 과정을 겪는 것처럼 일반적인 중생을 염두에 둔 보조 스님은 돈오점수의 가르침을 펼친 반면, 자신의 체험을 다른 사람에게 권장하려 했던 성철 스님은 돈오돈수를 강조했고, 그것이 보조 스님에 대한 극단적인 비판으로 이어졌다는 것.

서 교수는 "성철 스님의 배타적인 진리관은 지나치게 불균형적이었지만, 돈오돈수적 패러다임의 우수성을 상기시키는 데는 효과적이었다"고 지적하며, "성철 스님의 극단성에 매몰되지 않으면서 돈오돈수의 가르침을 받아들인다면 한국불교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익순 기자

※기사넘쳐 '박영준 교수의 과학기술과 불교' 쉽니다.

중요무형문화재 혜공스님
영산의식 비디오 시리즈

전통불교의식대학 학장이신 혜공스님께서 불교의식 비디오를 아래와 같이 촬영 제작하였기에 알려드리오니 필요한 의식비디오가 있으면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대령 / 관욕 2. 상주권공 지장 불공의식
3. 상용영반 4. 화청 ①② 5. 구병시식
6. 관음시식 7. 점안의식 8. 방생의식
9. 사물 다루는 법 10. 안택 11. 시다림
12. 산신불공 13. 미타불공 14. 신중불공
15. 관음불공 16. 지장불공 17. 삼대화상증명불공
18. 종사관욕 19. 종사영반
20. 가사불사 이운식 ①② 21. 39위신중작법
22. 간단한 신중작법 23. 전통조석예불
24.천수경 / 장엄염불 25. 상주권공, 각배, 영산염불
26. 사시상단예불 27. 작법무(복청게천수바라)
28. 작법무(사방찬소리도량게)
29. 작법무(욕건만다라선송다게)
30. 작법무(향수나열 사다라니)
31. 교재 2권 80,000원

● 비디오 각 25,000원

제품구입처
● 전통불교의식대학 종무소 062)362-8604
● 혜공스님 직통전화 011-624-8604
● 계좌번호 : 농협 641010-56-000296 (노연숙)

가장 쉽게 배울 수 있는
범음범패 하계교육 대특강 안내

1. 자격 : 스님 및 교임 포교사 일반불자
불교에 관심이 있는 자
2. 일자별 교육내용
◆ 8월 29일: 사물다루는 법(북, 태징, 목탁, 요령) 39위 신중작법 외
◆ 8월 30일: 구병시식, 안택기도 외
◆ 8월 31일: 화청(회심곡), 종사관욕 점안의식, 용왕불공, 방생의식 외
◆ 9월 1일: 시다림(상가염불하는법), 바라춤 종사영반
◆ 9월 2일: 요잡바라, 천수바라, 관음시식 외
3. 교육기간 : 8월 29일부터 9월 2일까지
4. 교 육 비 (교재비 별도)
1) 200,000원정(숙박포함)
2) 1일 수강시: 50,000원
※ 비디오 컨펀 구입시 교육 무료
5. 모집일시 : 8월 29일 오전 10시
6. 교육장소 : 본 대학 강의실
7. 준 비 물 : 가사, 장삼, 필기도구, 세면기
8. 문 의 처 : 전통불교의식대학
종무소 062) 362-8604
011-624-8604
9. 계좌번호 : 농협 641010-56-000296(노연숙)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759-14
불교전통의식대학
학장 노 혜 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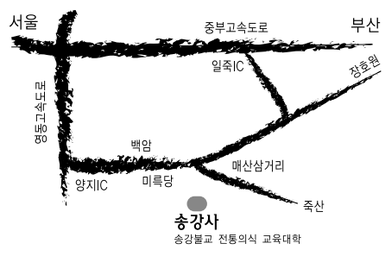
2005년 송강 불교 전통의식 교육대학 신입생 모집

부처님의 자비와 광명이 시방세계에 가득 하길 기원하며.....
고(故)박송암스님께서는 열반하시기 10일전 소승을 불러 스님께서 정리해놓은 여러 자료와 범패의 짓소리 및 범음을 10시간가량 녹음해 주시면서 범패의 맥을 잇도록 당부 하셨습니다. 고(故)박송암스님의 유지를 받들고자 소승이 전승한 송암스님의 범패를 후학들에게 계승하기위해 송강불교전통의식교육대학을 설립하고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 모집과목

학 과	과 목	모집인원	수업기간
기초반	도량석. 종성. 예불. 각단불공	OO명	6개월
중급반	49재. 천도의식 (시련.대령.관욕.관음시식.상용영반.화엄시식)	OO명	6개월
특수반	복청게.천수바라.도량게.다게.사다라니.나비춤	OO명	6개월
연구반	예수재.수륙재.점안의식	OO명	6개월

● 제출서류 : 1. 입학원서(소정양식) 1통 2. 사진 반명함판 2매
● 교육기간 : 각반 주 1회 2시간
● 접수기간 : 수시 접수
● 문 의 처 : 우편번호(456-894)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죽산리
송강불교의식교육대학장 오송강 합장
☎ 031) 676-5929, 핸드폰 : 011-9677-4877



일주문



개운사서 법문

영축총림 통도사 율주 혜남 스님은 8월 28일 오전 10시 서울 개운사에서 열리는 법회에 초청돼 법문을 한다.(02)926-4069



대승종 종도수련법회

대승종 총무원장 청화 스님은 8월 29~30일 충북 괴산 다보수련원에서 2005년 종도수련대법회를 개최한다.(051)638-4088



낙산사 복원 기금 1억원 전달

대한불교진흥원 홍승희 이사장은 8월 16일 화재로 소실된 사찰 복원에 써달라며 1억원을 낙산사 주지 정념 스님에게 전달했다.



명원문화재단 하계연수회

명원문화재단 김의정 이사장은 8월 16~17일 경기도 이천 명원농원에서 200여 전국 지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하계 연수회를 개최했다.



자연환경 다큐멘타리 주제 토론회

사단법인 보리 김재일 이사장은 8월 19일 서울 우리함께 회관에서 '자연환경 다큐멘터리 이대로 좋은가' 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대원 거사 원력 한국불교 발전 밑거름"

불교 진흥원 설립 30주년 장경호 거사 입적 30주기 기념 · 추모법회 성황



8월 16일 서울 다보빌딩에서 열린 대한불교 진흥원 설립 30주년 및 대원 장경호 거사 입적 30주기 기념법회에는 사부대중 500여명이 동참했다.

대원 장경호 거사(1899~1975)의 입적 30주기 추모법회가 8월 16일 서울 마포 다보빌딩 다보원법당에서 열렸다. (재)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홍승희)의 30주년 기념법회와 함께 진행된 이날 법회는 장경호 거사의 업적을 기린 추모 영상물 상영, 새로 발간된 평전 봉헌 등으로 진행됐다.

송석구 진흥원 이사는 추모 및 기념사에서"대중불교운동을 이끌었던 故 대원 장경호 거사의 원력과 신심으로 설립된 대한불교진흥원은 종단과 사찰의 대소불사 후원을 비롯해 한국불교의 밑거름이 돼 왔다"며 "가시적 성과에 급급하지 않고 수행을 중심으로 삼아 상을 내지 않으면서 원만히 불교발전을 위한 불사를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은 "대한불교진흥원은 앞으로 故 장경호 거사의 신심과 원력을 실천에 옮기는 역할 뿐만 아니라 재가불교를 이끌어가는 중심이 돼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법회에는 조계종 원로의원 정무 스님, 봉선사 조실 월운 스님을 비롯해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 진각종 통리원장 회정 정사, 총지종 통리원장 우승 정사, 불교방송 이사장 도후 스님, 김광삼 현대불교신문사 사장, 조재룡 불교TV 사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장경호 거사의 유가족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재)대한불교진흥원은 1975년 설립된 이후 조계종, 동국역경원, 한국불교연구원, 한국불교학회,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등의 각종 사업을 지원한 것을 비롯해 70여종 불서 보급, 대중불교 중심도량 대원정사 건립, 격월간 <불교와문화> 간행, 군법당 건립 지원, 다보수련원 건립, 대원상 제정, 불교방송국 건립 주도 등을 전개해 재가불교를 이끄는 단체로 자리잡았다.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무량사에서 한국전통 차 예절을 체험하는 하와이 주둔 미국 군인들.

하와이 주둔 미군, 무량사서 '템플라이프'

"한국절 참 아름다워요!"

하와이에 주둔하고 있는 미국군인중 한국어를 배우는 30여명이 8월 15일 무량사(주지 도현)에서 3시간동안 템플라이프를 가졌다. 이들은 불교와 하와이 무량사에 대해 김정국 사무장으로부터 강의를 들은 뒤 경내를 둘러봤다. 특히 참가자들은 무량사의 독특한 한국식 건축미에 관심을 보였다.

김 사무장이 "무량사는 30년전 한국에서 자재를 모두 들여와 건립했다"고 말하자 그 정성에 감탄해 했다.

참가자들은 무량사내 명원다도문화원에 들러 다도와 한국 예절도 체험했다. 한국 전통음악이 흐르는 가운데 명원다도문화원 하와이지부 엘리 선생으로부터 한국 전통 절을 배워보는 예절교육과 한국 전통차를 직접 우려 마셔보는 다도교육을 받았다. 참가자들은 사찰음식으로 점심공양을 하며 한국사찰의 매력에 흠뻑 빠졌다.

하와이=김원우 기자

독립유공자 故 김홍규선생 건국포장 서훈



독립운동가 故 김홍규 선생의 건국포장 시상식이 8월 15일 대전광역시청 대강당에서 열렸다. 탄허 스님의 부친 김홍규 선생은 일제하에서 상해 임시정부의 독립자금을 지원하다 일경에 체포돼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었다. 손자 김년우(사진 왼쪽)씨가 대신해서 훈장을 받았다.

동대문경찰서 관내 사고사망자 천도재



동대문경찰서(경승실장 법안) 관내 사고 · 사망 영가 166위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합동천도재가 8월 17일 서울 마로니에 공원에서 열렸다. 이날 천도법회는 영가를 모셔오는 '시련', 영가에 법문과 제사를 하는 '대령', 부처님께 나아가기 위해 탐진치를 벗기 위한 목욕을 하는 '관욕' 순으로 진행됐다.

경주 오덕선원 통일발원 산신대재



한민족 통일발원 산신대재가 8월 14일 경주 건천읍 오덕선원(주지 정허) 경내에서 봉행됐다. 300여 사부대중이 동참한 이날 행사는 사리친견법회, 산사음악회, 연꽃축제 등을 겸해 진행됐다. 정허 스님은 이날 법회에서 "산신재를 거행한 것은 역사를 바로 정립하고 민족뿌리를 찾기 위해서다"라고 말했다.

"한국 방문 1년 기다렸어요"

'옹박'의 전사 토니 쟈 봉은사 방문



영화 '옹박-두번째 미션' 홍보차 한국을 방문한 무에타이 전사 토니 쟈(29 · 사진). 불교신자인 그는 8월 18일 서울 삼성동 봉은사를 찾아 원혜 스님을 만났다.

지난해에도 봉은사를 방문한 적이 있는 토니 쟈는 "스님의 따뜻한 환대를 받고 태국에 돌아가서도 스님과 한국의 사찰 풍경을 잊을 수 없었다"며 방문 이유를 밝혔다.

아버지가 태국 전통무예 무에타이 선수인 토니 쟈는 10살 때 직접 무에타이를 배웠고 액션 배우가 되겠다고 다짐한 15살부터는 본격적인 수련에 들어갔다.

앞으로 그는 무에타이와 관련된 영화를 더 많이 제작해 세계 각국에 태국 문화와 정서를 알리는 데 주력할 생각이다. 아울러 토니 쟈는 "불교 교리 공부에도 전념할 것이며 기회가 된다면 한국에 와서 단기출가도 경험해 보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

노병철 기자

이전 지구촌공생회(대표 월주)가 8월 1일자로 사무실을 서울 광진구 능동 283-15번지로 이전했다.(02)455-9596

"내가 떠나도 전법의 등불 계속되길"

최고령 이흥세 포교사 동산불교대에 포교당 증여

"나이가 많은데 병까지 얻어 이제 마포포교당을 떠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없더라도 동산불교대가 계속 포교당을 재가불자들의 공간으로 꾸려 주리라 믿습니다."

최고령 현역 포교사로 활동하고 있는 서울 마포포교당 이흥세(93 · 사진) 법사가 동산불교대(학장 무진장)에 포교당을 무상 증여해 화제가 되고 있다. 마포포교당은 30여 년 이 법사의 꿈과 포부가 가득 담긴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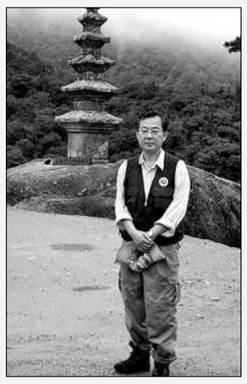
8월 18일 동산불교대에서 진행된 증여식에서 이 법사는 "4월 탈장 수술을 받았는데 지금 뇌졸증 증세까지 있어 법당을 떠날 때가 된 것을 느꼈다"며 "동산불교대가 마포포교당을 더욱 잘 이끌어줄 것이라는 믿고 가볍게 모든 것을 내놓고 떠난다"고 담담하게 말했다.

이 법사는 이날 마포포교당의 모든 살림살이를 넘겨주었다. 마포포교당은 100평 규모의 도심포교당으로, 재산 가치는 1억 6000만 원에 이른다.

유학자 집안에서 태어나 성대 이사장까지 지낸 이흥세 법사는 70년 처음 불교에 귀의, 그해부터 포교현장에서 활동했다. 이어 82년 도심포교를 목표로 마포포교당 문을 열고 23년 동안 같은 자리를 지켜왔다.

"개원 초창기부터 함께 활동했던 청년들이 어느덧 중년이 됐습니다. 이제 많은 불자들이 마포포교당과 세월을 함께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강진 기자 kangkang@buddhapia.com



정동채 문광부장관 설악산 봉정암 참배

정동채(사진) 문화관광부장관이 8월 11일 설악산 봉정암 적멸보궁을 참배했다.

하계 휴가기간을 이용해 백담사와 봉정암을 방문한 정 장관은 봉정암 주지 정념 스님과 차담을 나누며 불교계 현안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 장관은 이어 2005 만해축전이 열리는 만해마을을 찾았다.

조용수 기자

(사)한국불교금강선원 학생모집 안내 직장에서 가정에서 불교 교리 학습

한국불교통신대학 · 대학원

기초과. 중등과. 고등과. 대학과. 연구과정(대학원)

발심을 하고도 기회가 주어지지 않거나 시간상 제약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체계적으로 공부할 기회를 갖지 못하는 불자를 위해 **한국불교 통신대학**에서는 수시로 다음과 같이 학인을 모집합니다.

통신교육은 각자의 근기와 환경에 맞추어 학습 진도를 조절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교과 과정이 수립되어 있어 시간상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본 통신대학에서는 통신교육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이에 알맞은 교재가 준비되어 있고, 각종 **통신지도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불교 지도자 양성을 위한 과정으로 경학. 율학. 논학. 선학. 밀교 등 대학원 연구과정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통신교육비는 별도로 부과하지 않으며, 교재비만 각자가 부담합니다.

구 분	불교통신대학	불교통신대학원
모집기간	수 시	수 시
수업년한	2년(4학기/각 6개월)	경.율.논.선.밀교 각1년
수업방법	가정과 직장에서 통신으로 교육 (년 2회 합숙 수련)	가정과 직장에서 통신으로 교육 (년 2회 합숙 수련)
전형방법	서류전형	서류전형
제출서류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 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 등본 1통 반명함판 3매

□ 통신대학 졸업자에게는 전법사 자격증을 수여
□ 통신대학원 졸업자에게는 법사. 포교사자격증 수여
□ 특전 : 사찰 개원 및 운영에 관한 행정 지원

출가 수행을 희망하는 자는 나란다 삼장불학원(집체교육) 참조

나란다 삼장불학원

사미과 · 사집과 · 사교과 · 대교과

나란다 삼장불학원은 강원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스님과 출가를 원하는 불자 및 초발심자를 위하여 의식을 포함한 기초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불교 지도자 양성을 위하여 불교대학. 불교 교양 대학. 대학원 연구과정을 거친 법사 및 포교사를 위한 특별과정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 특히 출가수행을 원하거나 사찰 또는 포교당을 개설하고자 하는 불자를 환영합니다.

□ 모집학과

학 과	수업방법	교육기간	자 격
사미과	주 2일	6개월	초발심자. 출가를 원하는 불자 강원을 이수하지 못한 스님
사집과	주 1일	6개월	사미과 이수자. 동등자격이 인정된 자
사교과	주 1일	6개월	사집과 이수자. 동등자격이 인정된 자
대교과	주 1일	6개월	사교과 이수자. 동등자격이 인정된 자 불교대학. 교양대학. 대학원 연구과정 이수자. 법사. 포교사

□ 원서교부 : 2005년 8월 1일 부터 □ 입학일 : 9월 5일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특 전 : 1. 출가수행, 사암. 포교원운영 행정지원
2. 출가수행자를 위한 기숙사 완비
□ 교 수 진 : 활안(한정섭)스님. 호암스님. 서무선교수. 이지행교수. 김익순교수

통신교육을 희망하는 자는 통신대학. 대학원 참조

불교예술대학

□ 모집인원 : 약간명
□ 수업일시 : 매주 금요일 오후 3시 ~ 7시
(제 9기수업 : 매주 화요일 오후 3시 ~ 7시)
□ 강의내용 :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
요접바라, 도량게작법, 다게작법,
사방요신, 법고무,
사물(북, 태징, 목탁 등) 다루는법
□ 지도교수 : 대혜스님

※ 2005년 9월 둘째주 화요일 (9월 6일) 제 9기 첫수업이 시작됩니다.

(사)한국불교금강선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1동 51-14 전화 02)969-2410, 4981 / 팩스 02)964-2433



불자 세상보기

손 기 원
지혜경영연구소 소장

초심경영의 지혜

일요일 날 집안 식구들이 힘을 합해 대청소를 하고 나면 온 집안이 깨끗한 상태로 바뀐다. 대청소가 끝 난 후 가장이 가족들을 모아 놓고 이렇게 훈시를 한다.“자 이제 청소가 완전히 끝났다. 지금부터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집안을 더 이상 어지럽히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 물건을 쓰고 나면 꼭 제자리에 두고 집안에서는 먼지가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기 바란다. 오늘 이후 대청소는 더 이상 없다.”

그러나 가족들이 가정에 거주하는 한 ‘청소의 완전 종료’는 가능한 일이 아니다. 아무리 청소를 깨끗이 하고 아무리 주의를 해도 다음 날부터 거실과 방은 어지러워지기 시작한다. 그래서 매일 청소를 하고 가끔 대청소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자연과학에서는 이와 같은 현상을 ‘엔트로피의 법칙’으로 설명한다. 모든 사물은 시간이 경과하면서 점점 경직되고 혼돈되는 경향이 있으며, 그것을 다시 올바른 상태로 되돌려 놓으려면 에너지를 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삼성, 두산 등 주요 재벌기업들이 불법 정치자금 제공과 거액의 비자금 조성 의혹으로 여론의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는 상황을 보면 ‘엔트로피의 법칙’이 떠오른다.

삼성은 누가 뭐래도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그룹이다. 삼성이 글로벌 초일류 기업이 된 데는 선진국 기업을 따라잡기 위해 반도체 등 유망사업을 발굴하는 데 열정을 불태운 고 이병철 회장의 집념과, 1993년 “마누라와 자식만 빼고 다 바꾸라!”는 유명한 프랑크푸르트 선언과 함께 신경영을 선포한 이건희 회장의 변화경영 마인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외환위기가 오기 전인 1995년 말부터 구조조정 작업을 해온 두산은 한국의 대표적인 구조조정 성공기업으로 잘 알려져 있다. OB맥주의 지분 매각, 본사사옥 매각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통해 그룹 전체가 회생할 수 있었다.

최근 재벌기업의 내부비리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원인은 일차적으로 ‘경영철학의 부재’에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경영철학의 부재는 도덕불감증이나 단기적인 기업가치에 매달리는 경영으로 이어진다. 10년 전 창립 100주년을 앞두고 “향후 100년을 준비하자”며 비장한 장기계획을 발표한 기업이 두산이 맞는지, 불법 정치자금 제공은 삼성이 말하는 ‘마누라와 자식만 빼고 다 바꿔야 할 바로 그 대상’이 아닌지 궁금해진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섣불리 시장경제의 원리를 제약하는 재벌개혁과 규제로 접근하는 것은 옳지 않다. 또한 ‘반기업정서 1위’의 오명을 더욱 확고하게 하는 기업비난의 수준에 머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냄비가열이나 푸닥거리와 같은 이벤트식 해법으로는 이 문제를 도저히 풀 수 없다.

이 문제의 보다 궁극적인 해결책은 가까운 데서부터 찾고 긴 안목으로 찾아야 할 것이다. 각자가 초심을 되짚어 보고 모두가 스스로 초심으로 되돌아가는 것, 자신과 기업과 사회와의 상생적 관계를 이해하고 지속적인 관심과 상호의무를 다하는 것, 더 나아가 투명한 사회시스템 구축으로 이어지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본다.

삼성과 두산 같은 기업에서 벌어지는 일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바로 우리 삶의 터전에서 일어나는 문제이다. 개혁은 삼성과 두산이 스스로 이룩해야 하며, 우리들 자신이 스스로 이룩해야 한다. 개혁하지 않고 변화하지 않으면 누구도 생존을 보장받을 수 없다.

왜곡된 사회적 가치관을 바로잡는 것은 모두가 초심을 되찾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기업들의 혼돈상황이 주는 교훈은 지금이 바로 지혜경영 제1계인 초심경영의 지혜가 절실한 때임을 일깨워 준다.

불자의 눈 논설위원 기명사설

일반 직능 불교단체들의 활동이 답보를 하고 있는 가운데 유독 경찰의 불교회가 힘찬 전진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 경찰불교회가 3기 집행부를 구성하고 진정한 전국적인 조직으로 비약하기 위한 힘찬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민중의 지팡이로서 늘 국민과 접하는 경찰에 이렇게 불교신행운동이 활기를 띠는 것은 참으로 힘나는 일이며, 내일의 불교에 밝은 희망을 주는 것이 아닐 수 없다. 집행부를 비롯한 모든 경찰 불자들, 그리고 경찰불자회의 활성화에 헌신적인 지원을 해온 모든 분들께 찬탄과 격려를 보낸다.

이제 제 2의 도약기를 맞은 경찰불자회이기에 그 조직과 신행의 패턴도 한 단계 도약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중앙조직과 단위조직이 탄탄한 기반에 오른 만큼 그에 걸맞은 내실을 기해야 한다는 말이다. 그러기에 좀 가장 본질적이면서도 핵심적인 하나의 주문을 하고 싶다.

든든한 ‘경찰불심’

직능 신행단체들의 활동이 부진한 중요한 이유는 불교를 그 직능에 접목시켜 독특한 신행문화를 창출하지 못하고 단지 불자들의 모임이라는 성격을 넘어서지 못하는 데 있다고 본다. 일반 사찰에 나가는 것과 차이가 없는 직능 모임이라면, 단지 같은 직종에 있어서 인맥구축과 정보교환의 효과가 있다는 것으로 그 모임이 활성화 될 수는 없다는 말이다. 불교의 이념을 내 직장생활과 연관시켜 직능인으로서 자부심을 느끼고, 또 성공적인 직능인이 되는데 도움을 주는 살아있는 신행문화를 창출해 내어야 한다. 경찰불자회라면 경찰 업무의 구체적인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해결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가, 경찰업무에 적합하고 그 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는 수행법들은 어떤 것이 있는가, 등등을 현장체험과 연결시켜 개발해 내어야 한다. 불자로서의 삶과 경찰로서의 삶이 하나로 이어지게 해야 한다.

물론 이러한 일들은 여러 형태로 시도되어 왔고, 또 단시일 내에 성취되기도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이제 관념적 발원문의 형태를 넘어선, 직능단체별로 다양한 신행강령이 나오고 신행문화들이 정립되어야 할 때이다. 가장 활발하고 모범적인 활동을 하는 경찰불자회에 주마가편의 격려로써 이러한 기대를 보낸다. ■성태용(건국대 철학과 교수)

이렇게 들었다 남북 화합

‘대중이 흩어지는 것을 보거든 능히 화합하게 하며, 남의 착한 일을 나타내 주며, 남의 허물은 숨겨주며, 남이 부끄러워할 것은 알리지 말지어다. 항상 상대방의 입장에서 들어주고 이해해주면 이 세상에 화합되지 않을 것이 없다’
〈우바새계경〉

이번 광복 60주년을 여느 광복절보다 뜻깊게 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북측 대표단과 함께 한 8 · 15 민족대축전일 것이다. 광복 60년이 지나서도 ‘분단의 광복절’을 맞아야 하는 한반도의 슬픈 현실에 조금이라도 위안이 되준것은 북측 대표단의 참가였다. 만일 남과 북이 서울과 평양에서 서로 아무런 유대없이 제각각 고립된 행사를 가졌다면, 60주년을 맞은 광복절 나라를 위해 목숨 바쳤던 선열 앞에 남과 북 모두 부끄러웠을 것이다.

그들은 국립현충원을 참배하고, 국회의사당을 방문했으며 김대중 前 대통령을 예방해 방북 초청까지 했다.

북한 대표단은 과거처럼 남한체제를 이루고 있는 주요한 제도를 피하지 않고, 마주함으로써 마음만 먹으면 남북화해의 장애물이란 쉽게 허물 수 있는 것임을 증명해 보였다. 남한의 것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려는 노력이 어느때보다 돋보였다.

4일동안 남과 북은 서로 어울려 거리행진을 하고, 함께 공을 차고, 춤추며 노래하는 한 마당의 잔치판을 벌였다. 이 대축전이 의례적인 행사였다면, 십중팔구 그런 허탈감이 생길 것이다. 그러나 남북이 함께한 8 · 15 민족대축전은 공염불일 수 없다. 그것은 남북화해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실천적 행진이 될 것이다. 아니, 행진은 이미 시작되었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북핵문제 등 앞으로 산재해 있는 남북문제를 화합된 동포애로 슬기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기를 발원해 본다. ■김주일(취재부 기자)

독자의 소리-이렇게 생각한다

사찰 주차장 경차 할인 돼야

얼마전 설악산 소공원에서 가족들과 휴가를 보냈다. 경차를 몰고 S사찰이 관리하는 소공원에 주차를 시켰는데 50%의 할인적용을 받지 못했다. 설악산 관리사무소에 문의했더니 관리 사무소측은 “설악동지구에는 5개소의 주차장이 있지만, 경차에 대한 주차요금 50%할인은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에서 운영하는 경우 적용하고 있다. 사유시설인 S사찰직영의 소공원주차장은 적용대상이 아니다”라는 대답을 들었다. 덧붙여 “경차에 대한 할인을 권장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소유자(S사찰)가 제도시행에 협조를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일반 업자나 개인이 주차장을 관리한다면 휴가철 한철을 이용해 대목을 보려는 얄팍한 상술이겠거니 하겠지만 종교시설인 사찰이 국가적으로도 권장하고 있는 경차의 주차료 할인을 외면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도 조계종의 교구본사인 대형사찰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비록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은 아니지만 2003년 개정된 주차장법에는 경차에 대한 우대를 국가시책으로 권장하고 있다.

경차의 주이용자가 사회적으로 약자이거나 저소득층인 것을 감안한 최소한의 사회적 배려라는 점을 인식한다면 사찰측이 이러한 제도를 외면하는 것은 부처님의 자비정신에도 어긋나는 일이다. 비단 이 S사찰뿐만 아니라 중생을 위해 더 많은 것을 베풀어야 할 불교계가 한번쯤 다시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고 본다.

신희숙(서울 창전동)

일제 수탈문화재 회수해야

광복 60주년을 맞아 우리 주변의 일제 잔재를 어떻게 청산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제기가 절실하다.

일제치하 36년간 한국불교는 수많은 문화재들과 사찰재산을 침탈당하고 각종 제도와 형식이 ‘일본화’되는 치욕을 당했다. 더구나 한국불교의 전통과 의식들도 뒤틀리고 사라져 갔다. 특히 적지 않은 불교 인사들이 친일행위를 함으로써 극도의 내우외환을 겪었다.

하지만 그런 오욕의 역사 속에서도 한국불교는 자기 정체성을 잃지 않고 오늘에 이르고 있다.

광복 60년을 맞아 불교계도 이제 우리의 역사를 다시 되돌아보려는 노력이 절실하다. 일본불교계와 공동연구를 통해 우리가 잃어버린 문화재들을 다시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그나마 한국불교를 지켜주신 선대의 희생에 보답하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리우상 (붓다뉴스)

폐사지 보존에 관심을

무관심 속에 방치돼온 폐사지 보존을 위해 불교계와 정치권이 대책마련을 위해 나서고 있다는 ‘현대불교’ 539호기사를 읽었다.

현재 내가 살고 있는 곳이 폐사지와 인연이 깊은 곳이어서인지 유독 관심있게 기사를 읽었다. 내가 사는 경기도 죽산만 하더라도 이전에 절터였던 곳이 한 두 곳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미륵골이니, 부처골이니 하는 지명만 봐도 불교와 깊은 연관이 있는 듯하지만 지금은 변변한 사찰조차 한곳이다.

마을 인근이 모두 절터였다는 어린시절 어른들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나로서는 불교를 신행하면서부터 이러한 현실이 여간 안타깝지 않았다.

이처럼 폐사지 보존이 유명무실해진 것은 정부의 무관심과 불교계 미온적인 태도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본다. 늦게나마 전통사찰보존법 등 관련법에 폐사지 관련 조항이 포함된다니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런 정치권 차원의 노력 못지않게 우리불자들이 먼저 시민운동차원으로 국민적 관심을 환기시킬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더불어 폐사지를 신고하고 더 이상 방치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지켜내는 운동을 펼쳐나갈 것을 제안하고 싶다.

이미정(안산시 죽산면)

‘현대’만평 심 민 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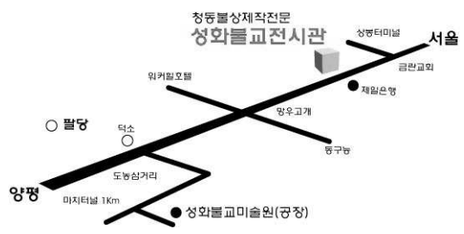
청동 불상 제작 전문

청동불상,천불,삼천불,만불,개금,탱화, 금고, 범종



청동불 40여분 전시중

주 • 야 상담 합니다



서울시 중랑구 망우1동 133-33태창빌딩 1층
전시관: 02)2209-0080
공 장: 031)591-1022
휴대폰: 011-302-1022
성화불교전시관 • 성화불교미술
대표 이상식 합장

공주대학교 식품과학연구소
NSF-ISR에서 ISO 9001(2000), HACCP인증
3억원 생산물 배상책임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심마니 토종 오가피



심봤다! 제2의 산삼

현풍 심마니 토종 오가피는 옛 고전의서에 전해 내려오는 국내산 오가피에 심마니가 채취한 천종산삼의 배양근을 함유하여 우리 체질에 맞게 심혈을 기울여 개발되었습니다. 첨단 생산 시설에서 엄격한 품질 관리로 좋은 제품을 만드는 현풍 심마니 토종 오가피에는 건강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부터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 시작하세요!

왜 심마니 토종오가피인가?
- 유효성분이 가장 좋은 100% 국산 토종오가피 (중국산의 6배)
- 심마니가 강원도에서 직접 채취한 천종 산삼 원근으로 배양한 산삼 배양근 추출물
- 홍성, 포천, 영월등 자사 직영 현풍농장에서 직접 재배관리
- ISO 9001 품질인증, 식품위해요소중점 관리 기준 HACCP 인증

책자와 비디오테잎을 심마니 토종오가피와 함께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주)현풍F&B HYUN PUNG F&B CO,LTD 02)455-1114

연중캠페인 / 나눔의 손잡기

민수의 밝은 웃음 그려봅니다

민수 돕기에 달마도 보시한 일허 스님



백혈병 민수를 돕기 위해 본사에 직접 그린 달마도를 기증하기로 한 일허 스님. 스님은 달마도에 모든 정성을 쏟아 민수의 완쾌를 기원하고 있다.

급성 백혈병 환우 민수(4)는 7월 21일 오랜만에 병원 침대를 털고 일어났다. 입원 중이던 부산대학병원으로부터 3일 동안 외출을 해도 좋다는 허락받았기 때문이다. 민수는 아버지 김형찬씨가 기다리는 집에서 가족들과 보낼 시간을 생각하며 들떴다.

그러나 민수는 곧 병원으로 돌아와야만 했다. 3차 항암 약물치료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민수의 몸속에서 암세포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이다. 또 다시 이어지는 치료. 현재 민수는 어린 몸에 주사바늘을 4개나 꽂고 계속 생겨나는 암세포와 떨어지고 있는 백혈구 수치 때문에 힘겨운 투병 생활을 하고 있다.

본지의 '급성백혈병 어린이 민수 돕기' 캠페인과 보도를 통해 민수의 상황을 접한 독자들이 관심과 격려를 전해오고 있는 가운데 한 스님이 "꼭 민수를 돕고 싶다"는 뜻을 본지에 전달했다.

민수에게 '힘'이 되고자 원력을 세운 주인공은 밀양 영천암 주지 일허 스님. 스님은 자신의 '특기'로 민수의 치료비를 모으는데 힘을 주고 싶다고 말했다.

민수를 알게 된 것은 본지의 보도를 통해서였다. 뛰어놀면서 부모에게 한창 떼를 쓸 나이의 아이가 낫기 힘든 병에 걸렸다는 사실이 스님에게는 무척 마음 아픈 일이다.

스님은 현재 한성대에서 복지행정학 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복지 맨'. 사찰 주지에 공부까지, 바쁜 일상 속에서도 스님은 틈틈이 자신만의 '특기'를 만들었다. 그것이 바로 '달마도'. 스님은 민수 돕기에 달마도 100장(1차분)을 내놓았다.

스님이 달마도를 본격적으로 그리게 된 것은 1997년, 운곡 강장원 선생에게 달마도를 배우면서부터다. 이전부터 글씨와 그림을 좋아했던 스님이었지만 운곡 선생에게 그림을 사사받으면서는 달마도만 그리게 됐다.

"달마도를 그리면서 온 마음을 집중하니, 이게 바로 수행자의 일이구나 싶었어요."

달마도만 그린 지 8년. 스님은 자신만의 달마도를 그리기 위해 밤낮으로 연구하고 달마에 몰두해왔다. 그러다보니 하루에 수십장을 그려도 마음에 드는 작품은 고작 두서너 장 정도다.

일허 스님이 그린 달마도는 섬세하고도 힘찬 붓놀림에 달마도의 백미인 형형한 눈빛이 살아있다는 평이다. 또 정성들여 붓을 움직인 덕분에 단아한 느낌까지도 든다.

그렇게 배우고 단련해온 달마도를 스님은 이제 민수를 위해 쓰고자 한다. 지금까지 수행삼아 그려왔다면 이제는 세상을 위해 내놓을 때가 됐다는 것이 스님의 신념이다.

"꾸준히 연마해온 달마도로 아픈 아이를 도울 수 있게 되다니, 내가 달마도를 배웠다는 그 사실 자체가 감사한 일이네요."

그런데 스님이 걱정하는 것은 따로 있다. '작은 힘'이나마 보태고 싶어 시작하는 일인데 자신이 '무명(無名)'이라 아이를 돕는데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스님은 "지금까지 갈고 닦은 마음만큼은 부끄럽지 않다"며 민수 돕기에 동참하고자 하는 뜻을 확고히 전했다.

한편 민수돕기 달마도를 그리기 위해 서울 작업실까지 마련한 스님의 정성어린 마음에 민수 아버지 김형찬씨는 "여러분들께서 민수에게 관심을 가져주시는 가운데 스님께서도 아이를 위해 소중한 그림을 내놓으셔서 무척 감사하다"며 "후원해주신 만큼 아이가 나을 수 있도록 잘 보살피겠다"고 말했다.

김강진 기자

일허 스님 달마도 구입안내

일허 스님의 달마도는 35×45㎝규격이며, 작품 가격은 장당 5만원입니다. 판매 수익금은 전액 민수의 치료비로 전달됩니다.

달마도 구입 문의는 본지나 일허 스님에게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현대불교신문사 (02)2004-8239, 영천암 (055)356-2040, 일허스님 011-867-4747

계좌번호: 006001-04-095472, 국민은행 예금주: 김강진 (현대불교)

완치되는 그날까지 민수돕기 모금운동 계속됩니다

민수를 도와주세요. 현대불교 나눔의 손잡기에서는 골수성 백혈병을 앓고 있는 민수돕기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민수가 완쾌되는 그날까지 각 사찰 단체 개인 불자들의 참여를 당부 드립니다.

문의: 나눔의 손잡기 (02)2004-8234

도움주실 곳: 927-12-838466(농협 예금주 김형찬). 016-547-8672

2005년 나눔 캠페인 어떻게 진행되나

본사는 지난해에 이어 2005년에도 연중캠페인 '나눔의 손잡기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국사회가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에 근접하며, 나눔과 봉사가 사회의 아젠다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본사는 부처님의 동체대비정신을 바탕으로 함께 나누고 모두가 잘사는 세상이 되도록 나눔운동에 한 층 박차를 가하고자 합니다.

♥ **나눔의 법보시 운동 전개** 군부대나 교도소, 대학, 어린이 청소년 법회가 열리는 사찰이나 복지시설 등에 신문을 보내는 법보시 운동을 전개합니다. 또 농어촌이나 낙도 그리고 불우 이웃들에게 신문을 보내 마음의 풍요를 주는 운동을 전개합니다. 월 1천원 1구좌로 보시처를 지정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 **나눔단체를 소개합니다** 나눔단체를 탐방하고, 주요사업으로 벌이는 봉사 현장을 소개합니다. 또 각 단체가 소개하는 후원이 필요하는 곳도 제보바랍니다.

♥ **나눔의 성금 모으기** 나눔성금 모금운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합니다. '소년소녀가장 돕기 기금' '독거노인 우유보내기 기금' '시설아동 지원기금' '장애우 돕기 기금' 등에 전달할 기금은 본사 나눔의 손잡기 계좌(국민은행 006-21-0587-583 예금주: 김원우)로 접수하면 됩니다. 또 전화 한통화로 3천원을 기부할 수 있습니다. 본사 ARS(060-700-1080)를 통해 성금을 기탁해주세요.

♥ **협력종단 및 단체 지원사업** 올해 협력 종단 및 단체들과도 계속적인 지원사업을 전개합니다. 또 대원정사및 우리는 선우와 나눔의 등달기 행사를 공동개최합니다.

♥ **어려운 이웃 및 소년소녀가장돕기 사연 소개** 정기적으로 어려운 이웃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또 전국의 거의 모든 사찰에서 벌이는 소년소녀가장돕기 사연도 제보해주십시오.

나눔단체-릴레이 탐방



"할머니, 기분 좋으시죠?" 8월 11일 치매 할머니들을 깨끗이 씻겨드리고 있는 진각치매단기보호센터 목욕봉사자들. 정작 봉사자들은 땀으로 목욕을 하고 있다.

진각치매단기보호센터 목욕봉사팀

"할머니 비누 냄새 참 좋죠?"

"놔라, 놔! 나 좀 그냥 놔두라니까!"

8월 11일 서울 진각치매단기보호센터(소장 장희경). 집밖까지 들리는 할머니의 고함소리가 심상치 않다. 그러나 소리와는 다르게 센터 안은 향긋한 비누 냄새로 가득 찼다. 소리를 지르는 할머니도 말끔한 모습이다.

진각치매단기보호센터의 목요일은 15명 입소 할머니들의 '목욕 날'이다. 여기에 맞춰 할머니들에게 기꺼이 자신들의 손을 내미는 사람들이 있다. 구슬땀이 흘러내리는 자신의 몸은 닦을 새도 없이 할머니들 몸을 씻겨드리기에 바쁜 이들. 치매단기보호센터 목욕 봉사팀이다.

치매 할머니들의 목욕에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어느 할머니는 피부가 너무 약해 만지기만 해도 온몸이 멍투성이가 된다. 또 어느 할머니는 옷 벗는 것을 무척 싫어한다. 할머니들 상태가 천태만상이라 애정을 갖고 할머니들을 살펴보지 않으면 자칫 실수하기도 쉽다. 그러나 봉사자들은 어느새 숙련됐다. 3년 세월 덕분이다.

그러나 숙련된 봉사자들도 할머니들이 이를 악물고 버틸 때는 방법이 없다. 봉사자 4명이 한 사람 씻기기도 힘들다.

"딴 건 힘든 거 없어요. 할머니들이 좀 덜 꼬집어 주셨으면 좋겠는데, 부탁해도 안 들어주시네요."

3년 쯤 봉사하다 보니, 몸에 상처가 생기는 것은 봉사자들 누구도 신경쓰지 않는다. 친정어머니가 치매로 고생하시는 것을 보고 겪은 이재화(53) 보살은 "어리신들을 씻겨 드리면 돌아가신 어머니를 다시 만나는 것 같아 오히려 감사하다"고 말한다.

이재화 보살의 봉사모습을 보고 목욕 봉사에 동참하게 된 이혜경(47) 보살은 "봉사하면서 집안 어르신들 뵙는 마음가짐도 봉사 전과 많이 달라진 것 같다"며 멋쩍게 웃는다.

진각종 행원심인당 소속 신도 최혜경(38) 보살은 "내가 필요한 곳에서 일을 하고 싶어서 찾아왔을 뿐"이라며 두 '형님' 치켜세우기에 바쁘다.

이들이 힘들게 목욕을 시켜드려도 할머니들은 고맙다는 표현도 제대로 하지 않는다. 그러나 말은 하지 않아도 목욕봉사팀은 알고 있다. 할머니들이 목요일마다 자신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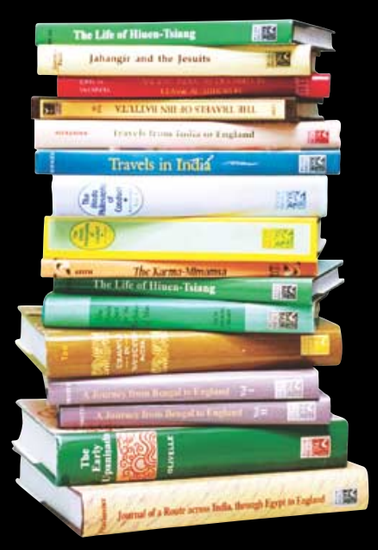
김강진 기자

이동식 변기와 목욕대 후원해 주세요

진각치매단기보호센터에서는 치매 할머니들을 위한 이동식 변기가 필요하다. 할머니들이 몇 번의 훈련을 통해 손쉽게 대소변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목욕봉사팀은 "할머니들을 제대로 씻겨드릴 수 있도록 목욕대가 갖춰지면 좋을 것 같다"며 불자들의 관심을 호소했다. (02)914-8556

나눔의 손잡기 <동참문의 및 제보> 전화 (02)2004-8234/ 인터넷 홈페이지buddhanews.com '나눔의 손잡기'/ 동참계좌 : 국민은행 006-21-0587-583 예금주 : 김원우 / ARS 060-700-1080(한통화 3천원) 나눔의 손잡기

여시아문 창립 11주년 특별 이벤트



1994년 8월 24일 오픈한 이후로, 고객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으로 여시아문이 문을 연지 벌써 만 11년이 되었습니다.
불교의 생활화, 현대화, 세계화를 목표로 하는 ㈜현대불교신문사의 비전에 맞추어 문을 열게된 여시아문은 수많은 불서와 문화도서를 대중에게 알리고 판매하는데 있어 항상 최선을 다해 노력하여 현재 불교서 점계에 있어 커다란 중심축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해외불서와 e-book제작 판매까지 그 영역을 넓혀 세계 최대의 불교서점을 향해 나아가는 여시아문은 그동안 고객여러분이 주셨던 크신 사랑에 보답고자 '창립 11주년 특별 이벤트'를 마련했습니다.
지금 바로 여시아문닷컴으로 방문하셔서 여시아문이 마련한 '전 도서 특별 할인서비스'와 '푸짐한 선물'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는 여시아문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 사이트 www.yosiamnu.com을 참조하세요.

"창립 11주년 특별 이벤트 속에 한번 빠져봅시다~!!"

- 행사 기간 : 2005년 8월 17일 ~ 8월 31일(2주간)

1 11주년 기념, 11%의 특별할인!
- 여시아문에서 판매하는 모든 도서를 11% 특별 할인해 드립니다. 그동안 가격 때문에 구입을 망설였던 도서까지 이번 기간을 통해 모두를 구입하는 기회맞이하세요. (단, 발행일 기준 1년 미만은 10%할인)

2 11번째의 행운을 잡아라!
- 행사기간내에 매일, 인터넷으로 주문하는 행운의 11번째 고객에게는 여시아문 출판도서를 선물로 드립니다.

3 나도 여시아문도 11년!
- 여시아문까페나 이메일을 통하여 여시아문과 함께 했던 에피소드나 얽힌 사연, 또는 도서 감상평을 써주세요. 총 11분을 선정하여 여시아문닷컴에서 사용 가능한 사이버 도서상품권(2만원 상당)을 드립니다.

4 1+1 행사
- 행사기간 동안에 여시아문 회원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추천하여 회원가입을 하면두 분 모두에게 평생 여시아문에서 도서 구입시 10%할인을 받을 수 있는 회원자격을드립니다. (기존 회원이 아니더라도 두 명이 동시에 가입할 경우도 해당됨)

여시아문 http://www.yosiamun.com yosiamun@buddhapia.com 전화주문 : 02_2004_8220 팩스주문 : 02_737_0696



산문밖의 猊

"반쪽을 채우는 달처럼 한결같은 마음이어야…"

'스카라 계곡'의 살아 있는 역사 반야월

한 자리에서 오랜 세월을 머문 사람은 곧 그곳의 '역사'가 된다. 가요계 최고령 원로 작사가인 반야월(90)씨. 그는 서울 종로구 인현동 '스카라 계곡'의 살아 있는 역사다.

'스카라 계곡'은 지금의 충무로 스카라 극장 건너편 일대를 일컫는 말로, 이곳이 복개되기 전 비가 오면 남산에서 흘러온 물이 범람해 물바다를 이루곤 하는 모습을 보고 반씨가 지은 별칭이다. 60년대만 해도 내로라하는 레코드회사와 녹음실, 음악학원 등이 밀집해 있었고, 이미자 쟈니리 등의 가수들이 배출된 한국 대중가요의 요람 같은 곳이다. 이곳에서 반씨는 2,500여 곡의 가요를 만들어내며 우리 가요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다.

8월 9일, '스카라 계곡' 한켠에 자리 잡은 한국가요작가협회 사무실에서 만난 반씨는 여전히 가요사를 한 줄씩 써 나가는 '현역'이었다. 그는 최근 90세 생일을 맞아 67년간의 음악 인생을 정리하는 1,000여 페이지 분량의 회고록과 최신작 '스카라 계곡'을 발표했다. 출간 기념회와 인터뷰 등으로 다소 지친 모습이었지만, 기

'소양강 처녀' 등 2500여곡 작사

"예전에는 노래가 허전한 마음 달래줬지

요즘 줄거리 없이 '보는 노래'들 아쉬워"

최근 67년 음악인생 정리한 회고록 발간

자를 맞는 목소리는 젊은 사람 못지않게 화통했다.

"건강해 보이십니다. 특별한 비결이라도 있으신가요?"

"박장대소해야 해. '하하하' 정도가 아니라 '우하하하!' 하고 웃어야 해. 그리고 마음을 비우고 늘 즐겁게 살겠다는 생각을 하지. '난 무조건 건강해야 돼'라고 생각하는 것도 욕심이야. 욕심은 마음을 병들게 해요. 그래서 난 보약을 먹거나 헬스클럽에 가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저 부지런히 일하고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니까. 저녁 마다 꼭 신문 4~5개를 훑어보고 사무실에도 거의 매일 나오고. 그게 비결이라면 비결이지."

그를 수식하는 말 앞에는 항상 '가장'이라는 말이 붙는다. 우리 가요사에서 가장 많은 노랫말을 지은 사람, 가장 많은 대중음악 단체의 산파역을 한 사람, 가장 많은 노래비가 세워진 사람…. 그러나 그는 많은 수식어를 마다하고 그저 '좋은 작사가'로 남길 바란다고 말한다.

"예전에는 노래가 사람들의 허전하고 아픈 가슴을 달래줬지요. 노래 하나로 온 국민이 같이 웃고 같이 울었지. 그런데 요즘 노래는 마음을 움직이질 않아. 가사도 문법에 안 맞는 정도가 아니라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 '보는' 노래가 아니라 '가슴에 담는' 노래를 만들려는 노력이 부족해."

그리곤 그 자리에서 '불효자는 웁니다'와 '단장의 미아리 고개' 같은 노래를 구성지게 불러 보였다.

"아직도 난 내가 발표한 곡, 가사 다 외워. 특별히 기억력이 좋아서라기보다는 마음에서 우러나온 절절한 그 심정을 가사로 옮겼기 때문에 오래 기억에 남는 거야. 그저 만들어서 가사를 쓰는 게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감정을 써야 해. 그게 진짜야."

실제로 그는 한국전쟁 때 피난길에 올랐다가 둘째 딸 수라를 영양실조로 잃고, 화약 연기 자욱한 미아리 고개에 묻어야 했던 가슴 아픈 기억을 '단장의 미아리 고개'란 노래에 담았다. 삶의 애환이 절절히 담긴 노래는 사람들의 가슴에도 깊은 울림을 주었다.

반씨는 수많은 히트곡 만큼이나 많은 예명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처음 가수로 데뷔했을 때는 '진방남'이란 예명을 썼고 이후 추미림, 박남포, 남궁려 등의 이름으로 곡을 발표했다. 그 중에서도 본인이 가장 좋아하고 대중에 널리 알려진 것이 반야월이다.

"반야월(半夜月)은 한자 그대로 반달이란 뜻이야. 꽉 찬 보름달은 곧 기울어 일그러지지만 반달은 차츰차츰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이잖아. 그리고 달은 해에 비해서 어머니 같고 포근하고 온화하잖아. 그렇게 살고 싶어서 반야월이라고 예명을 지었어."

달과 같은 포근함으로 사람들의 애환을 쓰다듬고 보듬어 주고 싶다는 그는 우리 가요사에 길이 남은 주옥같은 명곡을 많이 남겼다. 그리고 그 곡들에는 대부분 중생의 아픔을 감싸 안고자 하는 보살의 마음이 담겨 있다.

'중생의 지은 죄가 너무나 무거워서 부처님 무릎 앞에 합장을 하오'('약수암의 밤' 1954년 발표)

'죄 많은 이 아들을 자나깨나 기다리는 어머니 오지랖에 눈물인들 마르오리'('인생은 나그네' 1957년 발표)

"예전에 사주를 한 번 봤는데, 절에 들어가서 공부하면 고승이 될 팔자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지. 그래서 그랬는지 얼마 후에는 해인사 약수암에 머물며 노래를 만들기도 했어. 부처님 앞에 서면 마음이 평온해져. 자연히 머리가 숙여지고 합장하고 절을 하게 돼. 하지만 난 부처님이 따로 어디 계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내 마음만 바로 가지면 부처고 예수인데 유난스레 종교활동을 할 필요는 없잖아요? 내 신앙은 내 마음속에 있어요. 그러니 내 작품 속에도 나타나지."

최근 앓고 있는 신경통과 약간 어두워진 귀로 불편할 법도 하건만, 반씨는 직접 기자와 함께 스카라 극장까지 걸어가며 '스카라 계곡' 곳곳에 서린 이야기를 들려준다.

"많은 가수와 노래가 이 거리에서 생겨났다 사라졌지. 하지만 난 그들이 남긴 노래가 흘러가 버렸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마음속에 면면히 남아 있는, '흘러온 노래'들이지."

노래를 부를 때면 나이도, 건강도, 번뇌도 모두 잊게 된다는 반씨.

"예술가는 죽음과 함께 은퇴하는 거예요. 나이 들었다고 '퇴물' 취급하면 안돼. 괴테는 80이 넘어서도 작품활동을 했고 베토벤은 귀가 먹어도 곡을 썼잖아. 나도 죽는 그날까지 노래를 만들 거야. 그 노래를 듣고 사람들의 마음이 좀 더 따뜻해졌으면 좋겠어."

글=여수령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 **반야월 작사가는** 1916년 경남 마산 출생. 본명 박창오. 37년 태평레코드사가 주최한 전국 신인가수 선발 가요 콩쿠르에 입상한 후 진방남이란 예명으로 가수활동을 시작해 '불효자는 웁니다' '꽃마차' 등의 히트곡을 배출했다. 남대문악극단을 조직해 '산홍아 너만 가고' '마도로스 박' 등의 악극을 제작했고, 38년 서울중앙방송국에 방송극 '허생전'으로 입상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이후 '반야월'이란 예명으로 '산장의 여인' '단장의 미아리고개' '울고넘는 박달재' '소양강 처녀' 등 서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2,500여 곡의 가요를 작사했다.
56년 대한레코드작가협회, 64년 한국음악저작권협회, 74년 한국가요반세기작가동지회 등의 설립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66년 국제가요대상 작사상, 67년 공보부장관 감사상, 91년 대한민국 국민문화헌장을 서훈했다. 그의 고향인 마산에서는 내년 '반야월 가요제'가 개최될 예정이다.



나의 수행법

보현행원 체험기 – 박정준 (上)



비참한 심정으로 올해의 첫 날을 맞았다. 2년여의 세월을 객지에서 보내면서, 내게 주어진 것은 가족들과 떨어져 산 것과 이제는 어느 정도 그것이 익숙해져 오히려 집에 가면 타인처럼 느껴지는 감정뿐이다. 내가 살아 있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내가 할 일이 무엇일까? 나라는 존재가 이렇듯 무기력하게 주변의 환경에 무참히 무너질 수 있는가?

따뜻한 울타리가 됐던 직장이 무너지고 홀로 서기를 시작한 지 9년째. 재작년 겨울부터 난 혼자서 독서실 총무를 맡고 있다.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아침 9시에 문을 열면 이튿날 새벽 2시에 문을 닫고, 정돈 및 청소를 하고 나면 새벽 3~4시. 누워서 잠자는 시간은 길어야 5시간. 그나마도 시험기간 중에는 3시간 정도가 빠듯하다. 그 기간에는 잠과 싸우며 제 때에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지낸다.

그런 가운데 나를 스스로 이겨낼 수 있게 만든 것은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믿음이었다. 홀로 서기를 시작하면서부터 나름대로 읽어온 불교 서적에서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마음을 키우고, 내게 주어진 귀중한 기회라 생각하고 깨어 있는 시간이 아까워 다시 공부를 시작했다. 부처님 공부와 새롭게 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공인중개사 공부를 병행해서 함께 했다. 밖으로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어 혼자서 책이나 인터넷을 활용한 공부가 주로였고, 한가한 낮 시간엔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고 하루를 마감하는 새벽엔 주로 경을 듣거나 불교 관련 책을 봤다. 자칫 시험공부로 받기 쉬운 스트레스를 부처님의 넓은 품에 쏟아 내려 했으나 쉽지 않았다. 불교 공부는 어떻게 해야 할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너무도 막연했다. 참선이나 교리 공부는 엄두도 못 내고, 기초 상식이나 법문을 읽는 정도가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그러던 중 아주 우연한 기회에 보현행원을 만나게 됐다. 보현행원을 얘기하는 카페(http://cafe.daum.net/bohhyun)도 방문하게 된 것이다. 며칠을 망설인 끝에 카페에 가입했다. 그까닭은 이제까지 나의 믿음이 얼치기였다면, 이제부터는 모든 믿음을 가지고 내 삶을 살아야겠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막연하게 내가 잘되게 해 주십사' 하는 기복적인 것보다는 인간 본질적인, 생명적인 것에 대한 의문을 해결하고 싶어서였다. 보현행원이라.

"고맙다, 잘했다, 미안하다" 말하고 부처의 길로 가기만 하면 된다니…

난생 처음 듣는 단어였다. 그나마도 '보현'이란 말은 알겠는데, '행원'은 무엇일까?

보현행원은 매사에 원을 가지며 일상생활에서 '고맙다. 잘했다. 미안하다.'란 말을 지어가는 수행법이라 이르면서 "우리 모두가 본래 부처임을 석가모니께서 명백히 밝혀 놓으셨으니, 우리는 굳이 깨달을 필요 없이 오직 부처의 길로 가기만 하면 된다"고 가르친다.

이 말은 기존의 내가 가지고 있던 불교 개념을 혼란시켰다. 아니 나 같은 필부가 깨달음도 없이 부처라니? 불교란 결국엔 스스로 깨달아 부처님이 되기 위한 것이라 알고 있는데, 도대체 이런 깨달음이나 수행이 중요하지 않고 오직 내가 본래 부처님을 알고 부처의 길을 가면 된다는 말은 나를 충격에 빠뜨렸다. 그리고 그 길이 행마다 서원을 세우고 단지 일상에서 '고맙다, 잘했다, 미안하다'란 말만 지으면 된다니, 나의 불교 상식을 뛰어넘는 이야기였다.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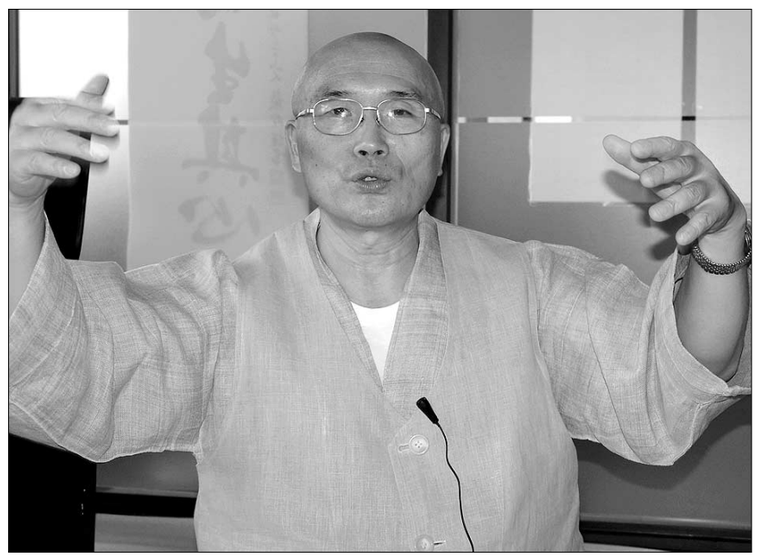
수행의 궁극 목표 '좋은 느낌'

용타 스님에게 듣는 동사섭 수행

'수행을 왜 하는가, 그리고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가?'

지난 1980년부터 동사섭(同事攝) 수행을 지도하고 있는 용타 스님(사진)은 "수행은 행복(幸福)이다"고 잘라 말했다. 수행의 목적인 성불과 해탈도 따지고 보면, 그 본질은 답답한 몸과 마음을 '투~욱' 트이게 해 '좋은 느낌 상태'를 갖게 하는데 있다는 것이다. 결국 '좋은 느낌'인 그 행복을 얻기 위해 수행을 한다는 의미다. 때문에 동사섭 수행은 '행복의 수행, 느낌의 수행'이 된다고 스님은 말했다.

그럼 동사섭 수행법의 세부 밑그림은 어떨까? 8월 17일 전북 전주에 위치한 사단법인 동사섭 사무국에서 만난 스님은 "동사섭은 '생활이 곧 수행'이 되도록 구체적 방법을 선명하게 제시한 수행법"이라며 "그 수행의 내용은 '이대로 부처다. 이대로 열반이다'란 불교의 궁극적인 부분에서 시작된다"고 설명했다. 스님은 특히 "동사섭 수행은 지족(知足)을 바탕으로 '내가 활불(活佛)'임을 현실에서 구현해나간다"며 "바로 이것이 동사섭수행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근본불교 불성사상과 선불교 즉불사상 조화
행복 조건 '정체 대원 수심 화합 작선' 제시

▲사람들은 늘 자신에게 "지금 나는 얼마나 행복한가"라고 묻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보다 높은 행복을 지향하며 사는 존재가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스님은 동사섭 수행을 통해 '행복'을 강조하는데, 그럼 행복은 무엇이고 왜 중요한가요?

–도대체 행복이란 무엇인가? 즉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와 상관된 물음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다. 이의를 달지 못할 당연한 말이다. 그렇다면 행복이란 무엇인가? 우리의 느낌이 행복이다. '좋은 느낌'이 행복이다. 동사섭 수행은 행복을 목적으로 하고, 그것을 '느낌 좋음'이라 한다.

왜 행복이 중요한지를 물을 필요조차 없다. 인간은 이고득락(離苦得樂)하기 원하기 때문이다. 그건 무조건적이다. 까닭을 더 물을 수 없고, 너무도 자명한 것이 이고득락의 이치다. 조건을 내세운 행복은 진정한 행복이 아니다.

행복의 범주, 온우주로 확대

▲동사섭 수행은 5가지 행복의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즉 '좋은 느낌 상태'인 행복을 위해 정체(正體), 대원(大願), 수심(修心), 화합(和合), 작선(作善) 등인데, 그 원리와 의미, 서로 어떤 상관성이 있는가요?

–인생은 묻고 답하는 과정의 연속이다. '어떻게 하면 행복을 얻을지'가 질문이고, 그 대답이 인생이다. 그 차원에서 5대 원리를 제시했다. 5대 원리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답을 내려야 하는 상황설정이다. 하지만 우리가 행복을 지향할 때, 정작 '나란 무엇인가'에 대해 소홀할 경우가 있다. 그러면 인생에서 허망함과 공허함을 경험하게 된다. '나는 무엇인가'를 선명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 '정체성'과 '자아개념의 문제'와 연관된다. 그런 정체성과 자아개념을 하나로 묶는 과정에 '정체'의 원리를 제시했다.

대원의 원리는 행복의 세계로 나아갈 방향이다. 방향은 넓을수록 좋듯 '큰 희망'은 보다 큰 행복을 위한 원리다. 나와 가족, 나라, 인류, 범중생 등 행복의 범주를 확대하고, 그것을 원대한 희망으로 삼으라는 것이다. 때문에 대원은 우리 모두의 행복이다. 온 우주에 존재하는 유무형에게 행복이 넘치는 상태가 바로 대원의 내용이다. 나머지 수심(마음 잘 다루기), 화합(마음 잘 나누기), 작선(잘 역할하기) 등의 원리는 정체와 대원이란 큰 축을 구현하는 구체적인 방법이다.

▲5대 원리의 경전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근본불교의 사성제(四聖諦)에 사상적 근거가 있다. 사성제에서의 고(苦)는 우리들의 현실이고, 멸(滅)은 우리들의 이상이다. 5대 원리는 이처럼 근본불교의 사성제를 21세기 안목에서 초대승적 의미로 재조명한 것이다.

대원 사상을 통해 설명하면 이렇다. 우선 고와 멸은 같은 개념이다. 결국 질적인 측면에서 한 개념이다. 이런 고와 멸을 '고는 고고 멸은 멸이다'고 보면 안 된다. 동사섭은 고와 멸을 일원화했다. 현재 우리는 순간순간 '~만큼 고, ~만큼 멸' 속에서 살고 있다. 우리 목적은 우리 모두의 이고득락에 있다. 즉 대원이다. 동사섭의 대원 사상은 근본불교 사성제의 멸(해탈)을 소승적 차원에서 대승적 차원으로 전환시킨 것이다.

사성제를 사상적 근거로 삼아

▲동사섭은 마음을 알고 다루고 나누는 수행법입니다. 중생과 희로애락을 함께 느끼며 배운다는 의미인데, 수행원리는 무엇인가요?

–동사섭 수행원리는 근본불교의 불성(佛性)사상과 선불교의 즉불(卽佛)사상의 조화에 있다. '이 마음이 부처고 내가 부처다'는 즉불사상을 바로 이 몸에서 느끼게 하는 것이 동사섭 수행법의 핵심이다. 활불(活佛)인 내가, 즉불인 내가, 지금 여기서 구현해 보이는 것이다. 근본불교의 가르침으로써 '왜 우리가 해탈하고 공부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인생의 가치관 정립에 근거를 안내해주는 것이 동사섭 수행이다.

▲구체적인 수행법은 어떻습니까?

–구체적인 수행법은 주(主)바라밀와 조(助)바라밀이 있다. 주바라밀은 내가 변함없는 태양과 같은 존재임을 확인케 하는 것이다. 조바라밀은 부처가 세상에 구현하는 데 번뇌를 쓸어버리는 작업을 돕는다. 삼독심 하나하나에 따라 명상법 하나하나를 적용시켜 번뇌를 제거하게 한다.

가령, '지족(知足)명상'은 기존의 관점을 전환해 매사 긍정적이며,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이 길러져 편안하고 행복하게 한다. 지금 이 순간, 느낌의 정도가 행복수위이므로 '느낌에 깨어 있기' 수행을 꾸준히 해야 한다.

가만히 앉거나 걸으면서 심신에 흐르는 느낌을 느껴 보기, 발가락에서 머리끝까지 몸을 하나하나 느껴보며 감사하기, 경계(상황)에 따른 느낌을 문장으로 적어보기(느낌노트 쓰기) 등으로 '느낌에 깨어있기' 수행을 하면, 행복을 얻을 수 있다.

또 '내관법(內觀法)' '고백하기' 등을 통해 부정적인 정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 부정적인 정서의 축적에서 오는 스트레스로부터 해방되고, 생리적인 활기를 회복할 수 있다.

삶의 목적이 분명해지는 수행법

▲동사섭 수행 유경험자들은 "삶의 목적이 분명해졌다. 진정한 휴식을 알고, 사는 것이 즐겁고 마음의 여유가 생겼다"고 말합니다. 일상생활을 사는 재가불자들에게 동사섭 수행이 필요한 이유가 있다면 무엇이고, 어떤 자기변화를 일으키나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등 인생가치관이 5대 원리로 명확해진다. 분명한 삶의 좌표를 제시하고 모든 생활 자체가 수행일 수 있도록 구체적인 수행법을 손에 쥐게 한다. 즉 지족의 삶을 살게 한다. 깨달음에 대한 환상적인 꿈도 깨게 한다. 깨달음을 바로 여기서 얻게 하기 때문이다.

▲스님은 활불교(活佛敎)를 주창했습니다. '자신이 살아있는 부처임'을 느끼라고 강조했는데, 활불교를 제창한 이유와 그 핵심내용이 무엇인지요?

–삶이 곧 불교다. 살아있는 불교가 활불교다. 현재의 불교가 관념화되면서 현실로는 불교와 삶이 이원화됐다. 그래서 이 같은 현실에서 진일보해서 주창한 것이 활불교운동이다. 이는 '생활 즉 불교'라는 것을 재확인하자는 운동이다. 불교의 다양한 가치들을 활불교화하는 것이 동사섭 수행이다.

글 · 사진/전주=김철우 기자

25년간 동사섭수행 지도 용타 스님은

'죽음이란 무엇인가. 사후 세계는 정말 있는 것인가?' 용타 스님이 청년 시절 가졌던 의문들이다. 이후 청화 스님을 만나 품었던 의문들이 풀리면서, 24살 때 곧장 출가했다. 청화 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용타 스님은 출가자 신분으로 여수 장흥 전남고등학교에서 8여년간 교편을 잡았다.

스님은 이후 지금까지 일반과정 189회, 중급과정 20회, 고급과정 10회 등을 실시해 연인원 1만여명의 동사섭 수행자를 배출해냈다. 현재는 미국 캘리포니아 삼보사 회주, 귀신사 회주로 있다. (063)227-1000. www.dongsasub.org

●坐禪三昧經

구마라집 한역 · 요산지안 감수 · 자응 역주 | 신국판 | 값 9,000원

좌선삼매경



좌선삼매경(坐禪三昧經)은 구마라집이 402년에 번역한 것으로
초기 선경(禪經)을 대표하는 경이다.
좌선입문자로서의 구체적인 수행지침이 설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선수행을 해야 하는 이유,
탐진치 삼독에 빠진 이들을 위한 관법(觀法),
선수행자가 지녀야 할 윤리적 행위와
중생들의 근기에 맞는 다섯 가지 관법(觀法),
사마타와 위빠사나를 아우르는 성문선(聲聞禪),
연각선(緣覺禪), 보살선(菩薩禪) 등
대 · 소승의 선법이 조직적으로 잘 정돈되어 있어
수행인들에게는 더할 나위없이 소중한 경전이다.

구마라집(鳩摩羅什 Kumaraiva : 344~413) | 인도 구자국 사람으로 중국 대표적인 역경사 중 한 분. 구마라집의 역경활동에 의해 비로소 중국은 대승불교 철학의 진수를 이해하게 되었으며, 『대품반야경』 · 『묘법연화경』 · 『아미타경』 · 『유마경』 · 『금강경』, 용수의 『중론』 · 『십이문론』 · 『대지도론』 등을 포함하여 300권 이상의 대번역사업을 완수하여 중국 불교에 결정적인 초석을 놓았다. 그의 번역은 그 이전의 것들에 비해 사상적 내용의 전달이나 문체가 뛰어나 지금까지도 많이 읽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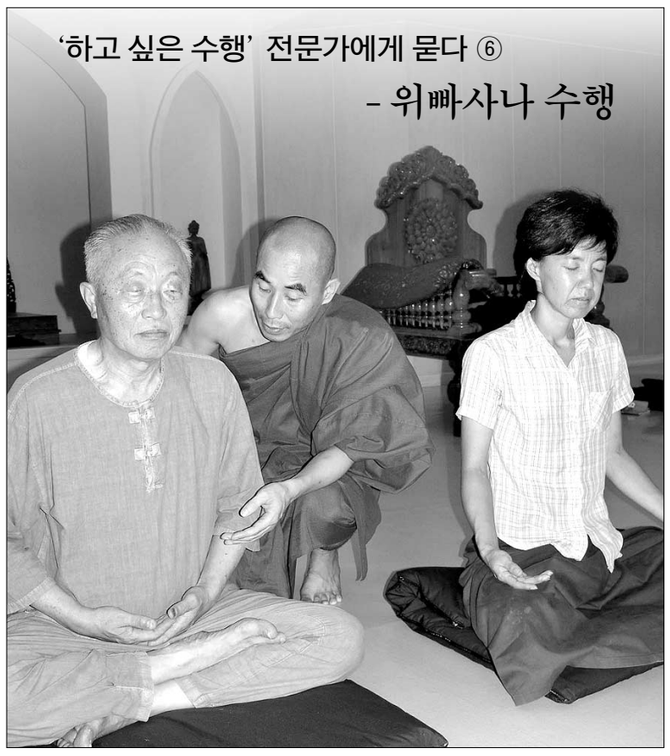
요산지안(樂山志安) 스님 | 통도사 벽안 스님을 은사로 득도. 통도사 승가대학 강주를 지낸 바 있으며, 현재 조계종 종립 은해사 승가대학원장 겸 통도사 반야암 회주로 계신다.

자응(慈應) 스님 | 철오(徹悟) 스님을 은사로 출가. 동국대학교(경주) 선학과 졸업 후 동 대학원에서 선학과 한문학을 공부. 남국선원과 해운정사에서 안거, 수행정진하였으며, 조계종 종립 은해사 승가대학원을 졸업했다.

불광출판부

송파구 석촌동 160 – 1 전화 (02)420 – 3200 전송(02)420 – 3400 http://www.bulkwang.org





김맹산(왼쪽) · 김경란 불자가 붓다락키타 스님에게 위빠사나 수행을 점검받고 있다.

'내가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위빠사나 수행이 던지는 핵심 질문이다. 시간적으로는 '지금', 공간적으로는 '여기'가 위빠사나의 핵심을 이룬다는 의미다. 그런 점에서 몸과 마음의 자연적인 성품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린다는 위빠사나는 단연 '찰나의 수행'이다. 순간순간 대상에서 일어나는 마음의 흐름을 집어내는 수행법이 되기 때문이다.

그럼, 위빠사나 수행의 원리는 무엇일까? 김맹산(73 • 충북 제천시 송학면), 김경란(44 •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씨가 8월 16일, 20년 넘게 위빠사나 수행법을 지도하고 있는 붓다락키타 스님(서울 보리수선원장)을 찾아 물었다.

몸과 마음의 성품 있는 그대로 알기

#괴로움의 원인 바르게 아는 것

"용어가 상당히 낯설어요. 위빠사나, 사마타, 사띠, 마음챙김, 알아차림 등의 용어들이 무슨 말인지 궁금해요."

"우선 위빠사나는 위(Vi)와 빠사나(Passana)란 두 단어로 이뤄진 복합어입니다. '위'란 말은 3가지 특성을 일컫는데, 몸과 마음은 항상됨이 없고 고통스러우며 그 어디에도 나란 것은 없다는 것을 뜻해요. 삼법인(三法印)을 의미하는 거죠. '빠사나'는 이런 삼법인을 '바르게 이해하고 꿰뚫어본다'는 뜻이죠. 또 사띠(Sati)란 말은 '알아차림'이라고 해요. 또 '마음챙김'이라고도 하죠. 사마티(Samati)는 마음집중의 의미지요."

"위빠사나 수행은 무엇인가요?"

"고통을 받는 것은 집착 때문이죠. 고통을 없애려면,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의 자연적인 성품을 알아야 해요. 그 괴로움의 원인을 바르게 '아는' 것이 바로 위빠사나 수행이에요."

#'아는' 것과 '잊는' 것의 차이

김맹산씨의 질문은 위빠사나와 사마타의 차이점에 대한 의문으로 이어졌다.

"위빠사나와 사마타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사마타(止)는 마음을 한곳에 모으는 거예요. 반면 위빠사나(觀)는 대상들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겁니다. 차이점은 번뇌의 뿌리를 뽑지 못한 채 마음집중하는 것이 사마타이고, 마음의 정화, 슬픔과 즐거움 등을 소멸시켜 열반을 얻게 하는 것이 위빠사나이지요. 즉 위빠사나는 몸과 마음을 '아는' 수행이고, 사마타는 그것들을 '잊는' 수행인거죠."

"정신집중력을 향상시키는데 사마타 수행이 효과적이라면, 처음부터 사마타를 수행하는 것이 나을 텐데요. 왜 위빠사나 수행을 해야 하나요?"

"시간적 여유가 많은 분들은 사마타를 먼저 하고 다음에 위빠사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마타를 3개월 이상 하고, 위빠사나를 하면 매우 빠르게 대상 하나하나에 삼법인의 특성을 확인할 수 있지요. 하지만 사마타는 한 대상만을 계속 집중해야 하기에 매우 단조롭고 지루한 것이 단점이죠. 반면 위빠사나는 지금의 대상들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기 때문에 수행의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납니다."

#현재의 삶을 정확하게 짚어줘

이번에는 위빠사나 수행 3년째인 김경란씨가 말을 받았다.

"위빠사나 수행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우리는 삶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해요. 감각기관은 항상 밖을 향해 있지요. 그래서 바깥 현상만을 쫓아가게 됩니다. 위빠사나는 이처럼 밖으로 향한 마음을 안으로 바꿔, 현재의 삶을 있는 그대로 통째로 보게 해요. 자신의 잘못을 자각케 하지요. 달리 말하면, 지금의 삶을 정확하게 짚어줘, 이기적인 삶을 남을 위한 삶으로 바꿔주는 거지요. 때문에 위빠사나 수행은 자리이타의 실천법이에요."

"재가자에게 좋은 수행법이 되겠네요?"

"위빠사나는 지금 자신이 움직이는 것, 이 순간 느끼는 상태 등을 그대로 알게 하죠. 즉 그 움직임을 움직임으로 알고, 또 그런 앎을 통해 지혜를 얻게 되면, 현실을 살면서도 늘 자신을 알게 되죠."

#밥먹을 땐 밥먹는 것에, 걸을 땐 걷는 것에 마음 두기

"대상에 빠져 헤매다 겨우 돌아올 때가 많아요. 알지 못하는 영상들이 갑자기 튀어나와 무엇인지 파악하기도 전에, 신기한 나머지 계속 들여다보고 하죠. 그러다 결국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정신은 이내 혼미해지곤 해요. 왜 그런가요?"

"정신적인 것은 매우 미묘하고 복잡해요. 수행자가 그 마음과 마음의 요소를 알지 못하면, 그것이 빠지게 돼요. 영상이 나타나는 것은 이미 영상이 일어날 조건이 갖춰졌기 때문이에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다스리는가'에요. 사띠(알아차림)로써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면 돼요. 밥 먹을 때는 밥 먹는 것에, 걸을 때는 걷는것에 마음을 두세요."

"일상생활에서 점검은 어떻게 합니까?"

"사실 점검은 1:1로 해야 해요. 사람마다 업이 다르기 때문이죠. 스승이 필요한 것이 이 때문이에요. 만약에 스승의 점검을 받지 못할 때는 경전에 근거해 자기 점검을 하세요. <청정도론> <아비달마논장> 등을 근거로 삼으면 됩니다."

글 · 사진=김철우 기자

▮붓다락키타 스님은



붓다락키타 스님(사진)은 1990년 미얀마에서 출가 이후, 태국 라오스 등지에서 13두타행을 해오고 있다. 1999년 서울 안암동에 보리수선원을 개원한 스님은 2003년 원광대 불교대학원 강의, 신림종합복지관에서 1년간 알코올 중독자를 위한 수행지도 등을 했다. 최근에는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여름 위빠사나 수행 교원 직무연수' 프로그램도 위탁받는 등 위빠사나 수행법의 대중화에 진력을 다하고 있다. (02)517-2841. www.borisu.or.kr

▮위빠사나 수행 포인트

핵심 포인트는 '마음챙김'에 있다. 호흡과 마음을 지켜봄으로써 신체 각 부분과 감각 대상, 마음과 마음의 대상에 대해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음챙김의 네 가지 대상(四念處)으로 경전에서는 몸, 느낌, 마음, 법(法; 생각의 대상)의 네 가지가 설해져 있다.

마음챙김은 마음과 육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든지 간에, 현재 이 순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릴 것을 요구한다.

결국 두 가지 중요한 수행법인 사마타(Samatha: 정적, 고요, 집중)와 위빠싸나(Vipassana: 지혜, 통찰력)를 통한 마음챙김으로 무상, 고, 무아를 깨달아 열반에 이르는 수행과정이 바로 위빠사나 수행법이다.

아봐타 코스
나를 찾아 떠나는 9일간의 내면여행!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Avatar 밝은길 아봐타 센터
아봐타 마스터 김희균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지금이야 말로 당신이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일생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 전화문의 상담 환영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154-1
전화 010-6230-2113 · ☎ 02)396-2736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 heegyun@avatar21.com

할로 죽이고 방으로 살리고

<31> 별난 이름을 가진 당우들

선종총림의 당우들은 그 호칭까지도 선종의 정체성을 대변해야 했다. 서정성이 짙은 이름이 있는가 하면 비장한 결의가 엿보이는 명칭 그리고 조금은 비꼬는 듯한 냉소적인 명패까지 여러 가지가 어우러져 선종의 역사만큼이나 다양한 편액을 달고 있다.

서정적인 분위기는 염화실(拈花室)과 퇴설당(堆雪堂)이 대변한다. 연꽃과 흰눈이라는 자연의 아름다움이 선지식들을 만나면 한 차원 달라진다. 대표 당우라고 할 수 있는 염화실은 선종의 할과 방이라는 거친 분위기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꽃'에서 기원한다. 가섭존자가 부처님께서 들고 있는 연꽃 한송이의 의미를 알아차리고 빙그레 웃었다는 '염화미소' 이후에 '염화실(拈花室)이 등장했다.



이제 염화실은 산중 최고어른 내지는 그 절을 대표하는 선지식이 머물고 있는 거처의 대명사가 되었다.

'염화실·퇴설당' 서정적 분위기 물씬 풍겨
과거제 문란 꼬집은 '선불장' 사회현실 반영

혜가대사가 달마대사를 만나 법을 얻기 위하여 눈이 무릎까지 쌓이도록 밤새 마당에 서 있었다는 고사에서 연유하는 퇴설당(堆雪堂)도 염화실과 격을 같이 하는 당우이다. 꽃밭에서 그리고 눈밭에서 이루어진 전법(傳法)을 상징한다. 해인사에 가면 한 당우에 염화실과 퇴설당이라는 두 가지 편액이 사이좋게 붙어있다.

결연한 의지표명의 대표적 명칭은 '사관(死關)'일 것이다. 송나라 고봉원묘 스님의 '사관(死關)'은 죽기를 각오하고 출입 자체를 스스로 봉쇄해버린 용맹정진처의 이름이다. 그 위치는 천목산 사자바위 서쪽 동굴이었다. 사다리가 없으면 올라갈 수 없는 곳인데도 그 사다리마저 치워버리고 모든 인연을 끊고 공부했다.

열반 후에는 제자들이 그 자리에 선사의 전신사리 그 자체로 부도탑을 세웠다. 물론 이는 선사의 유언에 따른 것이다.

이런 정신은 요즘도 제방의 '무문관' 형식으로 그 이름이 오롯이 이어지고 있다.

대사회적으로 가장 비판적인 이름을 지닌 현판은 선불장(選佛場)이라 할 것이다.

마조선사의 '선불장' 즉 부처 뽑는 집은 당시의 과거제도 문란을 꼬집는, 어찌보면 참으로 냉소적이기까지 하다. 단하천연 선사와 방 거사는 함께 과거길에 올랐다가 '응시자만 있고 합격자가 없는' 관리를 뽑는 과거장 대신 부처를 뽑는 선불장으로 발걸음을 돌린다. 과거제도 문란으로 인하여 절집으로 인재가 몰려들었으니 반사이익을 누린 셈이다. 절집의 기쁨이 사회의 행복은 아닌 모양이다. 선불장은 알고보면 반사회적 시니컬한 명칭인 셈이다.

뭐니뭐니 해도 가장 삐딱한 호칭은 등은봉이 양주 땅에 있을 때 머물렀다는 '파위의당(破威儀堂)'일 것이다. 이름이 파격 그 자체이다. 무릇 사문이란 삼천위의와 팔만세행을 갖추어야 하기에 '위의당'이란 이름이 마땅하거늘 '파위의당'이라 했다. 이 역설적인 이름은 참으로 괴각이었던 등은봉의 기질과 가장 잘 어울리는 당우였다. 그 집에서 등은봉은 승복조차 벗어던지고 속옷만 입고 지내던 어느날이었다. 느닷없이 다듬이돌 옆에서 홍두깨 몽둥이를 들고 함께 살던 대중들에게 말했다.

"한마디 한다면 때리지 않겠다."

이에 대중들 어느 누구도 한마디 대꾸하지 못했다. 그러자 그는 그 자리에서 차례대로 한 방씩 후려쳤다(맞아도 싸지, 앉아서 밥만 축냈으니). 하지만 그는 그 당우에서 위의는 파하고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법만큼은 서슬 시퍼렇게 세우려고 애를 썼던 것이다. 그런데 연꽃을 들었고 미소를 지었는데 이를 '염화실'이라고 이름 붙일줄 알았던 그는 누구인가.

그 선사를 위하여 김춘수 시인은 '꽃'이라는 시를 통해 이렇게 찬(讚)한 것이지.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 원철 스님(조계종 포교원 신도국장)

개 천지조화 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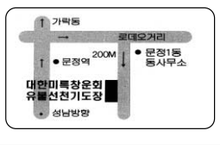
● 예언에 의한 국내최초 새시대 새미륵시대 여의주시대를 펼지는 천기도량 완성
● 원효대사님의 미륵삼부경에 의하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도솔천에서 미륵보살님이 미륵시대를 펼쳐 중생을 구제하신다 고 예언
● 미륵보살님은 누구이며 과연 어떻게 미륵시대를 펼친것인가?
● 미륵보살님께서 천상계에서 강림하시어 이제 중생구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 중앙박물관에서 전시한 (2004년 7월 20일 ~ 10월 17일) 미륵보살님인 금동 반가사유상 (국보 78호, 83호)은 미륵시대를 예고한 것입니다.
● 미륵보살 반가사유상 음양미륵님께서 천지조화의 기운을 내리시는 다섯분의 대성존님과 천지조화의 수기를 받으시고 강림하신 일곱분의 연화미륵님과, 삼십삼천, 서른세분의 천왕님과 미륵시대를 펼치오니 친견하시어 소원성취하십시오.

특히 도인, 스님, 보살님, 철학인, 종교인, 기공인 또한 일반인에게 공개하오니 친견, 소원성취하십시오

"미륵시대를 전파하라는 천명을 받은 미륵도인, 성산성지에서 오랜 수도를 통하여 천문, 지리학, 천지인 학문과 천지신명의 영통학문에 의한 진리연구로 佛知行 한 미륵선관대도인(天皇道師)이 직접 상담
조상천도 업장소멸 인생문제를 천기도법으로...
"천기도법"(天氣道法)

♦천기도법에 관심이 있거나 공부 하시려 하시는 분 ♦사업을 계획하시거나 잘안되는 분
♦질병으로 고통 받는 분 ♦집안이 잘 안풀리는 분 ♦천기를 받아 건강하고자 하는 분

예약 및 문의 : 02) 403-5272
大韓彌勒創運會
儒佛仙天氣道場



"개천구지(開天救地)... 벽도구인(闢道救人)"

환기 9202년 개천 5903년 단기 4338년 불기 2549년 서기 2005년
을유년 새해를 맞이 하여 새시대 새미륵시대 여의주 시대를 펼칩니다.

을유년 새해에는 시공초월하여 미륵인(彌勒人)이 되어 자신을 업그레이드 시키자!

미륵인이란? 과거의 전생업장(육신, 정신업장)을 소멸하고 새롭게 태어나므로서 정신과 육신이 하나가 되고 또한 道를 수행 (佛,知,行)함으로써 혁명적인힘 (미륵님의 원력)을 갖고 자기에 맞는 大業과 天業을 대성공하고 나가서는 역사적 사명을 갖고 새시대 (미륵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누구든지 미륵인이 될 수 있습니다.

천기도법(天氣道法)으로 道門을 활짝 열어드립니다!

● 미륵인이 되면 미륵님의 원력(天氣)과 조상님의 공덕을 받으므로서 어려운 일이 풀리고, 자기분야에서 대성공 할 수 있습니다.
● 道門을 열어 천지조화의 기운 (초광력에너지, 생명에너지)을 받으므로서 건강하게 됩니다 (난치병 치유)
● 자기스스로 치료함과 동시에 체형의 교정도 자동으로 하게 됩니다.
● 초능력과 약사력이 생기므로 누구든지 치료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됩니다.
● 시공초월 함으로서 명산대천을 찾아 헤메이지 않고 천지조화의 기운을 받는다.
● 도술도법(원기력, 수인력, 대화력, 약사력, 관음력, 천도력, 용맹력, 지혜력, 보살력, 여래력, 성인력)과 육신통 (천안통, 천이통, 숙명통, 타심통, 누진통, 신족통)이 열리게 되므로 성불할 수 있습니다.

유불선 天氣道場
시공초월하여 道門을 열수있도록 많은 연구와 노력끝에 이치에 맞게, 또 미륵시대를 맞이하고자 유불선을 통하여 완성한 道場으로 초과학적인 인간구제 발전소 입니다.
3시간 만에 누구든지 미륵인이 될 수 있도록 도문을 열어드립니다. (百 聞不如一見, 百見不如一行)

最上情報心身復生
至寶文化彌勒弘益

21세기 최상의 정보는 내마음과 몸을 다시살려 장생의 신선세계에 동참함이요
지극히 보배스러운 문화는 미륵시대에 부합된 홍익인간 이념을 구현함이니라!

한형조 교수의 금강경강의 (58)



붓다의 유머 그 날카롭고 따뜻한

2부 4강 <금강경> 육조 해 서문 (1)

자성의 노다지로 '부자 되세요'



대개 서문은 책의 표정이다. 거기 지은이의 수준과 스타일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3회에 걸쳐 혜능의 <금강경 구결>, 그 서문 전체를 소개해 주기로 한다. 혜능은 이 짧은 글 안에 자신이 읽은 <금강경>의 근본 취지와, 이 책을 만나 소를 짓기까지의 인연을 압축적으로 담아 놓았다.

번역은 내가 짐짓 고투로 했고, 간간이 어림없는 토를 달아놓았다.

1. "무릇 <금강경>은 무상(無相)을 종(宗)으로 하고, 무주(無住)를 체(體)로 하며, 묘유(妙有)를 용(用)으로 한다." (夫金剛經者, 無相爲宗, 無住爲體, 妙有爲用.)

-육조 혜능의 불교가 여기 강령으로 선포된다. 무상과 무주는 <금강경>이 본문에서 늘 강조하고 있는 바이고, 1부 서론(別記)에서 지리장황하게 살펴본 바 있다.

그런데, 여기 마지막 "묘유의 용"은 금강경이 다루지 않는다. 다른 불교 경전도 마찬가지인데, 앞 강의에서 내가 불교는 '반쪽'이라고 했던 이유가 여기 있다.

이 부분은 길을 밝는 각자에게 맡겨져 있다. 불교는 이를테면 터를 고르는 정지작업만 해 줄 뿐, 거기 무엇을 세우고 지을지에 대해서는 말이 없다. 이것은 불교의 필연적 선택이다. 만일, 짓기로 작정하면, 그때 불교는 도그마가 되고, 억압이 되어 유연성과 적응력을 잃고 만다.

그러나 그렇다고 이곳을 아예 의식하지 않다간 불교는 정재(淨財)를 좀먹는 기식집단으로 떨어지기 쉽다. 이 두 해협 사이를 잘 지나가야 진정 여법(如法)한 불교가 될 수 있다.

2. "달마가 서쪽에서 건너와 이 경전의 뜻을 전한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理)를 깨닫고 성(性)을 보게 하기 위해서였다." (自從達磨西來, 爲傳此經之意, 令人悟理見性.)

-선종의 근본 취지도 <금강경>에 있다!

3. "그런데 사람들이 자성(自性)을 보지 못하기에, 견성(見性)의 법(法)을 세웠다. 세상 사람들이 만일 진여본체(眞如本體)를 분명히 보았다면, 굳이 법(法)을 세울 필요가 없다." (祗爲世人不見自性, 是以立見性之法. 世人若了見眞如本體, 卽不假立法.)

-요컨대 <금강경>은 도구이지 목적이 아니다.

4. "이 경전을 독송하는 사람은 무수하고, 칭찬하는 사람도 가이없고, 주석하고 해석하는 사람도 800여명이나 된다. 말하는 도리(道理)는 각자의 본 바에 따르는데, 견해는 다르더라도 법(法)은 둘이 아니다. 오랫동안 익힌 상근(上根)은 한번 듣고 바로 이해하지만, 오래 묵은 지혜가 없으면 많이 독송해도 부처의 뜻을 깨닫지 못한다. 그래서 (이 경전을) 해석하여 학자들의 의혹을 풀려고 한다. 만일 경전만 보고도 취지를 분명히 파악한 사람이라면 굳이 (나의 은 범부들의 불선한 마음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다." (從上如來所說善法, 爲除凡夫不善之心.)

-자성(自性)은 '범부들의 불선한 마음을 제거하면' 저절로 드러난다. 거기 이르는 방법과 스타일은 달라도 이르고자 하는 곳은 같다…. 그러나, 또한 서로 다르다. 다음에 보듯, 불선한 마음을 제거한 점에서는 서로 같겠지만, 그 마음을 쓰는 묘유(妙有)의 용(用)은 서로 다르고, 또 달라야 한다.

5. "본시 여래가 선법(善法)을 설하는 것은 범부들의 불선한 마음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다." (從上如來所說善法, 爲除凡夫不善之心.)

-자성(自性)은 '범부들의 불선한 마음을 제거하면' 저절로 드러난다. 거기 이르는 방법과 스타일은 달라도 이르고자 하는 곳은 같다…. 그러나, 또한 서로 다르다. 다음에 보듯, 불선한 마음을 제거한 점에서는 서로 같겠지만, 그 마음을 쓰는 묘유(妙有)의 용(用)은 서로 다르고, 또 달라야 한다.

6. "경(經)이란 성인의 말씀이니, 사람들이 듣고, 범(凡)에서 성(聖)을 깨달아, 영원히 미혹(迷心)을 그치게 하기 위함이다. 이 한 권의 경(經)은 중생의 성(性) 가운데 본래 가지고 있다. 그것을 보지 못하는 자는 다만 문자만 독송하게 될 것이다. 만일 본심을 깨닫는다면, 비로소 이 경(經)이 문자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經是聖人之語, 敎人聞之, 從凡悟聖, 永息迷心. 此一卷經衆生性中本有. 不自見者, 但讀誦文字. 若悟本心, 始知此經不在文字.)

-<금강경>의 취지는 <금강경>의 밖에 있다!

7. "다만 (자신의) 자성(自性)을 분명히 밝힐 수 있다면, 그때 일체의 제불(諸佛)이 이 경(經)에서 나왔다는 것을 믿게 될 것이다. 지금 다만 우려되는 것은, 세인(世人)들이 자신 밖에서 부처를 찾고, 밖을 향해 경(經)을 구할 뿐, 내심(內心)을 발하지 않고, 내경(內經)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이 해설(訣)을 지어 학자로 하여금 내심경(內心經)을 지녀, (자성을) 스스로 분명히 보게 하려는 것이다. 청정한 불심이 헤일 수 없고, 불가사의하다는 것을… 나중에 학자가 이 경전을 읽다가 의문이 있으면, 이 해설을 보면 의심이 석연히 풀릴 것이니,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없다." (但能明了自性, 方信一切諸佛從此經出, 今恐世人身外覓佛, 向外求經, 不發內心, 不持內經, 故造此訣, 令諸學者持內心經, 了然自見淸淨佛心過於數量不可思議. 後之學者讀經有疑, 見此解義, 疑心釋然, 更不用訣.)

-<금강경>은 마음의 진실 하나를 알려주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 밖을 향해 찾지 말라. 자기 속에 있지 않은 것은 그 누구도 가져다 줄 수 없으니… 그 진실이 마음 안에 '이미' 있다면, 정말, 경전은 아무 필요가 없지 않은가. 단 한 군데 쓸모가 있다면, 그것은 그것이 이미 거기 있음을 알려주는 즉 지시(指示)에 있다. "달을 가리키면 달을 보아야지, 왜 손가락은 보고 있냐?"

경전이 짚어주고자 하는 마음의 진실은 어디 꽁꽁 숨어있거나 복잡하게 엉켜있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즉각적으로 한 순간에 알려진다. 여기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 그래서 돈오(頓悟)이다. 그것을 아는 순간, 우리는 모종의 액션을 취하게 된다. 성철 스님이 이 점에서 돈오돈수를 말하셨는지 모르겠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이 액션의 강도와 지속성은 연습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점수(漸修)라고 한다.

8. "바라건대는 학자들이 광석 가운데 금의 성분이 있다는 것을 알아 지혜의 불로 녹이고 제련하여 광석은 버리고 금을 남기기를…." (所冀學者同見礦中金性, 以智慧火鎔煉, 礦去金存.)

-<금강경>은 '이미' 내 마음 속에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 왜? 번뇌가 둘러싸고 있기 때문이다.

번뇌망상의 잡석을 지혜의 용광로에 녹여 제거하면, 그 속에 있던 불성의 금이 나타난다. 그 황금빛 노다지로 다들 "부자 되세요!"

■한국학중앙연구원

주장자파라…

⑧⓪ 운암 선사의 '천수천안'

조태호



운암 담성(雲巖曇晟, 782~841): 당대 스님. 청원(靑原)문하. 강서성 출신으로 백장회해에게 참학하고 약산유엄(藥山性儼)의 법을 이음.

네티즌 교리문답

'출세(出世)'가 불교용어 인가요?

문 흔히들 "자네, 참으로 출세했네…." "그 사람은 이제 출세 가도에 들어 섰어…" "사람은 출세하고 볼 일이야…" "출세해서 남 주나?" 하며 출세라는 말을 쓰는데, 이 단어가 불교용어 맞나요?(취업대기생)

답 1 : 일상에서 쓰이는 '출세'는 세상에서 성공하여 직위가 높아졌음을 말하기도 하지요. 그런가 하면 숨어서 잘 알려지지 않았던 사람이 세상에 알려짐도 출세라고도 합니다. 이 경우의 출세는 세속의 명예와 이익에 직결되어 있어서 세인(世人)들이 부러워하지 않을 수 없지요.

하지만 본디 출세란 불교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출세는 부처님이 이 세상에 나타남을 말하지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 땅에 오셨거나 미래에 미륵 부처님이 나올 때를 출세라고도 해요. 부처님이 아니더라도 보살이 세상에 나와서 많은 사람을 교화시키고 많은 도움을 줄 때도 "보살이 이 세상에 출세했다"고 하지요.(출세맨)

답 2 : 부처님이 세상에 출세하신 참뜻을 '출세본회(出世本懷)'라고 하는데, 출세본회만 알면 불교인으로서는 완전한 경지에 도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단어로는 달마대사가 인도에서 동쪽인 중국으로 와서 선불교(禪佛敎)를 전한 의미를 일컫는 서래본의(西來本意)가 있습니다. 부처님 출세본회나 달마 서래본의나 모두 불교의 진실한 뜻을 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생을 꾸며가자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달마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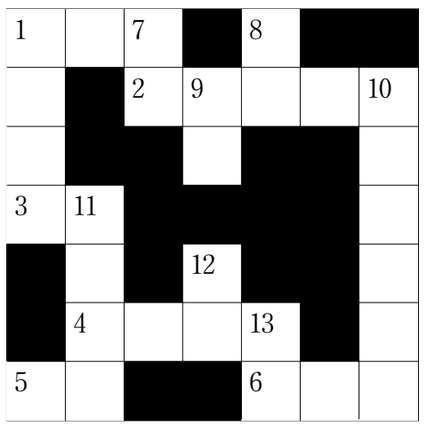
답 3 : 현대인들이 추구하는 출세는 대부분 입신을 통한 부귀영화지요. 세속출세를 꿈꾸는 바쁜 생활 중에서 잠시 머리를 돌려 불교가 말하는 진정한 의미의 출세를 종종 돌이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가정을 이뤄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상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가정과 사회를 버리고 출세한다는 것은 출세본회나 서래본의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사회에 머물러 있으면서, 가정에 충실하면서, 사회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면서 출세의 경지를 추구하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세속적인 출세와 불교적인 의미의 출세가 동시에 이뤄지면 그때 비로소 행복은 완성될 것입니다.(쉬어가는 사람)

답 4 : 만해 스님은 '출출세간(出出世間)'을 강조했습니다. 세간에 있든 세간을 벗어났든 그 경계를 분별하고, 또는 집착하는 것을 경계한 말씀이죠. 멋지지 않습니까?(만해스님)

붓다뉴스(www.buddhanews.com)에 '네티즌 교리 문답' 코너가 있습니다.

상식퍼즐



정답은 26면에

가로
1. 구기자나무의 열매 2. 남아메리카에 위치한 나라로 수도는 부에노스아이레스 3. 스승의 가르침을 받거나 받은 사람이란 의미로 비슷한 말은 제자 4. 공법상의 금전급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행정청이 강제적으로 의무가 이행된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처분 5. 6조 혜능, 8조 ○○, 9조 지장 6. 암벽이나 구릉에 새긴 불상.

세로
1. 신라 말과 고려 초에 형성된 선종의 아홉 파(派)를 일컫는 말 7. 심리학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식이나 관념을 이르는 말 8. 독일 남부 바이에른주(州)의 주도(州都) 9. 신문 · 방송 등에서의 보고기사 10. 아미타 부처님께 귀의한다는 의미 11. 우리나라 국군 장병들이 하는 맨손체조 12. 가난한 지식인부부의 애환을 속물적인 인물과 대비하여 형상화한 현진건의 단편소설 13. 빨리 달리는 말 또는 '세찬 기세'를 이르는 말.



히말라야 잠재운 산사람들의 우정

엄홍길의 약속
심산 지음 | 이레 펴냄 | 9천원





에베레스트 등정후 하산때 숨진 백준호, 박무택, 장민 등을 위해 기념탑을 만든 휴먼원정대원들.

에베레스트 절벽에 얼어 붙어버린 동료 시신 거두러 떠난 휴먼원정대 18인의 생사를 뛰어넘는 감동 스토리

2004년 에베레스트 등정때 하산 중 숨을 거둔 세 명의 산악인 故 백준호, 박무택, 장민.

여성 산악인 오은선은 해발 8,750m 에베레스트 절벽에 꽁꽁 언 채 매달려 있는 박무택의 시신을 목격한다. 엄홍길과 박무택은 칸첸중가 설산에서 비부아크(야영장비 없이 야외에서 하룻밤을 보내는 것)를 하며 생사를 함께 했고, K2와 시사팡마, 초모랑마(에베레스트의 티베트 지명) 등정에도 동행한 형제 이상의 사이다. "무택이는 나한테 등반 파트너 이상이에요. 그 놈은 내 친동생이나 다름없었어요."

엄홍길 대장은 이미 예정돼 있던 로체사르(8,400m) 원정을 뒤로 미루고 에베레스트의 차디찬 설원 속에 외로이 누워있는 후배들을 가족의 품으로 데려올 결심을 한다. 마침내 18명으로 이루어진 휴먼원정대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초모랑마로 떠났다.

처음 휴먼원정대가 결성될 때 국내외 산악인들은 모두 '불가능하다'는 말만을 되풀이 했다. 시신이 있는 8750미터면 세계 제 2봉인 K2보다도 더 높은 곳인데, 과연 수습이 가능할 수 있을까란 물음에 모두들 회의적이었다. 그곳은 이른바 등반가인 라인홀트 메스너가 명명한 '죽음의 지대'에 속해 있어 아무리 뛰어난 등반가라 해도 제 한 몸 가누기조차 버거운 곳이기 때문이다.

"단순히 정상에 오르는 것을 목표로 한 원정이었다면 그렇게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을 겁니다. 정상에 오르는 것과 그 밑에 누워 있는 대원의 시신을 수습하는 일은 전혀 다른 차원에 속합니다. 특히 이번 등반 과정 내내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유족들의 상처를 곁에서 지켜봐야만 하는 것은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마침내 77일간의 사투 끝에 박무택의 시신을 수습해 에베레스트의 양지 바른 곳에 안장했다.

이 책은 엄홍길 대장이 이끄는 '2005 한국 초모랑마 휴먼원정대'에 참여한 산악전문 작가 심산 씨가 그들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그려낸 것이다. 책은 산 사나이들의 사선을 넘는 우정을 전해준다. 지난 7월 8일 MBC-TV를 통해 방송됐던 '아, 에베레스트'나 신문지상에서는 확인하지 못했던 고인들의 개인적인 면모, 원정지에서의 모습, 휴먼원정대의 진한 우정과 동료애를 잘 담아냈다.

시시각각 다가오는 죽음의 공포와 싸우며 동료를 구하려다 차례로 희생되는 고인들의 고독한 최후, 사직서까지 내며 친구를 위해 원정대에 합류한 가슴 뜨거운 사내들의 순수한 열정, 눈사태, 크레바스(빙하가 뒤틀리면서 생긴 깊은 웅덩이), 낙석, 강풍, 실족 등 눈 깜짝 할 사이에 생사가 갈리는 극한 상황, 그리고 세계 등반 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죽음의 지대' 에서의 시신 수습과정 등은 길고 험난했던 원정 과정을 극적으로 부각시킨다.

"지난 20년간 히말라야를 등반하며 저는 오직 정상만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휴먼원정대 등반에서 한 번도 정상을 쳐다보지 않았어요. 오랫동안 잊고 살아왔던 것들을 되짚어보는 계기였지요."

이런 엄씨의 고백처럼 그가 떠올린 것은 우정, 의리, 약속 등이었다. 오랫동안 빛바래왔던 단어들에 생기를 불어넣는 작업이기도 했다. 8000m가 넘는 곳에는 예전에도 시신들이 있었다. 정상만을 보고 올라갈 땐 잠시 공포와 연민을 뒤로 하고 앞으로 나아갈 뿐이었다. 그런데 이제 그가 이렇게 묻는 것이다. "히말라야 정상에 서는 것이 시신을 외면할 만큼 가치 있는 것일까요?"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 끝내 도전을 포기할 수 없었던 휴먼원정대. 그들을 통해 우리는 인간애, 우정, 의리, 약속, 희생과 같이 너무도 빛바랜 단어들의 소중한 가치를 새삼 깨닫게 된다. 바로 이들이 그려낸 '휴먼 스토리'는 각박해진 삶의 무게 때문에 '휴머니즘'을 잃어가는 우리들에게 삶의 의미에 대한 고찰을 이끌어 내고 있다. 또한 젊은 나이에 삶을 마감한 악우(岳友)들의 혼을 거두기 위해 석달이라는 시간을 보낸 휴먼원정대는 인간이 지켜야 할 가장 아름다운 약속을 보여준 모범이 될 것 같다.

김주일 기자

전문가 서평



야심만만 심리학 - 정말 궁금한 사람의 심리를 읽는 90가지 테크닉
시부야 쇼조 지음 | 김경인 옮김
리더북스 펴냄 | 9천원

사람의 표정, 말투, 사소한 행동과 습관, 업무스타일, 즐겨 쓰는 소품과 패션을 통해 사람의 마음을 꿰뚫는 90가지 심리 테크닉을 알려주는 책이다.

정신의학자이면서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에 조예가 깊은 지은이는 이 책에서 눈에 보이는 현상과 눈에 보이지 않는 실체를 끊임없이 대비시키면서 인간심리의 심연으로 다가가는 '타인의 마음읽기' 노하우를 제시한다.

특히 지은이는 인간심리가 생활 속에서 어떻게 표현되며, 우리가 정말 알고 싶어하는 인간심리가 무엇인지, 나아가 다양한 인간관계에 대처할 수 있도록 우리가 흔히 간과하는 상대의 언어적 · 비언어적 의사소통 행위를 지은이의 일반적인 경험에 기초하여 풍성한 사례와 함께 제시하고 있다. 사람의 심리에 대해서 궁금했던 것을 속 시원하게 풀어주는 책이다.

이 책에서 소개하는 내용을 보면 대인관계에 도움이 되는 내용이 많다. 우선 습관을 보면 그 사람의 숨겨진 성격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술먹을 때 2 · 3차 가자는 사람은 마음이 외로운 사람

습관을 알면 성격이 보인다

이다 △같은 또래와의 사귐이 대부분인 사람은 자기주관이 뚜렷한 사람이다 △혼자 여행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타고나길 낙천적인 사람이다 △차도까지 나와 신호를 기다리는 사람은 신경질적인 사람이다 △타 업종 사람들과 교류가 잦은 사람은 미래의 자신을 볼 줄 아는 사람이다 △포장지를 찢어 선물을 꺼내는 사람은 솔직한 사람이다.

지은이는 또 얼굴표정만 봐도 그 사람의 속마음을 알 수 있다고 설명한다. △눈썹이 연한 사람은 정이 별로 없는 사람이다 △눈동자가 큰 사람에게는 한눈에 반하기 쉽다 △눈을 내리뜨는 사람은 뭔가 켕기는 것이 있는 사람이다 △생각하면서 눈동자를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사람은 계산에 강한 사람이다 △생각하는 동안 시선이 왼쪽 위로 향하는 사람은 진실을 말하고 있는 사람이다 △시선을 전혀 맞추지 않는 사람은 당신에게 부정적인 사람이다.

또 지은이는 직장에서 업무 스타일을 보면 그 사람의 심리를 알 수 있다고 소개한다. 예를들면 쉽게 OK하는 사람은 나중에 NO라고 말할 사람이라는 것이다.

메일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사람은 가벼운 대인공포증이 있는 사람, 단순작업이라도 머리를 쓰는 사람은 의욕이 있는 사람, 술자리에서 일 얘기만 하는 사람은 슬럼프에 빠진 사람, 책상 위가 어질러진 사람은 지나치게 '사람 좋은' 사람, 형식을 너무 앞세우는 사람은 강박관념을 갖고 일하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심리학 책이지만 사람의 행동과 말을 통해 타인의 심리를 쉽게 파악하도록 설명해 놓아 심리학은 물론 대인관계에 불안을 느끼거나 취약한 사람들에게 인간의 심리에 대한 흥미를 유발시켜주기에 충분하다.

■조영만(서울대 심리학과 강사)

"법회때마다 음향 때문에 고생 하셨다면..."

사찰에 설치된 음향이 대부분 단순히 확성기능의 음향 시스템이었습니다.
이제, 저렴한 가격에 스님의 법문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음향 시스템을 갖추십시오.

취급브랜드 JBL dbx AKG MACKIE crown



믿을 수 있는 회사와 제품을 원하신다면 스님이 운영하는 (주)야단법석과 상의 하십시오

전화 주시면 무료로 점검 및 음향 설계해 드립니다.

야단법석 문의 : 050-5844-0108 (관음사업부)

사원 모집 ㈜야단법석은 개인의 능력보다는 불법에 대한 신심을 더 중요시하는 회사입니다. 신행생활을 하면서 안정된 직장생활을 원하시면 야단법석과 함께 하십시오.

• 모집구분 : 지점장 - 남 0명, 여 0명. 사 원 - 남 0명, 여 0명
• 근 무 처 : 본인 거주지 • 문 의 : 050-5244-0108

불교방송과 현대불교신문이 자세히 소개한

영산범음집

한글해설판 사물장단악보

천도재(49재)나 각종 시식에 영산범음집(靈山梵音集) 한 권이면 여법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영산범음집 특징

●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순서대로 진행하면 재가 끝나도록 구성됨. 운운(云云)은 없음
● 전문(全文)에 걸쳐 한글해설을 실어 내용을 알고 집전할 수 있도록 함
● 장경연구소의 서체지원으로 고문자(古文字) 이체자(異體字) 100% 완벽조판
● 바라춤과 요잡 등, 각종 진언의 사물장단 (쇄. 태징, 북 등)악보를 실어 이해를 도움
● A4크기. 얇고도 질긴 최고급 재질, 이중배접 고서제본방식. 320쪽 (본문, 해설편, 장단편)

정가 50,000원 (구입시 상용천도집 증정)

영산범음집 한문본. 상용천도집. 범음범패집 카세트와 비디오를 가지고 계신 스님들과 불자님들은 할인혜택이 있습니다.

농 협 121047-52-069528
우체국 600841-02-046873 (예금주 이판암)

(080)208-8000. 8008
범패연구소 http://www.pompae.com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최신 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 교회, 창고, 공장, 가정집(전문시공)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전국무료전화 080-011-8504 (바로공사)

서 울 : 011-379-0667
강원도 : 010-3044-9708
경기도 : 019-690-4018
충청도 : 011-327-7697
경상도 : 010-9697-8580
전라도 : 011-368-0667

조은칼라지붕공사

소원성취 기도도량

봉화 약수암

봉화에 위치한 **약수암은 부처님의 가피와, 산신각의 산신 할아버지의 영험함, 그리고 경내 석간수로 흐르는 약수의 치유력**으로 고통받아 오던 신도들이 건강을 되찾고, 소원하던 바를 이루어 가며 점차 기도도량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난치병으로 죽음만을 기다리던 김순분 보살님, 극심한 고통을 동반한 지병으로 삶을 포기했던 박정희 보살님.... 약수암 부처님께 의지해 지극한 정성으로 기도한 결과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신도님들 또한 약수암의 기도로 원하는 바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약사암

삶의 끝에 서 있다고 절망하는 신도님들께 마음과 질병의 치유를 함께할 수 있는 약수암을 알려드립니다. **부처님의 가피는 돈보다 지극한 정성의 마음**이면 무엇이든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경북 봉화군 소천면 분천2리 약수암
(분천역 바로 뒤 / 영주에서 봉화를 거쳐 현동, 울진방향)
054)672-7932

이야기가 있어 아름다운 '텅빈 충만'



국보와 보물이 있는 옛 절터 이야기
김남용 지음
일진사 | 1만6천원

논밭 가운데 우뚝 서 있는 굴산사지 당간지주(보물 제86호)와 감포 앞바다를 굽어보고 있는 감은사지 석탑(국보 제112호). 한때는 웅장한 규모와 위용을 자랑했지만 지금은 텅 빈 절터를 지키고 있는 문화재들이다. 부처님을 모신 법당과 법당을 찾는 불자들의 발길은 사라졌지만, 석탑과 부도 등의 문화재는 절터를 지키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말없이 설하고 있다.

문화재들이 전하는 이야기를 전해 들은 탓일까? 최근 전국 2~3천여 개에 이르는 폐사지를 보호하기 위한 '폐사지 보존 법안(가칭)'이 국회 상정을 준비 중이고 한 문화 단체는 '1폐사지 1지킴이 운동'을 발족시키는 등 폐사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보와 보물이 있는 옛 절터 이야기> 역시 전국에 산재해 있는 폐사지에 대한 헌사(獻詞)다. 지은이는 김남용 교수(신흥대학 소프트웨어 개발과). 불교에 별다른 관심이 없었던 김 교수는 어느 날부턴가 무성한 잡초 속에 방치된 채 우리의 관심 밖으로 멀어져가던 유물 유적들과 함께 과거로의 여행을 시작했다.

"보존 ·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절터가 있는가 하면, 유지보수가 안 되어 흉물스럽게 변하거나 도로 공사 등으로 인해 파괴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도 보았습니다. 옛 절터는 곧 우리 민족의 소중한 문화이고, 후손들에게 물려준 무한의 보고(寶庫)라는 생각에 절터 기행을 시작하고 책으로 펴내게 됐습니다."

책에서는 폐사지 중 국보나 보물로 지정된 불교문화재가 있는 폐사지 15곳을 소개한다. 석조여래좌상(보물 제541호) 삼층석탑(보물 제545호) 등 다섯 점의 보물을 품고 있는 홍천 물걸리사지, 유일하게 북쪽을 향해 서 있는 석불입상(보물 제96호)이 있는 충주 미륵리사지 등 수많은 이야기를 품고 있는 폐사지를 사진과 함께 만날 수 있다. 풍부한 사진자료와 함께 폐사지를 둘러보다 보면 절터에 굴러다니는 돌멩이 하나에서도 선조들의 숨결을 찾으려는 지은이의 노력을 읽을 수 있다.

여수령 기자



웅장한 법당과 분주한 사람들의 발길은 사라졌지만, 문화재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폐사지를 지키고 있다. 사진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북쪽을 향해 서 있는 충주 미륵리사지 석불입상(보물 제96호)에서 바라본 절터.

염불선의 정수 '염불환향곡' 최초로 완역



〈염불환향곡〉은 18세기의 기성쾌선(箕城快善) 선사가 우리 마음의 본원으로 돌아가자고 지은 '염불송'입니다. 뜻이 깊으면서도 내용이 쉽고 운율이 부드러워 조석 예불 후 부처님을 찬양하는 염불로 널리 사용되었던 아름다운 송입니다.

〈염불환향곡〉은 염불 정진하여 고향(극락정토)으로 돌아가기를 서원하는 염원이 담긴 책입니다. 현대불교신문사는 처음으로 〈염불환향곡〉을 한글로 완역했습니다. 법보시용으로 매우 훌륭한 〈염불환향곡〉을 통해 보다 많은 불자들이 숭고한 신심을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보급문의 (02)737-0695

"부처님이 우리를 돌아보고 있다"



THE LAST WORD, 부처님의 유언
공파 스님 엮음
맑은소리 맑은나라 | 1만원

"어떤 동기에서건 어떤 인연에서든 간에 이 한권의 책을 집어 든 순간 당신은 이제 한쪽 길만을 과감히 선택해야 한다. 인생에서 부처의 길이냐 아니면 중생의 길이냐를 두고 후회 없는 한판의 매서운 결단을 내려야 한다. 어떻게 할 것인가? 부처가 되든 중생이 되든 그 결과는 오로지 지금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것이다."

1996년 첫 선을 보인 이후 10년 만에 다시 세상에 나온 〈부처님의 유언〉 표지 글이다. 독자들을 향해 서슴없이 협박에 가까운 선택을 요구하고 있는 이는 바로 부처님 최후의 말씀이 담긴 〈불유교경(佛遺敎經)〉을 우리말로 역해한 공파 스님(부산 아미타도량 원효학당)이다.

계율 · 마음 · 음식 등에 대해 설한
부처님 최후 유언 '불유교경'
영어 · 우리말로 옮기고 해설

책의 표지 글만큼이나 눈길을 사로잡는 것이 또 하나 있다. 바로 뒤를 돌아보고 있는 불상이 담긴 표지다. 금빛이 군데군데 벗겨진 이 불상은 지긋한 눈빛으로 뒤를 돌아보고 있다. 핏덩이 같은 자식을 두고 떠나야 하는 부모가 그러하듯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듯이.

시방세계 곳곳에서 지금도 우리들을 돌아보며 안타까워하고 있을 부처님의 모습을 대면하는 당혹스러움과 함께 그분의 눈물겨운 자비를 동시에 느끼게 한다. 책 내용이 주는 느낌과 고스란히 닮아 있다.

〈부처님의 유언〉은 1996년 초판 이후 절판됐다 최근 재발간됐다. 지금까지도 책을 구하려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역자의 자상하면서도 유려한 문체와 솔직담백한 글쓰기로 부처님의 유언이 생생하게 되살아나고 있다. 때론 부처님의 말씀과 동떨어진 현실을 통렬하게 꼬집고 있기도 하다.

30여 년 동안 오로지 경전 연구와 수행의 외길을 걸어온 공파 스님은 오랫동안 〈불유교경〉을 읽을 때 마다 가슴이 아팠다고 고백한다. "어떻게 해서 부처님께서 그토록 우리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조금도 하려하지 않고, 그 분이 원하지 않았던 일들만 가려서 하며 허울 좋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자괴심 때문이었다"게 그 이유다.

부처님의 유언을 따라 살아야 하는 수행자들이, 혹은 불자들이 부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있는 현실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서언부터 결문까지 총 22장의 내용을 영어로 번역하고 해설을 붙였다. 계율 마음 음식 수면 인욕 욕심 만족 떠남 정진 정념 선정 지혜 수행 의문 진리 부촉 무상 등에 대하여 부처님이 중생들에게 당부하셨던 말씀을 전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공파 스님은 〈제법집요경〉 〈지세경〉 〈반야경〉 〈대보적경〉 등 팔만대장경 속에 보석처럼 숨어 있는 부처님 말씀들을 캐내와 인용하며 그 뜻을 다시금 되새기게 하고 있다.

그동안 〈불설무량수경〉을 새롭게 번역한 〈극락세계 Ⅰ · Ⅱ · Ⅲ〉을 비롯해 〈원문 천수경〉 등을 펴내며 현대적 언어로 부처님 말씀을 세상에 알리는 일에 몰두해온 공파 스님. "말세의 중생들을 위해 끝까지 간곡하게 당부하신 이 유언은 부처님 자비의 극치"라는 스님은 "평범한 한 사람이 남긴 유언도 함부로 어기지 않는 법인데 하물며 부처님의 말씀이겠느냐"며 늘 부처님 말씀대로 살 것을 당부한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부처와 조사를 초월한 말은?" "호떡이지"

인도 · 초기 선종 조사들의 문답 100칙 번역



송고백칙
설두중현 지음
이인혜 옮김
도피안사 | 9천원

"어떤 것이 부처와 조사를 초월한 말입니까?" 운문 스님이 대답했다. "호떡이지."

한 스님이 조주 스님에게 "화상께선 남전 스님을 만나보셨다면서요?"라고 묻자 조주 스님이 답했다. "진주에서는 큰 무가 난다지?"

납승들의 질문에 선승들은 일반인들이 전혀 알아듣기 힘든 '동문서답'을 한다. 전혀 엉뚱해 보이는 답을 통해 선지식들은 질문자 스스로 자신의 허점을 보게 하고, 의심 하나에 집중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송고백칙〉은 중국 송대 임제종의 설두중현(980~1052) 선사가 인도와 초기 선종 조사들의 문답 중 100칙(則)을 뽑아 송을 붙인 것이다. 이 〈송고백칙〉에 원오극근(1063~1135) 선사가 각 문답을 어떻게 봐야 할지를 설명하고 속담식의 짧은 평과 자신의 견해를 정리해 덧붙인 것이 바로 〈벽암록〉이다.

〈벽암록〉의 뼈대를 이루는 〈송고백칙〉을 동국대 역경위원 이인혜씨가 옮겼다. 공안의 본뜻을 살리기 위해 원문과 번역문만을 실었으며,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선문염송설화〉와 〈벽암록 강의〉를 참고해 각주로 풀이하고 있다.

이씨는 "선지식들은 다소 거칠고 과격해 보이는 선문답을 통해 수행자들이 단지 자신을 아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놓게 만들었다"며 "〈송고백칙〉은 이러한 생기들로 가득 찬 책"이라고 말한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새로나온 책



■ 〈Buddhist Snaskrit Literature of Nepal〉(샹커 타파 지음, 민족사, 1만5천원)=현재까지 전해지고 있는 네팔의 산스크리트 불전에 관한 연구서 〈Buddhist Snaskrit Literature of Nepal〉가 국내에서 영문(英文)으로 출간됐다. 이 책은 네팔에서 전해오는 대승불교 경전과 밀교 그리고 진언, 만다라 등에 관한 산스크리트 사본(寫本)을 연구한 과정을 밝힌 책으로, 세계 각국으로 퍼져간 산스크리트 문헌에 대한 연구는 물론 그 문헌에 대한 연구사도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다.

네팔의 산스크리트 경전은 13세기, 터키의 침략으로 나란사가 붕괴되자 나란다의 승려들이 네팔로 옮겨온 것이다. 19세기 중반 영국 학자인 브라이언 호드거슨이 이 산스크리트 경전의 존재를 밝힘으로써 서구를 중심으로 연구가 시작됐다.

이 책을 지은 샹커 타파 박사(트리뷰반 대학 부교수)는 불교사와 불교학에 관한 많은 논문을 발표했으며, 최근 한국학중앙연구원 교환 교수로 방한해 이번 책을 펴내게 됐다.



■ **〈현공풍수학〉**(호경국 지음, 박헌영 옮김, 전통문화사, 3만3천원)=중국 역학 연구의 대가 호경국 교수가 풍수와 길흉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고역현공학 신탐〉을 우리말로 옮긴 책이다. 양택이론의 허와 실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현공풍수의 원리와 실생활에서의 활용법 등을 통해 자연과 사람의 관계를 밝히고 있다. 옮긴이는 2005 동국대 사회교육원 가을학기 강좌를 통해 현공풍수 알리기에 나선다. (02)2260-3728



■ **〈짱뚱이의 상추쌈 명상〉**(오진희 지음, 열림원, 9천5백원)=싱싱한 상추 위에 밥 한 술 놓고 쌈장을 얹는다. 맛도 향도 별나지 않지만 모든 쌈에 빠지지 않는 상추. '짱뚱이 시리즈'로 유명한 동화작가 오진희씨는 상추쌈을 먹으며 "다른 음식을 부드럽게 감싸주면서도 원 재료의 맛을 그대로 살려주는 상추 같은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한다.

책에서는 나물 캐기, 감자 껍질 긁기, 두부 심부름 등 가난했던 시절 밥상에 얽힌 추억들을 하나하나 떠올리며 우리 먹을거리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어려운 시절을 헤쳐 나가는 지혜와 희망을 이야기한다.


<바로보인 환단고기 전 5권 출간>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을 파헤치다!
웅장한 우리의 고대사와 과학도 밝히지 못하는 우주탄생의 비밀을 밝혀놓은 환단고기.
전강대선사의 인가제자인 대원 문재현 선사님께서 명안종사의 안목으로 바로보였다.
☎ 02-522-0122
www.zenparadise.com
바른보임

기문명리학강의안내
(사주.작명.택일.단시.풍수)
www.gimun.net
◎ 교육장소 : 경희대학교 서울 캠퍼스 (문의 : 02-961-0871~2)
경희대학교 수원 캠퍼스 (문의 : 031-201-3377)
◎ 개강 일시 : 2005년 9월부터 개강
• 매주 수요일(서울) : 기초반(오후 7시 - 9시) - 조식법. 원리론
• 매주 수요일(수원) : 기초반(오전 10시 - 12시) - 조식법. 원리론
• 매주 목요일(서울) : 고급반(오후 7시 - 9시) - 인사명리해단. 기문택일
• 매주 화요일(수원) : 고급반(오전 10시 - 12시) - 인사명리해단. 기문단시
• 매주 화요일(수원) : 생활풍수(오후 1시 - 3시) - 주택의 길흉및 길층흉층 분석
◎ 원서접수 : 2005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선착순마감
(경희대학교직접방문접수 및 인터넷접수가능)
◎ 제출서류 : 소정양식의 입학원서. 사진2장

◎ 담당 교수 : 손 혜림
(동국대학교불교대학원 6기)
민강 손혜림 기문명리원대표
(02-3476-3433)
기문명리학이란? 일반적인 명리학이 단지 운명을 추측하는 추명학이라면 기문명리학은 정해진 운명의 바코드를 정확히 읽어내는 정명학입니다. 본 강의는 단군시대부터 전해오는 정통의 특수비법을 현재의 전맥자이론에 근거하여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전수해드립니다. 카운셀링이나 심리요법을 하는 분, 종교사업 운영이나 명리상담원을 하는 분, 특히 혼미한 세상의 등불이 되고자 하는 사명감을 지니신 분들께는 참으로 필요한 학문입니다.
손혜림원장 특별 개인지도 60회 완성
서울강남고속터미널건너편 뉴코아옆 반포쇼핑 7동 407호 02)3476-3433

통증.근육통 완화
"관절 · 허리통증 · 어깨결림 각종통증"
적외선조사기(통증 완화) 탄생
1먹고 2바르고 3.찜질하고
123시스템으로 통증에서 해방

적외선조사기
통증, 근육통완화
1·2·3시스템으로 해결하세요
먹고 1 자생환 신비생기가활력
바르고 2 써버크림
찜질하고 3 적외선조사기
공동개발 (주)일신코리아 (주)고려생약
대리점모집 문의전화 080-521-6666

제 50회
3000배 용맹정진
500만 배 첫만한 첫견스님과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죽비소리에 맞춰 일사분란하게 절을 하며 공경심으로 부처님을 찬탄하며, '부처님 크신 은혜 고맙습니다' 일 만 번 염송으로 자신의 마음속에 잠자고 있던 감사함의 행복과 건강을 일깨우고, 자신의 인생에 가장 큰 걸림돌인 큰 업장 3가지는 몰록 녹아내리고, 3가지 큰 소원은 즉시 이뤄집니다.
21세기 인류 최고의 수행법이며 심신건강법이고, 가장 확실한 예방의학이며, 가장 완벽한 요가입니다.
◆ 날 짜 : 8월 27일(토) 저녁 9시 ~ 일요일 오전 7시
(절하는 법 교육: 저녁 7시~9시, 3000배 시작하기전)
◆ 준비물 : 동참비 2만원
기도포(큰수건), 수건 2개(땀 닦을 용도), 두꺼운 면양말 2켤레, 면티 2매, 수련복(하의) 2매, 간단한 간식, 물병
▶당일 저녁 공양을 준비 하지 못합니다.
◆ 장 소 : 분당 이매역 하얀마음선원 대법당
◆ 찾아오시는 길
• 전철: 분당선 이매역 1번 출구 앞, SK주유소 옆 도보로 5분거리
(분당선: 2호선 선릉역, 3호선 도곡역, 8호선 복정역 이용)
백만불자 108배 만일결사 수행중심 교육도량 법왕정사 서울 군자법당
☞ 오시는 길: 5,7호선 군자 전철역 4번 출구.
백 악관방향으로 100M 이망스 가구 4층
☎ 문의전화: 02)456-4994, 0035(팩스겸용),
http://cafe.daum.net/sorisan

간(肝)이 간염 지방간 간경화 …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 웅담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 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재래식 (가마솥) 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줍니다.

◘ 다슬기 농축액: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 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감 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입니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합니다.
◘ 다슬기 기름: 다슬기 15Kg을 항아리에 넣고 왕겨 9가마니를 덮은 뒤 왕겨에 불을 붙여 그 열로 다슬기가 땅속에 묻어둔 빈 항아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합니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데 왕겨가 다 타들어 가기까지 꼬박 8~9이 걸립니다. 한달분은 1.8리터입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 됨』
자료신청:055) 963-9583 · 상담문의:055) 355-5626
산마을 토종 (민속농원)

2005 만해축전 세계평화시인대회

세계 시인들 詩로 평화의 본질 확인



권영민 세계평화시인대회 준비위원장이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에게 <평화, 그것은> 단행본을 헌정하고 있다.



8월 12일 북한 금강산 호텔에서 열린 세계평화시인대회에서 '평화의 시' 낭송을 듣고 있는 로버트 핀스키, 월레소잉카, 로버트 하스(왼쪽부터).

소잉카 · 핀스키 · 고은 등 국내외 시인들 금강산서 평화의 시 낭송
시묶어 단행본 출간, 친필 원고는 만해마을 시벽에 영구 전시

"코라, 플루트, 바이올린의 현, 음비라, 실로폰과 발라폰이 어우러져 내는 하나의 화음,
하나의 목소리에 세상이 깨어나 현자들이 우주의 음악에 모여들면서
정지된 그 순간에 평화의 콜라나무 열매는 익어가리."

노벨문학상을 받은 나이지리아 시인 월레 소잉카(72)는 8월 14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폐막된 세계평화시인대회 평화의 시낭송회에서 시 '평화의 비전'을 읽으면서 남북의 평화, 더 나아가 세계의 평화와 온 우주의 화합을 발원했다.

만해사상실천선양회 · 강원도 · 인제군이 공동 주최한 2005 만해축전의 일환으로 8월 11일부터 14일까지 서울 신라호텔, 강원도 백담사, 북한 금강산에서 열린 세계평화시인대회에는 만해대상 수상자인 월레 소잉카, 미국의 계관시인 로버트 핀스키 등 해외 유명 시인 28명이 참가했고, 40여 명이 평화를 주제로 한 시를 보내왔다. 국내에서는 고은 대회장을 비롯해 오세영 유안진 신달자 김종길 등 50여명이 동참했다. 이들이 이번 행사를 위해 평화를 주제로 노래한 시들은 <평화, 그것은>이란 제목의 단행본으로 묶여 출간됐다. 또한 시인들의 친필 원고들은 액자에 담겨 백담사 만해 마을 야외 전시장에 설치된 평화의 시벽(詩壁)에 영구 전시된다.

14일 폐막식에 앞서 '시와 평화'를 주제로 열린 심포지엄에서 미국의 계관 시인 로버트 핀스키는 기조연설을 통해 "미국 시인이라면 불교 사상과 실천에 깊은 영향을 미쳤던 승려 만해가 독립선언서의 공저자라는 것과 현대시의 선구자 한용운이었다는 것을 읽으면서 놀라게 된다"며 만해의 업적을 높이 평가했다.

월레 소잉카는 '창의성과 평화'를 주제로 한 기조연설을 통해 "평화는 포기를 요구한다. 여기서 말하는 포기란 권력을 향한 욕심의 포기이며 그것은 억압이 아닌 자유의 끝없는 가능성의 의식을 채워넣는 작업과 연결된다"며 "이런 휴머니티의 지평을 확장하는 인간의 노력에 필요한 것이 바로 시적 감수성"이라고 말했다.

한편 8월 12일~13일 북한 금강산 호텔에서도 '세계평화의 시 낭송' 대회가 열렸다. 이날 행사에서 고은 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 곳은 얼마전 남북 작가들이 분단 60년만에 만나서 문학축전을 개최한 바 있는 역사적인 곳"이라며 "세계 각국 대표들이 모여 평화의 본질이 곧 시의 본질임을 확인하는 것이 바로 이번 행사의 개최 목적"이라고 밝혔다.

12일 저녁 6시부터 금강산 호텔에서 만찬 형식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는 이근배 김학렬 신경림 권기호 등 한국측 시인 20여명과 나오바랏 퐁파이분(태국) 로버트 하스(미국) 헤티아랏치(스리랑카) 인두자인(인도) 우틴묘(미얀마) 등 세계 각국 시인 20명 등 총 40명이 평화를 주제로 한 자작시를 낭송했다. 총 3부로 나눠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는 각 부가 끝날 때마다 판소리공연과 가야금 공연으로 흥을 돋우기도 했다.

다음날인 13일 참가단 일행은 구룡연과 현재 복원중인 신계사를 방문했다. 신계사 복원현장에서 미국의 시인 로버트 하스 버클리대 교수는 "북한 금강산의 대다수 사찰은 한국전쟁중 미군에 의해 파괴된 걸로 알고 있다"며 "불자는 아니지만 미국 사람으로서 꼭 이 곳에 와서 미안함을 부처님께 전하고 싶었다"고 감회를 털어놓았다.

글 · 사진=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동남아불교국 시인4인에게 듣는 詩세계

■ 이쿠라 고헤이(65 · 일본)



'내면을 향한 긴긴 여로에서 사라 꽃 피는 무인의 달을 지나갔다. …스스르 스스르
꽃잎은 우주의 어둠속을 미끄러져 갔다'
<시집 '지구의 물가' –사라의 끝부분중에서>

최근 시작(詩作)에 대한 관심의 중점을 '사라 체험'에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평화에 대한 희구와도 상관되는 것이지요. 새로 사라를 테마로 최근에 몇 작품 만들었을 때 출가한 옛 직장 동료가 '사라'에 관한 내용을 사전에서 복사해 보내줬습니다. 산스크리트어로 쓰여진 '사라'에는 식물이름이외에도 '둘러쌈' 이나 '집안에 있다'라는 명사나 형용사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인간은 사라라고 불리는 누군가를 찾아 헤매는 영원한 나그네입니다. 그것은 인류의 비장한 소원인 평화를 기원하는 이미지하고도 겹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얀 꽃, 시의 어휘만큼, 시어에 의한 이미지의 힘만큼 우리의 생명과 깊게 이어진 것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사라'에 대한 시작을 몇편 더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라 꽃' 통해 인류의 소원 평화 기원

■ 시리세나 반다 헤티아라치(66 · 스리랑카)



'친구들이여, 우리 이제 평화를 위해 시를 씁시다. … 종교가, 우리의 기도가 이 땅의 평화를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그 어디에 우리 믿는 자들이 설 수 있겠나이까.' <이제 한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소서 중에서>

나는 주로 스리랑카의 자연환경과 스리랑카 민족의 서정을 노래해 왔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불교문화에 훈습된 싱할라 민족의 문화와 생활을 서정적으로 그리는 작품이 많았지요.

물론 나는 서구에서 공부해 비교적 서구화된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 작품은 동양적 세계관인 석가 세존과 불교의 원형을 현실 속에서 구현하려는 이미지를 시풍으로 표현하려고 애씁니다. 그래서 지금도 새벽 4시면 일어나 명상과 경전 독송을 합니다. 부처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그것들과 내 마음이 일치했을 때 법열을 느끼며 시로 표현합니다.

이번이 12번째 한국방문인데 요즘에는 부산 동국전법대학과 범어사 승가대 강의 때문에 한국에 자주 오는 편입니다.

부처님 말씀 내 마음 일치할때 시로 표현

■ 나오바랏 퐁파이분(65 · 태국)



'인간은 평화를 원한다. 평화는 도처에 퍼져 나가 행복을 느끼게 한다. 인간은 현실과 반대인 아름다운 세상을 얻고자 한다.' <평화 중에서>

28살 때 10개월동안 승려 생활을 한적이 있습니다. 그 때 경전 강독과 행선(行禪)을 많이 한 것이 시를 쓰는 데 큰 디딤돌이 됐습니다. 내 시세계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째는 내면의 평화입니다. 불교의 교리들을 시상으로 녹여 독자들에게 마음의 평화와 안식을 느낄 수 있는 작품들을 많이 썼습니다.

둘째는 인본주의입니다. 가깝게는 내가족을 비롯해 내이웃, 내 동포 등 인간을 사랑하게 하는 것이 내 시의 목표중 하나입니다.

셋째는 낭만주의입니다. 나는 시인일뿐만 아니라 플루트 연주자이기도 합니다. '낭만'이라는 것은 인생을 풍요롭게 하고 서로를 화합하게 하는 좋은 시의 재료이지요. 그래서 시낭송을 할때 플루트 연주도 함께 합니다.

'낭만'은 서로 화합하게 하는 좋은 소재

■ 우틴묘(62 · 미얀마)



'고타마 붓다께서 중앙의 인도에서 시작하여 설하고 훈계하신
세상의 평화를 위한 인간계에서의 사십오 년, 전력을 다해 법을 보이신 뒤
삼장(三藏)의 고귀하신 법 남기셨다.'
<평화에 대한 회답중에서>

내 시에는 불교적 소재와 자연의 아름다움, 소박한 미얀마 사람들의 일상이 자주 소개됩니다. 불자로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시로 옮기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요. 미얀마 사람들의 불심은 상당히 돈독합니다. 나도 아침마다 매일 40분씩 부처님을 향해 기도를 올리지요. 그런데 매일 부처님을 향한 내마음이 다릅니다. 이런 마음의 변화들을 주로 시로 옮기지요.

미얀마의 자연은 아름답고 소박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도 순수하고 소박하지요. 이들의 삶과 미얀마의 자연을 시로 옮길 때 가장 큰 행복을 느낍니다. 이것이 시인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시를 쓰지는 않지만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좋은 시로 옮기기 위해 불교 공부와 위빠사나 명상을 매일 합니다.

불교 자연 순박한 삶의 표현은 나의 의무

梵魚寺 간화선 대중화를 위한 10대 선사 초청
범어사 설선대법회 법문세트
문 없는 문을 열다



범어사와 현대불교신문사가 공동주최한
'범어사 설선대법회'의 열분의 법주스님들의 법문
카세트테이프 10개 1세트

판매처 : 마하몰 www.mahamall.co.kr
02)732-1520 / 02)2004-8218~9

입금계좌 : 국민은행 006-01-0785-361 현대불교신문사
우 체 국 010041-01-012219 현대불교신문사
농 협 053-12-113210 하동규

30,000원(무료배송)
500세트 한정판매

※ 설선대법회 CD, Video도 있습니다. (각10,000원)

현대불교신문사
보살님! 올 백중재에는
'염불환향곡'이 인기입니다!

어디 염불만한 기도와 수행이 있겠습니까?

올 봄, 현대불교신문사에서는
『염불환향곡(念佛還鄕曲)』을 출간하였습니다
『염불환향곡』은 뛰어난 운율의 미와 탄탄한 구성 그리고 국내 최초의 가요체 염불곡으로서
연세가 많으신 분도 외우거나 따라 읽기 쉽게 리듬이 스며있는 현대인의 불교 수행 지침서입니다
이제 염불로서 각 가정에 부처님 말씀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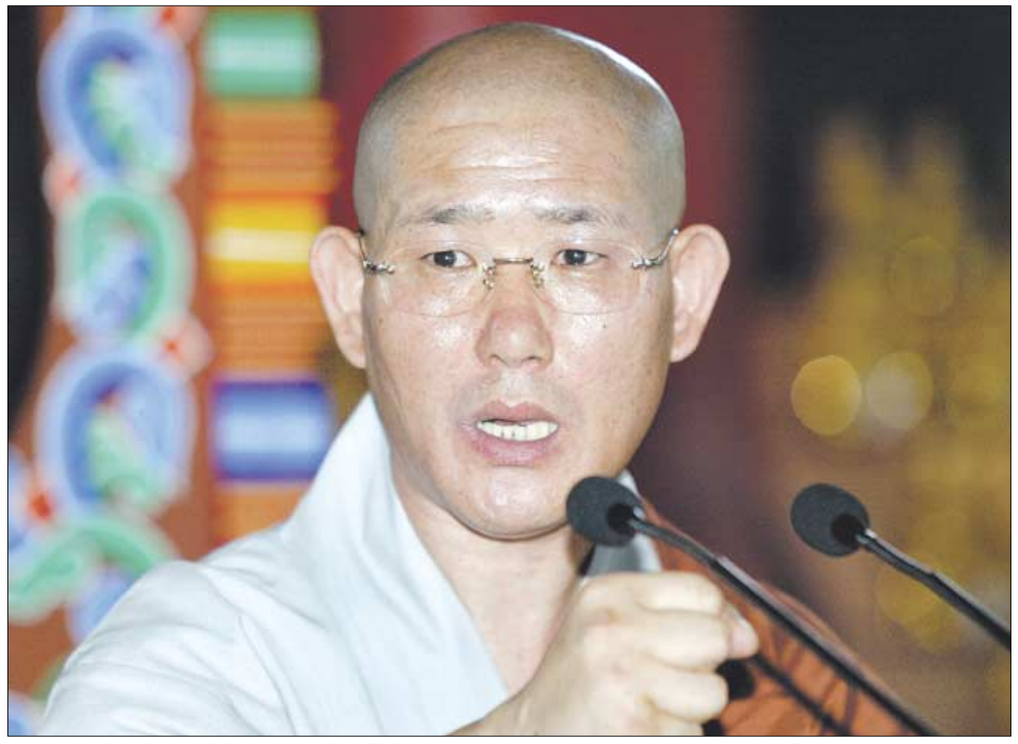
염불환향곡(念佛還鄕曲)
기성 쾌선 지음, 현대불교신문사 엮음
해설집 : 신국판 / 200쪽 / 가격 7,000원
독송집 : 국배판 / 92쪽 / 가격 5,000원

구입은 인터넷 · 통신판매 여시아문(www.yosiamun.com)에서
즉시 전화 · 인터넷 주문배달 되며,
대형 서점 및 불교총판서점에서도 구입이 가능합니다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현대불교신문사(연수원) Tel:02)2004-8200(代), 02)2004-8220(여시아문), 02)2004-8225(출판부) Fax:02)737-0696

계율 정신대로 산다는 것은?


"대승불교를 지향하는 한국불교는 오랫동안 남방불교의 율장에 의존해왔다." 마성 스님은 "이제 한국불교도 계율에 대해 고민해야 할 때"라고 일갈했다.

동화사 - 현대불교 공동 주최
'깨달음으로 가는 길' 계율수행 대법회 2

주제 : 상좌부 상가와 팔리율장 (8월 13일)
법주 : 마성 스님 (팔리문헌연구소장)

부파분열과 율장의 결집, 율장의 종류와 팔리율장, 상좌부 상가와 팔리율장 등의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율은 범어 '실라'를 번역한 '계(戒)'와 '비나야'를 번역한 '율(律)'의 합성어입니다. '계'는 누가 말하기 전에 내가 지키겠다고 약속한 '준수사항'이고 '율'은 삼가야 할 '금지사항'입니다. 계는 자율적인 것이고 율은 타율적인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후 여러분들은 맥주 한 잔을 마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음주는 불자의 양심에 비추어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처벌을 받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건강을 위해 자제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자율적인 '계'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율은 무엇이냐? 음주운전은 하면 안 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이것은 금지된 것입니다. 범하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음주는 자발적으로 결정할 문제지만 음주운전은 해선 안 되는 '율'과 같습니다.

율장결집이 이뤄지던 옛날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부처님이 보리수 앞에서 깨달음을 얻은 후 녹야원에서 다섯 비구에게 법을 설한 것을 초전법륜이라 합니다. 이때 최초의 불교교단이 생겨났습니다. 저는 이 불교교단을 지칭하기 위해 '상가'란 말을 사용하겠습니다.

한자 '승가(僧家)'에는 승려, 승려의 모임이란 의미 밖에 없습니다. '상가'는 승가를 포함해서 승단 고유 운영체제, 104 갈마법 같은 회의법 등 제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좀더 넓은 개념입니다.

상가제도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상가제도는 당시 인도의 통치제도 중 공화제에서 비롯됐습니다. 공화제는 독재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가는 전체의 공의를 모아 다수결이나 만장일치로 모든 일을 처리합니다.


부처님의 청정계행을 배우겠다는 열기가 8월 13일 대구 동화사 통일기원대전을 가득 채웠다.

상가의 원칙 '평등'과 '무차별'

상가의 원칙은 무엇일까요? '평등'과 '무차별'입니다. 성직자인 '바라문' 뿐만 아니라 천민인 '수드라'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한다면 상가의 구성원이 될 수 있습니다. 상가는 평등한 교단, 개방된 교단을 기치로 걸고 화합된 승단으로 출발했습니다.

누구나 승단에 들어올 수 있다는 원칙은 오늘날 상좌부 국가에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태국이나 미얀마에는 사회생활을 마친 후 노년에 출가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한국불교는 반대죠. 종헌종법에 따라 마흔 살이 넘으면 출가를 못 합니다. 출가하고 싶다면 여러분도 빨리 결정해야 합니다.

상가는 평등교단입니다. 부처님이든 재가불자든 상가 안에서는 어떤 형태의 차별도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한국불교는 사미 사미니들에게 노란 테를 두른 옷을 입힙니다. 이것은 먼저 출가한 사람들의 폭거입니다. 고쳐야 합니다. 어느 불교국가에서도 비구와 사미를 옷으로 차별하지 않습니다.

교단 분열의 원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계율의 조항을 엄격하게 고수하려는 보수파와 계율의 조항을 수정 보완하려는 진보파의 대립 갈등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인도 베살리에 살던 밧지족 스님들은 부처 입멸 후 변화된 현실에 맞게 계율을 변화시키고자 했습니다. 회의가 열렸지만 밧지족 스님들의 주장은 거의 받아들여지지 못했습니다. 밧지족 1만여 스님들이 따로 나가서 대중부를 구성했고 그들 나름의 율장을 제정했습니다. 남아있던 스님들이 상좌부교단을 구성했습니다.

이들 스님이 갈등한 문제는 지금 보면 별게 아닙니다. 계율에는 음식저장을 일체 금지했는데 '소금은 좀 가지고 다니면 안 되느냐'는 아주 사소한 문제입니다. 밧지족 스님들은 탈수를 막기 위해 소금만은 가지고 다니도록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대결은 보수파의 승리로 막을 내렸습니다. 정치는 개혁을 할수록 좋지만 종교는 그렇지 않은 모양입니다. 종교는 옛 법을 고수해야 합니다. 그것을 고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결과 20가지 부파가 차례로 나타났습니다. 20가지 부파는 각자의 율장을 제정했는데 모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지금까지 남은 것은 6가지 율장입니다. '사분율' 등 다섯 가지 율장은 한역된 것이며 나머지가 '팔리율장'입니다.

'팔리율장'은 크게 세부분으로 나눠집니다. 목차와 서론에 해당하는 '숫다비방가(Sutta-vivanga)', 본문 내용인 '칸다카(Khandhaka)'. 부록인 '빠리와라(Parivara)'가 그것입니다. 이중 칸다카 부분은 초기교단을 연구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칸다카는 교단의 제도와 규정 등 행정체계를 비롯해 출가방법, 포살법회, 자자법회, 비구가 아플 때 약을 사용하는 방법 등 상가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날 보아도 정말 아주 세세한 것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칸다카를 공부하다가 도무지 현실에 맞지 않은 계율을 여러 개 봤습니다. 그런 계율이 존재하는 원인을 알아야 합니다. 현지에 살면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한문투성이 책만 봐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들은 몇 년간 머리가 터지게 싸웠습니다.

상좌불교가 초기 교단의 원형을 유지한 이유는 뭘까요? 칸다카에 지시된 대로 교단을 운영해왔기 때문입니다. 율장은 '불제불개변(佛制不改變)'의 원칙에 따라 원형 보전이 잘 됐습니다. 경장은 편찬자의 의도에 따라 바뀔수 있지만 율장은 공동체의 것입니다. 상가 공동체가 합의할 때 율장도 변화합니다. 율장 원칙에 따라 교단을 운영하다 보니 옛날 교단의 모습을 많이 닮게 된 겁니다.

한국에도 '상가법' 도입해야

물론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부처님 재세시는 부처님의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율 도입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불멸후에는 오로지 제정된 율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대가 흐르다 보니 부처님도 생각하지 못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생겨났습니다.

상좌부는 부처님 계율 정신으로 살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계율의 조문을 그대로 두면서 약간의 조작으로 부처님의 계율정신을 어기지 않는 범위에서 적당하게 현실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법(淨法)'이 발달했습니다.

정법은 아주 중요합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생겨난 생활의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개발된 것이 '정법'입니다. 상좌부교단은 정법을 통해 새롭게 생긴 문

법회 동영상 중계
buddhanews.com

달마를 알면 건강이 보인다

인체의 알수 없는 질병.... 수맥이 원인입니다.
수맥피해! 이제 막을 수 있습니다
수맥파를 차단하는 도형화백의 달마도가 막아 드립니다


김완규 화백

▶기능보유
- KBS 수맥의 수수께끼 출연
- 수맥파 차단능력 달마그림 기능장
- 수맥탐사와 몸의 기(氣)측정
- 주택의 평면도로 수맥탐사
- 수맥파가 원인된 질병(불면증 등) 진단
- 기(氣)를 방출하는 휴대용 달마제작

■ 수맥파의 피해
- 병원에서는 모두 정상이라는데 늘 기운이 없고 아프며 우울증이 생기면서 밤에 잠이 안오고 꿈이 많을 때
- 낮에 활동할 때는 괜찮은데 밤이 되어 자리에 누우면 선잠이 들고 머리가 찌뿌등하고 일어나면 피곤합니다.
- 수험생이나 연구에 몰두하는 사람이 머리가 산만하고 학업성적이 부진하고 집중력이 떨어질 때
- 신경약화로 불면증, 식욕부진, 두통, 신경과민, 조울증, 의욕상실, 권태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 모든 약의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는다.
- 자녀가 공부를 열심히 해도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
- 별다른 이유없이 머리가 무겁고 아플 때

암환자 사는 곳의 90%가 수맥파가 있다.


▶달마 백태지상 (大 150×90cm, 小 90×70cm)
◀달마 호랑이 (70×90cm)
▶도강 달마 (70×90cm)
▶달마 1 (50×60cm)
▶심경 달마 (70×70cm)


▶불심 달마 (50×120cm)

달마상 보급운동 본부 TEL 042)623-6064, 042)636-7633
대전광역시 동구 자양동 89-38 (우송대학교 정문, 광제사 밑)

Wellbling Life

장혜명 스님께서 15년간 환경보존연구와 미생물(효소) 연구 끝에 직접 생산하신
건강기능식품인 효소발효제품 아로하, 향적당

신진대사 활성
장내플로라 개선
체질 개선
→ 활력있는 삶 웰빙 라이프

엄선된 국산의 유기농산물에 미생물(유산균)을 배양 발효시켜 효소, 아미노산, 미네랄, 비타민 등이 풍부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현대인의 건강한 삶을 위한 건강기능식품



• 아로하 : 1개월분 (270캅셀) 12만원
• 향적당 : 1개월분 (270캅셀) 24만원



장(腸)이 건강해야 전신이 건강할 수 있다 !

전국 소자본 대리점 모집 (부처님 제자이시면 더욱 좋습니다)

■ 제조 및 판매 : 선농BIO식품(주)
■ 본 사 : 대전광역시 서구 갈마 2동 1219 ■ 공 장 : 충남 홍성군 은하면 덕실리 342-8
■ 홈페이지 : http://www.sunnong.co.kr ■ 소비자상담실 : 042) 531-0026, 531-0027 / FAX 042)523-3316

※효소는 신체를 구성하는 세포의 안과 밖에서 여러 생화학작용의 촉매역할을 하여 정상적인 세포는 더욱 더 활발하게 해주고, 비정상적인 세포는 도움을 주어 세포의 생체활동에 기능적으로 관여하는 아주 중요한 물질입니다. 5000여종의 효소는 소모되어지기 때문에 보충해주어야 합니다.

제를 해결하기 위해 몇 년씩 난상토론을 합니다. 가령 최근 스리랑카에서는 스님들이 운전을 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정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난상토론을 통해 최종 부결됐습니다. 조금 있으면 휴대폰 문제가 논의될 것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율장 아니라 종헌 종법으로 규제

청정한 전통을 유지하기 어려웠던 적도 있습니다. 남인도 촐라족이 스리랑카를 침입했을 때 스리랑카 불교는 거의 와해될 뻔했습니다. 모든 사원은 파괴되고 스님들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많은 스님들은 신념을 버리지 않고 죽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이후 간신히 미얀마와 태국에서 스님들을 초빙해 스리랑카 상좌부 계단을 재건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상좌부 불교가 튼튼하게 발전하는 이유는 이처럼 계율을 목숨처럼 여긴 스님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태국의 '상가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태국은 스님인구가 40만 명을 넘는 나라입니다. 사람이 많다보면 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자발적인 계율로는 상가를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스님들도 잘못하면 상가법에 따라 스님 재판소의 판결을 받습니다.

한국도 상가법을 도입해야 합니다. 상가법을 도입하면 한국불교의 문제점을 일거에 쓸어버릴 폭탄같은 위력을 발휘할 것입니다. 승단은 우수한 재가자에 의해 관리되고 스님은 수행만 하게 될 것입니다. 불자들이 꿈꾸는 이상적인 상가가 도래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대승불교 국가이지만 남방 상좌부 국가에서 직접 수계를 받은 스님이 20명 정도 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분들이 함께 모여 활동하지 않지만 언젠가는 한국에도 상좌부 계단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엄청난 위력을 발휘할 것입니다. 미래에는 계율을 잘 지키는 상좌부가 각광받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불교와 율장에 대해 한번 생각해봅시다. 한국불교에도 율장은 있지만 율장에 의해 승단이 운영되지는 않습니다. 큰 문제입니다. 한국의 스님들은 중국에서 팔리율장을 변형시킨 청규를 받아들였고 이제는 그것을 변형한 종헌 종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한국불교 승단과 남방불교 승단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현재 대한불교조계종이 채택하고 있는 비구 비구니계는 남방 상좌부의 '사분율'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구 비구니계는 형식적으로 받는 것일 뿐 스님들은 종헌 종법의 규제를 받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분율'에는 현실적으로 한국 스님이 도저히 지킬 수 없는 것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처음부터 형식적으로 계율을 주고 받는 것입니다. 부처님 계율정신대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논의하는 대토론의 장이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정리=강유신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여러곳서 남방불교 강의

마성 스님은 1973년 진해 대광사에서 출가득도. 스리랑카 팔라불교대학 불교사회철학과를 졸업했으며, 동 대학원에서 '초기불교 인간관 연구'로 부(副) 철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영국 런던 소재 세계불교재단으로부터 명예 불교철학박사 학위를, 스리랑카 위묘다야 삐리웨나로부터 불교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팔리문헌연구소장 및 동국대(경주) 불교학과 강사이며, 태국 마하출라롱콘불교대학교 한국분교 등 여러 곳에서 강의하고 있다.

마성 스님의 제안

꼭 공개할 일이 있습니다. 재가자에게 맞는 계율이 있다는 것입니다. 보살계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출가자를 위한 보살계이고 다른 하나는 재가자를 위한 보살계입니다.

출가자를 위한 보살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범망경>에 설해져 있는 10중48경계이고 다른 하나는 <보살지지경>에 나오는 4중43경계입니다. 그런데 <보살지지경>에 나오는 4중43경계는 우리나라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장 스님이 <범망경>의 계만을 채택했기 때문입니다.

<범망경>의 10중48경계는 출가자들이 지켜야할 계율입니다. 이상하게도 우리는 이것을 재가자에게 설하고 또 주고 있습니다.

별도로 재가자를 위한 계율이 있습니다. 재가자를 위한 보살계는 <우바새계경>에 6중28경계로 설해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불교는 재가자를 위한 계율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출가자의 계를 재가자에게 주어왔습니다. 도저히 지킬 수 없는 것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살계를 설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보살계는 앉아서 받고 서서 파하더라도 공덕이 있다. 그러므로 이 보살계를 못 지키더라도 받아라."

이것은 참으로 억지스러운 말입니다. 이제부터는 재가자에 맞는 보살계를 주어야 합니다.

논 찬



재가자에 율장 비공개, 그것부터 고치자

지관 스님
(김포 용화사 주지 · 前 송광사 율원 율감)

이번 법회는 생소한 남방 상좌부 불교의 진면목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마성 스님께서 상좌부 상가에 대해 발표한 것 중에는 재가자가 있는 자리에서 논하거나 설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점을 불자들은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질문1: 율장에는 재가자들이 보아서도 들어서도 안 된다고 돼 있습니다. 왜 재가자들이 율장의 내용을 들어서 안 되는지 재가자를 대신해 질문 드립니다.

마성 스님: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율장을 재가자에게 설하지 말라는 것은 잘못입니다. 한국불교가 발전하려면 율장을 공부해야 합니다. 남방불교 스님과 재가자들은 율장을 필수적으로 공부합니다. 남방강원에서는 율장을 가장 먼저 배우고 있습니다. 재가자도 율장을 봅니다. 율장은 금서가 아닙니다.

왜 이런 전통이 생겨났는지 의문입니다. 아마 스님들이 하는 포살법회나 자자법회에 재가자가 참석하지 않는 전통이 와전된 것 같습니다. 경률론 삼장 안 보고 어떻게 공부를 하겠습니까? 공부를 해야 뭘 지킬 줄 알게 됩니다. 남방에서는 '경률론'이 아니라 '율경론'입니다. 빨리 바꿔야 합니다.

질문2: 한국불교는 대승계를 중심으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상좌부계율과 대승계율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마성 스님: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신라에 불교가 들어 왔을 때부터 어떤 계율을 지킬 것인지 문제가 됐습니다. 지명 스님은 중국에서 소승계를 공부했고 원광 스님은 대승계를 배웠으며 자장율사는 둘 다 배웠습니다.

여기서 보듯 어느 스승을 만나느냐에 따라 대승계냐 소승계냐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혼돈 속에서 한국불교는 소승계를 버리고 대승계를 선택했습니다. 대승계에 기초한 신라의 세속오계는 삼국통일을 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했습니다.



정체성 문제 제기…계율 공론화 해야

임승택
(경북대 철학과 교수 · 인도철학 박사)

평이한 사실을 개괄적으로 기술하고 있지만 상당히 심각하고 파급력을 미칠 수 있는 쪽으로 결론이 내려지고 있는 듯 합니다. 한국스님들이 부처님 계율이 아니라 종헌 종법의 지배를 받는다는 결론에서 평자는 한국불교의 정체성에 휘발성 강한 기름을 붓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질문1: 논주께서는 불교사에서 진보파와 보수파의 대결은 언제나 보수파의 승리로 끝났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진보파와 보수파의 대결은 단순화시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합니다.

마성 스님: 어떤 입장인가에 따라 불교사에 대한 해석이 달라질 것입니다. 저와 다른 의견도 가능합니다.

남전불교와 북전불교는 초기 불교사를 다르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남전은 제3결집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북전은 제3결집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역사를 바라보는 태도에 따라 사실이 상당히 달라집니다. 제 논문은 상좌부의 입장에서 기술한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진보파가 개혁을 해 성공하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면 진보파의 개혁은 다 사라져버린다는 게 제 공부의 결론입니다. 계율을 엄격히 지키는 종파만이 남았습니다. 엄격히 계율을 지킨 사람들이 불교를 보존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질문2: 논주는 상좌부를 정통으로, 이외 불교를 방계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상좌부 또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변화의 요구에 직면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마성 스님: 자신있게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현재 상좌부 교단도 초기 불교교단을 그대로 계승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초기 불교교단은 현재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나마 상좌부 교단이 원형에 가깝다고 믿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1989년 처음 방문한 스리랑카 승단과 지금의 승단도 많이 변화했습니다. 그때는 순박하게 수행만 했습니다. 남방 상좌부의 미래를 예측하기 힘들만큼 급격히 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은 분명합니다. 스리랑카 스님들이 기원전 1세기에 팔리어로 경률론 삼장을 기록해 동굴에 보관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부처님의 원음에 가까운 팔리경전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들께 고마워해야 합니다.

질문3: 논주께서는 태국의 상가법과 같은 재가법령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정적으로 수긍이 되지만 우리의 상황을 고려할 때 상가법은 이교도인 법 집행관에 의해 승가 구성원의 행위가 통제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마성 스님: 그래서 아주 조심스럽게 제안합니다. 너무 중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많이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계율을 논하는 자리에서 공론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태국같이 승려수가 많고 단기출가자가 10만여 명을 왔다 갔다 한다면 승단의 청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강제법률이 있어야 합니다. 상가법은 불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한 것이지 핍박하려는 악법이 아닙니다. 민주주의 국가가 종교를 통제한다는 것은 분명 논란꺼리입니다.

질문4: 남방불교도 계율을 다 못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마성 스님: 한국불교 상가는 근본적으로 추구하는 이상과 계율이 일치하지 않는 모순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심 있는 불교학자와 스님들이 인정하는 바입니다. 이런 언급 자체가 금지됐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말할 수 있습니다. 논의할 시점이 됐다고 저는 본명히 이야기합니다. 율을 전공하는 학자, 율사, 재가불자가 함께 중지를 모아 답을 찾아가야 합니다. 남방 상좌부 스님들도 계율을 엄격히 지키려면 활동을 못합니다. 사원 밖으로 나간 순간 계율을 지키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특히 율사는 계율 때문에 국내 여행도 하지 못합니다.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시대와 계율이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처님의 계율정신에 어긋나지 않고 어떻게 이 시대를 살 것인가 고민해야 합니다. 한국불교가 이제 계율을 고민해야 한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강유신 기자

"다음 법회에 그 답이 나옵니다"

궁금증 불러일으키는 주지스님의 '마무리 멘트'



이날 법주 마성 스님의 법문과 논찬이 끝나고 공지사항까지 끝나자 동화사 주지 지성 스님(사진)이 마이크를 잡았다. "하! 이거 큰 일 났습니다. 그동안 (신도들에게) 범망경보살계를 주어왔는데 마성 스님께서 범망경보살계가 출가자를 위한 계라 그동안 잘못 설해졌다고 하니 이제 어떡하지요? 마침 다음 법회의 주제가 '북방불교의 대승계에 대하여' 입니다. 다음 법회 법주인 혜능 스님에게 그 답을 구해봅시다."

자연스럽게 시선이 이자리에 참석한 해인총림 율원장 혜능 스님에게로 모아졌다. 참석자들은 다음주에 어떤 말이 나올까 하는 궁금함이 가득한 표정으로 자리를 마감했다.

동화사 계율수행 대법회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지성 스님이 그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스님은 법회를 끝내는 '마무리 멘트'로 그날의 법회를 간단하게 총정리하면서 동시에 다음 법회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키고 있는 것.

8월 6일 첫 법회때도 맨 마지막에 "계율이 어떻게 생겼고 신도들은 어떻게 지켜야 하고, 계율을 어떻게 생활화해야 하는가에 대해 잘 들었지요?"라고 전제하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졌다.

"어떤 스님이 길을 가다 폭우에 떠내려가는 예쁜 처녀를 보았습니다. 손을 잡는 것부터 계율을 어기는 것이라 망설였지만 죽게 내버려 둘 수 없어 어쨌든 건져내었는데 그 처녀가 물을 많이 먹어 심장이 멈추어버렸어요. 빨리 인공호흡을 해주어야 살아나게 생겼습니다. 처녀 입에다 숨을 불어넣어줘야 하는데, 해주어야 됩니까? 아닙니까?"

당연히 참석신도들은 "해주어야 합니다"라고 한 목소리로 외쳤다.

지성 스님은 "그러면 계율을 어기는 것이 되는데요?" 되묻고는 "법주스님 말씀대로 어떤 사미는 계율을 지키기 위해 목숨까지 버리지 않았습니까? 다음 법회에 그 답이 명쾌하게 나올 겁니다." 라며 참석자들이 법문에 대해 다시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를 제공했다.

다음법회에서는 주지스님이 또 어떤 '마무리멘트'로 '생각해 볼 화두'를 던져 줄까? 그것 역시 궁금하다. 이경숙 기자

자연 속에 천둥, 번개칠 때의 대기정화 방식
새로운 기술방식의 공기청정기
공기청정기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자연의 원리를 재현한 'Living Air'의 특성"
無병균 천둥,번개가 일어날 때 지구를 정화해 주는 원리를 도입하여 살균력은 100%살균 능력으로 신선한 공기 생성.
無필터 신소재 리트스크리린 방식으로 필터 교환의 번거로움이 없어 비용이 절감되고 성능의 저하를 막아 줍니다.
無소음 Thunderstorm Theory의 원리를 이용하여 제작되어 작동의 소음이 거의 나지 않습니다.
반영구 후면 신소재 스크린과 카드플레이트의 세척만으로 반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초소형 높이 30cm, 폭20cm, 무게8kg 으로 일반 가정이나 사무실,어느 곳에서도 자유롭게 이동 설치가 가능합니다.
신뢰성 미국과 캐나다환경 보호청 및 국내 산업공해연구소의 시험 합격판정을 받은 제품으로 미국내 공기청정기 시장에서 최고의 격찬을 받고 있습니다.
조절가능 5평에서 84평까지 공간에 알맞게 조절 가능합니다
자연의 신선한공기 우리가 꿈꾸는 내일
자연에서는 공기가 천둥번개와 비로 인하여 깨끗해진다. 천둥번개는 오존을 생산하고 또한 양이온과 음이온을 발생하여 자연적으로 공기를 정화 한다. 비는 오존과 이온을 지구표면에 가까이 내려오게 한다. 오존과 이온은 대기의 오염물질에 부착하여 공기중의 오염물질을 제거 하고 지상에 떨어지거나 산화 시킨다. 리빙에어는 야외의 자연적인 환경을 재현하는 것이다. 리빙에어는 인공적인 환경을 만들도록 설계되지 않았다. 자연적인 환경을 재현하는 것이 기기 내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깥 공기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리빙에어는 공기를 여과하거나 나쁜 증세를 가리거나 희석하려는 것이 아니라 공기를 청정한 상태로 정화하는 것이다. 이온화는 공기 중에서 먼지입자와 오염물질을 충전시켜 더 끌어당기게 함으로서 제거하는 자연스러운 방법을 사용한다. 입자는 계속적으로 더 큰 입자로 커지다가 결국 그 무게를 유지하지 못하고 공기 중에서 떨어져 내린다. 그리고 오존은 먼지에 남아있는 세균을 살균해 준다. 이 모든 순수한 오존이 그 본래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식은 Living Air의 생성 및 Fan에 의한 송출방식으로만 유지된다.
미국 Ecoquest사 제작 수입완제품이며 탁월한 기술력으로 스피커만한 크기로 84평까지 청정지대로 유지하며, 필터가 없으므로 교환의 수고가 없고 구입 후 별도의 유지비가 전혀 없음
인증서
▶ 산업공해시험성적서 : 오존수치(세계안전 오존(O_3) 안전수치 0.05ppm이하)
▶ CSA : 캐나다 표준협회 발행 산업안전규격 승인청
▶ EPA : 미국 환경보호청(검사인증서) ▶ 미국방성으로부터 감사장을 받음
EPA Est. Reg. No. 065975-TN-001
◀ 고려대학교 환경의학연구소 발행 분진, 수은 검사 측정결과서
다중 시설에 필요한 공기청정기 시찰 및 복지기관에 꼭 필요합니다.
model:XL-15
model:Fresh Air
TEL : (02)2055-0202
FAX : (02)2055-0279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93-7 이오빌딩 518호
www.o2air.net

정각사 화엄불교대학
기 초 반 2기 수강생 모집
● 개강 : 9월 1일(목) 10시
● 특별법문 : 보광 대선사 (해인사 보림선원장)
正法을 배우는 불자, 교양 있는 불자
능력 있고, 봉사하는 불자가 되도록
최고의 교수진이 여러분을 모십니다.
주요강좌
• 보광 대선사법문 (보광 큰스님 / 보림선원 선원장)
• 예불문 · 반야심경 (정엄스님 문학박사)
• 기초교리 (최봉수 동국대 교수)
특 강
• 불교와 상담 (이근후 교수), 시인과의 만남 (조병무 교수)
• 풍수지리 (이기만 서장), 명상수행법 (임승택 교수)
• 자녀교육과 입시 대책 (민족인재사관학원 홍성일 이사장)
제출서류 : 입학원서 (반명함판 사진 1매)
수 강 료 : 한학기 5만원 (입학금 1만원)
※ 입학자격 - 제한없음
문의전화 : 031)398-8001
특 전 : • 졸업 후 조계종 포교사 응시자격 부여
• 경전반 진학

소원이 꼭 성취되는 절 대 한 불 교 조 계 종 정 각 사
홈페이지 www.junggaksa.com (검색어: 정각사)
국민은행 계좌 639001-01-098061 (대한불교 조계종 정각사)


해마루촌 시냇가에 족대를 이용해 고기를 잡는 아이들.


여름철 별미 호박잎쌈을 먹기위해 엄마와 자녀들이 함께 호박잎을 따고 있다.

고향의 맛 느끼며 추억 만들기



팜스테이 할 수 있는 곳

농촌은 도시인들에게 몸과 마음의 쉼터다. 부모에겐 어릴 적 고향을 떠올리게 하고, 아이에겐 낯선 자연체험의 기회를 제공한다. 주 5일근무제 시행과 함께 '팜스테이'가 도시인들을 유혹(?)하고 있다. 팜스테이란 농장을 뜻하는 팜(farm)과 머문다는 의미의 스테이(stay)의 합성어로 시골집에 머물면서 휴양하거나 주변의 농업과 농촌문화, 레포츠 프로그램, 지역축제를 즐기는 것이다. 이번 주말은 가족과 함께 팜스테이를 이용해 추억과 낭만을 만끽해 봄은 어떨까.

경기도 파주 해마루촌- 민통선에서 즐기는 특별한 전원생활

민통선 안에 있는 파주시 진동면 동파리 해마루촌에서는 그야말로 자연 그대로의 자연을 체험할 수 있다. 지역 특산물인 장단콩으로 만든 손두부 맛 또한 일미다. 내동천에서 물놀이를 즐기고 붕어 등 민물고기를 잡는 재미도 쏠쏠하다. 마을 주변 산의 황톳길 산책도 좋은 추억거리다. 주변엔 제3땅굴, 도라전망대, 임진각 등 안보관광지가 많고 임진강으로 나가 황포돛배를 타며 늦여름의 정취를 맘껏 누릴 수도 있다. (031)953-5121

전북 남원 달궁마을 - 울창한 원시림과 기암괴석 '장관'

2천 년 전 마한 효왕이 피난해와 궁의 이름을 '달궁'이라 한 데서 마을 이름이 유래했다. 울창한 원시림과 기암괴석이 있다. 지리산 자락의 달궁계곡은 반선에서 달궁까지 5㎞ 정도가 가장 좋다. 구산선문 중 하나인 실상사도 가깝다. (063)636-3072

전남 장성 금곡마을 - 영화촬영지서 영화속으로

영화 '태백산맥' '내 마음의 풍금' 등의 촬영지로 2002년 영화민속마을로 지정돼 1950~60년대 풍으로 새 단장을 했다. 한 폭의 수채화처럼 초가, 돌담, 감나무, 구불구불한 길 등이 조성돼 있어 추억 속 동네 풍경을 그대로 재현해 놓은 듯하다. 울창한 소나무 산림욕장도 인근에 있다. (061)393-4231

경북 문경 궁터마을 - 버섯 따고 찻잔 만들고

덜컹덜컹 비포장도로를 따라 들어가는 산골마을. 5개 농가가 버섯을 따고, 나무를 깎아 찻잔을 만들어 볼 수 있는 건강체험 팜스테이를 운영한다. 여름엔 계곡에서 물고기와 다슬기를 잡을 수 있다. 문경새재도 가까우며 탄광 및 석탄 관련 자료를 모아놓은 석탄박물관도 볼 만하다. (054)571-7881

경남 창녕 우포마을 - 초록색 늪에서 배우는 자연의 신비

여름엔 물풀이 초록색 융단을 이루는 70만평 규모의 우포늪은 람사협약에 등록된 국제보호습지다. 생이가래, 자라풀, 개구리풀, 가시연꽃, 부들 등이 자란다. 자연생태체험과 농촌체험을 할 수 있다. 우포마을엔 농기구전시관과 야생화 화원 등이 조성돼 있어 어린이 현장학습으로도 손색이 없다. (055)532-2814

경남 남해 다랭이마을 - 이색적인 층층계단식 다랭이논

다랭이논은 바닷가 절벽을 깎아 평평하게 만든 계단식 논. 앞은 바다, 뒤는 다랭이논 수십층이 층층이 쌓여 있다. 바다와 접해 있어 농촌 · 어촌의 풍취를 모두 느낄 수 있다. 여름엔 몽돌해변에서 해수욕을 할 수 있다. (055)862-4511

강원도 양양 송천마을 - 산골마을에서 떡 만들기

소나무 숲 사이로 계곡이 흐른다고 해서 '송천(松川)'이란 이름이 붙었다. 송천마을은 '떡 마을'로 더 유명하다. 인절미, 송편, 찹쌀떡 등 다양한 종류의 떡을 전통방식에 따라 직접 손으로 만든다. 떡도 맛보고 제조과정을 배워 볼 수 있다. (033)672-2954


수확의 기쁨! 어린이가 고사리손으로 옥수수를 수확하고 있다.

노병철 기자 sasiman@buddhapia.com

게시판

미국그림책 일러스트레이션展 롯데월드는 방학을 맞은 청소년들을 위해 8월 28일까지 롯데월드 화랑에서 '미국 그림책 일러스트레이션 전'을 무료 전시한다. 매일 오후 2시와 4시 두 차례 전시관 도우미가 전시된 작품에 대해 설명하고, 삽화그리기와 퍼즐 맞추기도 함께 진행된다. (02)411-4780

탁본 해보실래요 국립김해박물관은 비문, 당초문 등을 탁본할 수 있는 기회와 토기복원 과정을 알아 볼 수 있는 상설체험학습코너를 8월 28일까지 운영한다. (055)325-9333



노후준비 이렇게 성북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60 · 70대 서울 거주 어르신을 대상으로 노후준비프로그램 수강생을 8월 27일까지 모집한다(사진). 건강 및 재태크 방법 등을 강의하며 교육기간은 8월 19일~12월 2일까지. (02)929-7950

독거노인에게 도시락 배달을 연꽃마을 송파가정봉사원파견센터는 무의탁 독거노인들에게 밑반찬을 배달할 자원봉사자를 연중 모집한다. 자격요건은 차량을 소지한 사람이면 누구나 가능. (02)2202-3677

자원봉사자 모집 용호사회복지관은 매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1시간 동안 노인 주간주말보호센터 프로그램 진행 및 보조를 맡을 대학생 및 일반인 자원봉사를 모집한다. (051)628-6737

20면 상식 퍼즐 정답

구	기	자		뮌		
산		아	르	헨	티	나
선			포			무
문	도					아
	수					미
	체	납	처	분		타
마	조			마	애	불



'모정불심' 대덕화 보살 이야기 25일 KBS1 TV '피플 세상속으로'

본지 525호 A26면에 '모정불심(母情佛心)'으로 소개됐던 대덕화 보살(91 · 이순덕 · 사진)과 아들 지범 스님의 이야기가 8월 25일 방영되는 KBS1 TV '피플 세상속으로(목 19:30)'에 소개된다.

대덕화 보살은 19살에 시집가 9남매를 낳았으나 막내 아들 지범 스님(서귀포 불광사 주지)만 빼놓고 모두 서른을 넘기지 못하고 단명했다. 지범 스님이 13살 때 백양사로 출가하자 대덕화 보살은 '나무아미타불 정진'과 '일배일자(一拜一字)' 사경하듯 한 땀 한 땀 아들의 건강과 장수를 기원하며 수십년동안 밥상보와 손수건을 만들어 주위에 나눠주고 보시행을 펴는 사연 등이 소개된다.

이영화 어때요?

6살 꼬마에게 전쟁은 흥미진진하기만 한데…

로렌조의 밤 감독: 파올로 따비아니 출연: 마가리타 로차노 상영시간: 107분 등급: 15세 이상

'태극기 휘날리며' '진주만' '블랙호크 다운'. 이 영화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전쟁영화라는 점과 '깨지고 부수고 폭발하는' 식의 정통파 전쟁영화라는 점. 하지만 '로렌조의 밤'은 다르다. 전쟁터의 대규모 학살'을 동화처럼 부드럽고 따스한 시선으로 담아냈기 때문이다.

전쟁의 포화가 한풀 꺾인 8월 어느 날, 독일군의 지배 아래 놓여 숨을 죽이며 살아가고 있던 마을사람들 사이에 곧 미군이 들어와 독일군을 몰아낼 거라는 소문이 퍼진다. 퇴각을 준비하는 독일군들은 마을을 통째 폭파시키겠다고 위협하며 폭파될 집집마다 녹색 십자가를 그려놓는다. 동요한 사람들은 두 편으로 나뉘어 한 편은 마을에 남고 다른 한 편은 마을을 떠난다. 엄마와 함께 피난길을 나선 6살 꼬마숙녀 체칠리아는 한밤중에 까만 옷을 입고 하염없이 걷는 일이나 어른들과 함께하는 수박서리, 밀밭에서 벌어지는 파시스트와의 육박전까지 평소에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모든 일이 흥미진진하기만 한데….



영화는 등장인물의 클로즈업과 멀리서 이들을 찍는 롱숏 장면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역사적인 비극을 개인의 주관적 기억으로 담아낸다. 개개인들에게 서로 다른 인상과 기억으로 각인된 역사는 사실적인 기록이 담을 수 없는 삶의 원형질적 생기를 포착한다. 현실과 역사를 중심에 둔 이 작품이 가슴으로 다가오는 이유는 뭘까? 그것은 아마 초연(硝煙)의 상처가 있는 우리에게 영화의 정서를 공감각적인 동심의 눈으로 그려내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 노병철 기자

전시

20세기 한국미술 흐름 한눈에

국립현대미술관 '한국미술 100년展'


김종태 作 '노란저고리'. 캔버스 유채 52×44㎝.

국립현대미술관은 광복 60주년을 맞아 8월 13일부터 10월 23일까지 '한국미술 100년 展'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는 조선왕조의 몰락부터 개화기, 일제침략, 광복을 거쳐 4.19 이전까지의 회화와 조소, 공예, 사진 등 800여 점의 작품이 선보인다. 100년 동안 전개된 한국 미술의 궤적을 문화사적 맥락에서 접근해 각 시기마다 우리 미술의 발걸음을 조명한다.

이 전시회에서 주목할 만한 작품은 최지원의 '걸인과 꽃'과 박수근의 '맹견도'와 김종태의 '노란저고리'. 또 최치원의 '걸인과 꽃'은 갈빗대를 드러낸 채 꽃을 들고 가는 걸인과 그를 피하듯 물동이를 이고 가던 소녀의 눈길이 마주치는 순간을 단색으로 대비시킨 한국 최초의 목판화다.

이밖에도 시대별로 신문, 잡지 등 인쇄물과 생활사 시각 자료들도 전시돼 미술사적 흐름과 함께 20세기의 시대상을 체험해 볼 수 있는 체험관도 마련돼 있다. (02) 2188-6000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공연

3色 아이스쇼 골라 보세요

뮤지컬 · 발레 · 테마쇼 등 개성있는 무대 선보여


상트 페테르부르크 국립 아이스발레단이 선보이는 정통 클래식 무대 '호두까기 인형'

이번 주말 뮤지컬 발레 테마쇼 등으로 꾸며지는 3색 아이스 쇼의 진수를 맛보자.

제일 먼저 지난해 첫 공연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끈 '디즈니 온 아이스'가 올림픽공원 펜싱경기장에서 8월 19일 대단원의 막을 올렸다. '빙판 위의 열대 밀림'이라는 독특한 주제로 마련된 이번 무대는 28일까지 디즈니 애니메이션 타잔 정글북 라이온킹의 주인공들을 빙판으로 불러낸다. (02)2113-6869

'호두까기 인형'(8월 23~25일) '잠자는 숲 속의 미녀'(8월 26~28일) 등 정통 클래식 발레를 아이스 발레로 승화시킨 상트 페테르부르크 국립아이스발레단이 선보이는 2005 아이스발레는 23일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특설무대에서 첫 공연을 연다. (02)548-4480

24일부터는 볼쇼이아이스쇼가 '신데렐라' '메리 포핀스' '캐츠' 등 동화와 유명 뮤지컬 테마를 빙판 위의 예술로 승화시킨다. 특히 메리 포핀스는 아이스 발레와 서커스를 접목시켜 주목받는 테마 중 하나이다. (02)368-1515 강지연 기자

방송 프로그램

BBS 불교방송 — 서울 FM 101.9 MHZ, 부산 FM 89.9 MHZ, 광주 FM 89.7 MHZ, 대구 FM 94.5 MHZ, 청주 FM 96.7 MHZ, 춘천 FM 100.1 MHZ

22일 06:00 불교강좌	22일 04:00 한국의 명찰
23일 06:25 오늘은 좋은 날	23일 01:45 TV법회
24일 11:05 아름다운 초대	24일 15:50 열린마당
25일 07:05 아침저널	25일 17:30 산중대담
26일 09:05 행복한 미소	26일 20:30 명상음악산책
27일 14:05 낭만라디오	27일 08:20 불교TV메디컬
28일 10:00 라디오 법회	28일 20:00 또 다른 수행 '사경'

Btn 불교TV — sky-life:161 케이블: 지역방송사 문의

하이라이트

■**불교방송**: 낭만라디오(8월 26일 14:05~15:00) 3040세대들의 입맛에 맞는 추억의 노래를 다시 들어 볼 수 있는 시간. 나른함이 밀려오는 오후 2시. 잔잔한 노래와 선율은 지친 당신의 마음을 감싸주는 시간이 될 것이다.

■**불교텔레비전**: 엄앵란 장미화의 행복충전(8월 28일 21:45~22:45) 연예계의 입담꾼으로 통하는 엄앵란 장미화가 말하는 세상사는 이야기. 불자 연예인 등 각계 인사를 스튜디오에 초청해 삶의 지혜는 물론 생활

클릭! 불교문화상품
불교전문쇼핑몰 mahamall.co.kr
상품문의 : (02)2004-8218~9



LED라이트 알람시계

어두운 밤에 빛을 내는 LED라이트 알람시계. 알람시간이 되면 아름다운 멜로디가 울리며 몸체에서 LED라이트가 점등되면서 시계를 비춘다.

눈에 부담이 없고 밝은 빛을 내 차세대 전구로 각광받고 있는 LED라이트를 시계에 적용해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LED라이트 알람시계. 크기: 129×128×62mm 색상: 화이트 핑크 그린 가격: 1만 8천원

사경(寫經)으로 만난 부처님 (상)

예수해 (서울시 노원구 하계동)



그림 · 문병성

어릴 때부터 불교가정에서 자라 자연스럽게 부처님께 귀의했지만 절을 찾는 횟수는 그리 많지 않았다. 간혹 마음이 심란할 때면 절을 찾곤 했는데, 절에 가서도 법회에 참석할 엄두는 내지 못하고 법당에서 삼배만 하고 돌아오곤 했다.

대학을 졸업하고 14년 동안 부산 지역에서 교사로 근무하던 나는 새로운 일을 해보고 싶은 마음에 1987년, 학교를 그만두고 친척 어른이 운영하는 중견 건설회사에 취직하게 됐다. 수주담당 임원이었던 나는 주로 조달청 등의 관공서에서 입찰에 관여했다. 입찰 방법은 지금의 로또 복권 추첨과 같아서 운에 따라 당락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곤 했다.

특히 수주담당 임원에게는 조건 좋은 관급공사를 많이 수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추첨 운이 따르지 않으면 수주 담당자의 마음 고충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다.

나의 한순간 실수로 회사의 존폐가 결정되는 일이어서 하루하루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순수한 학생들 속에서 생활하다가 경쟁이 치열한 건설공사 수주 현장에서 생활하다 보니 마음의 갈등은 커질 수밖에 없었다. 또한 전무로 일하면서는 회사의 보증도 서게 됐다. 당시 건설회사의 관례상 임원이 회사의 보증을 서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이 결국 나와 내 가정의 발목을 잡는 족쇄임을 당시에는 알지 못했다.

얼마 후 나는 회사의 보증을 선 죄로 엄청난 빚을 떠안게 됐고, 집안 살림은 엉망이 되어 버렸다. 졸지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된 가족들에게 미안하고 죄스러운 마음뿐이었다. 하지만 가장으로서 내가 먼저 마음의 안정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에 집 근처 절에 자주 나가 기도를 했고, 그 무렵부터 사경을 시작하게 됐다. 오래 전부터 붓글씨에 관심이 있었던 나는 가끔 붓을 잡아보곤 했지만 막상 사경을 한답시고 한지 위에 한자 한자 정성을 다해보았건만 정말 글씨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답답한 마음과 원망하는 마음, 끊어내기 힘든 번뇌를 떨치기 위해 밤을 새워 붓 끝에 매달려 보았지만 솜씨는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그래도 가끔씩 사경한 것이 마음에 들 때면 후일 이것을 남에게도 나눠 줘야지 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사경을 했다.

매일같이 사경을 하다보니 경전의 글씨 한 자 한 자 정성스럽게 쓰는 것이 곧 기도와 다르지 않은 것임을 알게 됐다. 또한 사경을 하다보니 나도 모르는 사이 경전을 다 외우게 됐고, 신심도 따라서 커져 사경과 독송 그리고 예불하는 것을 매일 거르지 않게 됐다. 또한 경전에 담긴 뜻을 조금씩 알아가면서 관련 서적도 찾아 읽게 됐다.

10년 가까이 사경을 해 오던 중 부산 전포동에 있는 기봉사라는 절의 법당 보살이 나를 찾아와 "사경의 복보다 보시의 복이 크다"고 하면서 사경한 <반야심경>을 사찰 신도들에게 보시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의해 왔다. 나는 당황스럽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했지만 보시하는 일이 될 수 있고 아울러 복을 쌓는 일이라는 생각도 들어 보관하고 있던 사경본들을 하나하나 가려서 500여 점을 그 법당 보살님께 보내줬다.

이후 1997년부터는 <금강경>에 매료되어 독송하고 사경하는 것을 더 큰 공덕으로 보고 수년을 힘써 왔지만 아직도 글자와 뜻에 매달려 깊은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으니 정말 하근기임을 실감하고 있다.

회사일이 안정을 되찾으면서는 주말마다 전국의 사찰을 두루 찾아다니며 기도를 올렸는데, 그 중에서도 기도처로 이름 있는 봉정암과 홍련암, 보리암, 보문사, 구인사 등을 자주 찾았다. 특히 24시간 염불소리가 그치지 않는 봉정암과 법당에 앉아 신년 해돋이를 볼 수 있었던 보리암이 무척 인상적이었다. 또 구인사 대조사전이 개관하는 날에는 첫 참배를 올리겠다는 생각에 산 중턱 사리문 앞에서 1시간 넘게 기다려 제일 먼저 법당에 들어서기도 했다. 하지만 새벽바람에 온 몸이 얼어 버린 듯 몸을 가눌 수 없어 절도 제대로 못하고 나온 기억도 오랫도록 소중한 추억으로 남아있다.

회사 보증 서주고 엄청난 빚 떠안게 돼 마음 안정 찾기위해 매일 사경에 전념 주말마다 일심으로 기도하니 잘 풀려

당시에는 특히 <반야심경> 270자에 매달렸다. 회사를 마치고 오면 매일 저녁 <반야심경>을 사경했다. 한 번 쓰기 시작하면 3~4시간은 족히 걸렸는데, 어떨 때는 새벽 1~2시까지 이어지기도 했다. 회사에 나갈 때는 전날 저녁에 사경한 것을 품에 지니고 나갔고, 그럴 때면 하루 종일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은 물론, 입찰도 순조롭게 진행됐다. 일이 잘 풀려가자 나 자신도, 우리 가정도 안정을 되찾았고 그럴수록 무슨 일이든 행동하기 전에 남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자고 자신을 추스르곤 했다. 이런 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피구나 하는 생각에 더욱 기도와 정진에 매진했다.

기도처인 산사에서 맞이하는 밤은 도회지에서 찌든 세속의 나의 마음을 완전히 여읜 듯 편안하게 만들었고 밤새도록 울려 퍼지는 염불소리와 목탁소리는 세속을 떠난 세계로 나를 인도하는 듯 했으며 나도 모르게 밀려오는 그 어떤 느낌은 말로 잘 표현할 수 없는 묘한 감정이었다.

이 감정과 내 지극한 기도가 합일하면 내 모든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으로 기도처를 자주 찾게 되었다.

지난해 겨울, 영화사 미륵전에서 백일기도를 했을 때도 생각난다. 미륵전이 대웅전 뒤편 산중턱에 자리한 임시 건물이어서 한기가 뼈 속까지 파고드는 듯 했지만 수백 명의 도반들과 함께 백일기도를 시작했다. 모두가 기도에 전념하여 추위는 잊은듯 진지한 모습이었다. 나도 분위기에 끌려서 신심이 배가 되어 열심히 기도를 했다.

백일기도가 거의 끝나갈 무렵의 어느 날,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기도를 하던 중 우리 회사에 공사가 낙찰됐다는 보고를 받았다. 아마도 그것은 열심히 기도를 올린 나에게 주신 부처님의 가피라고 생각되어 기쁨을 금할 수 없었다.

또한 백일기도를 회향하면서 같이 기도한 모든 보살님들의 소원이 성취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계속)

신행수기 일년내내 받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가슴속에만 꼭꼭 담아두었던 감동깊은 신행체험들을 진솔하게 적어 보내주십시오. 연중 접수한 신행수기 가운데 우수작은 소정의 고료를 드리고 신문에 연재하며, 연말에 최종 심사를 거쳐 시상합니다.

- 주제: 신행 및 수행 체험, 불심으로 고난을 이겨낸 이야기
- 분량: 200자 원고지 30매 안팎(A4용지 4장)
- 접수처: (110-030)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신행수기 담당자
- 문의 전화: (02)2004-8251
- 인터넷 접수: snoopy@buddhapia.com

김문기 박사의

통증킬러 수정기공요법

의학의 본고장 독일인들을 경악시킨 차세대 치료법. 진통제, 물리치료, 주사, 침, 한약, 비방, 교정법이 모두 필요가 없는 환상적인 기공요법 (S.T.T)

수정기공요법을 알면 귀하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특징
1. 기공수련도 없고, 배움이 어렵지 않습니다.
2. 힘이 들지 않습니다.
3.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4. 경비가 하나도 들지 않습니다.
5. 즉석에서 효과가 나타납니다.
6. 기구나 재료가 하나도 필요가 없습니다.
7. 사술이 아닌 서양의학과 동양기공의 만남으로 환상적인 자연 그대로를 연출하는 요법.

시술대상
두통, 경항통, 구안와사, 안검하수, 목 디스크, 오십견(부위별), 테니스엘보, 늑간신경통, 복통, 요통(부위별), 꼬리뼈교정, 요두증, 사경증, 치아교정, 유방교정, 허리디스크, 좌골신경통, 생리통, 퇴행성관절염, 족관절염, 족저통, 발가락변형, 중풍, 뇌성마비후유증, 전신장애 등등 수술을 제외한 전신의 모든 통증과 신경장애에 탁월한 효과 입증.

비엔나 종합병원에서 임상결과 확실한 효과를 입증하는 인증서 획득

● 교재주문 : 수정기공크리닉 (일금 30,000원) ● 온라인 번호 : 농협 162-02-025918 (예금주 : 김문기)
● 속성강의 접수 : 1개월 과정 (매월 첫째 주 시작 단 4일에 모든 과정을 필함, 선착순 8명)
● 참 고 : 홈페이지 SOOJUNG99.PE.KR 또는 수정기공크리닉.COM ● 장 소 : 수원 성대전철역 앞 전화 031)293-0806. 296-7806

대 체 의 학 과
수 강 생 모 집 안 내
1. 모집기간 : 수시모집 (지역 교육원에서 접수)
2. 교육과목
● 법화경(교양필수)
● 황제내경(교양필수)
● 운동요법 · 추나요법
● 자연요법 · 식이요법
● 교정요법 · 침구요법
3. 교육기간 : 4년 (8학기) 수료
4. 교육일시
● 대 구 : 화요일 오후 2시 - 4시
● 부 산 : 목요일 오후 2시 - 4시
※ 특강 : 매월 첫째일요일 오후 1시30분-4시 (대구교육원)
5. 교육장소
● 대 구 : 동대구역 옆 동대구빌딩3층
● 부 산 : 부산역 옆 삼진빌딩2층
6. 기타특전
● 수료증서 수여
● 중국 중의대 자격증 취득(검정후)
● 대체의학요법사 자격증 취득(검정후)
● 평생대학원 진학자격부여
7. 문의전화 : 053)952-8711. 017-501-8711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 4동 276-25번지
학장 최광영
교육법인 : 한국평생교육기구
韓國平生大學(院)

당뇨병 희소식!!
당뇨로 고생하시는분 고통에서 벗어나십시오
본 사찰에서 극비리 전해 내려오는 비법과 본인이 기도로 얻은 비방으로 당뇨를 해결해 드립니다.
1. 당뇨수치 높은 분
2. 합병증으로 고생 하시는 분
3. 발병한지 오래되고 약을 먹어도 치료가 안되시는 분.
4. 당뇨때문에 생활에 지장이 있는 분
대한불교 해 월 정 사
경남 마산시 성호동 73-4번지
전 화 : 055)241-0374
휴대폰 : 011-833-0374
※ 남여 행자 모집합니다.

승복 법복 판매 안내
확실한 품질 · 만족할 가격
1. 고급 모직(물세탁)
적삼, 바지 150,000 ~ 180,000
동방바지 190,000 ~ 210,000
두루막 140,000 ~ 170,000
2. 무명(먹물, 손염색)
적삼, 바지 180,000 동방, 바지 220,000
두루막 170,000
3. 마(국내산 먹물 염색)
적삼, 바지 150,000 동방, 바지 190,000
두루막 140,000
4. 면 : 풀 안해도 됨(먹물 염색)
적삼, 바지 150,000 동방, 바지 190,000
두루막 140,000
5. 울 · 모시론
적삼, 바지 150,000 동방, 바지 190,000
두루막 140,000
6. 장삼 고급모직 220,000 ~ 250,000
7. 가사 大가사 150,000 ~ 200,000
반가사 70,000 ~ 100,000
8. 신도용 조끼 · 바지(모직 황토 먹물염색)
■ 시원한 차이나 남방, 모지, 걸망,손가방 준비되어있습니다.
전화주시면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역판매점 모집)
30년 전통의 승복 전문 업체 원방각
아름승복
전시장 : 053-256-0108
공 장 : 053-425-4449
휴대폰 : 016-597-4449
019-438-0108
주소 : 대구광역시 중구 동인 3가 88번지(동삼아파트 주차장 내)

바로 그달마도
신비한 영험이 깃든 지명스님 달마도
"영험한 기운이 충만한 지명스님 달마도와 함께 삶의 희망을 키워보십시오"
지장보살 가피입은 신비의 달마도와의 특별한 인연으로 지명스님은 오늘도 수도 정진하는 가운데 청정하고 정갈한 공간에서 달마도를 원력삼아 고단한 우리네 삶에 광명의 빛으로 다가오고 계시다.
지명스님
인연있는 자만이 함께 할 수 있다는 신비한 지명스님 달마도를 당신 곁에 두시어 소망하시는 바를 꼭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지명스님과 함께 상담을...
불교를 알고자 하시는 분이나 이유없이 고통스러운 분, 사업, 취업, 진학, 질병, 매매, 애정, 주변갈등등 남모르게 고민하는 인간사의 모든 장애를 친절하게 상담해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액자달마, 병풍달마)
각자의 근기따라 108가지의 다양한 달마도가 있으니 각기 자기와 맞는 달마도를 스님과 상담 후 인연 맺으시기 바랍니다.

상담 전화 02)2663-6655 010-4616-3335
서울시 강서구 방화 2동 달마사 지명 합장

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독 안에서 벗어나세요!

비가 안 오는 대신에 무척 덥죠? 이렇게 날이 궂어도 더불어 함께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백종(百種)을 지냈는데 백종을 왜 지내야 하는지, 백종이 왜 생겼는지, 그런 것도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지금 현재에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공부를 하다보면 공부라는 게 무슨 별도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탄생해서 이 세상에 나와서 사는 게 공부예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생명이 이 세상에 나오면 불(佛)이요, 나와서 세상 돌아가는 걸 배우는 것이 바로 교(敎)라고요. 그러니까 불교가 별다른 게 아니죠. 우리들의 살림살이를 빼놓고 불교가 있는 것이 아니니까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간편하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어렵게 믿지 마시고 간편하게 믿으세요. 내가 움죽거리고 그러는 것이 다 공부니까요. 또 좌선이고요. 마음을 잔잔하게 가라앉히면 그냥 좌선이 되고, 누워서 보면 와선이 되고, 앉아서 보면 그대로 좌선이 되고요, 그대로입니다. 일을 하다가 생각을 하면 행선이 되고요, 모두가 그대로 참선입니다.

그런데 이 공부를 하다보면 마음 안으로 들이대야죠. 바깥으로 내서 믿는 게 아니라 안으로 들여서 믿고 모든 것, 일거수일투족을 다 거기다가 맡기고, 잘됐으면 '감사하구나!' 하고, 또 잘 안됐으면 '안된 것도 거기서 나온 거니까 되게 하는 것도 너 아니냐!' 하고 거기다 놓고, 이렇게 굴려가면서 하다보면 말이 자꾸 하고 싶어질 때가옵니다. 여기서 (가슴을 짚어 보이시며) 감응이 되고 감응이 돼서 좀 지내고 보면 말이 자꾸 하고 싶을 때가 와요. 말이 하고 싶을 때에, 어떠한 말을 해야 하느냐? 남이 들어보면 관(觀)하는 도리만 얘기해주고 자기가 이만큼 배웠다고 내세우지 말라. 또 그 다음에 이것이 옳은 거라고 내세우지 말라. 이것이 안됐다고 내세우지 말라 이겁니다. 안됐다 됐다, 이게 옳다 그르다, 또 나는 이만큼 하다보니까 이만큼 갔다, 이런 말은 안해도 자기가 말하는 것을 보면 자기를 내세운 게 되거든요. 이것은 자기가 없는 도리를 지금 배우는 겁니다.

아무리 속이 상해도
내 안으로 놓고
부드럽게 얘기해주고
부드럽게 행동을 해야

항상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죠. 만약에 바깥으로 끄달리고 자기를 내세우고, 잘됐다 못됐다 이것을 내세우다보면 공부는 꽝이라구요. 제자리를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긴데 그러다보면 바깥으로 자꾸 끄달리면서 쪼끔쪼끔 가다보면, 자기가 그만 빈집이 되고, 자기 선장은 간 곳이 없죠. 그럭하면 영계성으로써 구차한 일들이 벌어지죠. 그래서 나는 뭐 압니까마는 단전호흡을 한다고 하면서 바깥으로 끄달리고 몸으로 끄달리다 보니까 몸도 바깥이거든요, 이게. 물질계거든요. 그래서 바깥으로 끄달리다 보니까 영계가 들려서 야단인 사람도 있고, 정수리로 뜨거운 김이 올라와서 귀로 들린다고 야단인 사람도 있고, 몸이 떨려서 야단하는 사람도 있고, 몸을 부지를 못하고 그냥 뛰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가정이 파괴가 되고 자식들은 이리저리 떠돌게 되고 모두 이렇게 되는 수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기복으로 믿으면서 바깥으로 자꾸 끄달리고 무슨 무슨 부처님을 부르고 이렇게 아주 지극 정성으로 하는 사람이 영계성에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부처님이 그러는 게 아니고, 이집 저집 떠다니고 기웃거리는 그런 영령들이 들어서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 영령이 들어서는지도 모르고, 자기 몸에 있는 자체도 지금 모르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른다면 그냥 아주 간 사람이 되죠. 맛이 간 사람이 돼버리고 맙니다. 그러면은 참, 자기 혼자 그런 것도 뭣하지만 가정이 다 문제가 되니깐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극히 조심하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음으로 나쁘다 좋다, 밉다 곱다 또는 잘한다 못한다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서 항상 꼬집고 미워하고 '저런 거 그냥 차라리 죽어서 없어지면 낫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말과 생각, 그것이 바로 모두 업이 됩니다. 그러니까 말을 하면 구업이 되고, 마음으로 하면 의업이 됩니다. 그러니 이것은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한층 더 그러면 안 되죠. 왜냐하면 바깥에서 닥치는 것, 미운 것 고운 것이 있더라도 '밉다 곱다' 하지 말고 안에다가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것이 저게 저 사람이 미운 게 아니니깐 당신만이 해결할 수 있어.' 하고 거기다 맡기고 부드럽게 말하고, 부드럽게 행동해주라고 말을 항상 하죠. 그래야만이 업이 녹아버린다는 얘기죠.

그러는 양반들도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술을 마시고 그러더니 자꾸 관(觀)하고 부드럽게 말해주고 부드러운 행동을 해주니까 어느 날 그냥 술도 먹는 게 없어지고 그렇게 가정이 화목하게 돌아가더라구요. 그 마음을 밉게, 그냥 말을 악하게 하고 그렇게 되면은 점점 더 악은 모아지는 겁니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께서 극히 조심을 해야 합니다. 남을 미워하든가 또 자식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말입니다. 그러니까 더디고 좀 느리고 이런 것은 있을지언정 그게 없어지지 않는 건 아닙니다. 꼭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항상 여러분한테 얘기해드리듯이 녹음기에 자동녹음이 됐는데, 이것은 자동으로 또 거기다 입력을 하면 그 앞서 입력이 없어진다고 했죠. 그러니깐 잘라도 아니 되고 끊어도 아니 되고, 이건 아니 됩니다. 업을 끊을래야 칼로 물 베기죠. 그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그렇게 해서 없애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말씀드린 거 소홀히 듣지 마십시오. 첫째, 이 공부하는 데에 도로아미타불을 만드는 그런 이치가 있는 것은 잘됐다, 못됐다 또는 옳다 그르다 이런 말을 남한테 하고 자기를 내세우고 이러는 것이 제일 문제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내가 아무리 속이 상해도 내 안으로 놓고 부드럽게 얘기해주고 부드럽게 행동을 해야만 수없는 광년을 거치면서 나온 업식이 거기에서 녹게 되고 관습과 업식이 다 녹아야 하늘에서 인정을 받고 해인(海印)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열쇠를 얻는다 이 소립니다. 그러니 우리가 공부해가면서 습을 떼어가면서 모든 것을 같이 해야 됩니다.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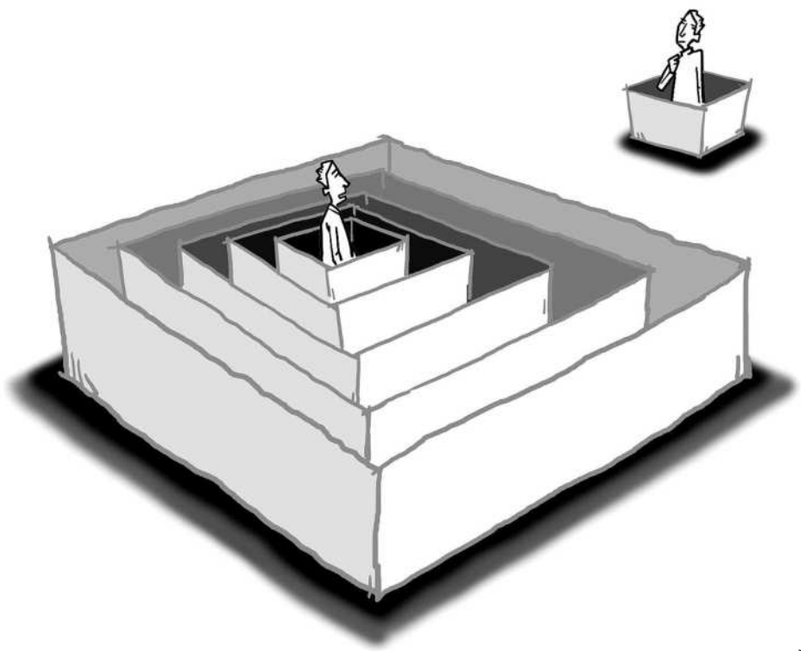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세상에 이 모습을 가지고 얼마나 살겠습니까?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한 철 사는 기간 동안에 그거를 다 다스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요다음에 또 나와서 고생을 또 해야 하니깐요. 그러니까 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요다음 생에 또 나와서 고생한다는 것도 그렇지만 지금 현실에서 자기 위로는 부모와 아래로는 자식들과의 연관성을 몰라라 할 수 없죠. 항상 이렇게 염주가 같이 꿰여 있듯이 그렇게 꿰어 있으니깐요. 그러니까 그네들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얘깁니다. 빨리 성취를 해야 빨리 그네들도 따라서 성취가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칠석이다 백종이다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칠석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젊음을 누리고 이렇게 살고 가는 겁니다. 아주 간편하게 생략해서 하는 얘깁니다. 그래서 여기서 살고 이렇게 가다보니까 일분 일초만 앞서면 미래입니다. 일초가 지났어도 과거입니다. 그렇죠? 안 그럽니까?

그래서 우리는 과거를 연방 뒤로 하고서 앞으로 미래로 전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래로 전진하는 사람들이 지금 촛불을 켜고 칠석을 맞이합니다. 칠석이라는 것은, 칠성 부처님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칠성이라는 것은 내 몸과 더불어 같이, 성자라고 할까? 불성이라고 할까? 이러한 것을 누구나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칠석이라고 하고 칠성 부처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산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러나 산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동시에 미래로 자꾸자꾸 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를 돌로 보지 않는다면 칠석과 백종은 둘이 아닙니다. 그리고 백종이 또 무엇이냐? 백종은 우리가 죽어서 모두, 이게 좀 말을 하려면 긴데요.

이게 여러 가지로 분배가 됩니다만 우리가 죽어서 말입니다, 사람도 되거니와 바뀌어서 짐승이 사람도 되고, 사람이 짐승도 되고 이렇게 되는데 왜 우리가 생시 때에 어느만큼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칼산지옥이다 화탕지옥이다 이러죠? 또 오무간지옥이다 독사지옥이다, 이러한 이름들이 허다 많습니다. 이것을 다 말로 할 수 없어서 생략하고 얘기합시다. 그런데 말입니다, 죽어서 자기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닭이 된다거나, 독사가 된다거나, 소가 된다거나, 개가 된다거나, 뭐 토끼가 된다거나, 사람이 된다거나 여러 가지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지옥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독사로 태어났다면 그게 독사지옥입니다. 허물을 입었으면 다시는 벗기가 힘들다 이겁니다. 그 독사의 모습을 벗기가 힘들어서 사람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입니다. 화탕지옥이다 하는 것도 우리가 매일 그저 몇 번씩 태어나면은 또 얼마 안 있어서 끓는 물로 들어가고, 불 속으로 들어가고 수십 번 그냥 돌아가면서 들어가는데 그것이 어찌 화탕지옥이 아니겠습니까? 또 때로는 칼로 그냥 산 놈을 탁탁탁 쳐서 모두 먹죠? 그런 것을 볼 때 그게 어찌 칼산지옥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두 칼산지옥이니, 화탕지옥이 따로 있어서가 아니라 냉정하게 현실의 삶 그대로입니다. 현실 그대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지옥도 하나하나 화탕지옥이니 독사지옥이니 뭐 모두 보고 있습니다. 보면서 하고 있고 보고 있고 그럽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지옥이 따로 있어서 그렇게 '나쁘게 된다더라.' 이렇게만 생각하실 게 아닙니다. 현실에 살다가 죽어서 딱 떠나면 미래로 해서 한번 쓱 돌아서 다시 현실로 온단 말입니다. 가서는 또 현실로 다시 와요. 한 발 한 발 미래로 다가가죠. 뭐 미래가 금새 오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한 발 한 발 걸어서 미래로 가고 있죠. 미래로 가서 다시 현실로 또 오는 겁니다. 과거는 지나갔으니까 없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깐 없고, 하는 것을 볼 때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자기가 어떻게 과거에 살았느냐에 따라서 현실이 온 거고, 현실에 어떻게 자기가 사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미래에 또 이 자리에 오는 거죠. 그러니 제가 볼 때에는 때에 따라서 너무나 참혹한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은 돌아나오는 그 과정을 모르기 때문에 그저 아무렇게나 살기만 하면 되고 먹기만 하면 되고 잘살기만 하면 된다 이런 주의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안타까워서 바둥바둥하죠.

때로는 이런 걸 많이 봅니다. 부모가 죽어서 그 집의 개로 태어난다든가, 또 고양이로 태어난다든가 하는데 그 고양이도 알고 개도 알고 그러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그 집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또 그뿐이 아닙니다. 구렁이로 태어났어도 바로 그 집을 지켜준다고 그 집 가서 숨어서 틀고 있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집을 고치다가 보면 천석꾼이다 뭐, 만석꾼이다 하고 그러다가 아, 집이 헐어져서 고치려고 보면, 큰 구렁이가 그냥 나오죠. 그런데 아! 그놈의 걸 잘 해서 딴 데로 옮겨주고 말았으면 좋겠는데 그걸 그냥 막 작대기로 쳐서 죽이거든요. 죽이면 그냥 또 그 집안이 폭삭 망하죠. 그게 자식이 부모를 죽인 거와 같죠.

나는 그런 것을 직접 보기도 했습니다. 보지 않고 알지 못하고 어떻게 말을 합니까? 진실치 않은 것은 말을 해서 한데로 떨어뜨리면 안 되는 거죠. 그것은 부처님께서 아예 금한 겁니다. 말을 함부로 해서 한데 떨어뜨린다면,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옳다 그르다 하고 말을 하게 되면 그 말 자체가 한데 떨어진다구요. 그랬듯이 이거는 진실한 말이 아니라면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을 안 하고도 모두 일체 만물들이 다 살고 있는데 굳이 말을 해서 그릇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묵언하는 일들이 많죠. 그래서 비유컨대 한 가지를 말을 해도 열 가지가 다 그렇구나, 이런 것을 알아야 돼요. 한 가지 얘기하면 그것만 그러려니 요렇게 생각하진 마세요. 일거수일투족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밥내 국내도 맡지 못하는 그러한 걸로 취급을 하는 것도 있죠. 그것은 땅속에서 사는 미꾸라지나 지렁이나 무슨 벌레나,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연적으로 끼리끼리 모이고 자동적으로 끼리끼리 모이죠. 우리 사람들도 자동적으로 기사는 기사대로 모이고, 상인은 상인대로 모이고, 교수는 교수대로 모이고 그러듯이 말입니다. 그건 누가 가라 오라 해서 그렇게 모이는 게 아니고 차원에 따라서 자연적으로 그렇게 그냥 분배가 되는 겁니다. 자연적으로 벌레로 갈 놈은 벌레로 가고, 사람으로 갈 놈은 사람으로 가고, 짐승으로 갈 놈은 짐승으로 가고, 이렇게 자동적으로 돼 있다는 얘깁니다. 이걸 누가 가라 오라 해서 가고 오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모이게끔 돼 있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니깐 억울합니까? 내 한생각이 잘못돼서 행동 하나하나가 잘못되고 이런다면 그 과보는 누가 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뺏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잘한 거든 못한 거든 다 자기가 하고 자기한테 오는 것이지 누구한테 오는 게 아니죠. 그러니 자기는 자기대로 그저 마음 하나 잘 쓰는데 뭐 그렇게 해로운 일이 있겠습니까? 마음 하나 잘 쓰면 자기가 흐뭇해서 좋고, 좋은 일 한 번 했으면 자기가 흐뭇하고 좋은 것이지 남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마음 하나 잘 쓰면
자기가 흐뭇해서 좋고
좋은 일 한 번 했으면
자기가 흐뭇하고 좋은 거죠

그래서 지옥이 따로 없고, 지옥도 천당도 우리 삶의 보람도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이 자리에 다 있는 겁니다. 우리는 현실에서 지옥고를 당하는 꼴을 항상 보고 있습니다. 생선을 놓고 그냥 탁 자르는 거 보시죠? 그러곤 옛날 같으면 개도 묵을 매서 나무에다 매달아놓고는 태웁니다. 발버둥을 막 치고 그냥 털이 다 타고 그게 그냥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소용없이 그렇게 죽습니다. 그냥 목을 턱 잘라서 뜨거운 물에 넣어 버리죠. 이런 것도 많이 보시죠? 그냥 꽥꽥 소리를 지르고 눈물을 흘리고 아무리 울고불고 발버둥이를 쳐도 그것은 살 길이 없는 이런 이치죠. 소를 콧잔등이를 그냥 때려서 쓰러지면 울고 발버둥이를 쳐도 살길이 없고 말입니다. 그래서 소나 돼지나 이런 것들은 모두 자기가 그런 데로 갈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벌써 고삐를 매서 끌면 엉엉 우는 겁니다. 사람도 자기가 죽어갈 줄은 압니다. 사람이 모르는 거 아니죠. 자기 고삐를 매서 끌고 갈 때가 온다는 얘기는 알죠. 그런데 어느 때에 올지 모르죠. 그러니까 사람이나 짐승이나 뭐 다른 게 있느냐. 차원이 높고 낮고 이것뿐이지 뭐가 다르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살생을 첫째에 주의해라. 죽여 놓은 것도 많은데 생생한 것 먹는다고 그러는데, 허허 그게 뭡니까? 그냥 잡아서 먹죠. 그런 것 보면 모

☞30면으로 계속

천당 지옥도 삶의 보람도 바로 이 자리에 다 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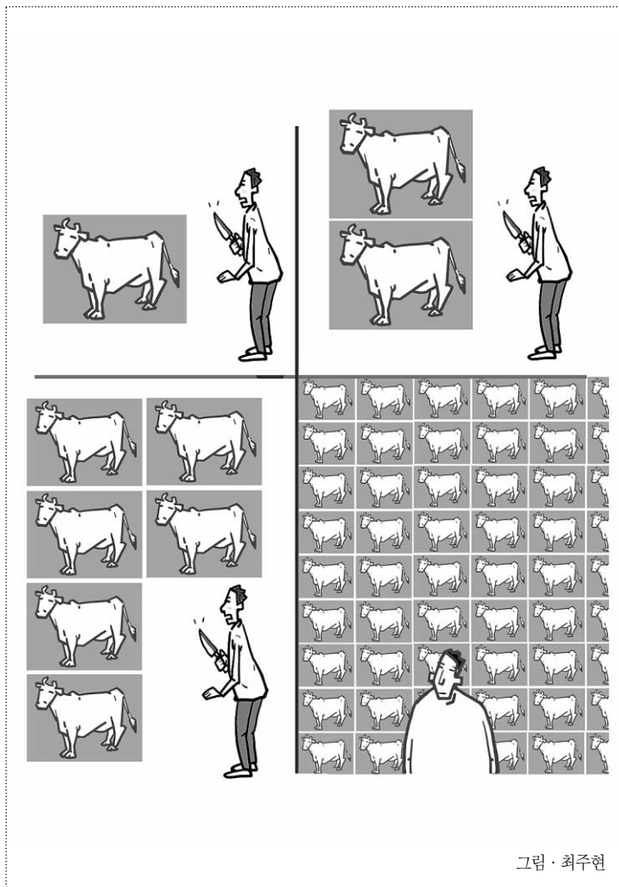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29면에서 계속

두가 자기 인생이라는 거는 생각지 못하고요, 그렇게 하거든요. 이런 사람이 있었죠. 내내 젊어서부터 계속 사냥을 했더랍니다. 그런데 하루는 사냥을 나간다는데 부인이 아주 그냥 언짢더랍니다, 절에 다니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여보, 오늘은 사냥 가지 마시오, 마시오." 그러니까 "아이구 참, 뭔 소리를 하는 거야? 한 마리 잡아다가 먹어야지." 아, 이러고선 나가거든요. 그래 어떻게 말릴 수가 없죠. 그래 내버려뒀더니 저녁에 죽었다고 소식이 오더랍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총을 쏜다 쏜다 하는 것이, 그냥 사냥꾼 있는 것을 짐승으로 봐서 쏴가지고는 그 사람이 또 이 사람을 쐈어요. 그러니까 둘이 다 죽은 거예요, 사냥꾼들 둘이서 서로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돌을 사자인 줄 알고 쏴서, 그냥 돌이 굴러서 죽기도 하고, 또 어떠한 데는 어린애를 낳아 놓으면 짐승의 혼백이, 영혼이 와서 태어나는 거거든요. 너도 자식을 길러봐라 하고요. 영혼이 태어나서 보면 무진하게 뛰고 속 썩이고 무진하게 그러는 게 다 그런 과보죠. 그러니까 인과란 말입니다!

그러니 내가 하는 소리가 자식만 낳으면 되느냐 이 소립니다. 원수가 태어나도 자식이 좋다고 하겠느냐? 서로 과보가 돼서, 업보가 돼서 서로 태어나도 좋겠느냐? 그러니깐 애만 낳으려고 할 게 아니라 애를 낳기 이전에 그것을 찬찬히, 자기 애와 모든 것을 고하고, 또 이 공부하는 사람들은 거기다 놓고 '좀 더 착실하고 아주 영리하게 불리가 터진 그런 영령을 내 아들로 점지해주소서!' 하고 '점지해주는 것도 너뿐이 아니냐!' 하고 거기다가 놔라 이런 소리죠.

그러니까 이것이 모두가 실질적입니다. 나는 지금 현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옛날 얘기 하는 게 아니고 미래 얘기 하는 것도 아니고, 그대로 현실 얘깁니다. 우리가 죽으면 이렇게 이렇게 되고, 또 사는 동안에도 이렇게 이렇게 해야 하고 이렇게 이렇게 산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면 앞으로 요 세상에 나올 때 이렇게 이렇게 또 살게 되니까 그거는 뭐 독 안에 들어도 면치 못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독 안에서 벗어나라 이 소립니다. 내 몸통이 독이니까요. 내 몸통이 독 안과 같아요. 통과 같아요. 이 몸통

바깥으로 내서 믿지 말고
오직 자기 마음 안으로 들이대야

안에서 벗어나야 지구에서도 벗어나고, 지구에서 벗어나야 이 우주 세상에서도 벗어나고, 우주 세상에서 벗어나야 자유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죽어서뿐이 아니라, 한 번 죽고 두 번째도 또 죽어라, 세 번째도 또 죽어라 이러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주머니 속에서만 살지 않으면 안 되는 동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물로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유자재 못하고 사는 거죠. 죽이고 먹고 뺏고 이렇게 하는 세상에서 정말 자기 마음을 맘대로 할 수 있다면 왜 남을 죽이고 또 뺏어먹고 이러겠습니까? 남을 자꾸 주고, 이끌어주고 이러죠. 그러니까 현실 자체가 그대로 지금 얘기한 것과 같이 지옥이죠. 그 유전성이든 업보성이든 영계성이든 세균성이든 인과성, 이 모두가 이 자리 현실에 있는 것이고, 현실에서 한 발 한 발 미래를 향해서 가고 있고, 그 미래가 끝나면 다시 돌아서 또 현실로 오는 과정의 걸음걸이가 있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나 어떻게 걸었느냐에 따라서 현실에 또 나오고 그러니, 우리는 지금 공부하는 게 과거고 현실이고 미래고 간에 홀랑 벗어야 된다 이 소리죠.

그래서 때로는, 또 이런 게 있죠. 이 공부를 안 하고 돌아가신 영령들은 이런 수도 있습니다. 아는 집집마다 기웃거리고 다녀도 아는 척을 안 해요. 자기는 산 걸로 생각을 하는데 아는 척을 안 하게 하시라, 바깥으로 끄달리지 마시라고 하는데, 우리가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자식과 위로 부모란 말입니다. 자식과 부모한테 어떻게 해야만 우리가 중간에서 편안하게 하고 갈 수 있느냐. 자식들도 그렇게 어긋나가는 자식이 있다면 자꾸 주인공에 지극하게 놓아야 되겠죠. 그 자식의 주인공도 있으니깐 말입니다. '그 주인공과 내가 둘이 아닌데 주인공 당신만이 해결할 수 있어!' 하고 자꾸 놓으면서, 또 들어오면 부드럽게 해줘야 들어오지 그렇지 않고 "요놈의 새끼야, 그러냐 마냐. 어떡하면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하니까 이거는 더 빗나가요. 그냥 들어오고 싶지가 않아요.

또 남편도 그렇고 부모도 그래요. 부모도 마음 거슬리지 않게 해드리고도 얼마든지 살 수가 있어요. 거슬리는 말씀 하시면 "예, 그렇게 하지요." 하고 나중에 돌아가서 그렇게 안 하더라도 그렇게 합죠, 하고 거기다 놓고서는 잘되게끔 돌려야 되는 거죠. 또 부모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잘돼라고, 마음으로는 잘돼라고 하는 거지 못돼라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 그 마음이 고마워서라도 "어머님, 그렇게 하지요." 하고서 거기다 놓고 어머님이 잘돼라고 하신 거니까 잘돼야겠다 하고선 또 융통성 있게 그렇게 하면은 양쪽이 다 편안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어머니는 똑 그렇게 되지도 않을 걸 그렇게 말을 한다고 아, 이러고 대드니 어머니가 마음이 편안하겠습니까? 모두가 비유해서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자식도 그렇고 부모도 그렇고 다, 남편과 부부지간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편안하게 사시려면 이게, 이 모습들을 가지고 우리가 영원토록 언제까지 살겠습니까? 한 철입니다, 한 철! 캠핑 왔다가 한 철 놀다 가는 한 철입니다. 그런데 편안하게 살고 웃고 즐기고 살아야지 왜 그렇게 울며 아프며 복장을 찧으며 이러고 살아야 합니까?

그러니 여러분이 때에 따라서 이런 거를요, 백종(百種) 때, 왜 백종을 지내느냐는 얘기죠. 부모가 예를 들어서 닭으로 화해서 이 세상에서 지옥고에 떨어졌다, 물고기로 태어났다, 또 소로 태어났다, 뭐 독사로 태어났다, 가지각색으로 다 태어났다 하는 그런 틈에 끼었다 이런다면, 여러분이 천도재를 지극히 해서 그 몸을 벗게 해주는 것이 바로 백종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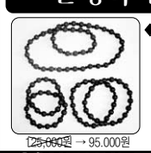
예를 들어서 지금 나라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왜 갇혀 있던 사람들이 나오죠. 그런 때 더러더러 나오죠. 그런 사람과 같이 백종 때는 될 수 있으면 남한테 모함 받아서 들어왔던 사람, 지극하게 다시 마음을 잡아서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백종날 다 내보내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천도재를 세 번 네 번 지내도 그거를 감당할 수 없으리만큼 된 집도 있습니다. 그런 집은 자꾸 이렇게 그저 되는 대로 되는 대로 이렇게 해야죠, 빚지고 하라는 게 아니고, 그저 내가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있으면 자연적으로 좀 나아지죠. 나아지면서 그게 하게 되죠. 그러니까는 그렇게 그렇게 해나가신다면 그 부모의 조상들이 모습이 다시 변화돼서 인간으로 될 때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고 또 변화가 돼도 또다시 그러한 문제를 짊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요 다음에 또 그와 같은 문제들을 끌고 가야 하니까요.

하여튼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살아가는 게 말입니다. 그냥 죽으면 고만이지 그러지만 그게 아니죠. 하다못해 내가 콩씨 얘기를 가끔 하죠. 무씨 얘기도 하구요. 이제 무씨 싹이 말입니다, 싹이 없어지면 그만이지 이러지마는 그 종자가 있어서 또 심어서 또 나오거든요. 그러니 그만이 어딨습니까? 영원토록 돌아가야죠. 그러나 이런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콩씨가 팥씨가 될 수도 있고, 팥씨가 콩씨가 될 수도 있고, 또 아주 상승의 사람 종자가 될 수도 있고, 또 그냥 하(下)의 종자가 될 수도 있죠. 이런 자유자재권은 바로 여러분의 마음먹기에 달린 거죠.

(다음 호에 이어서)

※위 법문은 1995년 8월 20일 정기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나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상쾌한숙면 건강한하루 신비의은행석
배개속에 넣고 평생 사용 늘~건강하고 편안한 잠자리
"부모님께 최고의 효도선물"

배개볼 1인용 ~~55,000원~~ → 45000원
생명의빛 생명의기
북한에서온 은행석은 죽어가는 것도 살린다는 별명이 붙어 잇습니다. 예를 들어 대야에다 수돗물을 받아 붕어를 넣으면 붕어는 배를 뒤집고 헐떡이며 죽어갑니다. 이때 은행석을 넣으면 붕어는 씽씽하게 살아납니다. 고급난등 이외의 죽어가는 것도 다 살릴 수 있어요. 배개속에 은행석을 넣고 주무시면 평생 뇌졸중, 중풍, 치매, 고혈압 천식등이 치유됩니다. 그리고 기억력이 살아나고 혈압이 떨어지며 기미가 줄고 하얀 얼굴로 미백효과도 뛰어나요. 하루에 5시간만 주무셔도 8시간 잔것과 같은 효과가 있어 머리가 맑고 상쾌하며 아침에 가볍게 일어납니다. 심하게 코를 골거나 기침을 하신는 분에게 적극 권장합니다. 북한 일부 고위층만 사용하며 저를 믿고 주무시어 건강하게 장수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의심이 많아요. 손발이 자주 붓는 분은 은행석 목걸이, 팔찌와 같이 사용하시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음이온을 첨가하여 어깨 통증완화 및 각세포의 기능 향상
건강도 지켜주고 젊음을 유지하는
은행석 안심목걸이, 팔찌

◆목걸이,팔찌 : 머리를 맑게 함, 손이 붓거나 어깨결림해소, 혈압조절, 혈압상승억제, 전신에氣를 골고루 전달, 심장박동원활, 신진대사촉진, 신경 및 피가 맑아짐, 다이어트에도 효과가 좋아요.
~~125,000원~~ → 95,000원
은행석 108염주, 손목압장주도 제조 판매합니다
◇ 현재 많은 스님 ,불자님들의 사용 후 기적같은 사례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
금강닥터 문의전화 (02)723-9184 www.dk21.net
◆ 입금계좌:농협 1143-12-049474 송명화 ◆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합니다.

관상학 특강반 모집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4시)
▶ 지선법사 직강◀
(현재 방송국에서 강의 중)
사주로 볼 수 없는 찰색 ! 특강반에서는 기초와 이론을 속성강의
완벽한, 실제 감정 완전 정복
(취업보장)
"ARS 대동정보통신에서 후원"
사단법인 한국기문미래 연구학회
전철 5호선과 7호선 환승역 군자 3번 출구 조흥은행 88m
현재 미달 접수 3명만 제한.
접수 연락처 02)454-3368
지선법사의 운명 특별상담 접수 中
특별강의 : 사주학. 기문둔갑

불교인들의 만남, 불법 속의 생활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연구원
안녕하세요
그동안 불황의 여파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불자님의 격려로 연구원을 운영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을유년은 모두의 가슴에 꿈과 희망이 함께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불자님께서 변함없이 이끌어주신 기원과 격려 더욱 감사드립니다
부처님의 가피로 자비의 기쁨이 크신 선물이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날마다 좋은 날이 되소서

원장 이영숙 합장
■ 大주, 초 · 재혼 신원 확실하고 직업 확실한 미혼남녀 환영.
■ 지방에 계신 불자님은 전화로 연락 바랍니다.
※ 인생문제 특별상담!!
위치안내
1호선 영등포역 3번출구 신세계 백화점 맞은편 금강약국 200m지점
※ 전화 상담 후 방문약속
현대결혼연구원에서 좋은 느낌, 좋은 인연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원 장 이영숙(법명 : 無生子)
사 무 실 : 02)2677-5442
소 연구원 : 032)345-5411
휴 대 폰 : 011) 288-2944
현 대 결 혼 연 구 원

사암침술과 맥을 알면 불치병은 없다
국내 어느곳에서도 배울수 없는 내용과 비법을 3개월만 배우면 초보자도 달인이 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때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속성비결!! 책임지도!!
사암침술 강좌
▶ 과정 : ● 기초과정 ● 고급과정 ❶ 맥진반 ❷ 사암침술반 ❸ 즉효요법반
▶ 내용 : 12경락과 경근, 사암도인침술법, 장부의 허실증 판단, 황제내경맥진법, 맥조절방법, 오행처방법, 침술즉효요법(一鍼法), 뼈교정법, 실습위주 강좌
▶ 개강 : 2005. 9. 5 월 · 화 반, 수 · 목 반, 금 · 토 반(주 · 야간 : 3개월 완성)
※침술사 자격증을 교부합니다.
매화역수 강좌
간단한 수리학(1~9)만으로 운명을 판단하는 비법을 공개합니다. 쉽고 간단하고 재미나며, 명리수준을 최고위 과정까지 높여 드리는 국내유일의 강좌로 년운과 월운은 물론 일운까지 정확하게 적중시키는 최고의 학문입니다.
▶ 개강 : 매주 주말반 수시접수
정통명리강좌 정통풍수강좌 9월 5일 개강
사 암 침 술 학 회
• 서 울 : 종로 3가 지하철 12번 출구 옆 (화암빌딩 402호)
문의 : 02)2267-9136. 011-307-2975
• 부산 : 부산 동구 좌천동 567-2 다전리치텔 1004호 (좌천역 1번 출구)
문의 :018-312-7110

몸 피곤하고 마음 급해도…

수험생 건강관리 이렇게 하세요

200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11월23일)이 8월 24일 현재 90일 앞으로 다가왔다. 남은 기간 동안 수험생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건강관리. 특히 이맘때면 한여름 더위와 입시 스트레스로 몸과 정신 상태가 흐트러지기 십상이다. D-90일, 수험생 최대의 복병인 슬럼프와 건강관리요령을 대학 입시생 이정은(20)양의 일과를 통해 알아봤다.





새벽 5시

"땡땡땡" 자명종 소리에 천근만근 무거운 눈꺼풀을 부비며 일어나는 정은양. 부랴부랴 세면을 마치고 식탁에 앉아보지만 영 입맛이 없다. 어쩔 수 없이 여느 때처럼 우유한잔을 마시고 학원으로 향한다.

전문가 조언

아침식사를 거르거나 12시간 이상 공복상태가 지속되면 혈중 혈당치가 떨어지고 뇌세포 활동이 위축돼 학습능률과 집중력이 떨어진다. 특히 여학생의 경우 빈혈이 생길 수 있으므로 꼭 아침 식사를 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입맛이 없는 아침에는 죽이나 누룽지, 과일 샐러드로 대용하는 것도 좋다. 참깨죽이나 야채, 곡류, 해초 등을 갈아 만든 생식은 위장을 부드럽게 해주는 효과가 있다. 황기, 오미자, 맥문동을 섞어 만든 한방차를 마시는 것도 원기회복에 도움이 된다. 구기자, 검은깨 등을 섞어 만든 죽도 스트레스로 인한 각종 신경성 증상과 불면증을 개선해주는 데 효과가 있는 음식들이다. 호박죽이나 멸치를 섭취하면 항스트레스 물질을 촉진시켜 안정감을 찾을 수 있다.

공복 상태 뇌 활동 위축
검은깨 등 섞은 죽 섭취



아침 6시~ 낮 12시

노량진 D학원 자습실에 도착한 정은양. 잠깐 화장실 다녀오는 시간 외엔 휴식이란 없다. 50분씩 이루어지는 수업시간 후 쉬는 시간 10분까지도 공부에 매진한다. 허리도 아프고 눈도 충혈됐지만 이를 악물고 책을 들여다본다.

전문가 조언

경희대 수험생클리닉센터에서 조사한 통계에 따르면 50%가 넘는 고등학생들이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수험생들이 손쉽게 해볼 수 있는 것이 지압요법이다. 머리의 중심인 백회에서 상하 좌우로 2㎝ 정도 떨어진 4개의 혈자리인 사신총(四神總)을 지압해준다. 얼굴 눈썹주위의 인당, 발바닥의 움푹 들어간 부위인 용천혈(湧天穴) 등을 하루에 10회 정도 지압하면 몸이 시원해진다.

특히 인당주위의 지압은 두통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어 암기력과 집중력이 감퇴할 때 효과적이다. 계단 오르내리기, 줄넘기, 20분 정도 산책하기 등의 유산소운동도 좋다. 20~30분마다 안구를 위아래 · 좌우로 회전시켜주는 안구운동도 눈의 피로를 덜어 준다.

얼굴 · 눈 · 발바닥 등 지압
몸 시원하고 집중력 향상



낮 12시~밤 12시

학원 주변 분식집에서 라면과 김밥으로 점심을 먹고 자습실로 와 공부를 하는 정은양. 오후 시간엔 졸음이 밀려온다. 쉬는 시간마다 자판기에서 커피를 뽑아 마신다. 저녁 식사는 햄버거와 콜라다. 평소 두통이 잦은 정은양은 두통약을 먹고 저녁 7시에서 8시까지 책상에 엎드려 잔다.

전문가 조언

피로감을 많이 느끼는 수험생은 콩이나 돼지고기, 장어, 생선, 굴 등을 먹으면 효과를 볼 수 있다. 간식으로 호박죽, 잣죽, 호두죽, 계란 등을 먹으면 집중력을 향상시키는데 좋다. 머리가 아프면 구기자나 오미자차를 마셔도 괜찮다.

심호흡법이나 스트레칭은 마음의 안정을 찾는데 도움이 된다. 손쉽게 할 수 있는 심호흡법으로는 가부좌(일명 책상다리)를 틀고 눈을 감은 뒤 6초간 천천히 숨을 들이 키고 10초간 서서히 숨을 내뱉기를 30회 반복하면 심신의 안정과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 공부도중 목이 뻣뻣할 경우 풍지풍문혈(목뼈를 기준으로 양옆 4~5㎝)을 마사지 하면 한결 부드러워진다. 맨손체조나 스트레칭으로 경직된 몸과 마음을 푸는 것도 좋다.

구기자 · 오미자 머리 맑게
심호흡법으로 안정 유지



새벽 1시 취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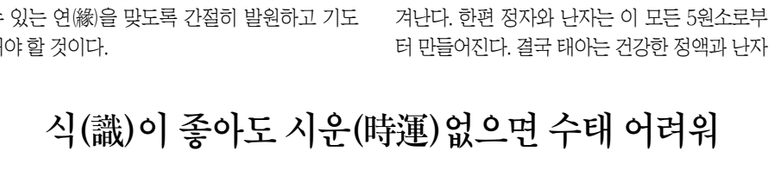
간단하게 세면을 하고 침대에 누운 정은양. 잠을 청해보지만 잠이 오지 않는다. 내일 있을 모의고사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이다. 시험에 대한 중압감으로 정은양은 잠자리에 들기까지 1시간 이상이 걸린다.

전문가 조언

수험생들은 5시간 이상 수면을 취해야 한다. 불면증에 시달리는 수험생이라면 상추와 파김치 또는 호두와 대추를 넣은 죽을 먹으면 효과를 볼 수 있다. 잠자리에 들기 전 따끈한 우유나 대친 양파를 먹는 것도 숙면을 취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허브 오일로 샤워를 하거나 라벤더 향의 초를 피우는 아로마 요법도 숙면에 좋다. 숙면할 수 있는 베개, 발 마사지용 족탕기 등을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 시중에 판매되는 숙면베게는 목의 경추 부위를 받쳐줘 머리와 등 부분을 바른 자세로 유지시켜 준다. 족탕기나 반신욕은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돕고 대뇌를 안정시켜줘 숙면을 돕는다.

수면은 5시간 이상 취해야
따뜻한 우유, 샤워 도움

글=노병철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그림=박구원, 도움말=경희한방병원 김덕곤 교수, 하나가정의학과 박진홍 원장, 서산요가원 김우철 원장



태아 발생과정 주 단위로 기술

중음을 떠도는 혼령이 마땅한 부모를 찾아 사람의 몸으로 환생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연(緣:원인)은 닿았으나 시절(時節:여건)이 여의치 않아 결실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숱하다. 마땅한 부모는 찾았으나 부부 한 쪽이라도 내키지 않거나 병중(病中)에 있어서 잠자리를 갖지 못하면 별 도리가 없을 것이다.

또 마땅한 부모도 있고 그 부부의 관계나 성생활도 원만하다 해도 이미 낳은 자식이 많고 쌓은 업이 다하여 식(識:혼령)이 환생하기를 꺼려하면 수태가 될 리 없다. 부모와 식(識)이 아무리 찰떡궁합이라도 시운(時運)이 닿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이 될 것이다. 그래서 멀쩡한 젊은 부부들이 몇 년씩이나 아이를 못 갖고 마음고생들을 하는 것이다. 그런 부부들은 지성으로 업을 씻고 부지런히 선업과 공덕을 쌓아 수태할 수 있는 연(緣)을 맞도록 간절히 발원하고 기도해야 할 것이다.

지고 말테니까! 흙 물 그리고 불 원소가 있고 바람 원소가 없다면 어찌될까. 마치 빵 만들 때 공기가 고루 섞여 잘 부풀도록 반죽을 천천히 갤 때의 이치와 비슷하다. 마지막으로 다 있는데 空원소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 맞지 않는 너무 작은 신발에 억지로 발을 쑤셔 넣으려는 형국과 흡사할 것이다.

흙의 원소는 우리 몸에서 뼈 근조직 코 그리고 후각(嗅覺)과 같은 고형 물성들을 만들어낸다. 물의 원소로부터는 혈액 액체성분 혀 그리고 미각과 같은 신체의 액성 물성들이 만들어진다. 불의 원소는 체열 안색 눈 그리고 시각의 물성을 만들어낸다.

바람 원소는 호흡 피부 그리고 촉각의 물성을 생성한다. 공간 원소로부터는 신체내강의 여러 개구(開口:입출구) 귀 그리고 청각의 물성이 생겨난다. 한편 정자와 난자는 이 모든 5원소로부터 만들어진다. 결국 태아는 건강한 정액과 난자

식(識)이 좋아도 시운(時運)없으면 수태 어려워
태아, 흙 물 불 바람 공간 5원소에 의해 형성

티베트의학에서는 이렇듯 남성의 정액과 여성의 피(난자)가 섞기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현미경의 '현'자도 아직 알려져 있지 않던 시대에 이 얼마나 놀라운 발견이 아닌가! 불임이 오직 여자 쪽의 탓만으로 일방 매도되던 시대에 티베트의학은 벌써 불임이 남자나 여자 어느 쪽의 책임일 수 있음을 과학적으로 훤히 꿰뚫고 있었던 것이다!

티베트의학에서는 태아 형성에 중요한 두 번째 원인으로 흙(地) 물(水) 불(火) 바람(風) 그리고 공간(空)이라는 5원소를 지적하고 있다. 흙 원소는 태아를 단단히 굳히고 물 원소는 태아를 점착하여 응집시키고 불 원소는 태아를 숙성시키고 바람 원소는 태아의 성장과 발육을 도우며 마지막 공간 원소는 태아가 움직일 수 있도록 해준다. 흙 원소는 있으나 물 원소가 없다면 마치 밀가루가 물이 없으면 반죽이 될 수 없는 이치와 같다.

반대로 물은 있으나 흙 원소가 없다면 물이 한곳에 괴지 못하고 흘러버릴 것이다. 흙과 물 원소는 있는데 불 원소가 없다면 어떻겠는가?

한여름 햇빛 한 점 들지 않는 그늘에 방치된 짐승의 시체 꼴이 될 것이다. 금방 썩어 문드러의식 그리고 5원소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다.

수태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곧이어 태아의 발생이 시작된다. 티베트의학에서는 태아의 발생과정을 주 단위로 세세히 기술하고 있다. 태아의 발생을 그렇게 주 단위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의학체계는 동서 어느 전통의학에도 없다. 중의학이나 인도 아유르베다의학에서 달 또는 보름 단위로 태아의 발생과정을 기술하고 있는 정도가 고작이다.

어떻든 티베트의학에서는 수태되어 태아가 제모습을 갖추어 출산되기까지는 38주가 소요된다고 하였다.

수태에서 분만까지 38주의 임신기간은 크게 세 단계로 나누어진다. 먼저 첫 단계는 물고기기(魚期)로 임신 첫 주에서 9주까지이다. 어기(魚期)의 태아는 물고기모양으로 사지가 아직 보이지 않는다. 이 단계는 태아가 가장 상처받기 쉽고 민감한 시기로 임부는 식생활과 처신에 각별한 신경을 써야 한다.

무거운 것을 든다거나 난삽한 성생활 밤늦은 잠자리 그리고 낮잠과 같이 신체에 부담이 되는 처신은 가급적 삼가야 한다.

■아주대교수 · 한국티베트의학원장

광고

당뇨, 한방으로 잡는다

– 합병증 예방 치료에 효과적 – 초기에 치료하면 대부분 호전



혈당을 효과적으로 잡아주면서 합병증을 예방, 치료해주는 당뇨 한방치료제가 선보여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발병한지 3년이내의 초기 당뇨병은 치료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당뇨로 인한 각종 합병증에도 좋은 결과를 보였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미래한의원(원장 최선미 (02)512-2075)은 당뇨에 따른 각종 합병증을 예방, 치료해주는 당뇨 한방치료제 제당탕과 제당환(除糖丸)을 환자들에게 투여한 결과 만족할 만한 치료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최선미 원장은 "제당환을 3개월 이상 복용한 환자 9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95%에게서 혈당 정상화와 함께 피곤감, 시력저하, 혈압상승, 성욕감퇴, 손발 저림 등의 합병증이 뚜렷하게 개선되는 효과를 보였다"며 "특히 발병한지 3년이내의 환자들에게서는 더 이상 치료를 할 필요가 없을 만큼 호전된 사례가 많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제당환'을 3개월 이상 복용한 환자 가운데 9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의 95%(83명)가 1개월 이내에 혈당이 현저하게 떨어져 정상혈당을 유지하고, 손발저림, 혈액순환장애, 피곤감, 시력저하 등의 합병증이 사라지거나 감소하는 치료효과를 보였다. 특히 이중에서 발병한지 3년미만의 초기 환자 20명은 혈당이 정상화되고 합병증세가 사라지는 등 더이상 치료를 하지 않아도 될 만큼 상태가 좋아졌다.

최원장은 "당뇨 환자 대부분이 해당근, 백강잠, 영지 등의 20여가지 한약재로 만든 한약인 제당환을 복용한지 3일뒤부터 혈당이 잡히기 시작, 늦어도 15일 이내에 혈당이 눈에 띄게 떨어져 정상혈당을 찾아 일상 생활에 거의 불편을 느끼지 않을 만큼 호전됐다"며 "특히 초기, 중기 환자들은 일주일만에 정상 혈당을 되찾는 등 증상의 회복속도가 무척 빨랐다"고 설명했다.

최원장은 "합병증 치료에도 좋은 효과를 보여 10년 이상된 당뇨 환자 역시 한달 이내에 혈당이 정상화되고 합병증 증상이 사라지는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한방에서는 인체에서 반드시 필요한 수분 성분인 진액을 보충해주고 탁해진 피를 맑게 하며 열을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당뇨를 치료한다.

최원장은 "한방 당뇨치료법의 가장 큰 특징은 별다른 부작용 없이 혈당을 안정시켜주면서 증세를 없애주고, 궁극적으로는 당뇨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여 인체 스스로 인슐린 분비를 하도록 도와 준다는 점"이라며 "발견 즉시 또는 3년이내에 적절한 치료를 받는다면 얼마든지 건강한 삶을 누릴수 있다"고 설명했다.

www.storydang.com

급만성 위장질환, 한방으로 다스린다

– 부분 1~3개월만에 증상 개선 효과
– 위장, 대장의 염증 없애주고 뭉친 기운 고르게 펴는 작용

소화불량, 위궤양, 과민성대장증후군 등 급,만성 위장질환을 효과적으로 다스릴 수 있는 한방 치료법이 선보여 관심을 끌고 있다. 대부분 스트레스가 원인인 이 위장질환들은 체질과 증상에 따른 한방 치료법으로 1~3개월 만에 만족할 만한 효과를 볼 수 있다.

서울 진선미 한의원((02)2273-8694) 신기돈 원장은 "스트레스로 인한 과민성대장증상이나 소화불량, 위궤양 등 급,만성 위장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한약재로 만든 한방환을 복용케 한 결과 대부분 1개월 내에 증상이 뚜렷하게 개선되는 치료효과를 보였다"며 "스트레스로 인해 긴장해 있는 위장이나 대장에 작용하여 염증을 없애주고 기(氣)를 고르게 하여 편안하게 만들어 주는 작용으로 위장질환을 치료한다"고 말했다.

이 한약은 창출, 후박, 진피, 곽향, 사인, 산사육, 백작약, 등 20여가지 약재를 체질과 증상에 따라 가감해 사용하는데, 만성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 십이지장염, 복부팽만, 만성변비등 기타 위장, 대장질환에도 좋은 효과를 보인다.

신원장은 "현대인들의 위장질환은 대부분 지속적인 스트레스와 음주, 불규칙한 식사 등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며 "염증을 없애주고 위장이나 대장의 뭉친 기운을 고르게 하는 한약재를 쓰면 위장질환의 증상을 빠르게 개선시켜 준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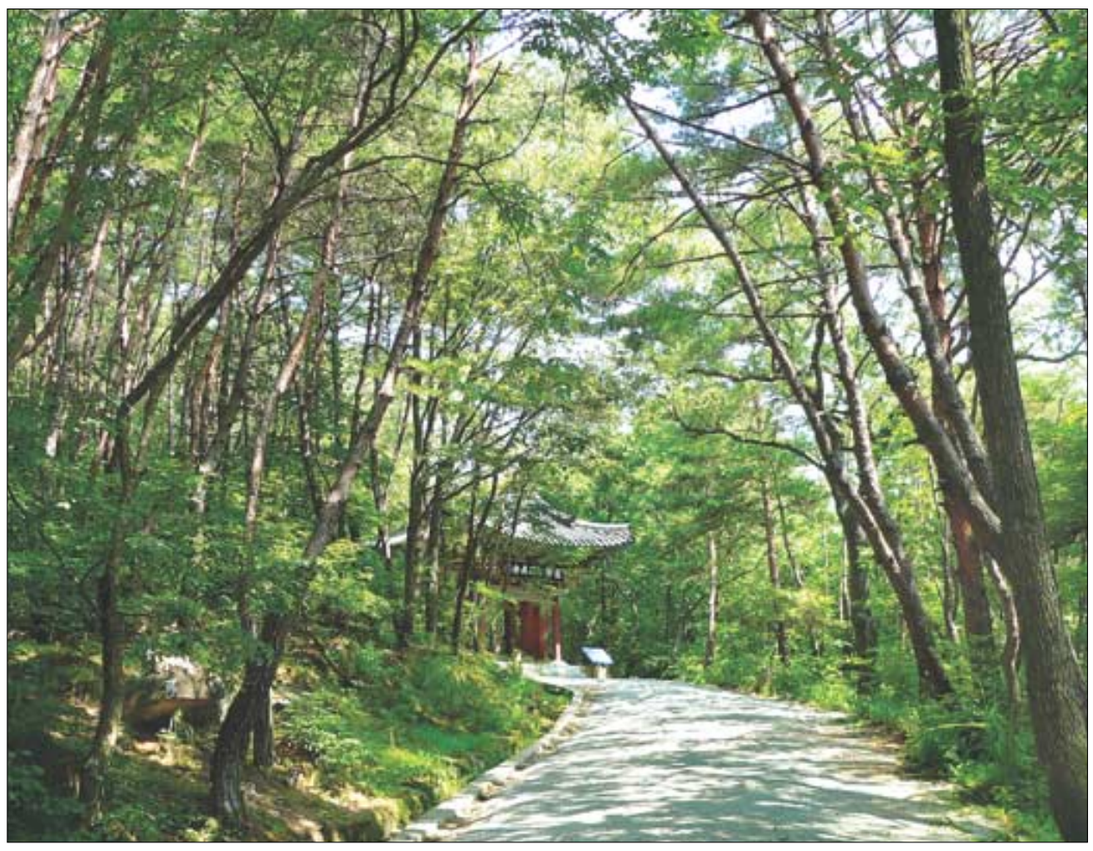
위장관계질환은 한방으로 수월하게 치료되는 분야 중의 하나이다. 실제로 30-40%의 위장질환 환자들은 증상은 있으나 특별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러할 때 흔히 신경성이라고 치부해 버리기도 하지만 한의학에서는 소화에는 비장, 위장뿐만 아니라 간장, 심장, 신장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효과적인 치료를 할 수 있다. 스트레스를 풀지 못하고 속으로 삭힐때는 간의 기가 울결되어 소화기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럴 때는 간의 울결된 기를 풀어주는 방법을 쓰면 좋다. 이런 방법 외에 위장내 적체된 비소화물을 내려주거나 위장 기능을 강화시키고, 신음을 보충해 주는 방법을 응용해 볼 수 있다. 체질에 따라 자신에 맞는 섭생과 식이요법을 하면서, 침과 탕약 치료를 병행하면 사람과 증상에 따라 틀리지만 대략 1~ 3개월이면 치료가 가능하다.

본래 사람은 각자의 체질에 맞는 음식들이 따로 정해져 있다. 몸이 충분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을 때 인체는 자신과 맞지 않는 음식이 들어오면, 설사나 구토를 통해 이를 빨리 몸 밖으로 내보 낼 수 있다. 그러나 음식을 제대로 가려주지 못하고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다보면 몸은 지치게 되고, 내 몸에 맞지 않는 음식물이 그대로 적체되어 여러 질병을 야기하게 된다. 그러므로 위장관계 질환이 치료를 위해서는 체질에 따른 식이조절이 필요하다.

위장대장 질환을 올바로 치료하기 위해서는 술은 절대 금물이며 담배 커피 등은 끊는 것이 좋다. 또한 여유롭고 편안한 마음을 갖고 자극적인 음식이나 불규칙적인 생활습관을 바로 잡아야 된다.

울울창창 생명의 '화엄'

사찰생태연구소·현대불교신문이 함께하는
108사찰 생태기행
(46) 노악산 남장사


저수지에서 일주문을 지나면 호젓하고 그윽한 숲길이 나온다

선불교 초기에 지어진 선종사찰

우리의 절이 산중에 자리잡기 시작한 것은 신라의 삼국통일 직후 의상대사 시대이지만, 산중 절이 하나의 문화양상으로서 전통이 된 것은 중국으로부터 선종(禪宗)이 들어오기 시작하던 9세기 이후 구산선문 시대의 일이다. 당시 선불교의 전수승들은 도읍에서 멀리 떨어진 심산유곡에다 절을 짓고 선지를 펼쳤다.

상주 노악산(露嶽山) 남장사(南長寺)도 선불교 초기에 지어진 전형적인 산중선찰이다. 신라 말 최치원(崔致遠)이 지은 쌍계사 진감국사비(眞鑑國師碑)에, "당나라에서 돌아온 국사가 노악산 장백사(長柏寺=남장사)에서 선을 가르치니 배우려는 이가 구름처럼 모였다"는 기록이 있다.

남장사 삼거리에 서면 멀리 노악산 주봉과 능선들이 보인다. 해발 725m인 노악산은 <산경표(山徑表)>에 '노음산(露陰山)'으로 나와 있다.

남장사는 사하촌과 멀리 떨어져 있어서 좋다. 너무 호젓하고 허허롭다 싶을 즈음 산자락에 돌장승 하나가 나타난다. 세모난 얼굴에 툭 불거진 눈과 큰 코가 한눈에도 남성을 느끼게 한다.

돌장승을 지나면 오른쪽으로 아담한 저수지가 녹음 속에 묻혀 있다. 남장마을 농업용수로 쓰기 위해 가둔 물이다. 물총새 한 마리가 여기저기 건너 앉으며 물 위를 유영하는 물고기를 노리고 있다.

저수지에서 일주문을 지나 큰 절까지는 호젓하고 그윽한 숲길이다. 소나무와 참나무를 비롯한 느티나무, 때죽나무, 오리나무, 아카시, 느릅나무, 산뽕나무, 개옻나무 등등의 활엽수가 푸른 그늘을 만들어 주고 있다.

남장사의 일주문은 꽤나 연륜이 깊다. 팔작지붕을 떠받치고 있는 기둥이 속설에 1000년 된 칡뿌리라고도 하고 싸리나무라고도 한다. 하지만 느티나무가 아니고는 그렇게 굵은 나무를 이 땅에서 찾아내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상채기가 난 구멍 속에다 벌들이 집을 지었다.

범종루 주변은 수령 400년 된 느티나무를 중심으로 전나무, 은행나무, 소나무, 상수리나무, 느티나무 등등 장년의 나무들이 서로 도반이 되어 어울려 있다.

남장사 경내는 아미타불을 모신 극락보전 영역과 비로자나불을 모신 보광전 영역으로 크게 나눠진다. 경사지에 앉은 두 영역은 다듬지 않은 자연석으로 쌓은 석축과 계단과 돌담으로 자연스럽게 구획돼 있다. 돌로 쌓았음에도 색깔이 밝아서 전혀 무겁게 느껴지지 않는다. 게다가 시멘트를 거의 쓰지 않아서 친환경적이다.

극락보전 내부포벽에 '이백기경상천도(李白騎鯨上天圖)'가 눈길을 끈다. 이백이 채석강에서 뱃놀이를 하던 중에 강물에 비친 달을 건지려다가 죽어서 고래를 타고 천상으로 갔다는 전설을 그린 그림이다. 고래를 그린다는 것이 그만 아가미와 지느러미가 있는 잉어를 그리고 말았다.

높은 석단에 걸쳐진 돌계단을 오르면 보광전 영역이다. 보광전은 사방이 판벽이다. 판벽은 마치 현악기의 공명(共鳴)통과 같은 역할을 한다. 그래서 안에서 스님들이 염불을 하거나 목탁을 치면 소리의 어울림이 좋다.

보광전 옆의 교남강당은 숭유배불시대의 잔재이다. 그 옛날 상주지방의 유림들이 자주 남장사에 들어와 거들먹거리며 음풍농월(詩會)를 가졌다는 기록이 있다. '영남(嶺南)'을 가리키는 '교남(嶠南)'이라는 말이 풍기는 분위기도 그렇다.

수각 옆에 수국이 무성하다. 수국은 한자로 비단 '수(繡)'자를 쓴다. 꽃은 암수가 없는 무성화로서 시기에 따라서 연자주색-푸른색-연분홍색으로 여러 차례 변한다. 수국은 종자가 없기 때문에 잎이 진 후 봄에 가지를 꺾꽂이해서 번식시킨다.

수각 지붕 위에 돌나물과에 속하는 바위솔들이 여기저기 뿌리를 박고 있다. 바위솔 잎은 잎자루가 없어서 줄기에 다닥다닥 붙어서 난다. 오래된 기와에서 자란다 하여 일명 '와송(瓦松)'이라고도 하는데, 산중 절집에 가면 석탑이나 오랜 기와지붕에서 흔히 눈에 띈다.

영산전 계류 관목 숲에 큰유리새 한 쌍이 이 가지 저 가지를 날아다니고 있다. 동남아에서 겨울을 나는 큰유리새는 전국에 분포하지만,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여름철새이다. 수컷은 코발트 청색을 띠고, 암컷은 올리브 갈색을 띠고 있다. 큰유리새 부부는 새끼들을 모두 이소시켜 놓고 요즘 남장사 계곡 숲에서 둘만의 오붓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큰절에서 관음선원 가는 길은 호젓한 오솔길이다. 일손이 모자라 내버려둔 묵밭과 산자락 풀섶과 관목숲에는 다양한 초본들이 대화

극락전 · 보광전 석축 등 자연석으로 구획
관음선원 가는길 초본류 다양, 대화엄 이뤄
주변 숲 울창 딱정벌레 · 두꺼비 자주 관찰

엄의 정토를 이루고 있다. 그 가운데 난초 종류도 심심찮게 눈에 띈다. 타래난, 해오라비난, 잠자리난, 방울새난 등은 물기가 촉촉한 습지에 자라고 은대난, 옥잠난, 흰제비난, 병아리난 등은 잡목 숲에서 관찰된다.

누리장나무가 때 일찍 꽃을 피우기 시작했다. 누리장나무의 꽃은 암꽃과 수꽃이 따로 있고, 색깔도 각기 다르다. 화사한 꽃에 어울리지 않게 누릿하고 역겨운 냄새를 풍긴다고 해서 누리장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그래도 곤충들은 그 냄새를 아주 좋아한다. 늦가을이면 열매는 짙푸른색으로 익는다.

노악산 주변은 참나무가 많아서 딱정벌레류들이 자주 관찰된다. 우리목하늘소는 '떡갈나무하늘소'라는 별명에서 보듯이 참나무숲을 좋아한다. 흑갈색 얼룩무늬로 자신을 보호하고 있다. 딱지날개의 어깨 쪽에 큰 알갱이가 촘촘히 나있다. 참나무 속에서 3~4년을 숨어 살다가 날개를 달고 나온다.

관음선원 숲 그늘에서 관찰된 두꺼비는 특정야생동물로 보호되고 있다. 주변 환경에 따라 몸의 색깔을 잘 바꾸는 변장의 명수이다. 두꺼비는 온순하고 행동도 느리지만, 위기에 처하면 등짝에 돋은 돌기에서 하얀 색깔의 독을 낸다. 이것 때문에 뱀도 함부로 두꺼비를 삼키지 못한다.

파초가 아름다운 관음선원은 관음보살을 본존으로 하는 비구니 암자이다. 후불벽에 목각탱이 모셔져 있다. 자연(나무)과 예술(회화)이 만들어낸 목각탱은 조선 후기에 집중적으로 조성되었는데, 관음선원 목각탱도 숙종 때인 1694년에 제작된 것이다.

관음선원에서 중궁암(中穹庵)까지는 등산로로 50분 거리다. 활꼴(弓形)으로 휘어진 노악산의 8부 능선에 자리하고 있다. 가는 동안 경사가 있어서 꽤나 숨이 가쁘다.

숲길 주변은 소나무와 활엽수들이 서로 경쟁하며 울창한 숲을 만들어 내고 있다. 인적 끊어진 밤이면 이 길은 멧돼지와 오소리 같은 포유류가 오르내리는 야생의 길목이 된다.

글 · 사진=김재일(사찰생태연구소장)
http://cafe.daum.net/templeeco


관음선원 앞뜰에 핀 파초


우리목하늘소


관음선원 숲에서 많이 관찰되는 두꺼비


누리장나무꽃


큰유리새

MAHAMALL www.mahamall.co.kr

마하몰 추천 우수상품 특별기획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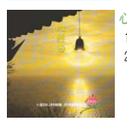
신문지면광고를 통한 전화주문 고객에 한하여 아래 특판가격으로 드립니다.

▌심경(心經)
"반야심경", "심묘장구대다라니", "금강경찬" 불경을 힙합리듬에 기타소리를 접목시킨 앨범.
30년 동안 음반제작자겸 작곡가로 활동하면서 불교음악을 보급해온 안치행씨가 제작하였고 시인 김하리씨가 불경의 내용을 아름다운 목소리로 시 낭송을 하였습니다.
1set : 1. 배우기 쉬운 힙합 불경 2. 의미 있는 노래
2set : 3. 김하리 시인의 불경명상 4. 옴나니 반메홈, 관세음보살
3set : 5. 불자가요메들리 1 6. 불자가요메들리 2


心經 (1) – 배우기 쉬운 힙합 불경
1. 반야심경
2. 신묘장구대다라니
3. 금강경찬
4. 옴마니반메홈


心經 (2) – 의미 있는 노래
1. 연등축제 2. 마음을 다스리는 글 3. 우심
4. 보왕삼매론 5. 무상계 6. 마음의 등불
7. 회심곡 8. 아제아제 바라아제 9. 생사윤회
10. 어이아나


心經 (3) – 김하리 시인의 불경명상 시낭송
1. 천수경 2. 금강경 3. 반야심경
4. 법구경 5. 무상계 6. 보왕삼매론
7. 마음을 다스리는 글
8. 어머니 아리랑(노래)
9. 독도의 눈물(노래)
10. 옴마니반메홈


心經 (3) – 김하리 시인의 불경명상 시낭송
1. 옴마니반메홈 – 작곡 : 안치행
2. 관세음보살 – 작곡:안치행


心經 (5) – 불자 가요메들리 1
1.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하
2. 옴마니반메홈
3. 부처님 뜻
4. 인연 5. 오계
6. 니르바나
7. 옴마니반메홈


心經 (6) – 불자 가요메들리 2
1. 법문사경 2. 나무관세음보살 3. 관세음보살
4. 향불 5. 법화경 6. 옴마니반메홈
7. 팔자 8. 촛불공양 9. 관세음보살
10. 회자정리 11. 라훌라 12. 옴마니반메홈
13. 한번만 웃어봐요 14. 관세음보살

· 2CD(1set) : 20,000원 · 2MC(1set) : 10,000원 · 풀세트(6CD,6MC) : 75,000원

▌반야심경 고급손목시계
불자님을 위해 스위스 론다 최고급무브먼트를 사용하여 만든 반야심경손목시계
큐빅 13피스와 6시와 12시를 제외한 시간마다 '마하반야바라밀다' 글자를 새겨 견고함과 품격을 더한 고급손목시계


라운드브라운 (TCW100-1)


라운드블랙 (TCW100-2)


아크브라운 (TCW101-1)


아크블랙 (TCW101-2)


손목시계케이스

~~77,000원~~
55,000원

▌동자캐릭터 손목시계
남녀노소 누구나 잘 어울리는 디자인으로 고급 무브먼트를 사용한 패션 손목시계
다양한 색채와 디자인의 시계줄과 동자승 캐릭터가 새겨져 있습니다


[TCW200-1] [TCW200-2]
[TCW200-3] [TCW200-4]


[TCW201-1]
[TCW201-2]

▶ 재 질 : 케스팅케이스
▶ 무브먼트 : Japan Move
▶ Print Dial
▶ 3기압 방수

19,800원

▌음이온 석재다보탑 ~~398,000원~~ → 300,000원
'음이온'이 발산하며 '야광빛'으로 신비로운 불국사 다보탑 석재 모형(1:30)



1) 재질 : 자연 대리석 (90%). 야명석 (8%). 음이온분말 (2%).
2) 특징 : 본 제품은 우리나라 국보 제20호인 "다보탑"을 석재로 조각및 기계가공하여 만든 국내유일의 "소형석재모형다보탑" 이며 다보탑 실제크기의 1/45로축소 제작되었고 일반적인 모형 다보탑(크리스탈및 종이재질)과는 달리 섬세한 조각기술과 기계가공으로 예술품으로서의 소장가치는 물론 실내 인테리어용 소품으로서도 손색이 없는 제품입니다. 또한 '탑'을 중심으로 자연발산하는 "기"와 "음이온"은 건강에도 도움을 주고 야광기능이 있어 야간에는 녹색야광빛을 발산하여 실내분위기를 은은하게 연출합니다.
3) 제품사양 : · 제품 규격 – 22 × 22 × 31cm · 제품 무게 – 3 kg
4) 포장사양 : · 포장 재질 – 오동나무
· 포장 규격 – 사각박스 (40 × 27cm)

불교문화상품 전문쇼핑몰 마하몰 주문전화 02-2004-8218~9
Mahamall.co.kr 02-732-1520

인터넷 마하몰(www.mahamall.co.kr)에 오시면 3,000여종의 불교문화상품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006-01-0785-361 / 우체국 010041-01-012219 현대불교신문사 / 농협 053-12-113210 하동규